

한국평협

2004

제41호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표지그림: 「주의 품에」

작 가: 일랑 이종상(요셉·전 서울대학교 미대교수,
서울평협 문화분과위원장)

54cm×54cm 동유화

<그림설명>

태초에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어
빛이 생겨나고, 밝음과 어둠이 구분되니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손결(존재)이
형상과 색채로 보여지나이다.

그러나 다시, 당신께서 손결(성령)을 불어넣으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주를 가득 채워 주셨음을 저는 믿나이다.

한 없이 포근하시며, 한 없이 자애로우시어
삼위일체로 만상의 왕이신 하느님 아버지!

‘나를 보지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시어
이 말씀을 이제사 조금은 알듯도 하나이다.

하여 ‘주의 품에’ 있게 하심이

저의 기도이며

이로써 감사함이 저의 근원형상이나이다.

한국평협

2004

제41호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신도사도직과 반부패 · 가정성화 · 생명수호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안드레아 주교

먼저 2004년도 ‘한국평협’ 지 발행을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이 책자가 평신도사도직 활성화와 선교사명 수행에 훌륭한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탄생한 교회라는 점에서 우리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들은 “그 독특한 역사답게 성직자가 없을 때에도 성실하게 신앙을 지켜왔으며,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키고 이웃에 전한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서, 열심한 마음과 헌신의 자세로 교회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서울대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1).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교회의 한 축을 이루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잘 해나간다는 점에서 감사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서부터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는 신도들이 아주 많다는 점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본당 신부님을 도와서, 또는 교회운동 단체생활을 통해서 각종 사도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에도 적극성을 보이는 신자가 많다는 사실 또한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사람인 동시에 세상의 사람이므로 신앙생활과 실제 삶이 일치를 이루도록 좀더 노력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밖에 나가서는 신자 아닌 사람과 꼭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예컨대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혼이라든가, 낙태문제에서 가톨릭신자가 일반 국민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 기실, 충격적입니다. 신자라면 혼인성사의 은총 안에서 가정을 성화하는 데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이웃 가정들에 대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낙태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1년 가을부터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똑바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 성과 또한 괄목할만한 것으로 자타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운동이 좀더 실질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위에서 말한 가정문제에 대해서도 ‘가정생활 똑바로’ 하자고 캠페인을 벌여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범국민운동에 앞서 신자들부터 먼저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삶이 사회로 흘러넘치도록, ‘범람’ 하도록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물질만능과 첨단과학이 세상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지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평신도들의 역할과 사명이 크게 기대됩니다.

특별히 오늘 국내 상황만 살펴보더라도 정치자금과 부패의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고, 어느 정치인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국회 안에서만 하더라도 60여명의 신자 의원들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구조’(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 36)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가 얼마만큼 ‘공동선’을 지향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일찍이 사도적 권고 ‘화해와 참회’에서 “어떤 상황이나 전체적인 행동양식을 사회적 죄라는 말로 교회가 단죄할 때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때 교회는 “그런 사회적 죄의 경우들이 모두 많은 개인적인 죄가 쌓이고 응집된 결과임을 알고 이를 공표하는 것”(16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어떤 종류의 사회악을 피하거나 근절시키며 적어도 줄여나갈 수 있는 자리에 앉은 이들의 나태, 비겁, 침묵에 의한 방조, 비밀 공모, 무관심 등으로 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때, 그것은 그 개인의 잘못”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신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1백여 년에 걸친 피의 박해기간 중 1만 명에 이르는 순교자와 103명의 성인? 성녀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124명의 ‘하느님의 종’들을 선정해 시복? 시성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따른다면 쉽게 부패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사회생활을 순교정신으로 해나간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진리와 정의, 그리고 사랑을 증언했

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쉽게 목숨을 끊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자살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 당사자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만, 죽을 용기가 있었다면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살기로 걱정했더라면, 순교자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확신했더라면, 그는 결코 생명을 헛되게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는 참으로 소중하며 값진 것입니다. 그런 이웃을 돌보는 일도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할 사도직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는 일에 평신도들이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기를 원하고 있으며,
어떤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지도신부 정월기 프란치스코

그동안 여러분의 사도직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단체와 본당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모든 기도와 봉사와 활동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고 있는 똑바로 운동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빛이 되길 바랍니다.

나귀와 귀뚜라미 이야기입니다. “목청이 나쁜 나귀는 귀뚜라미의 아름다운 목청을 닮는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귀는 귀뚜라미를 찾아가 대체 무엇을 먹길래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귀뚜라미는 풀잎의 이슬을 먹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과연 그것이었구나! 어리석은 나귀는 그후 자기도 귀뚜라미처럼 풀잎의 이슬만 받아 먹으며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하루하루 여위어가다 마침내는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기를 원하고 있으며, 어떤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요 6:55)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요한4,34)

우리는 주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느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양식을 먹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이사야는 하느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불리라고 초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 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 가며 양식도 못되는 것을 얻으려

2003

사진으로 보는 평협활동





▲▼ 2003년도 제36회 전국평협 정기총회
(2003. 2. 22 / 서울명동 가톨릭회관)



2003년도 제 1차 전국평협 상임위원회의 (4.26-27 안동교구 농은수련원 / 12개 교구평협 · 3개 상임위 단체 참석) ▶



◀ ▼ 2003년도 제3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 (8.30-31 인천교구 가톨릭대학교 영성관 / 14개 교구평협 · 3개 상임위 단체 참석)





▲ ▶ 2003년 제2차 전국평
협 상임위원회의에서 대구
대교구장 이문희 대주교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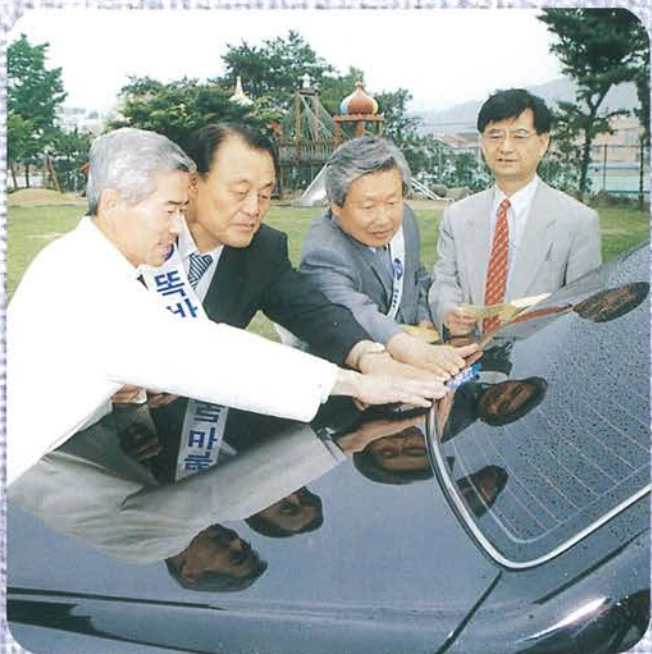




◀ 한국평협 홈페이지 설명회에서 정월기 지도신부, 류덕희 상임고문, 여규태 회장이 오름을 하고 있다.

▼ 홈페이지 내용설명
(<http://clak.or.kr>)





▲ 교구를 순회하며 독바로 운동
홍보하는 한해가 되었다. 스티커
차량부착과 배포
위로부터
청주교구 내덕동 본당
인천교구 풍무동 본당
서울대교구 역삼동 본당



똑바로 홍보

◀ 서울대교구 대방동 본당

▼ 서울대교구 용산 본당





▲ ▶ 서울대교구 우리
농촌살리기운동본
부와 함께한 2003 가
을걷이 도농한마당 잔
치 중 추수감사 미사
와 떡메치기





▲ 2003년도 제 20회 가톨릭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함께
▼ 사랑부분의 차갑병 스테파노 형제님의 시상식 장면





▲ 2003년도 제33회 서울평협 정기총회 (2003. 1. 18 서울 명동가톨릭회관)

▶ 제21회 서울대교구장기 테니스대회 우승팀과 함께. (2003.10.3 목동 테니스 코트)



▶ 서울대교구 선교신
앙대회에서 선교체험
사례 발표자들과 함
께.(2003.10.19 동성
고등학교 대강당)



◀ 제4차 민족화해 토론회 (2003.
6. 14 명동 가톨릭회관)

▶ 정진석 니콜라오 대
주교 영명축일 축하연





▲ 대구대교구 2003년 신년교례회



▲ 제21차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총회

▼ 대전평협 2003 본당회장단 및 단체 회장단 연수회



▲ 대전평협 제33차 정기총회 및 연수회, 4-26~27 술외피정의 집



◀ 2003 부산평협 순교자대축일 미사, 가톨릭신학대학

▼ 부산평협 제단체 제1회 정기등반



춘천평협 「소공동체와 레지오의 자리매김과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
2003.9.27, 죽림동 주교좌성당 ▶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 총회(임원개
선) 2003.11.22 ▶



◀ 수원교구 설정
40주년 기념으로
「수원평협사」 출
판 회 를 지 난
2003년 11월 1일
에 가졌다.



수원교구 주최, 수원평협 주관의
「한국천주교회 창설 주역과 천주
신앙」 세미나 / 성 라자로 마을 아
론의 집에서 2002년 2월 ▶

제 36 회

평신도주일

2003년 11월 16일



가정 · 생명 · 평화

우리
함께
뚝바로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제37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04년 1월 1일)

언제나 평화를 가르치십시오.

평화를 증진할 의무가 있는 모든 국가 지도자들,
국제법을 강화하는 협정과 조약을 제정하며 평화로운 합의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는 데
에 헌신하는 법률가들,
모든 대륙에서 이해와 대화로써 젊은이들의 양심을 형성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교사들,
테러라는 용인할 수 없는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투쟁의 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상시
킬 수 있는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하는 진심 어린 호소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 드
립니다.
2004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도 평화는 가능합니다. 평화가 가능하다면, 평화는 또한
하나의 의무입니다.

실질적인 활동

1. 1979년 1월 1일의 저의 첫 세계 평화의 날 담화의 주제는 “평화에 이르려면 평화를
가르치십시오.”였습니다.

그 담화는 해마다 1월 1일에 세계 평화의 날을 거행하기를 바라셨던 존경하는 교황 바
오로 6세께서 닦으신 길을 따른 것입니다. 저는 교황 바오로 6세께서 1968년 새해에 하셨
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 삶의 여정의 지표이자 척도가 되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희망과 약속의 징표로서 세계 평화의 날을 해마다 거행함으로써, 올
바르고 건전한 균형을 지닌 평화가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지배하기를 바랍니다.”<1>

존경하는 선임자 교황 바오로 6세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저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날
을 세계 평화를 위한 성찰과 기도에 바침으로써 이 숭고한 전통을 계속 이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교황직 25년 동안 저는 신자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대의를 위하여 이 근본 선을 이루는 일에 이바지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면서 교회와 세상에 호소하였습니다.

올해도 저는 다시 한 번 모든 대륙의 모든 사람이 새로운 세계 평화의 날을 거행하도록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이기심과 증오, 권력욕과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인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화합의 길을 되찾아야 합니다.

평화의 학문

2. 교황 바오로 6세께서 발표하신 열 한 번의 세계 평화의 날 담화들은 점차 평화의 이상에 이르는 길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참된 ‘평화의 학문’의 다양한 장들을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담화의 주제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2> 이 담화들은 하나같이 오늘날에도 시의 적절한 것입니다. 사실 제삼천년기를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전세계, 특히 중동 지역에 유혈 참사를 빚고 있는 전쟁의 비극이 있기 전에 이미 그 담화들은 때때로 예언자적 권고의 어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입문서

3. 저는 지난 25년 간 교황직을 수행하면서 존경하는 선임자께서 닦으신 길을 따라 나아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선의의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공존의 여러 측면들을 신앙과 이성에 비추어 생각해 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화에 대한 종합적인 가르침, 곧 이 근본적인 주제에 대한 일종의 입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입문서는 옳은 뜻을 지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류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노력을 요구합니다.<3>

평화의 프리즘이 비추는 여러 빛깔은 이제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평화 공존의 이상과 그 구체적인 요구들이 개인과 민족들의 의식 안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종교의 가장 핵심에 있는 평화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투신하여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선포하는 일은 “우리의 평화”(에페 2,14)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평화

의 복음”(에페 6,15)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모든 사람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마태 5,9 참조)이 되게 하는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평화를 가르치는 일

4. 저는 1979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평화에 이르려면 평화를 가르치십시오.” 오늘날 이 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합니다. 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히는 온갖 비극 앞에서 사람들은 마치 평화는 이를 수 없는 이상인 것처럼 체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평화는 가능하다는 매우 단순하고 자명한 이치를 언제나 가르쳐 왔으며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평화는 하나의 의무임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자 교황 요한 23세께서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에서 말씀하셨듯이, 평화는 진리, 정의, 사랑, 자유라는 네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 세대에게 이러한 이상들을 가르칠 의무를 지닙니다.

법 존중을 가르치는 일

5. 평화를 가르치는 이러한 임무에서 특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개인과 민족들이 국제 질서를 존중하며 그들을 합법적으로 대표하는 권위의 책임을 존중하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평화와 국제법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은 평화를 뒷받침합니다.

문명이 처음 시작된 이래 발전을 거듭해 온 인간 공동체들은 독단적인 권력의 행사를 막고 모든 논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협정과 조약들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별 민족의 법 체계와 더불어 만민법(ius gentium)으로 알려지게 된 또 다른 일련의 규범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법 체계는 점차 확대되었고, 여러 민족들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다듬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근대 국가의 탄생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16세기 이후, 법률가와

철학자, 신학자들은 다양한 국제법들을 발전시키고 그 법들이 자연법의 근본 원리에 기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점점 더 힘을 얻어, 각국의 국내법에 우선하고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으며 인류 가족의 일치와 공동 소명을 고려하는 보편 원리들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의사로 합의된 “협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계약 당사자들이 맺는 모든 관계에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핵심 전제입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어김없이 법이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러 불화와 분쟁이 발생하며, 그 부정적인 여파가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법의 힘보다는 힘의 법에 호소하려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에는, 이러한 근본 원리를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인류가 겪은 비극, 이전에 알려진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던 폭력과 파괴와 죽음의 구렁텅이는 분명히 이러한 순간의 하나입니다.

법을 존중

6. 공포와 끔찍한 인권 유린을 동반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의 질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폭넓게 현대화된 규범과 법제도의 핵심에는 평화 수호와 증진이 자리잡았습니다. 각국 정부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감시하고 인류의 이 근본 선의를 보존하고 보장하도록 모든 나라의 노력을 촉구할 임무를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구, 곧 국제연합 기구와 광범위한 자유 재량권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에 맡겼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무력 사용 금지였습니다. 잘 알려진 국제연합 헌장 제7장에 따르면, 이 금지는 두 개의 예외 조항만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국제연합의 테두리 안에서, 따라서 필요와 균형이라는 전통적인 한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자연법의 권리인 정당방위권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집단 안보 체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결정권과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헌장을 통해 발전한 이 제도는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한”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수십 년 동

안, 국제 공동체는 적대 세력으로 양분되었고, 세계 일각에서는 냉전이, 다른 지역들에서는 무력 분쟁이 발발하였으며, 냉전 직후 이념과 기대가 점점 무너지면서 테러리즘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

7. 그러나 국제연합 기구는 상당 부분 회원국들의 과실로 한계를 드러내거나 능력을 부리기도 하지만, 인간 존엄성 존중과 민족들의 자유, 개발에 대한 요구를 증진시킴으로써 평화 건설을 위한 문화적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데에 현저하게 공헌해 왔습니다.

각국 정부의 활동은 특히 비정부기구와 인권 운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룩한 실질적인 평화와 연대 활동을 통하여 국제연합의 이상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연합 기구가 스스로 천명한 목표의 추구를 위하여 효과적 운영이 되도록 개혁에 착수하는 중요한 동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 목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새롭고도 더욱 어려운 진정한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세계의 사회들과 경제들, 문화들에 기여할 수 있게 국제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5> 국가들은 이러한 목표를 지혜와 결단을 요구하는 분명한 도덕적 정치적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1995년에 한 격려의 말을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국제연합 기구는 행정 기구라는 냉정한 지위에서 점점 더 벗어나 전세계 모든 국가가 편안함을 느끼고, 함께 있다는 공동 의식, 다시 말해 국가들의 가족이라는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덕적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6>

테러의 재앙

8. 오늘날 국제법은 현대 세계의 변화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흔히 국가가 아니라 국가의 붕괴 이후 파생되거나 독립 운동과 연관된 단체 또는 훈련된 범죄 조직과 연관된 집단들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주권국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수단으로 수세기에 걸쳐 확립된 규범들로 이루어진 법 체계는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로 볼 수 없는 단체들과 연루된 분쟁들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특히 테러 집단들과 관련된 경우에 그러합니다.

테러의 재앙은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극심해졌고, 잔인한 대량 학살을 불러옴으로써 대화와 협상의 길을 더욱 어렵게 하여 특히 중동 지역에서 긴장을 증대시키고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러 행위를 물리치려면 반(反) 테러 투쟁을 단순히 억압과 징벌을 위한 군사 행동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력 사용이 필요한 경우라도 테러 공격의 이면에 숨은 이유를 용기 있고 명석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 테러 투쟁은 또한 정치적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자주 더욱 절망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내모는 불의의 상황에 대한 원인들을 제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상황의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교육, 곧 인류의 일치는 개인과 민족을 가르치는 그 어떤 임의적 구분보다도 강력한 실재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반 테러 투쟁에서, 현재 국제법은 범죄 예방과 감시,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법적 도구를 발전시키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무력 사용이 법규범 원칙의 포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인간의 근본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고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여

9.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 5,9). 평화라는 광대한 터전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평화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염원과 바람에 부응하지 않았다면 어찌 인간 마음 속에서 것처럼 강력한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습니까? 하느님께서 본성 상 평화의 하느님이 아니시라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어찌 하느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세계에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에선 국가들 사이의 평화 공존에 필요한 원칙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리적으로 중요한 근본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면 질서가 너를 지켜 줄 것이다.”(Serva ordinem et ordo servabit te)는 옛 격언대로, 평화 건설은 윤리적 법률적 질서에 대한 존중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 줍니다. 국제법은 더욱 강력한 자의 법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보장

하여야 합니다. 국제법의 근본 목적은 “물리적인 무력의 힘을 도덕적인 법률의 힘으로” <7> 대체하여 가해자들에게는 적절한 처벌을, 희생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인간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국의 내정 문제라는 식의 받아들이 수 없는 핑계를 내세우는 정부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1997년 1월 13일에 교황청 주재 외교단에게 한 연설에서 국제법은 평화를 추구하는 주된 도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국제법은 전쟁과 평화의 법이었습니다. 저는 국제법이 정의와 연대 안에서 구상된 전적으로 평화의 법이 되기를 점점 더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은 도덕의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도덕은 정의와 선의 길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법을 만드는 데에 준비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의 철학적 신학적 고찰에 따라 이루어진 교회의 가르침은 국제법이 전 인류 가족의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특히 현대의 교황님들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들인다.”(야고 3,18)는 확신에서, 평화의 보증으로서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교회 고유의 수단을 사용하여 복음의 영원한 빛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도의 도움에 기대어 이 길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사랑의 문화

10. 이러한 생각을 마치면서 저는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룩하려면 정의가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평화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법이며, 사람들에게 그 법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정의를 완성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의 끝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정의와 사랑은 때때로 반대 세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둘은 동일한 실재의 양면일 뿐이며, 서로 통합되어야 하는 인간 삶의 두 차원입니다. 역사적 경험들이 이를 증명하며, 또한 그것은 정의가 흔히 원한, 증오, 심지어는 잔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정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의는 사랑이라는 더욱 깊은 힘에 열려 있지 않으면 스스로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자주 그리스도인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개인과 민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왔습니다. 용서 없이는 평화도 없습니다! 저는 특히 팔레스타인과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위기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정의의 논리를 초월하여 용서의 논리에까지 열려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을 주어 왔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하느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이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의 대답으로 기다리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인간들 사이에 맺을 수 있는 가장 지고하고 고귀한 형태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활력을 주고, 국제 질서에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문화’가 다스릴 때에만 인류는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는 모든 언어와 종교, 문화의 사람들에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Omnia vincit amor)는 옛 격언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세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결국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승리를 앞당기는 데에 투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바람입니다.

바티칸에서,
2003년 12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주>

1. 바오로 6세의 가르침, V(1967년), 620면.
2. 1968년: 평화의 날 설정에 관한 교황 담화
1969년: 인권 증진은 평화의 길
1970년: 화해를 통하여 평화를 가르치십시오.
1971년: 모든 이가 내 형제입니다.
1972년: 그대들이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정의를 위해 일하십시오.

- 1973년: 평화는 가능합니다.
- 1974년: 평화는 당신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 1975년: 화해는 평화를 향한 길
- 1976년: 평화의 참된 무기
- 1977년: 평화를 원한다면 생명을 옹호하십시오.
- 1978년: 평화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거부하십시오.
3. 그 이후 25년 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1979년: 평화에 이르려면 평화를 가르치십시오.
- 1980년: 진리는 평화의 힘
- 1981년: 평화를 이룩하려면 자유를 존중하십시오.
- 1982년: 평화: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선물입니다.
- 1983년: 평화를 위한 대화, 이 시대의 도전
- 1984년: 새로운 마음에서 평화는 탄생합니다.
- 1985년: 평화와 젊은이는 함께 나아갑니다.
- 1986년: 평화는 국경이 없는 가치입니다.
- 1987년: 발전과 연대는 평화의 요체
- 1988년: 종교의 자유는 평화의 조건
- 1989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소수 집단을 존중하십시오.
- 1990년: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
- 1991년: 평화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십시오.
- 1992년: 평화를 이루며 일치하는 종교인들
- 1993년: 평화를 바라거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 1994년: 가정은 인류 가족의 평화를 창조합니다.
- 1995년: 여성,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들
- 1996년: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미래를!
- 1997년: 용서를 베풀고 평화를 얻으십시오.
- 1998년: 모든 사람의 평화는 개인의 정의에서 비롯됩니다.
- 1999년: 인권 존중은 참 평화의 비결입니다.
- 2000년: “땅에서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2001년: 사랑과 평화의 문명을 위한 문화간 대화
- 2002년: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고 용서가 없으면 정의도 없습니다.
- 2003년: 지상의 평화: 영원한 과업

4. 전문.

5.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 (Sollicitudo Rei Socialis), 43항: 「사도좌 관보」 (AAS) 80(1988년), 575면.

6. 국제연합 제50차 정기총회에 보내신 연설 (뉴욕, 1995.10.5.), 14항: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XVIII/2 (1995년), 741면.

7. 베네딕토 15세, 참전국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호소, (1917.8.1.): 「사도좌 관보」 9(1917년), 422면.

8. 4항: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XX/1 (1997년), 97면.

가정 · 생명 · 평화

- 참된 가정은 평화를 건설하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

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연중 마지막 주일을 한 주간 앞둔 오늘 2003년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교우,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고자 하시는 당신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혜롭게 알아보면서 우리 각자가 이를 실행할 것을 다짐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개인적으로든 단체로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생활하면서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도자, 성직자들과는 달리 우리 교우들은 세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교회와 사회에서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 청소년, 사회 환경, 국가와 국제질서들입니다 (평신도교령 9).

2. 올해 평신도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문제는 가정에 관한 일입니다. 가정은 바로 사회의 첫째가는 핵심 세포가 되어야 할 사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며, 바로 교회의 가정 성소가 될 때에 가정은 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평신도교령 1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정공동체」65항에서 “미래의 복음화는 가정교회에 있다.”고 하시면서 가정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2003년 1월 제4차 세계가정대회 주제). 교황님은 또 ‘가정과 매체’ (2004년도 홍보주일 주제 참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3.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지나쳐버릴 수 없는 것이 매체들입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이 우리 가정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며, 가족간의 대화를 단절해버리기도 합니다. 각종 매체들이 혼전동거와 불륜, 성매매, 이혼 등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를 미화하고 조장하면서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에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연상케 할 만큼 그릇된 성문화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행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도 낙태와 더불어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가로막는 현상입니다.

4. 가정은 세상을 타하고, 세상은 가정을 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가정교회’인 가정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념하며 봉사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은 선물로 주기 위해서 받은 선물이며,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독특한 사건이 ‘출산’입니다. 부부들이야말로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불린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부모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을 준 열매인 자녀가 자신들에게서 비롯된 선물이지만 결국 자신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제4차 세계가정대회 교황청 자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가정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한 가정을 마련하셨고, 그분이 강생하셨을 때 한 가정에서 생활하셨으며,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을 때는 한 가정을 위한 잔치 때였습니다.

5.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 협의회와 전국 단위 교회운동?사도직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2001년 가을부터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2003년 가을부터는 마리아사업회인 포콜라레운동과 함께 ‘성매매 뿌리 뽑기 서명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하면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똑바로운동은 이제 가정에서부터 생명을 존중하고 이를 사회로 확산시키면서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6. 오늘 우리는 특별히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인들에게 한 당부를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에페 5,24-25)

가정의 행복은 바로 이러한 사랑에서 꽃피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영혼을 나누기까지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처지와 환경에서 만났고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위해서는 매체를 잘못 활용하지 말아야 하며, 속절없이 매체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혼인성사 때의 약속대로 자녀에 대한 종교교육을 철저히 행거

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신자 자녀들의 유아세례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하느님을 뒷전에 밀어내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노인과 여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7. 최근 재위 25주년을 지내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달에 끝난 ‘묵주기도의 해’를 통해 세계평화와 가정성화(家庭聖化)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비록 ‘묵주기도의 해’는 끝났으나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 없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 또한 계속 바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지향 역시 가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어떤 대량살상 무기보다도 더 큰 힘으로 폭력과 전쟁을 막아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폭력과 전쟁은 그 마음을 고치는 일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안에서만 회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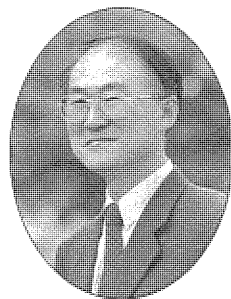
8.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마르코 13,24)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가리켜 복음은 ‘하느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 가정생활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마태 5,9)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부터 모두 그렇게 투신할 때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것도 가정에서부터 생명과 사랑을 배우면서 똑바로 살아간다면 평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참된 가정은 평화를 건설하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2003년 11월 16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시노드와 한국교회



한홍순(토마스·서울평협 부회장)

I.

교구 시노드는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의를 위하여 교구장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개별 교회의 선발된 사제들과 기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회합을 말한다(교회법 460조). 교구장은 시노드에서 지역(교구)교회의 생활에 관해 백성들, 즉 교우, 수도자, 성직자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의견을 들음으로써 교구장은 교회법전에 규정된 교회의 보편법을 어떻게 지역교회에서 실행에 옮길 지를 결정한다. 즉, 교구장은 교구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성화하기 위해 교회생활을 꾸려나갈 프로그램들, 정책들, 규정들을 확정 짓는다. 그러므로 교구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이에 응답하는 것이다.

시노드(synod)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의 ‘함께, 동시에’를 뜻하는 syn이라는 말과 ‘길, 여정’을 뜻하는 hodos의 합성어로 ‘함께 걷는다’를 의미한다. 즉, 하느님의 백성, 교우, 수도자, 성직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간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 그러므로 교구 시노드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함께 성찰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노력하여 공동의 사명인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교구 시노드에는 교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교우, 성직자, 수도자, 젊은이, 청년, 중년, 노년의 모든 교우들이,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참여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시노드는 이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며 모두가 근본적으로 동등하고 똑 같은 품위를 지니고 있는 교회의 수평적 차원을 강화한다.

II.

바로 이 점, 즉, 교우, 수도자, 성직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회합에 참여하는 것, 즉, '동등한 건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개최된 교구 시노드의 특징이다. 교회 역사상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개최된 교구 시노드에는 오직 성직자들만이 참석하였을 뿐이며, 이것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즉, 1831년 조선 대목구가 세워진 이래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 세 차례의 시노드, 즉, 1857년, 1868년(또는 1884년)에 개최된 조선 대목구 시노드, 그리고 1922년에 개최된 서울 대목구 시노드에는 성직자들만 참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친교의 교회상을 강조하면서 이후에 개최된 교구 시노드에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수도자들도 참석하게 되었다. 이 점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설립된 주교 시노드(주교 교령 5항)에 잘 반영되어 있다. 물론, 주교 시노드에는 주교들만 건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평신도와 수도자, 그리고 기타 성직자는 참관인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주교 시노드에 참여하는 참관인들도 건의 투표권만 갖지 않을 뿐, 주교 대의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토의하고 대의원 주교들은 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주교 시노드를 마무리하는 최종 건의안을 작성하는 작업은 모두가 함께 한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지닌 시노드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친교의 교회상을 매우 잘 드러내는 것이며 그 것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시노드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교황은 시노드의 방식대로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강력히 권고한다.

III.

사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시노드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 그 것은 교황 자신이 1995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FABC) 총회에 참석하여 행한 연설에서 후대에 자신은 아마 「시노드의 교황」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교황은 그 동안 주교 시노드 정례 회합 6차례와 비정례 회합 1차례, 지역별 특별 회합

2차례, 그리고 새 천년대를 준비하기 위해 대륙별 특별 회합 6차례에 이르기까지 총 15차례 주교 시노드를 소집, 주재하였다. 시노드에 대한 교황의 이러한 열정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친교의 교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황의 이러한 열의에 응답하여 세계 각 교구에서는 교구 시노드를 개최하여 교회의 내적 쇠신을 통해 친교의 교회상을 구현하며 교회의 선교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황 자신도 크라코프 대교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교구 시노드를 개최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가르침을 교구 차원에서 실천하는 데 진력하였다.

교황청 주교성과 인류 복음화성은 각 지역교회가 이러한 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교구 대의원회의에 관한 훈령」(1997년3월 19일)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 동안 한국교회에서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 세계 각국교회와 보조를 맞추어 교회의 내적 쇠신과 자신의 선교사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전국차원에서는 2백주년 사목회의, 그리고 교구차원에서는 부산 교구, 대구 대교구, 수원 교구, 인천 교구, 서울 대교구에서 시노드를 개최하였다.

IV.

교구 시노드는 대체로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째 단계는 준비단계로 주로 교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단계이다. 이 때 교구민들은 가톨릭 신앙과 전통에 비추어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구장에게 이를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 교구장은 교구민들의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교구 시노드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 그룹이 선발되고 이 그룹은 교구장이 선정한 주제별로 교구민들이 이미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 「토의자료(lineamenta)」를 작성한다. 이 자료는 교구장의 재가를 거친 다음 각 본당과 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교구민들에게 배포되며, 교구민들은 이 자료를 중심으로 성찰하고 토의한 결과를 시노드 사무국에 제출한다. 전문가 그룹은 이 자료와 자체 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교구 시노드 본회의에서 다룰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을 작성한다.

둘째 단계는 각 본당과 단체의 평신도, 그리고 수도회와 성직자 중에서

선발된 시노드 대의원들이 이 「의안집」을 중심으로 토의하고 성찰하고 그 결과를 건의안으로 묶어 표결을 거쳐 교구장에게 제출한다.

셋째 단계는 교구장이 이 건의안에 대해 응답하는 단계이다. 교구장은 이 건의안과 그 동안 시노드에서 작성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 건의안에 대한 응답을 최종 문헌으로 발표한다. 이 최종문헌은 교구의 사목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골간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사목방향과 실행계획은 교구의 여러 규정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V.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개최된 교구 시노드는 대체로 위에서 설명한 단계들을 거쳐 진행되었다. 특히 2003년 9월에 막을 내린 서울 대교구 시노드는 이보다 앞서 진행된 우리 나라와 외국의 여러 교구 시노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교황청이 발표한 「교구 대의원회의에 관한 훈령」을 전범으로 삼으면서, 특히 주교 시노드의 진행 방식을 모델로 하여 진행되었다. 서울 대교구 시노드가 역점을 두었던 것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사목회의 문헌, 교황권고 「아시아 교회」, 교황교서 「새 천년기」의 가르침을 교구 실정에 맞게 실천에 옮기는 방안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특히 아시아 문화와의 대화, 아시아 종교와의 대화, 아시아 백성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의 대화를 강조한 아시아 특별 주교 시노드의 후속 교황 권고인 「아시아 교회」의 가르침을 교구 실정에 맞게 실천에 옮기는 일은 2000년 대회년을 맞이하며 시작된 서울 대교구 시노드의 중심 과제였다. 이에 따라 서울 대교구 시노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교구민 상호간의 대화를 중시하면서 각 단계마다 교우, 수도자, 성직자의 참여를 진작시켰던 것이다. 예컨대, 교구 시노드 기도문, 로고, 등을 작성하는 일을 전교구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시노드 기도문을 신자들이 각 본당에서 미사 전이나 후에 바쳤다. 특히 시노드의 일곱개 주제, 즉,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청소년, 선교·신앙교육, 교회운영, 사회 복음화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은 13만 명이 넘는 교우들이 참여하여 적어낸 의견들이 바탕이 되었고 이 의견들을 분류하는 작업도 각 본당의 시노드 위원들이 맡아서 해냈다. 그리고 의안집 작성도 각 본당과 단체의 신자들이 의안초안을 토의한 것을 토대로 수정 작업을 거쳤다. 교구 시노드를 친

교의 교회상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때, 이렇게 많은 하느님의 백성이 교구 시노드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참여한 것은 그 자체가 바람직한 시노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VI.

교구 시노드는 본회의 폐막과 함께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시노드 본회의 폐막 이후에 오히려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노드 최종 문헌에서 제시된 사목 방향과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고서는 시노드의 참된 결실을 거두어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대교구 시노드의 대의원들은 최종 건의안에서 시노드 후속 실천 작업이 시노드가 더욱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일임을 강조한 바 있고, 이 건의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시노드 실천 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교구 시노드는 교구민 모두가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함께 성찰하고 그 결과를 함께 실천해 나가는 과정인 만큼 이 것은 끊임 없이 계속되는 과정이며 그 것의 성공은 바로 교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부터 쇄신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참여에 달려 있다.

이러한 교구 시노드는 교회의 내적 쇄신과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외적 성장을 기록한 데 비해 내적으로는 아직도 머나먼 성숙의 길을 걸어가야 할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교구 시노드야말로 내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서울대교구 시노드개막식

지난 1983년부터 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해 신뢰회복운동을 펼쳐온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이하 한국평협)가 새천년기에 들어서 새롭게 펼치기 시작한 도덕성 회복 운동이 바로 ‘똑바로’ 운동이다. 똑바로 운동이 시작된 지 햇수로 4년째에 접어들고 보니, 똑바로 운동도 이제는 끝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똑바로 운동은 결코 그만 두어서는 안 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욱 힘차게 똑바로 운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 우리 사회가 똑바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은 굳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일 것이기 때문이다. 똑바로 운동이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리고 더욱 널리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참으로 똑바로 되기를 염원하면서 똑바로 운동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되짚어보고 이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확산되어야 할 것 인지를 모색해 본다.

똑바로 운동의 탄생 배경

2000년 대희년이 끝나가던 지난 2000년 11월 11일, 한국평협은 제주교구 이시돌 회관



에서 그 해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사회 현실의 도덕성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덕성 회복 운동을 2001년 한국평협의 주요 사업으로 다루기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는 각 교구평협의 전폭적 동의 속에 통과됐다. 이에 앞서 9월 부산에서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 때도 도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고, 그래서 제주 회의 때 이를 안건으로 올렸으면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어찌됐든 도덕성 회복 운동은 이때부터 한국평협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듬해인 2001년 2월 1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평협 정기총회에서는 그해 사업으로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한국평협은 도덕성 회복 운동 표어를 마련하기로 하고, △도덕성 회복 운동의 취지를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적시할 수 있는 내용 △도덕성 회복 운동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내용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사회 공동선의 증진을 촉구하는 내용 △개인적 집단적 잘못에 경종을 울리며 인간 양심을 일깨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교회 언론 매체들인 가톨릭신문과 평화신문을 통해 표어를 공모했다. 약 한달 보름간의 공모 기간을 마친 결과 모두 178명에게서 700편을 접수했다. 그러나 당선작은 가려내지 못하고 ‘나부터 지킨 양심 온 사회 등불 된다.’와 ‘내가 지킨 바른 양심 새날 새 삶 앞당긴다.’는 두 편의 가작만을 낼 수 있었다. 그해 4월 28일 전주교구 천호 피정의 집에서 열린 한국평협 2001년도 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표어 당선작이 없는 관계로 표어(또는 캐치프레이즈)를 새로 마련하기로 하고 구체적 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각 교구 주보에 도덕성 회복 표어 공모 게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후 2차로 공모했다. 6월 15일 응모작을 접수 마감한 결과 모두 187명이 620편을 응모했으나 여기에서도 이렇다 할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에 집행부에는 상임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적당한 표어를 생각해 보도록 요청했고, 그 당시 김용수 기획분과위원장이 제안한 것이 ‘똑바로’였다. 서울평협과 한국평협 기획분과 책임을 맡고 있었던 김용수 회장은 ‘표어란 모름지기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표어로 삼으면 좋을까 하고 끊임없이 궁리하고 있었다. 어느날 전철을 타고 가던 중에 불현듯 ‘똑바로’라는 말이 생각났다. 동화책에서 본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린 꼬마가 시골 할머니 집을 찾아가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무조건 ‘똑바로’만 가면 된다는 말에 한눈팔지 않고 똑바로만 갔더니 마침내 할머니 집을 찾았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착안한 김용수 회장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도 이와 마찬가지로 ‘똑바로’를 도덕성 회복 운동의 표어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처음에는 마뜩찮게 생각한 집행부는 김 회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후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냈고, 7월 7일 광주에서 열린 한국평협 2001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마침내 도덕성 회복 표어로 채택됐다.

그러나 광주에서도 처음에는 각 교구 평협회장단이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똑바로’란 말은 너무 흔하고 유치하며, 지나치게 딱딱한 느낌을 주고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는 식으로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반응들이었다. 그러나 김용수 회장이 제안 설명을 차근차근 해나가자 모두들 수긍하며 ‘똑바로’를 도덕성 회복 운동의 캐치프레이즈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광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도덕성 회복 운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기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기로 했다.

이런 결정에 따라 7월 16일 서울에서는 제1차 기획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순교자 성월이 시작되는 9월 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도덕성 회복 운동 선포식을 갖도록 하고 그에 앞서 주교회의의 승인을 얻기로 했다. 또 선포식에 맞추어 차량용 ‘똑바로’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기로 하고 ‘똑바로’ 표어는 평신도주일에 맞추어 제작, 배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8월 11일에는 2차 기획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실천 선언문과 실천지침 초안을 검토하고, 운동 선포식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인 9월 8일 서울평협의 평협임원 단체장, 본당 총회장 합동 연수 때에 갖기로 일정을 조정했다. 그러는 사이에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는 9월 3일 한국평협의 도덕성 회복 운동이 주교회의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차원의 선포식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우선 서울을 시작으로 각 교구평협 차원에서 자체로 도덕성 회복 운동 선포식을 갖기로 했다. 아울러 일간지 종교담당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똑바로’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협조를 요청했다. 마침내 9월 8일 평협 연수에 앞서 서울대교구청 마당에서 서울평협 차원으로 똑바로 운동 스티커 부착 행사와 선포식을 가졌다. 똑바로 운동이 대외적으로 첫 발을 내 딛는 순간이었다. 이어 그해 가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한국평협이 도덕성 회복 운동으로 똑바로 운동을 펼치는 것을 승인함에 따라 각 교구평협에서도 저마다 선포식을 갖고 똑바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똑바로 운동의 추진 경과

2001년 10월 27일 대전교구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평협 2001년도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똑바로 운동이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았음을 주지하면서 똑바로 운동의 구체적 전개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선 2001년도에는 각 교구 평협이 교구장을 모시고 교구 평협 차원에서 똑바로 운동 선포식을 갖도록 하고, 전국 단체들도 올해 안으로 단체 차원의 공개적인 똑바로 운동 선포식을 갖도록 한다. 또 각 교구 평협은 자기 교구의 협조를 얻어 각 본당 차원의 똑바로 운동 선포식 및 스티커 부착식을 갖도록 독려하되 본당 차원의 똑바로 운동 선포식은 11월 18일 평신도 주일에 본당 평협 주관으로 매 미사 끝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2002년도에는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똑바로 된 선거 문화를 위한 선언문 및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월드컵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기초질서 똑바로 지키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자료집)을 마련해 보급하고, 똑바로 운동과 관련한 심포지엄과 똑바로 운동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며, 똑바로 운동 실천 사례를 공모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은 거의 그대로 2002년도 사업 계획으로 채택됐다.

이런 사업들은 2002년도에도 각 교구 평협 차원에서 나름대로 비교적 충실하게 시행되었고 팔목할 만한 성과도 일부 거두었다. 우선 한국평협 차원에서는 똑바로 운동 선언문을 비롯해 실천 지침, 똑바로에 대한 용어 풀이, 똑바로 운동에 대한 신학적 소고, 똑바로 운동 강연 자료, 소공동체 모임용 똑바로 운동 자료 등을 담은 똑바로 운동 자료집(무크지 및 디스크)을 펴냈다. 또 스티커도 처음의 '도덕성 회복 똑바로'에서 '우리 함께 똑바로'로 문구를 일부 수정해 추가 배포했고, 상임위원회 때마다 똑바로를 주제로 한 강연이나 각 교구 똑바로 운동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똑바로 운동의 관심 제고와 적극적 동참을 독려했으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집행부가 각 교구 순회 강연도 가졌다.

각 교구평협들의 똑바로 운동 확산 노력도 고무적이었다. 광주대교구는 두 차례에 걸쳐 똑바로 운동 거리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대림시기에는 하느님 자녀로서 똑바로 살아가도록 자기 성찰을 도모하는 자기성찰을 위한 책자를 교구내 각 본당 신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밖에 똑바로 신심운동의 일환으로 나주 무학당 성지 개발 세미나를 개최하고 통일된 상장애식의 똑바로 보급 확산을 위해 연도대회를 갖기도 했다. 대구평협에서는 각 본당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똑바로 운동 피정을 실시해 똑바로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마산평협에서는 교구 평협임원 및 교구 단체장, 본당 회장단 연수에서 똑바로 운동에 대한 강의 및 토론 등을 통해 똑바로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부산교구는 독거자 돌보기 사랑의 운동을 똑바로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봉래 성당, 서대신성당, 남천성당 등지에서 대표적으로 전개한 독거자 돌보기 사랑의 운동은 이웃 사랑과 나눔을 똑바로 실천하는 똑바로 운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수원평협에서는 똑바로 운동 홍보를 위해 교구장 배 축구대회 때에 평협 임원들이 ‘똑바로 운동’ 어깨띠를 두르고 리플릿을 나눠주는 등 홍보 활동을 벌였으며, 지자체장 선거 등을 맞아 ‘기권 방지’와 ‘똑바로 투표하기’ 등의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환경보호와 질서운동 캠페인도 똑바로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했다. 안동평협에서는 각 본당에 똑바로 운동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한편 개인, 가정, 단체, 본당, 직장에서 매월 실천할 사례를 기도생활, 생명·환경, 나눔, 기타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교구 월보인 ‘턱옴’지에 게재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계 연수 때나 총회 때에 사례 발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운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원주평협도 각 본당 단체 임원 교육 때 똑바로 운동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구내 36개 본당을 대상으로 똑바로 스티커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평협회보 등을 통해 똑바로 운동 홍보 활동을 벌였다. 또 영동지구 및 제천지구 ‘한마음 한몸 대회’ 때에는 평협 임원이 참가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인천평협 역시 교구장배 축구대회 때 똑바로 운동 홍보 캠페인을 벌였으며, 구역장 반장 교육 때는 똑바로 운동 실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교구 사목연구소장인 차동엽 신부의 똑바로 운동에 관한 글이 매월 교구 주보에 실리는 등 교구 차원의 관심도 높았다. 청주평협에서는 각 본당회장과 교구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똑바로 운동 실천 결의 행사를 갖고 공소회장 연수 등에서 똑바로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전주평협과 제주평협, 서울평협 등도 똑바로 운동의 심화와 확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서울평협에서는 ‘평신도 주일’을 앞두고 ‘똑바로’를 주제로 교구내 전신자 9일기도를 통해 똑바로 운동을 알리고 그 정신을 심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똑바로 운동 심포지엄 개최와 똑바로 운동 실천 사례 공모 그리고 똑바로 운동 노래 보급 등의 계획 사업들이 여러 사정으로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다. 또 대부분의 교구평협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은 ‘똑바로’라는 용어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 스티커 부착 등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었다. 2002년도 똑바로 운동은 대략 이상과 같았다.

2003년에 들어서도 각 교구평협 차원의 똑바로 운동은 전년도와 비슷한 형태로 전개됐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었다. 본당 차원의 똑바로 운동 순회강연이 부족해진 것이다. 2002년도 본당 순회 똑바로 강연회가 손에 꼽을 정도였다면 2003년에는 25회가 넘었다. 서울 지역 본당이 대부분이었지만 수원과 인천 등 수도권 교구 본당은 물론 청주와 대구, 안동 교구 본당도 있었다. 홍보 강연은 대부분 본당에서는 영성체 후 공지 시간을 빌어 3~5분 정도 짧게 이루어졌으나 일부 본당에서는 강론 시간을 이용해 10~20



분 가랑 이어지기도 했다. 강연은 대부분 한국평협회장인 여규태 회장이 도맡다시피 했다. 이렇게 본당 순회강연이 많아지게 된 것은 순전히 여 회장의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본당 순회강연에서 보인 신자들의 반응이었다. 강연을 듣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신자들이 강연을 듣고 나면 거의 모두가 똑바로 운동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스티커와 리플릿을 받아가는 것은 물론 이웃에게도 나누어주겠다고 더 달라고 요청하는 신자들도 본당마다 상당수 됐다. 신자들의 이런 호의적인 반응이 본당 순회강연에 더욱 나서게 된 기폭제가 된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똑바로 운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똑바로 운동이 이 시대에 참으로 요청되는 적절한 운동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똑바로 운동의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똑바로 운동은 첫째로, 적극적 홍보 노력이 부족했다. 한국평협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각 교구평협 차원에서도 똑바로 운동의 정신을 알린다는 데는 전폭적으로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똑바로’를 적극 알리는 데는 성의가 부족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똑바로’가 주는 강하고 직선적 의미, 이른바 부정적인 느낌에 지나치게 부담을 가진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신호위반을 하고 주정차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똑바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붙이지 않고 그냥 똑바로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게 더 좋다.’ 심지어 평협 임원들조차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홍보에 적극적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똑바로’는 캠페인 모토이다. 캠페인은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때 캠페인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똑바로 운동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 인식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 둘째, 똑바로 운동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략이 없었다. 똑바로 운동을 제대로 추진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운동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똑바로 운동은 초창기에 2~3차례의 기획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부 집행부의 머리와 손과 발에 의존하다시피 했다. 그렇다 보니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전략, 전술이 나올 리가 없었다. 오히려 이만큼이라도 해온 게 다행일 정도다. 이 점은 현 집행부를 비롯한 똑바로 운동 실무자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다. 부산평협이 똑바로 운동의 일환으로 ‘독거자 돌보기 사랑의 운동’을 펼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18회나 회의를 가진 것은 이와 관련하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셋째로, 똑바로 운동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확산되려면 구체적 사안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부산평협의 ‘독거자 돌보기 사랑의 운동’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구체적 사안과 연결시킬 때는 ‘똑바로’ 운동의 일환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넷째로, 똑바로 운동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교회내 운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 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 똑바로 운동은 지금까지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부터’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똑바로 하는 운동으로 이어지는 똑바로 운동은 교회 안 운동으로 그칠 수 없다. 이는 평신도 사도직이 교회내 활동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섯째로, 똑바로 운동이 의식 개혁 운동이자 생활 실천 운동으로서 제대로 힘을 얻으려면 영성이 뒷 받침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 또는 똑바른 생활의 뿌리를 성서와 가톨릭 사상에 비추어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평협이 2002년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똑바로’를 주제로 ‘9일 기도’ 자료를 준비한 것은 이 점에서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똑바로’ 운동의 영성적 의미를 천착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4년째로 접어드는 똑바로 운동은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운동이다. 이 시대의 상황이 똑바로 운동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평협의 회장단이 바뀌고 집행부가 바뀐다고 해서 똑바로 운동 또한 이제 다른 운동으로 대체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운동을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한국평협이 시작한 어떤 운동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활짝 꽃을 피웠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똑바로 운동은 이제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꽃을 피워야 할 운동이다. 똑바로 운동이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더라’ 하실 만큼 꽃 피울 수 있도록 평협 회원 모두의 건투를 빈다.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섬기십시오.
하느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베드로 5,5)

사진제공: 서울대학교구 신월동 본당 정형재 대건안드레아

2003년도 각 교구 평협·회원 운동단체 활동 및 사업성과

◆ 청주교구 평협

1. 제26회 정기총회

날짜: 2월8일(토)

장소: 청주교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대상: 각 본당 평협회장단 및 교구액선단체장

참석인원: 102명

가톨릭회관에서 각 본당회장 및 교구액선단체장과 교구평협 임원들이 교구장 장봉훈 가브리엘주교와 강희성 펠릭스 평협지도신부 참석 하에 제2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평협회칙 부분개정과 전년도 교구평협 업무실적과 결산승인에 이어 2003년도 사업 계획,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또한 토의시간에는 교구평협과 본당 평협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교구의 재무 등 일정 부분에 평신도의 참여 방안등이 논의 되었으며, 강희성지도신부의 2003년도 “성령안에 봉사하는 가정”을 표어로 하는 교구장 사목교서 해설과 실천방안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2. 교구평협 주관“북한 식량지원을 위한 연제식신부 작품전”

날짜: 5월18일(일)~ 5월25일(일) 장소: 청주예술의 전당 전시실

교구평협 주관으로 민족화해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북한 식량지원을 위하여 청주교

구 소속 연제식신부가 그동안 자신이 그린 동양화등 약50여점을 기증 작품전을 개최하여 작품판매 대금 4,500만원을 민화위에 전달하였다.

3. 제4회 게이트볼 대회 개최

날짜 : 5월 31일(토)

장소 :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

참석인원 70명

교구평협 주관으로 60세 이상의 교우들을 대상으로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여 각 본당에서 70명의 교우들이 참가하여 노년교우들의 친선과 형제애를 나누는 계기를 만들었다. 젊은층들은 지구별 체육대회, 테니스대회 등 행사는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년교우들이 만나는 자리가 없어서 교구평협이 주관이 되어 해마다 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4. 교구 경제인회 초청 평협임원과 친선체육대회

날짜 : 7월19일(토)

장소 : 청주교구 가톨릭회관 및 청주중학교 운동장

평소 교구 평협총회나 임원월례회의시 교구평협과 각 본당 그리고 교구내 각 액션단체 등이 평소에 서로 유대관계가 없어서 대화가 부족하고, 교구내 평신도 사도직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가톨릭 교세확장과 전교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자주 있었던 차에, 교구평협은 교구내 각 본당과 액션단체와의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갖기 위하여 교구평협 및 교구 각 액션단체 그리고 교구내 본당평협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도 다지고 교구평신도사도직활성화를 위한장을 마련하기 위한 체육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바, 먼저 시범적으로 교구내 경제인회와 배구 및 족구시합을 개최 친목을 다지고 서로간의 협조를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5. 제5회 평신도 도보성지순례 개최

날짜 : 9월28일(일)

장소 : 진천배티성지 (백곡-배티)

대상 : 교구내 신자

참석인원: 152명

청주교구내 성지 중 배티성지는 초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박해를 피하여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은둔생활을 하던 성지로 그중 비밀통로는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관

현들의 눈을 피하며 죽음을 무릎쓰고 다녔던 바로 그 길이다.

청주교구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녔던 그 길을 도보로 순례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써 다섯 번째인 제5회 평신도 도보성지순례는 작년에 이어, 교우들이 잘 다니지 않아서 길이 정리되지 않은 비밀통로를 다시 정리하며 잡초를 제거하고, 길을 다듬으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6. 제17회 “찬미 예수님의 날”행사

날짜: 11월3일(월)

장소: 현도 사회복지대학 강당

대상: 교구내 본당 성가대

참석팀: 19개

교구평협이 각본당 성가대의 수준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해마다 개최하는 찬미예수님의 날 행사가 올해는 꽃동네 현도 사회복지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교구내 주교좌 본당을 비롯하여 19개 팀이 참가하여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성가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로 교구평협에서는 등수를 가리거나 시상은 하지 않고 참가한 모든 본당에게 금일봉으로 시상을 대신하였다.

찬미예수님의 날은 금년에 17회를 개최하면서 각본당 성가대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다.

교구평협에서는 찬미예수님의 날 행사를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그야말로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여 같이 주님을 찬미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사로 발전시킬 것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 행사를 통하여 교구내 평신도들이 하느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체험하는 장으로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날 교구장 파견 미사에서 성가봉사 25년 이상자에 대하여 교구장의 기념패 전달이 있었고, 당일 미사헌금으로 봉헌된 150만원은 방글라데시 교황대사이신 장인남 바오로 대주교님께 선교기금으로 전달하였다.

7. 교구 각본당 평협회장, 교구단체장 연수

날짜: 6월 14일(토) - 15일(일)

장소: 교구 연수원

참석인원: 96명

교구내 각 본당 평협회장 및 교구단체장 연수를 평협주관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양, 잃은 양 찾기 방안, 평협주최의 각종행사에 관한 의견, 기타 교구평협 현안 안전에 대한 열띤 토의가 있었고, 주일 강론과 새로운 연도에 대한 교육 등이 있었다. 특히 연수 기간중 여규태 요셉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단 일행의 방문과 강연, 주교좌성당에서 똑바로 스티커 부착식이 있었다.

◆ 원주교구 평협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교구를 위하여(2003년 엄증관 회장)

1) 2003년 1월 15일 사제 서품식(원동성당. 고은락. 양희준 신부)이 있은후 발표된 사제 인사발령에서 지난 4년간 평협의 위상을 높이고 봉사하는 평협을 육성하기 위하여 헌신 노력한 신현만 시몬 사목국장신부가 정선본당 주임신부로 이임하고 제11대 평협 지도신부로 용소막본당 주임신부였던 박상용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부임하였다. 평협은 2월 15일부터 2일간 2003년도 정기 총회를 평창군 성 필립보 마을에서 서울 대교구 정월기신부를 초청하여 소공동체활동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고 아울러 2002년 사업 및 결산 승인,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였다.

특히 정월기 신부는 본당 사도회장, 성모회장은 물론 소공동체 담당 임원등 30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시간에 걸친 특강을 통하여 소공동체운동의 배경, 활동등 전반에 걸쳐 열강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특강으로 각 본당의 소공동체 운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주교님께서도 정인준 총대리 신부님과 함께 파견 미사를 집전하여 주시고 임원들을 격려하셨다.

2) 박상용 지도신부는 평협의 운영 방향을 일부 수정하여 평협기구를 11개 위원회(총무, 전례, 교육, 선교, 여성, 사회복지, 장학, 홍보, 봉사, 가정사목, 직장사목)개편하고, 평협 활동과 단체 그리고 본당의 새로운 활동 소식과 지학순 장학회 운영상황을 수록한 평협회보를 월2회 발행에서 분기별 1회로 조정 1,500부를 발간하고 주간회의를 폐지하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임원들과 단체장들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지난 1개월을 결산 평가하고 단체간 협조사항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협의하였다. 한편 임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춘기에는 가톨릭센터(1월 24일)에서, 하계에는 1박 2일 정선본당 관할 나전 공소(7월 19일- 20일)에서, 추계에는 정선 민동산 산행을 겸하여(10월 15일) 연수회를 실시하고 지도신부의 특강과 미사는 물론 임원들이 주제를 선정 연구

발표하고 토론을 실시하였다.

3) 전국 평협 총회 및 3회에 걸친 상임위원회(4월 26-27일 안동교구, 6월 7-8일 대구교구, 8월 30-31일 인천교구)에 회장단이 전국평협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똑바로 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확산을 위하여 스티커와 각종 자료를 각 본당에 배포하고 자율 실천 분위기확산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지구행사에도 임원들이 참여하여 홍보활동도 전개하였다.

4) 교구내 주요행사인 고 지학순 주교 10주기 추모식(3월12일 성지 배론), 교구설정 38주년 기념미사(3월22일 원동성당), 성체현양대회(6월 19일. 풍수원 성당. 춘천?원주교구 합동)등 주요행사에서는 안내, 전례, 봉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장애우 수용시설인 천사들의 집에 장미 100본, 용소막 본당에 벚나무 100본 식재(4월 5일)와 후원회원을 위한 감사축제인 옥수수 잔치(8월 21일 천사들의 집) 지원, 어르신들의 모임인 한빛회(매주 화요일)와 가톨릭 사회복지관에서의 봉사 활동 참여, 제천 사회복지관에는 헌옷을 수집(10상자)하여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에도 솔선 참여하였다. 특히 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회장 연기권 바오로)와 평협은 5월12일 관내 천사들의 집(천주교 원주교구가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장애우 80여명을 운전기사 사도회 회원과 평협 임원 그리고 봉사자들과 함께 승용차 44대(장애로 인하여 버스 이용 불가능)를 이용하여 충북 충주소재 충주댐으로 봄 소풍을 다녀왔다. 혼자 힘으로는 바깥 출입은 물론 식사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휠체어를 이용한 산책,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함께 한 모두가 한마음이 된 아름다운 자리였다.

(5) 주교회의는 2002년 추계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1864년 목판본으로 발행된 이래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던 ‘천주성교 예규’를 전통 상제례와 현대 감각에 맞추고 그 깊이를 더하여 한국 고유의 “상장예식”을 승인함에 따라 교구 모든 신자들에게 조기 정착 보급하고자 평협 임원으로 교관반을 편성하여 통일된 상장 예식 순회교육과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상장예식 지구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면서 각 본당에 상장 예식 자료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상장예식 녹음테이프를 지원하여 본당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하였으며 많은 본당에서 자체 경연대회도 실시하였다. 상장예식의 지구별 순회교육은 교구내 6개 지구(원주지구는 레지아)를 5월 19일(원동성당), 5월22일 제천지구(남천동 성당), 5월 29일 영평정지구(대화성당), 6월 5일 태백지구(황지성당), 6월 12일 원주지구(학성동 성당), 영동지구(성내동 성당)를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구별 예선대회를 거쳐 위령성월인 11월 30일(일요일)에 가톨릭센터에서 경연대회(최우수 원주지구 학성동 본당)를 개최하여 교구장상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6) 선교와 영성을 위하여 교회도서와 음반 판매 수익금으로 간현공소에 앰프지원, 청풍공소에 성물지원 등 어려운 공소돕기 운동을 전개한데 이어 1월 8일부터 2일간 성도미니코 수녀원에서의 공소 상록전교사(공소의 여성 지도자)교육 지원, 공소 지도자들을 하계연수회에 함께 참가시켜 새로운 '상장 예식'과 '장의 예절 교육' (7월 3일-4일 철암공소)을 비롯하여 공소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하여 주었으며, 공소사목협의회(회장 박호찬 요한)와 합동으로 교구 내 공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교회의 기초 뿌리인 공소의 역사적 자료를 기록관리 보존하고 주5일제 사목에 따른 교구차원의 대책의 일환으로 평협이 기획하여 총 54개의 전 공소를 대상으로 5개조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연혁, 일반현황(인구, 신자수, 주요 시설),공소운영(신자수, 신자유동상황, 공소내 단체, 미사 및 공소예절, 공소지도자, 공소예산 등), 공소 재산(토지, 건물), 기타 특기사항(본당 승격 노력, 건의사항 등)과 역대 공소 회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교구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발간할 예정이다.

7) 지구 평협도 비록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영동지구, 태백지구, 영·평·정 지구에 큰 피해를 입어 교구와 지구 단위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조용한 가운데 본당별로 피정, 신앙강좌를 실시하였다. 그중 지구행사로는 원주2지구(지구평협회장 원규희) 한마음 체육대회(4월 27일 풍수원 금대 귀농학교), 제천지구(지구평협회장 이병두) 한마음 한몫 대회(6월 6일 백운 초등학교)가 있었으며 교구에는 부론공소 신설(월 19일), 군부대성당 준공(11월14일 제천 제5탄약창), 천곡동 성당 신축 준공식(11월 17일)이 거행되기도 하였다.

◆ 부산교구 평협

1. 가정 복음화를 위한 특별 강연회 협조 및 홍보

1) 협조 사항 - 선교 사목국에서 주관하는 교구차원의 강연회에 평협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 ㄱ. 안내 - 성당 내부 좌석 정리 및 안내, 평협지를 통한 홍보
- ㄴ. 시설 - 비디오 카메라, 액정 비전 조작, 좌석배치 정리 등
- ㄷ. 차량과 운전 - 강사 마중과 배웅

가정복음화를 위한 특별 강연회<표는 다음 페이지에>

일 시		장 소	참 가	주 제	강 사	비 고
3.30(일)	15:00	남천	300명	성가정	두봉 주교 (전, 안동교구장)	좋은 강의 내용에 비해 참여 인원이 너무 적었다 상임위원의 참여 가 더욱 요망됨
4.27(일)	17:00	월평	300명			
4.27(일)	14:00	남천	220명	성서에서 가르치는	배은주 수녀 (대구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3.30(일)	17:00	월평	220명	가정 공동체		
5.25(일)	14:00	남천	700명	가정의 성화	강길웅 신부 (광주대교구 소록도성당 주임)	
6.29(일)	17:00	월평	700명			
6.29(일)	14:00	남천	2,000명	자녀들의 정서 교육	이해인 수녀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	2,000여명 참석
5.25(일)	17:00	월평	570명		김정식 형제 (생활성가가수)	
9.28(일)	14:00	남천	450명	올바른 가족 관계	제석봉 형제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월평에서는 행사 관계로 하지 않음
10.26(일)	17:00	월평				
10.26(일)	14:00	남천	350명	부모 자녀간의 문제와 해결	김은숙 수녀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9.28(일)	17:00	월평	230명			
11.23(일)	14:00	남천	150명	가족의 놀이 문화	임영준 형제 (한국인력개발 본부장)	종강후, 참석 인원 과 만찬 및 반성회
11.30(일)	17:00	월평				

2) 평가

- ㄱ. 강사의 지명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전 강의가 수준 높은 내용이었다.
- ㄴ. 녹음된 내용을 녹취하여 각 본당에 비디오 보급을 계획하고 있음
- ㄷ. 지구별 연계를 통해 거리가 가까운 지구단위의 강론이 필요할 것 같다.

2. 똑바로 운동의 실천 - 독거노인 사랑의 돕기 실천 운동(백내장 수술)

- ㄱ. 2002년도 독거노인 사랑의 돕기 운동의 경험을 살려 금년에는 지구 회의를 통해 어

려운 지역의 본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ㄴ. 5지구 반송본당에서 희망 신청이 들어와 지원 계획을 세우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여, 해당 지구 협조 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바, 본당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반납함으로써(예산 900만원, 8월 5지구회의에서 논의된 것이 122차 회의에 상정됨(9/15) 차질이 생김.

ㄷ. 1회성 행사를 신중히 생각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혼자 사는 독거 노인 중에 백내장이 있는 환자들이 30만원 정도의 수술비 때문에 고생하므로 주교님과 병원의 협조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매년 이런 분을 찾아서 함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사회복지봉사부를 중심으로 연구하기로 함.

ㄹ. 123차 상임위(11/29)에서 백내장 수술을 “독거노인 사랑의 돕기” 사업으로 결의하고 각 본당에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각 본당에서 1명씩의 대상자를 신청하도록 공문을 발송함.(의료법 25조에 의거 적이 조치함)

ㅁ. 2003년 12월 20일 현재 24명의 신청자가 들어 왔으며, 12월 20일자로 해당자에게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를 보내어 광명을 찾도록 함. 이 사업은 경과를 분석하여 계속사업으로 하기로 함.

3. 평신도 사도직의 강화 - 지구회의의 활성화

구역별로 나뉘어 있는 10개 지구의 회장단(평협위원장임)의 모임을 통해 정보를 서로 나누고 공동체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교우들 간의 친교를 통한 사도직활동의 활성화하기 위해 지구회의를 강화하고 지원 함.

월	일	요	활동명	장소	참가인원		기타
					평협임원	평신도	
4	22	화	2지구회의	장방식당			
	28	월	1지구회의	중앙성당	한창근, 최재석	7개본당	8명 참가1,6,7,3,5 지구
	28	일	6지구회의	서면남대문	이정우, 정경수, 김일우, 좌경보	7개본당	독거노인 사랑의 돕기 협조
	28	일	7지구회의	김해성당		8개본당	
	28	일	3지구회의				
	29	화	5지구회의	거제동성당	이정우, 박재균, 조삼제	6개본당	지도신부: 염봉덕신부
6	10	화	2지구회의	하단강촌가든	황성일, 이흥덕	9개본당	독거노인 돕기 소개

	10	화	8지구회의	원산면옥	이정우, 좌경보	10개본당	노인 공동 프로그램 개발요망
	14	토	울산(9,10)지구회의	아음성당	이홍섭 등 8명	9개본당	강요안 신부 등 9명 사제 참석
	16	월	1지구회의	영주성당	이정우,한창근, 최재석, 최영숙	5개본당	구경국 신부 외 사목위원 다수 참석, 독거노인 돕기의 활성화
	16	월	5지구회의	토현성당	이정우,조삼제,좌경보	7개본당	본당 사목회 활성화 방안
	20	금	4지구회의	장용장어귀	이정우, 김일우, 좌경보, 최재석	6개본당	지구회의 활성화 방안
	23	월	6지구회의	서면남대문식당	이정우,김종철,정경수, 김일우,좌경보	8명	뚝바로 운동과 독거노인 돕기 관련
	25	수	3지구회의	이병규내과	조현영, 김일우	6개본당	4개본당 합동 본당의날 행사
	30	월	7지구회의	삼랑진성당			
7	10	금	2지구회의	하단뽕페	황성일 이홍덕	9개본당	교구발전위원회 결성 안내
8	18	월	1지구회의	청학성당	이정우,한창근,최영숙	6개본당	레지오 소공동체연계 활성화
			4지구회의	초가집식당	배채진	5개본당	4지구본당간 축구시합 계획

가. 각 지구장을 상임위원으로 두어 상임위에 참석하고, 지구회의를 관장한다.(배당표 작성)

나. 각 지구에 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협조하는 상임 위원도 지구의 한 멤버가 되어 활동함)

다. 상임위의 회장단과 부서부장을 지구별로 배당하여 지구회의에 참석하고 평협 업무를 전달한다.

라. 각 지구의 건의 사항은 여과 없이 주교님께 올리며 교구 각 국장실로 발송하여 참고토록 한다.

마. 회의 내용은 양식에 따라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 평신도 단체의 지원 및 협조

가. 산하 단체와의 연계

ㄱ. 경제인회 - 격월로 하는 등반에 평협의 산하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알리고 상임위원들이 많이 참석함.

계절별로 실시하는 경제인회 세미나에 각 단체장, 상임위원들의 적극 참여 권유

ㄴ. 선교축구단 - 봄 가을별로 실시하는 축구 행사에 참여하고 지원함

ㄷ. 여성 연합회 - 여성연합회 사업 중 “여성 쉼터”에 연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연합회의 회장은 평협의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교구의 전반적인 일에 앞장서서 협조함.

ㄹ. 울산지구(9,10 지구)의 지원 - 거리가 먼 관계로 울산 지역의 공동체 활동에 지원금을 보냄(연 430만원)

나. 평신도 신앙학교 지원

ㄱ. 교구청 주관으로 선교사목국에서, 평신도의 영성과 자질을 제고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토,일요일 이틀간 매 6~10시간(연 7회, 총65시간)의 공부와 묵상과 기도생활을 함.

ㄴ. 교구내의 98개 본당에 고르게 참가할 수 있도록 선교사목국과 협조하여 홍보 권장하며 상임위원들이 솔선참여하여 이수하고 하기·동기 등 수시로 찾아 돌보며, 평협 상임원들의 피정을 겸한 1회 청강도 실시함. 금년은 9기 수료생 49명을 배출하여 805명이 됨. 평신도 사도회를 조직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음.

ㄹ. 연 100명의 인원으로 환산하여 매인당 5만원씩 경비로 연 500만원을 지원함.

5. 선교상 및 교리교사상 시상

ㄱ. 평신도 예언직 수행(복음선포의 삶)을 격려하고 고무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제 4회 선교상 및 3회 교리교사상을 수여함(선교상: 본당상(단체상), 개인상. 교리교사상: 5년부터 5년 단위로 수상 - 예산 500만원)

ㄴ. 선교상 - 수제신자수 대 영세자 수를 환산하며, 교리교사상은 본당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 수행한 것도 수상하기로 함.

6. 홍보활동의 강화

ㄱ. 기관지 “부산평협지”를 매년 발행함-6호 발행, 230쪽 내외, 4.6 배판, 2,000부,

ㄴ. 소식지 발간 - 격월간, 타블로이드판, 4-8쪽, 3000부, 칼라판.

ㄷ. 경비는 교우 기업가들의 협찬에 의해서 모두 조달함(예산, 1000만원)

ㄹ. “부산평협”지에는 문원을 두어 가톨릭 문인회, 미술인회, 사진 작가회 등의 협조로 제작에 원활을 기함.

ㅁ.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www.catholicpusan.or.kr/pclack) 활용, 홍보활동 및 소식 전달에 적극 활용.

7. 은퇴 사제 수시 방문

- ㄱ. 두 분의 은퇴 주교님은 평협 상임위원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자문을 받고 위로 함.
- ㄴ. 16분의 은퇴사제는 가까운 지구에 배당하여 쉬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전 신자들에게 홍보함.

◆ 안동교구 평협

2003년 주요활동 및 사업 요약

활동명	일시	장소	참가인원	내용
신년인사회	1. 2	상지대학대강당	약 400명	신년교례 및 신임회장임명
사목임원 연수	1. 25-26	농은수련원약	110명	사목임원의 역할 및 사목 방향 제시
한국 평협 1차 상임위원회	4. 26-27	농은수련원	약 90명	상임위원회의 똑바로 운동 전개(송현동)
하계연수 및 임시총회	7. 19-20	병곡면휴게소 회의실	61명	상반기 결과 및 하반기 계획 협의, 교구 비저닝 워크샵
새상장제례 연수 및 똑바로 운동 전개	7. 27	농은수련원	160명	새상장제례 연수 똑바로운동 홍보(모전동성당)
순교 성인 현양 기념 발표회	9. 27	가톨릭 상지대학 대강당	약 700명	순교 성인 현양 기념 발표회 15개 본당, 3개 찬조출연
총회	11.29-11.30	농은수련원	약 50명	2003년도 활동결과 및 결산 보고,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안동교구 평협에서는 2003년도 사업 계획을 교구장님의 사목교서 내용의 핵심인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이라는 사목 방침과 한국 평협이 몇 년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똑바로 운동”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그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서적 의미에서 가난한 이들의 구체적인 대상은 많지만 특히 우리 사회가 산업화 되고 근대화 되면서 늘어나는 노인 계층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지난해 총회에서 각 본당 회장과 교구 제단체장들에게 사업 계획 수립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권유하였고 결과에 대한 평가시 일선의 대부분 본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2) 하계 연수시에는 교구장의 사목교서를 구체화시키는 활동으로 “농촌 사목”을 중점적으로 주제로 다루면서 우리 신학 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교구 비저닝 워크숍을 개최하여 일선 본당과 교구 제 단체에서 농촌사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3) 교구내 32개 본당의 모든 사목임원을 대상으로 사목임원 연수를 개최하여 2003년도 교구장의 사목방침을 알리고 사목임원들의 부서별 임무와 역할에 대한 연수 및 토의를 통해 효율적인 역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4) 한국 평협에서 지속 사업으로 전개해 온 “똑바로 운동”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노력을 펴기로 하였다.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 한국 평협의 지원을 받아 일선 본당에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작년(2002년)부터 교구 월보 “턱옴”지에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일선 본당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이 운동을 교구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구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내용의 글을 모아 작은 스티커를 제작하여 생활 공간 요소요소에 부착함으로써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일상생활 안에서 똑바로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기로 하였다.

5) 한국 평협 제1차 상임위원회를 농은수련원에서 개최하였다.

6) 도농교류 확대를 통해 농촌 교구가 지니고 있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도시교구의 교우들에게 전해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한국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소공동체 운동의 기본 모델을 안동 교구 공소 공동체에서 찾아 보급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7) 새 상장제례에 대한 연수 기회를 마련하여 주교회의에서 새로이 제정 공포한 새 상장제례를 전 교구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평협이 주축이 되어 새 상장제례 연수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장제례 강의안을 제작하여 일선 본당이나 지구에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중이다.

8) 순교 성인 현양 기념 발표회를 통해 종래의 발표 형식을 지양하고 현재 한국 교회 차원에서 시성 시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구내 순교자 “박상근.마티아”의 시복 운동을 교구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9) 11월 29-30일에 개최된 평협 총회에서 제14대 안동교구 평협 회장으로 현 회장 박영조 페렐리오씨를 재선임함

10) 총회에서는 평협 지구내에 각종 재해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비상기구는 별도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각종 재해 발생시 평협회장단과 재해를 당한 지구 혹은 본당 회장과 긴밀한 협의하에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수원교구 평협

1. 2003년 춘계 회원 연수회 및 제29차 정기총회

3월 9일(주일) 교구청 대강당에서 수원평협(회장 양철화, 지도신부 이찬중) 춘계 회원 연수회 및 제29차 정기총회가 80개 본당과 19개 단체, 평협 임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홍순 교수의 ‘평신도 사도직’, 박인환 전 평협회장의 ‘우리 가족 찾기’에 대한 강의, 청소년 단체 활동, 이삭회 활동 소개가 있었다.

총회에서는 2002년도 감사보고와 사업실적 및 재정결산,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다. 이어 교구장이 주례한 파견미사에서 수원2지구장 박동환(비비노), 안양1지구장 김재겸(레오),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김정원(시몬), 성 빈첸시오 아바오로회 백선기(안토니오), 여성연합회 정순자(데레사) 회장에게 교구장의 감사패를 수여하였고, 황재웅(마태오) 전 평협회장에게 한국 평협의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2. 수원교구 설정 40주년 기념 제2회 교구장배 축구대회

교구장 사목방침에 따라 교구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겸손함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와 사회 안에서 복음적 사도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시키기 위한 제2회 교구장배 축구대회가 수원교구 평협(회장 양철화, 지도신부 이찬중) 주최, 교구 축구동호인연합회(회장 박기차량, 지도신부 한승주) 주관으로 5월 18일(주일) 한국 담배인삼공사 수원제조창 운동장에서 열렸다.

총대리 이용훈(마티아)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총을 먹지 않고 분리되면 즉시 죽는다. 주님과 연결된 신앙인들인 우리는 사회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운동하는 열정으로 이웃과 세상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리고, 축구보다는 신앙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교구장의 뜻에 따라 신앙인의 품위를 잃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우의와 신앙을 다지는 좋은 경기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147개 본당예선을 거쳐 선발된 14개 본당 형제 팀과 7개 본당 자매 팀이 열띤 경기를 벌인 결과 수원1지구 고색동 본당(형제 팀)과 서부지구 발안 본당(자매 팀)이 우승의 영광을, 동부지구 아미동 본당(형제 팀)과 안양1지구 중앙 본당(자매 팀)이 준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각 본당에서 응원단을 대거 동반하여 응원하고 기도하는 모습과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대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숙한 대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 「똑바로 운동」 전개

교구 평협 사회부에서는 무너져 내린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평신도들이 먼저 똑바로 살아감으로써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한국평협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교구 내 본당에서 「똑바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규태 한국 평협 회장의 취지 설명, 본당의 모든 차량에 스티카 부착, 리플릿을 배포하였다. 교구내에서 「똑바로 운동」을 전개한 본당은 다음과 같다.

제1차 8월 3일(주일) 권선동 성당 (주임신부 조원규)

제2차 10월 12일(주일) 중 앙 성당 (주임신부 정영식)

제3차 11월 9일(주일) 분당요한 성당 (주임신부 한상호)

4. 「수원교구 평협사」출판

11월 1일(토) 오후 5시 수원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이하여 평신도들의 긴 여정을 돌아보며 그 동안의 활동상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평협 고문, 지구장, 단체장, 임원들과 함께 평협사출판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는 지구, 단체 관계자 여러 분들과 이 책의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평협사 집필과 편찬을 맡아 수고하신 서상요(바오로)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원교구 평협사」는

－ 제1편 교구 평협사

제1장 설립 초창기의 희망과 좌절, 제2장 활동재개와 시성·시복 운동의 전개, 제3장 교회 창설 200주년 전후의 활동, 제4장 사회 복음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 제2편 교구 평협 각종 자료

－ 제3편 회고의 글 모음

－ 제4편 특별기고

－ 제5편 사진으로 보는 교구 평협

－ 제6편 교구 단체사 792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10월 19일 교구설정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양철화 평협회장은 교구장 최덕기 주교님께 「수원교구 평협사」를 봉정했다.

5. 자연보호 및 선교활동 캠페인

11월 15일(토) 오후 2시 평협은 수원성지인 북수동 성당에서 교구장 최덕기(바오로) 주교와 평협 고문, 임원, 단체 임원 및 교구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설정 40주년 기념 ‘교구 단체 연합 환경보호 실천대회 및 선교활동’을 실시하였다. 교구장 최덕기 주교의 격려 말씀과 화성 담당 직원의 화성 설명이 있었으며, 양철화 회장이 “교구설정 4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성지 및 외곽을 순례하며 신앙선조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본래의 모습대로 가꾸고 보존하는데 앞장서며, 외교인들에게 하느님을 알리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지를 배포하는데 뜻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미 13개 지구별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쳤으며, 15일에는 수원 남문, 중동, 팔달산, 화홍문, 행궁 순례 일정으로 전교지 2,000매를 배포한 후 북수동 성당에 집결하여 ‘순교성지 성역화’ 기도문을 바치고 김동욱 주임신부의 강복으로 마쳤다.

6. 단체임원 성지순례

11월 22일(토)~23일(주일) 강원도 횡성의 오랜 역사와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성전 풍수원 성당에서 '2003 추계 단체임원 성지순례'를 하였다.

첫째 날 이규상(펠릭스) 창천공소 회장이 '주님은 방탕한 저를 거두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신앙체험을 강의했다.

양철화 회장은 '바쁘신 일상을 뒤로 미루고 풍수원 성지에 와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가를 생각하고 남의 탓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각 단체의 카리스마는 다르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을 때는 한 마음으로 뭉쳐 협조자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신앙인이 되자'고 하였으며, 순교자 신심에 대한 묵상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아침 성지 뒷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한 후 미사 봉헌을 하였다. 이찬중(요셉) 지도신부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맞아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란다. 현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조들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과 "성서를 읽고 묵상하며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황님의 칙서를 봉독하고, "이에 평협과 단체, 오랜 전통을 가진 풍수원 교우들은 잘못된 사조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며 새로운 사조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의 힘이 되어 줄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강론했다.

7. 제3회 대림특별강론

11월 29일(토) 주교좌 정자동 성당에서 교구민을 대상으로 제3회 대림특강을 개최하였다.

수원교구 총대리 이용훈(마티아)주교의 "우리들은 사회 곳곳에 만연되고 있는 청년실업, 대기오염, 무질서, 향락주의, 각종 정신질환, 신흥종교, 정치적인 불안, 나만을 위한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악 등 총체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인정이 사라져 인간성이 메말라 하느님을 외면하며 불안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을 상실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국가와 인류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하고 의문과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이 때 하느님의 진리를 따라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은 가정과 사회에 충실하면서 나와 내 가정이 바르게 살 것이다. 복잡해진 현대 사회 구조를 모른체 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모님들이 흔들림 없는 교육 철학으로 청소년

년들에게 철저한 인격 교육과 예의를 가르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의문을 던지고, 50주년을 향해 가는 수원 교구는 교구장 5대 중심 사목을 중심으로 실천하며,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미래의 전망이 뚜렷한 교구로, 사회병리현상을 반성하며 규범을 지키는 지킴이로 살아가는 교구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대전교구 평협

1. 제33차 정기총회 및 연수회

일시 : 2003. 4.26-27

장소 : 솔피 피정의 집

참석 : 122명 (52개 본당, 6개 단체)

주제 : 소 공동체 친교

강사 : 박승룡 신부(사목기획국장) - 소 공동체 친교

김석태 신부(가톨릭대 교수) - 신앙 얼마나 좋은 것인가?

토의내용

1) 2002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 2003 연도 예산(안) 승인

3) 제1회 이존창 루도비코 제 평가

평협 회장(오희철)은 금년도 교구 사목지표인 복음적인 친교 공동체 건설을 위해 지구 평협 및 각 본당 사목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대를 가질 때 소 공동체 운동의 활성화와 복음적인 친교 공동체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당부의 인사를 하였음.

2. 교구 신심, 사도직 단체 봉사자 모임

일시 : 2003. 9.27-28

장소 : 청소년 교육원

참석 : 평협회장 외 14개 단체 회장단 30명

주제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요한 15,5)

강사 : 박승룡 사목기획국장 신부

교회내 각 분야에서 알찬 수확을 거두어 들이는 본당 및 교구 신심, 사도직 단체 임원들이 서로 서로를 이해하고 친교를 이루며 교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투신할 수 있도록 격려

하는 나눔과 친교의 자리가 되었으며 각 단체장들의 소개와 활동사항 보고및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기탄없는 토론과 정기적인 모임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의 하였음.

3. 제2차 대전교구 소공동체 모임

일시 : 2003, 11, 6-7

장소 : 정하상 교육회관

주제 :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마르 1,17)

참석 : 본당 구역장,반장 소공동체 봉사자등 60명

내용 : 작년에 이어 제2차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교구 사목지표인 “복음적인 친교 공동체 건설”을 실천하고 소공동체 활동에 진력하는 본당의 형제 자매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위한 모임

4. 2003 하반기 평협 연수회

일시 : 2003, 12, 6-7

장소 : 정하상 교육회관

참석 : 170명(58개 본당, 14개 단체)

주제 :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마르 10,49)

강사 : 유홍식 라자로 주교, 곽승룡 비오 신부, 이창순 야고보 교수

내용 :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는 이창순 교수의 강의에서 주님의 명령을 실천 하기위해 먼저 평신도 지도자들의 희생을 봉헌하기로 다짐 하였으며 곽승룡 사목기획 국장 신부의 2004년도 교구 사목지표인 “복음적인 가정 교회의 해”에 대한 활동방향 설명과 유홍식 라자로 주교와의 질의 응답시간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걱정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5. 똑바로 운동의 지속적 전개

대전평화방송에 평협회장1회, 상임위원1회 출연하여 똑바로 운동의 취지와 활동방향을 설명하고 각 지구 모임과 행사에 똑바로 스티커 부착을 상임위원 중심으로 실시함.

◆ 대구대교구 평협

일시	장소	내용
1/1 15:00	교육원 대강당	신년교례회 참석 : 교구장 이문희 대주교, 최영수 보좌주교, 교구 사제와 평신도 등 400여명
1/13(월) 19:00	매일가든	제2차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1/24(금) 12:00	감돌식당	제1차 전문위원 모임
1/16(목)	안동교구	안동교구 평협 방문 참석 : 마정웅 회장, 이선자 부회장, 손미자 부회장, 전병인 총무 지원액 : 2,500,000원
2/3(월) 16:30	교구청 별관 205호	제2차 전문위원 모임
2/10(월) 16:30	교구청 별관 205호	제3차 전문위원 모임
2/10(월) 19:00	매일가든	제3차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2/22(토)	서울 가톨릭문화원	한국평협 정기총회 참석 : 마정웅 회장, 이선자 부회장
2/24(월) 16:30	교구청 별관 205호	제4차 전문위원 모임
3/3(월) 16:30	교구청 별관 205호	제5차 전문위원 모임
3/10(월) 16:30	교구청 별관 205호	제6차 전문위원 모임
3/10(월) 19:00	매일가든	제4차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3/17(월) 16:30	교구청 별관 205호	제7차 전문위원 모임
3/30(주일) 09:00~17:00	가톨릭교육원 별관 4층 회의실	직장 소공동체 workshop 참석 : 류승기 신부, 이상재 신부, 마정웅 회장 외 8개 직장 43명, 학교 36명<총 82명 참석>
4/14(월) 19:00	매일가든	제5차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4/26~27	안동 농은수련원	한국평협 2003-1차 상임위원회 참석 : 마정웅 회장, 이선자 부회장, 전병인 총무
5/12(월) 19:00	매일가든	제6차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6/7~8	꾸르실료 교육관	한국평협 2003-2차 상임위원회 참석 : 전국평협, 상임단체장 외 13개 교구 71명 (이문희 대주교, 류승기 지도신부 외 대구평협 26명, 타평협 45명)

6/8(주일)08:00~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 및 보조구장	제28회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대회 참석 : 본당대항 13개 본당 16팀, 직장대항 13개 직장 18팀, 남자개인복식 7개 본당 10팀, 여자 개인복식 7개 본당 9팀
6/21(토)19:30	학생문화센터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CELEBRANT SINGERS 초청 음악회, 주최 : 교구 평신도사도 직단체협의회 - 주관 : 성령쇄신봉사회
7/14(월) 19:00	매일가든	제7차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8/30(토) -	인천가톨릭	한국평협 2003-3차 상임위원회
31(주일)	신학대학	참석 : 마정웅 회장, 손미자 부회장, 이선자 부회장, 전병인 총무
9/15(월) 19:00	매일가든	제8차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10/25	청도 무릉도원	제9차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10월		제16호 평협지 발간
11/24(주일) 14:00-17:00	교육원 4층 대회의실	제21차 교구평협 총회 참석 : 최영수 보좌주교, 류승기 신부, 이상재 신부, 50개 본당 62명, 39개 단체 43명
12/8(월) 18:20	매일가든	제1차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이문희 대주교님, 조환길 사무처장, 류승기 지도 신부, 이상재 지도신부, 이용기 회장 외 39명

◆ 서울대교구 평협

1. 사업 목표

교구장 사목지침과 똑바로 운동의 심화 실천

2. 사업 중점

1) 사목지침의 적극 실천

시노드 적극 참여 시노드 정신의 교육 홍보

소공동체와 선교 활성화

가정 사목의 강화

목주기도 생활화

청년 · 청소년 사목에 관심 높이기

사회 사목의 활성화

2) 똑바로 운동의 심화 확산

똑바로 운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평협 사업과 똑바로 운동을 연계해 수행

3. 세부사업 보고

1) 교육 및 연수

▶ 본당회장 · 교구단체장 · 평협임원 합동연수

5/17(토) / 14:00~18:00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음악 피정 형태로 진행 / 150여명 참석

▶ 2003 서울대교구 선교신앙대회

10/19(일) / 09:00~17:00 / 동성고등학교 강당 / 주제 - '일어나 비추어라' (이사 60,1)

1부 - 일어나라 / 2부 - 비추어라

단체 · 개인 · 본당 · 군사목 선교사례 발표 / 선교 특강 / 파견미사(교구장 주례)

/ 선교다짐문 발표 / 1,500여명 참석

▶ 노년지도자 연수

4/22(화) / 14:00~18:00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1강의: 가톨릭교회의 노인사목 실정과 전망 - 최성균 신부(서울대교구 노인사목, 노인 대학연합회장)

2강의: 이라크 전쟁과 정각사회 - 허신행 박사(전 농림수산부 장관, 현 정각원 원장)

2) 똑바로운동 홍보 교육

▶ 각 본당 순회 똑바로 운동 홍보 및 교육 - 용산, 발산동, 중림동, 왕십리, 구의, 묵동, 대방동, 광장동, 수유동, 화양리, 흑석동, 불광동, 신내동, 역삼동, 사당5동

▶ 똑바로 회지 제작 · 배포(250,000장)

▶ 기도문 제작 · 배포(50,000장)

2) 행사 및 사업

▶ 평신도주일 행사

11/16(일)/ 평신도주일 강론자료?포스터 배포 / 주제 : 가정 · 생명 · 평화

▶ 교구장기 테니스대회

10/3(금) / 09:00~ / 목동 테니스코트 / 지구별 본선을 거친 91개팀 출전

▶ 민족화해 토론회

6/14(토) / 13:30~ /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150여명 참석

기조강연: 우리민족 사랑으로 하나되어 - 김윤희 주교

1주제 발표: 민족화해의 재정립 - 김성락

토론자 - 정달영(전 한국일보 주필), 이부영(국회의원), 유호열(고려대 북한학 교수)

2주제 발표: 평신도역할의 활성화 - 조만형

토론자 - 이광규(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성경수(교구 민화위 위원)

▶ 홈페이지 제작

9월 개통 홈페이지 주소 : <http://clak.or.kr>

설명회 : 2003. 9. 11(월) 18:30

▶ 도농 한마당 잔치

10/26(일) / 09:00~ / 장소: 서초구청 앞마당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와 공동 주최 / 우리농산물 교환권 배포 (20,000장)

▶ 정의평화 세미나

4/12(토) / 14:00~18:00 /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250여명 참석

주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주관: 평신도협의회

주제: 남북한 평화는 가능한가

▶ 서울평협지 제작 · 배포

11월 16일 발행 / 3000부 제작 - 본당 총회장 · 평협임원 · 교구 운동 단체장에 배포

3) 지원사업

▶ 2003 본당 사회사목 분과장연수

- 1차 4/26(토)~27(일) 상지피정의 집

주최 -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 후원: 서울평협

강의, 지구별 모임,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

- 2차 11/22(토)~23(일) 성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서울평협

주제: 지역사회의 자원활용을 통한 본당 사회사목의 활성화

▶ 마산교구 수해지원

수재의연금 모금 6,840,000원

▶ 교구장 영명축일 축하연

12/6(토)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영적예물(서울대교구 전 신자) / 물적예물 축하연 지원 / 150여명 참석

4) 평협 운영의 활성화 - 회의

▶ 지구평협 회장단 회의: 여규태 회장 참석 똑바로 운동 홍보, 지구 지원금 전달

1지구 - 회 2지구 - 12회 3지구 - 회 4지구 - 6회 5지구 - 6회

6지구 - 11회 7지구 - 10회 8지구 - 7회 9지구 - 11회 10지구 - 6회

11지구 - 11회 12지구 - 12회 13지구 - 회 14지구 - 6회 15지구 - 6회

경기서부지구 - 9회 경기동부지구 - 5회 경기북부지구 -

▶ 제33회 정기총회

1/18(토) / 14:00~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1부 미사 - 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주례

2부 회의

1호 안건: 2003년도 사업과 예산 승인

2호 안건: 2002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

3호 기타

※ 전임지구회장 감사패 증정(13명)

▶ 회장단회의

1차 - 1/8(수) 11:30 평협 회의실 / 7명 참석

2차 - 6/9(월) 17:30 " / 6명 참석

3차 - 11/7(금) 16:00 " / 10명 참석

4차 - 11/27(목) 16:00 " / 9명 참석

5차 - 12/4(목) 17:00 " / 8명 참석

▶ 상임위원회

1차 - 1/14(화) / 11:00 / 교구청 대회의실 / 29명 참석

1) 2002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2) 200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검토 3) 기타

2차-6/27(금) / 17:00 /교구청 대회의실 / 27명 참석

1) 선교신앙대회 준비사항 검토

2) 똑바로 운동 활성화 방안 3) 기타

3차 12/20(토) / 16:00 /교구청 대회의실

◆ 춘천교구 평협

1. 심포지엄

- 소공동체와 레지오의 자리매김과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

▶ 춘천지역 : 2002년 9월 27일 14:00-18:00

죽림동 주교좌 성당

구역장, 반장, 레지오 단원, 등 627명

▷ 2:00 개회 기도

2:10 상황과 물음: 춘천교구의 소공동체와 레지오 마리에

김현준 신부

2:30 제 1 주 제 : 소공동체와 레지오 마리에, 그 자리와 관계

차동엽 신부(인천가톨릭대학 사목신학교수)

3:30 제 2 주 제 : 소공동체와 레지오 마리에, 함께 가는 길

강영옥 박사(서울대교구복음화사무국연구위원)

4:10 논평과 토론: 임용순 교수(토론사회/춘천교구“좋은이웃”연수팀)

홍기선 신부(춘천교구 송우리 본당 주임)

금경숙 교수(춘천교구 교구사 편찬위원)

5:00 종합 토론

▶ 서부 지역: 2002년 11월 23일(토) 14:00-18:00

경기도 포천성당

구역장, 반장, 레지오 단원 등 356명 .

춘천지역 심포지움 팀과 동일

▶ 영북 지역: - 함께 가는 길 (소공동체와 제 단체)

2003년 10월 11일(토) 14:00-18:00

속초 교동성당 127명

차동엽 신부(인천교구 사목연구소장)

2:00 우리가 교회다

1) 가톨릭교회의 현주소

- 복음화 전선 이상 있다.
- 복음화 전선, 무엇이 문제인가?
- 어떻게 해야 하나?

3:00 2) 왜 '공동체'를 말하는가?

- 사람은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 21세기 사회가 원한다
- 흔들리는 정체성을 공동체가 잡아준다
- 공동체 건설의 비전

4:00 3) 함께 가는 길

▶ 영동지역 2003년 11월 14일(금) 13:00-17:00

강릉 임당동 성당 364명

차동엽 신부 (함께 가는 길)

▶ 중부 지역 2003년 11월 28일(토) 13:00-17:00

홍천성당 280명

차동엽 신부 (함께 가는 길)

2. 상임 위원회

2003년 6월 14일 14:00 - 18:00

- 미 사

* 정관 개정: 제8조 (임원의 임기)2항 임원의 임기를 회장단의 임기로

* 심포지움에 관한 지역별 상임위원들의 협조 당부

* 기타 현안

임헌규 지도신부, 송성복 회장 외 24명 참석

3. 평협 총회 2003년 11월 22일 14:00

죽림동 말당회관 2층 제2회의실 45명 참석

▷ 14:30 특강 “교회와 가정” 김현준 신부

15:00 총 회

- 평협 회칙 개정 심의

- 2003년 예산안 및 결산 보고
- 사업 보고
- 2004년 임원 개선
 - 회 장 김승선 요한 (가톨릭미술인회 회장)
 - 상임부회장 조흥기 마티아 (레지아 회장)
 - 부 회 장 최승호 베드로 (춘천평협)
 - 부 회 장 이인희 요셉 (남춘천평협)
 - 부 회 장 박종원 베드로 (영북평협)
 - 부 회 장 노동진 시몬 (서부평협)
 - 감 사 최준호 베네딕도 (영동평협)
 - 김성림 요한 (중부평협)
 - 사무 국장 정은주 세실리아 (레지아 부회장)
 - 임 원 복지부 황인선 요셉외 15명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1) 정기 총회

-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예?결산 심의 및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심의함.
- 금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직원 총원 및 협회 활성화방안과 관련된 사안 협의/의결함.

2) 이사회 및 세미나

- 이사회는 년 2회(춘, 추계) 개최하며, 전기 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 부의 안건을 심의하고, 후기이사회에서는 협회 주요 사업안건에 대해 심의함.
- 금번 이사회에서는 협회지(계간지) 발간, 협회내 수익모델 개발, 협력방안 협의, 임상사목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사안 등을 협의함.
- 2003. 5. 16 (금)에 개최된 춘계 세미나에는 20개 기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의“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진행 및 분임토의.
- 2003. 10. 9~10에 개최된 추계 세미나,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병원의 대응방안”의 주제로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특강진행 및 분임토의.

3) 협회지 발간

춘, 추계 세미나의 강연내용과 협회 회무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협회지를 년 2회 발간 하였으나, 2004년 이후 계간지로 발간하고 의료선교차원에서 독자층을 확대코자 함.

4) 교육/연수

- 1988년 10월 일본 성마리아병원(후쿠오카 소재)과 한·일 의료기술협력체결을 맺은 이후, 양국의 의료인력(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을 파견하여 임상실습 및 연수 교류를 하고, 한·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매년 친선교류를 하고 있음.

- 2003년도에 회원기관의 간호사 9명, 의료기사 8명을 8월과 11월에 각각 2주간 일본 병원에 파견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함. 일본에서도 법인본부장 외 4명, 호스피스간호사 등이 한국을 방문, 견학 및 연수 후 귀환함.

5) 북한의료지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의 동포들을 돕는 등 여러 가지 의료지원사업을 하고자 매년 일정금액의 성금을 모금 중이며 사업계획 수립 중.

6) 병자의 날 행사

매년 2월 가톨릭병원협회,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호스피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병자의 날 행사에, 2003년 2월 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병자의 날 기념 미사 및 심포지움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음.

<주요 활동> (2003. 1. 1. - 12. 31.)

가. 회의

- ㉔ 정기총회 : 2003. 5. 16 (제37차) 예·결산 심의,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심의
- ㉕ 전기 이사회 : 2003. 5. 15 이사 15명 참석 (가톨릭의과학연구원 회의실)
- ㉖ 후기 이사회 : 2002. 10. 9 이사 13명 참석 (경주 교육문화회관 회의실)

나. 교육

- ㉔ 춘계 세미나 : 2003. 5. 16 (금) 20개 기관 171명 참석
 - ㉑ 제1강의 :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
 - ㉒ 제2강의 : 심사평가업무의 새로운 패러다임
- ㉕ 추계 세미나 : 2003. 10. 9~10 22개 기관 201명 참석
 - ㉑ 제1강의 : 주 5일제가 병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제2강의 :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대응방안

다. 대외교류 활동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 일본성마리아병원

- 협회 회원병원 간호사 일본 성마리아병원 연수

기간 : '03. 8. 18~30 (2주간)

인원 : 간호사 9명

- 협회 회원병원 약사, 의료기사 일본 성마리아병원 연수

기간 : '04. 2. 2~14 (2주간)

인원 : 약사 3명,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4명

- 가톨릭 간호대학생 일본 성마리아병원 연수

기간 : '03. 10. 6~11 (6일간)

인원 : 학생 6명, 인솔교수 1명

㉢ 일본성마리아병원 ⇒ 한국가톨릭병원협회

- 일본 성마리아병원 행정직, 의료기사 등 가톨릭병원 방문 및 견학

기간 : '03. 7. 28 ~31 (4일간)

인원 : 일본성마리아병원 법인본부 부장 외 4명

견학 : 강남성모병원, 청주성모병원, 대구파티마병원

- 일본 성마리아병원 간호사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 연수

기간 : '03. 11. 3 ~12. 1 (한달간)

인원 : 일본성마리아병원 간호사 2명

연수 :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

- 일본 간호대학생 강남성모병원 연수

기간 : '03. 10. 10~ 10. 19 (10일간)

인원 : 일본성마리아 간호대학생 19명, 인솔교수 2명

연수 : 강남성모병원

라. 북한 의료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의 동포를 돕기 위해 매년 일정의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급 의료기관 17개 병원이 협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성금 모금 총액은 약 1억 8,900만원입니다.

마. 병자의 날 행사

2003년 2월 15일 마리아홀에서 가톨릭병원협회,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호스피스협회

가 공동으로 병자의 날 미사 및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바. 협회지 발간

이제까지 년1회 발간되던 것을 2004년부터는 계간지 형태로 협회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 마리아 사업회(포클라레)

1. '하루 마리아폴리'

2003년 6월 6일 서울, 대구에서 각 1회 개최했다. 서울에는 1,600여 명, 대구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형제애의 새 이름은 평화'라는 주제로 가정, 직장,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서, 또한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 멀리는 전 세계의 평화를 갈망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몫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형제애와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서 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참석자들은 모든 이를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웃과 하나가 되고,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면서 사랑하려는 결심을 미사로 봉헌하면서 하루를 끝맺었다.

2. '여름 마리아폴리'

2003년 7월 23일-26일, 27일-30일 두 번에 걸쳐했던 '여름 마리아폴리'는 '마리아 대회'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우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당부에 따라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교황교서와 빛의 신비 각 단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알아보았으며, 또한 복음이 제시해 주는 성모 마리아의 삶에 대해 묵상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모 마리아의 삶은 단지 묵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의 삶에서 본받아야 하는 것이다. 마리아폴리 참석자들 대부분은 가톨릭 신자들이지만 성모 마리아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큰 원의를 느꼈다고 말했다. 또 그곳에 참석했던 개신교 신자들과 다른 종교인들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특히 몇몇 개신교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가 이런 분이라면 자신들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다. 이번 마리아폴리에는 2,150명이 참석했다.

3. '슈퍼 3젠 대회'

교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위기를 맞고 있는 세대가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2003년 11월 2일 전국 차원의 ‘슈퍼 3젠 대회’를 개최했다. 예상을 넘어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 고등학생 1,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래, 춤, 무언극, 체험담 등으로 엮어진 하루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과 희망은 여전히 존재하며 서로 일치된 가운데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떠났다. 이들이 남긴 인상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인상문에서 읽을 수 있었던 표현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확신’, ‘사랑의 길에 대한 발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용서’ 등이었다.

4. ‘가정의 하루’ 모임

포콜라레 운동은 2003년 11월 30일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콘서트홀에서 53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길”을 주제로 ‘가정의 하루’ 모임을 개최했다. 대부분이 포콜라레 운동을 처음 만난 이날 참석자들은 이 운동의 역사와 1998년 로마 새 가정대회에서 발표한 포콜라레 창시자, 끼아라 루빅의 테마, 가정에서 일어나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여러 경험담을 들었다. 3대가 나와서 각자 가정에서의 경험을 발표한데 이어, 사춘기에 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나 끝까지 사랑으로 참아내어 훌륭한 대학에 진학시킨 엄마의 경험담, 정신박약 장애 딸을 둔 부부의 경험담, 두 아들과 함께 나와 이혼하려는 동생을 도와준 부부, 이 부부의 두 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한 경험담,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다단계판매 일을 하다가 수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 다시 새 가정을 건설한 부부의 경험담들이 큰 감동을 주었다.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갈등을 겪고 있던 한 주부는 “오늘 모임을 통해 용기를 갖게 되었고, 가정들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소중함과 일치를 일깨워 주는 귀중한 자리였다”고 소감문에 적기도 했다. “아름다워 보이는 가정들 뒤에 봉헌된 많은 눈물을 본다”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고 쓴 이도 있었고, “남편과 성격차이로 많이 다투었는데 오늘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적은 이도 있었다.

◆ 레지오 마리아 서울 무업시태 세미나투스

1. 한국 레지오 마리아 도입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며 묵주기도 5억단 바치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기도지향을

- ① 레지오 마리아에 정신 회복을 위하여
- ② 레지오 마리아에 50년사의 성공적인 편찬을 위하여
- ③ 레지오 마리아에 창설자 프랭크 더프와 에델킨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전 단원이 하루에 묵주기도 5단이상을 바쳐 5억단을 봉헌하였다.

2. 한국 레지오 마리아에 도입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02년 12월 14일~15일 대구 한티 순교 성지 피정의 집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소공동 체와 레지오 마리아의 신학적 자리 매김 (차동엽 신부: 인천교구 사목연구 소장), 사목자가 본 레지오 마리아 (박성대 신부: 포항죽도 주임), 레지오 마리아의 쇄신 방안 및 나아갈길 (김춘호 신부: 수원 고등동 주임)을 하였다. 전국 레지오 마리아 각교구 평의회 단장과 꼬미씨움 간부 232명이 참석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3. 한국 레지오 마리아에 도입 50주년 기념 전국 신앙대회 개최 2003년 5월 8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 세나투스 협의회가 주최하는 한국 레지오 마리아에 도입 50주년 기념 신앙대회가 개최되었다. '하나되게 하소서'의 주제아래 한국에서 5만명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에 아일랜드 콘칠리움 레지오니스 특사로 패트릭 패이, 토미 맥 케이브 형제가 참석하며 축하하였다.

4. 자연보호 및 가두선교 활동 전개

2003년 11월 28일 서울 대교구 내의 각 꼬미씨움 별로 자연보호와 가두선교 활동을 전개 하였다. 6,800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자연보호 활동을 통한 환경 보호의 생활회와 가두선교를 겸한 천주교 소개 및 예비자 입교를 권유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 각 교구 평협과 회원 운동·단체들의 활동 및 사업성과는 해당교구 단체에서 보내주신 원고를 그대로 게재하였습니다. 게재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미비한 자료는 게재하지 못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선정한 2003년 가톨릭 대상(20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12월 3일 거행되었다.

가톨릭 대상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남다른 사랑의 실천과 봉사와 희생에 앞장서며 정의구현과 문화의 창달에 현저히 기여한 숨은 공로자(작은 그리스도)를 찾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982년에 제정, 해마다 시상해 오고 있다.

2003년도에는 사랑 부문 대상에 차갑병(서울대교구 신내동 본당) 씨와 조현수(대구대교구 영천본당) 씨를, 문화 부문 대상에 이규정(부산교구 망미동본당) 씨를 각각 선정하여 시상했으며, 정의 부문 대상은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3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사랑부문 - 차갑병 사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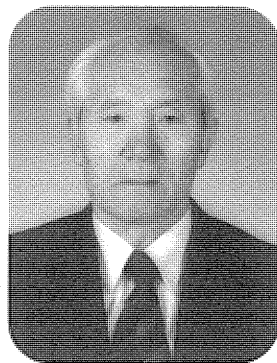
『보잘것없는 제 약속을 지

키려 했을 뿐인데..., 제가 그만한 일을 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가톨릭대상 사랑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차갑병(사도요한·80·서울대교구 신내동본당)씨는 그를 아는 이들에게 「따뜻하고 인자한 할아버지」로 기억되는 이다.

1040여명. 차씨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다시 하느님을 찾은 '쉬는 신자'들의 숫자다. 차씨가 이렇게 열성적인 「전교자」가 된 연원은 30년 전인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연히 찾은 병원에서 위암 말기 선고를 받은 차씨는 길어야 한달 남았으니 남은 생을 정리하라는 의사의 권고에도 목주를 손에서 놓지 않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 7개월 동안 용산성당의 성직자 묘역을 찾아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드린 후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쉬는신자」 찾는일 앞장



건강을 되찾은 후 80년부터 전교활동에 나선 차씨는 본업마저 제쳐둔 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신자와 쉬는 신자 집을 방문하는 등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제대로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나선 그의 전교 활동은 당시로서는 적잖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힘과 영감을 주기도 했다.

90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쉬는 신자」를 찾는 일에 나선 차씨는 사재를 털어 매주 본당 주보를 비롯해 교회 신문과 서적 등 신앙생활에 필요한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는 일을 시작해 선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다.

이런 그의 활동으로 쉬는 신자 외에도 200여명의 조당자들이 신앙생활의 새로운 기쁨을 맛보고 있다.

여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차씨는 전교봉사자라는 소박한 직함으로 「거주 미상자」와 쉬는 교우들을 교회로 다시 인도하는 일 외에도 새 영세자와 통신교리를 받고 있는 이들을 돌보는 일, 조당에 걸린 이들이 교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이끄는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그런 차씨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 바로 자신이 인도한 이들이 구역장, 사목위원 등 교회의 일꾼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일 때다.

『이 일은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 헌신

사랑부문 - 조현수(스테파노)

『이렇게 무거운 상을 받게

돼 큰 십자가를 진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상 사랑부문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조현수(스테파노, 82, 대구대교구 영천본당)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는 사랑으로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아오고 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인데 제가 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격동기라 할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4차례에 걸쳐 본당 총회장을 역임한 조씨는 굳건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종교적 탄압 등 갖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빛나는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역사회에 심어왔다. 그런 지난 50여년간의 활동의 결과가 손수 하느님 품으로 이끈 115명의 신자와 대부로 175명과 인연을 맺은 후 지금껏 이어오고 있는 신앙의 끈이다.

『교회를 위해 크게 한 일도 없는데 너무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조씨는 1972년 영천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삶의 기반을 다지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어왔다. 이런 사랑이 밑거름이 돼 그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유력인사 등 수백 여명을 하느님 품으로 이끌기도 했다.

이렇게 다져진 지역사회에 두터운 신앙으로 제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던 조씨는 지금껏 한번도 하느님과 멀어지는 일 없이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심어왔다.

특히 총회장 재임 시절에는 성당 건물을 증축하고 사제관을 새로이 짓는가 하면 땅을 기증해 교회묘지 조성에 힘을 쏟는 등 공동체의 신앙생활 터전을 다지는데도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 지역사회를 위해 유치원을 열어 어린이 조기교육사업에 눈을 돌리는가 하면 장학회를 설립해 미래세대를 키워내는데도 앞장서는 등 식지



않는 신앙의 열정을 보이고 있다.

『얼마 안 남은 여생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적극적이다.

그런 차씨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 바로 자신이 인도한 이들이 구역장, 사목위원 등 교회의 일꾼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일 때다.

『이 일은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작활동 통해 가톨릭 정신 전파

문화부문 - 이규정(스테 파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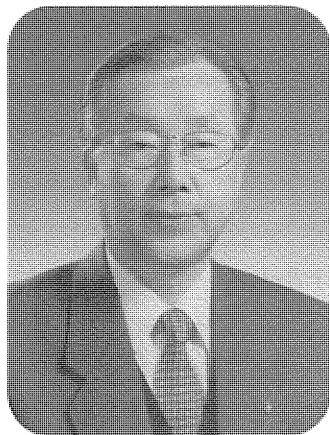
『가톨릭대상 문화부문 수

상자로 선정된 이규정(스테파노, 67, 부산교구 망미동본당)씨는 본업인 교수(신라대 국어교육과)보다 문화활동가, 소설가로 더 알려진 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씨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창작활동을 통해 도덕적 해이와 파탄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을 사실적 필치로 고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투철한 작가정신을 발휘했다는 문단의 평을 얻어 왔다.

『그리스도교 정신을 널리 전하는 작품 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질로 알겠습니다』



『1977년 「시문학」지를 통해 등단한 이씨는 이후 소설집 「첫째와 끝씨」 「당신 손에 맡긴 영혼」을 비롯해 장편 「돌아놓는 자의 행복」, 대하소설 「먼 땅 가까운 하늘」 등 11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하며 가톨릭문학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IMF 이후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소설 「퇴출시대」로 지난 2001년에는 제4회 가톨릭문학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인간의 욕망과 일상을 단호하게 비판하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인간사의 질서를 하느님의 계시 앞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인 소설집 「당신 손에 맡긴 영혼」으로 「요산문학상」을 받는 등 작가적 삶을 통해 가톨릭시즘을 구현해오고 있다.

『모두 하느님께서 주신 달란트 덕분이지요. 오히려 당신의 섭리를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신앙인으로서도 철저한 자기 정진의 모습을 보여온 이씨는 본당 회장은 물론 부산교구 평협 회장, 꾸르실료 주간 등을 역임하면서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나아가 각종 기고와 연설을 통해 한국평협이 전개하고 있는 「똑바로」운동의 확산에도 기여하는 등 교회 문화활동에도 적잖은 발자취를 남겨왔다.

『글을 통해 하느님을 알리고 우리 민족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제 몫을 꾸준히 탐구해 나가고 싶습니다』

성가정을 찾아서

논산 정연봉 · 위선희씨네

가정이라는 성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정연정 · 위선희 부부와
6남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성모송을 암송하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당장 엄마 위선희(리드비나, 43, 군중 교구 삼위일체본당)씨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잠을 쫓기 위해 온 가족이 양팔을 들고 가족 기도회에 들어갔건만 오늘도 기도 중에 깜빡 졸고만 둘째 해인(효임 골롬바, 16)이와 넷째 해미(인덕 마리아, 12)는 기도를 마치고 묵주기도 5단을 더 바쳐야 하는 상(?)을 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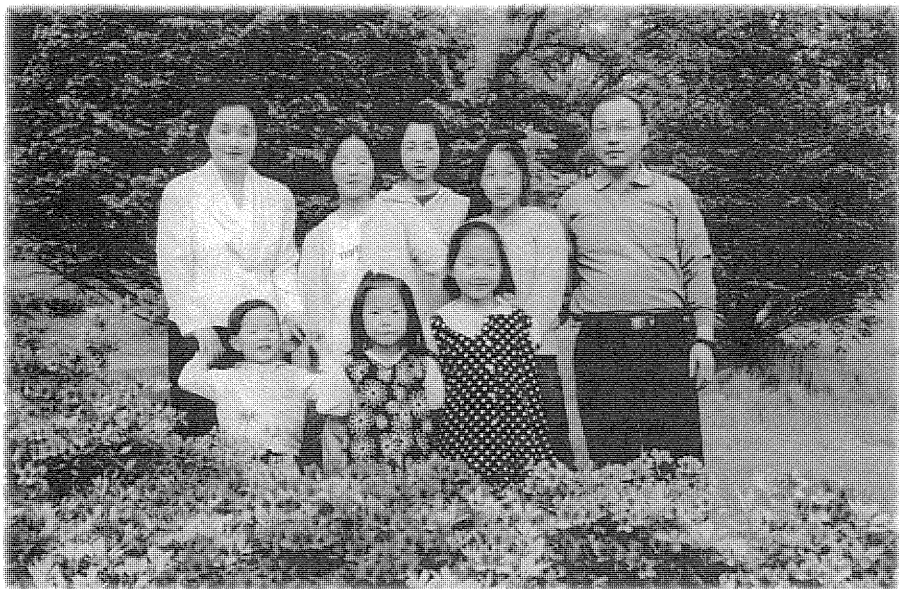
『아빠가 계셨으면 용서해주셨을 텐데...』

투덜대면서도 둘은 이내 당연한 것처럼 둘만의 기도시간으로 들어간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간. 정연봉(하상 바오로, 47, 대령) 위선희씨 가정의 하루가 시작 되는 모습이다.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떨어져 지내고 있는 아빠 정씨도 보이지는 않지만 같은 시간 「하느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터였다. 고등학교 2학년인 첫째 해정(효주 아녜스, 17)이와 중학생인 둘째와 셋째 해리(정혜 엘리사벳, 15)가 학교에 가고 나면 엄마와 남은 넷째, 다섯째 해진(희순 루시아, 7)이, 그리고 막내 해천(요셉, 3)이는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어김없이 성당으로 향한다. 끼니는 걸러도 기도는 거르지 않는다는 게 이 가정의 철칙이다.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것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저희 가족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정씨네 가족의 아침 가족기도는 그 자체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표징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아이들이 글자를 익히면서 저녁때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는 성서읽기도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의 맛을 들이게 하는데 적잖은 몫을 하고 있다.

3년째 육군 2군사령부 공병부 과장으로 복무 중인 아빠 정씨의 근무지가 대구라 충남 논산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는 기껏해야 한달에 한두번 만나는 게 고작이지만 정씨 가족을 어느 가정 못지 않은 아름다운 성가정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 듯했다. 무슨 일이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54일 기도와 1000단의 목주 기도를 바친 후에야 하느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두 부부의 삶의 자세다.

6남매를 키우는 정씨 부부에게 주위에서는 셋째를 낳은 후부터 「야만인」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나 아빠 정씨가 한곳에 머물기 쉽지 않은 군인 신분이라 이런 주위의 말은 걱정 이상의 의미를 지닐 때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내조가 절대 필요한 위치임에도 위씨는 아이들에게 매달려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는 것도 성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 전 수도자의 길을 꿈꾸기도 했던 위씨와 정씨의 부부로서의 만남은 또 다른 성소의 길임에 다름 아님을 돌아보게 한다. 군문(軍門)에 발을 들여놓은 후 13번이나 부대를 옮겨 다니는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만큼은 하느님이 맡기신 몫이라는 생각에 아이를 낳을 때마다 잠시도 누구에게 맡긴 적 없이 손수 길러냈다. 이러다 보니 원주에 근무할 때 낳은 첫째를 비롯해 안양에서 본 둘째, 대전에서 난 다섯째 등 아이들이 태어난 곳이 제각각이라 팔도가 아이들의 고향이 되고 말았다.

『계획은 무슨 계획이겠어요. 주시니까 낳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정씨 부부도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털어놓는다. 막내를 낳을 당시 위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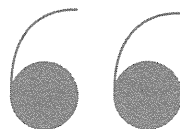
의 나이 마흔, 의사는 기형아일 확률이 높다며 낙태를 권했다. 그러나 기형아일지라도 하느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낳아 얻은 아이가 건강하기만 한 해천이었던 것이다.

부인 위씨를 통해 결혼과 함께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한 정씨는 훈련이나 출장을 가더라도 어떻게든 기를 쓰고 가까운 성당을 찾아 주일미사를 꼭 드릴 정도로 열성적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주일미사만 근근히 봉헌하는 「초보 신자」라고 쑥스러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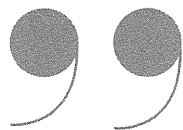
아빠 정씨가 외박을 나올 때마다 인근의 성지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도 이들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온 지 오래다. 나들이를 성지로 떠나면 아이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부의 생각으로 이어오고 있는 이런 순례 덕에 아이들은 거의 안 가본 성지가 없을 정도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씨 부부는 자신들의 가정을 보통보다 조금 더 열심한 「60점짜리 성가정」이라며 부끄러워한다.

이런 부부의 마음씀씀이 때문일까, 이들 부부가 가는 전후방 곳곳에서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꽃피워지곤 했다. 50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군에서 처음으로 「병사 레지오」를 만드는데 하면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주머니 돈을 털어내 본당이나 공소에서 병사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이들의 신앙생활을 도왔다. 또 군이라는 특성상 위축되기 쉬운 주부 레지오나 성모회 등 단체 활동을 활성화시켜 신자군인들의 신앙생활을 이끌기도 했다.

이런 주위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 때문일까, 정씨 가족을 향하는 사랑의 손길도 적지 않았다. 넉넉지 않은 처지를 알고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서 각종 비용을 깎아주는 것은 예사고 위씨가 출산을 하고 나면 꼬박꼬박 음식을 해 나르며 돕기를 자청하는 신자에, 집안일을 도우려 나서는 이웃들도 적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저희들의 삶이
잠시도 흐트러짐 없이
하느님을 우선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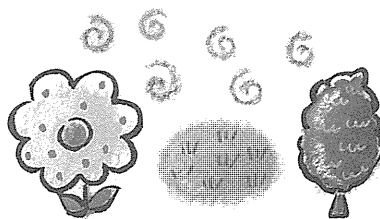
주님의 모습을 삶으로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은인들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워 올 수 있었던 것은 돌아보면 다 하느님의 은총인 것 같습니다』

이들 부부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 가운데서는 입교를 애써 권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고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된 이들도 적지 않았다. 군인과 군인가족이라는 모습이 하느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정씨 부부의 삶은 자신들도 모르는 새 어느덧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듯했다.

『저희들의 삶이 잠시도 흐트러짐 없이 하느님을 우선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아이를 밖으로 내보낼 때마다 순간순간 화살기도를 드린다는 위씨,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은 없다는 신념을 전하며 장병들 가운데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씨. 가정이라는 성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두 부부의 삶이 아름다움 이상의 감동으로 전해져왔다.



생명문화를 지향하는 가정



정연정 신부(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총무)

오는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대전 가톨릭대학교와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FABC) 제8차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가정’에 대하여 다루기로 하였고, 그 주제는 ‘생명문화를 지향하는 아시아 가정’이라고 정해졌다. 이런 때에 우리들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1.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

전통적인 개념에서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은 유교적인 색채를 많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로 표현되는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는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였다. 여기에다 조부모세대와 함께 사는 대가족 형태의 가정은 우리 가정의 전형이였다. 우리는 이런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고, 이웃과도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적인 경제성장은 우리 가정의 모습까지도 빠른 속도로 바꿔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우선 가정의 형태가 소위 핵가족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던 인간적인 세대간의 자연스러운 교육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이 자신의 경쟁상대라고 느끼게 하였다. 결국 우리는 경제적인 성장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가정’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많은 것을 그 댓가로 잃어버렸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수많은 일들은 결국은 우리 인간 공동체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몰락이라는 데서 기인하고 있음을 무엇보다도 먼저

절실히 깨달아야 하겠다.

2. 우리나라 가정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 바대로 지금 우리나라 가정 안에는 정신적 인간적인 가치관보다는 물질적인 가치관의 팽배로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의 것들이 지금 우리의 가정을 해체시키고 죽이는 문제점들 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내용에는 배우자학대와 노인학대, 아동학대가 있다.

배우자학대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유교적 가부장적인 가정의 분위기에 서양의 남녀평등 사상이 시대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드러나는 갈등이 폭력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예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요즈음 증대되는 까닭은, 최근 들어서 여성의 사회로의 진출과 경제적인 독립이 활발해지면서 종래의 남편들이 지녔던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변화되어야 하는 요구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되지 않은 이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폭력은 지난날의 습관화된 모습을 잃기 싫은 미성숙한 행태일 뿐이다.

노인학대는 자식에 의해 행해지는 부모에 대한 폭력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람을 단지 경제적 차원으로만 여기는 물질만능적인 풍토가 가져온 반인륜적인 행태인 것이다. ‘고려장’이라는 노인학대가 우리 선조들에게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지금의 부모학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을 지니는 것이었다. 우리는 현대의 가정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노인학대에 주목하면서 노인들이 그들의 가정 안에서 받지 못하는 배려를 사회구조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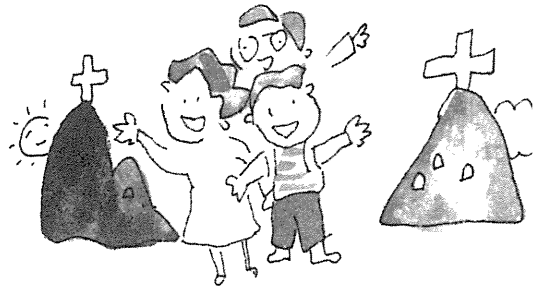
가정폭력 중에서도 가장 비인간적인 것이 바로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약자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부모들로부터 대부분 자행되는데 그들의 무능력함이 폭력으로 둔갑하게 된다. 또한 왜곡되거나 비정상적인 육체적인 욕심은 단순한 폭력을 뛰어넘어 성폭력이라는 패륜적인 학대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세대간의 대화 단절

앞서 언급한 바대로 우리의 가정은 급속하게 핵가족화되고 소가족화되고 있다. 동시에 가족은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기보다는 하나의 합숙소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

다. 이는 경제적인 성장이 가져온 풍요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여야 했던 생활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예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가정은 더 이상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요즘 들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맞벌이부부도 역시 가족들간에 함께 하는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족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지내는 데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더 이상 하루의 일과가 아니라 어쩌다가 보내게 되는 가정의 특별행사가 되고만 것이다.

이제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나누는 세대간의 일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가족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공통목표 안에서만 가끔씩 가족간의 일치를 확인하곤 한다. 그 공통목표는 경제적 물질적 가치에 근거한 것이기에 이는 지속적인 세대간의 일치를 유지하기보다는 간헐적이고 한시적인 모습에 그치고 말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자녀들은 또래들과 호기심으로 시작한 잘못된 어울림을 통하여 비행청소년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기도 한다.



참된 세대간의 대화가 단절된 가정은 더 이상 인간적 정신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인간공동체가 아니라, 단지 물질적 소비지향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집단숙식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혼

우리 선조들은 ‘정절’을 부부간의 큰 덕목으로 여겼다고 한다. 물론 남자보다는 여자의 정절을 강조한 바는 없지 않지만, ‘조강지처를 버리는 남자는 패륜아’로 여겼던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정절’은 결코 여자에게만 국한시킨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부부 관계를 큰 덕목으로 여기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서양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이혼을 하는 국가가 되었다. 소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다시 말해서 한 해에 이혼한 숫자를 결혼한 숫자에 대비하여 보는 비율이 48%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가 되는 기록인 셈이다. 결국 지난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는 48쌍이 이혼을 했었고, 100쌍이 새로이 결혼을 했었다는 것이다. 가히 이혼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우리는 10여 년 전만 해도 이혼한 사람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들로 여겼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두 명의 한 명 꼴은 이혼한 경력이 있던지, 아니면 이혼할 경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이혼이 우리나라 안에서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은 여성들의 증대된 경제적 능력

과 자의식의 확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지난날처럼 여성들은 남편에게만 철저히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 능력을 지니게 되었고, 이는 더 이상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남성들의 몰지각한 처사를 그냥 간과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부당한 부부관계는 과감히 청산할 수 있는 결단을 여성들로부터 가능하게 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부부생활에서 자신들의 배우자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동반자인 여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저출산

1960년대에 우리 정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출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우리 국민들을 독려했다. 그 결과로 한 가정에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었고, 급기야는 자녀 한 명이 상례가 되어 버렸다. 결국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

이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대단한 한반도의 기적을 지난 40년 동안에 이룬 셈이다. 이는 무료로 정관수술을 해주고 출산비를 비싸게 매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소위 ‘모자보건법’이라는 묵시적 낙태합법시술법(?)을 성공적으로 만든 당연한 금자탑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서 일등이고 싶은 우리는 이 금자탑 앞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된 상태로 가속도가 붙은 자동차는 어딘 가에다 부딪히지 않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출산율은 가속도가 붙은 상태이다. 우리의 대오각성이 없고서는 결코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령화

적게 낳고 빨리 죽지 않으면 자연히 사회는 고령화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게 되면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하지만 이 수치는 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왜냐하면 의학의 발달과 충분한 식생활과 혼인의 감소와 앞에서 살펴본 저출산 등의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2020년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여길 것을 가정 안에서 배울 수 있어야겠다.

이 되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경제적 활동인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를 지탱하는 인적구성원의 역학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이로써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노력한 혜택을 다른 이에게 많이 덜어 주어야만 하게 되고, 노인 세대 역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적은 노후의 생활보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고령화 더 나아가서 노령화 사회는 인간 공동체 안의 각 세대간에 그 어느 계층도 이익을 보지 못하는 최악의 미래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낙태

대~한~민~국, 낙~태~천~국. 정확한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행해지는 낙태건수는 약 150~200만 건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숫자는 하루에 전국적으로 약 5000명의 태아가 죽여지고 있다는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이 낙태가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이유에는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 경제적 가치, 인간적 체면, 남아선호사상, 인간생명의 존엄성 상실 등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게다가 ‘모자보건법’이라는 선을 가장한 실제적 악법은 낙태를 아주 합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방패막의 역할을 지난 30여 년동안 이 땅에서 해오고 있다. 아울러 물질지상주의는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로 하여금 낙태시술을 통한 물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

낙태는 그것을 택하는 순간 자신에게 깊어지워진 짐을 벗어 던지는 홀가분한 행위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 안에서는 분명 비극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 안에서 낙태는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불씨가 되고 있다. 그것은 죽음의 씨를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낙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버려지는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생명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버려지는 아이들 또한 수없이 많다. 그 숫자가 매년 10,000여명 정도라고 하니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인간은 숨을 건졌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 걸맞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답다고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가정과 부모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우리의 아이들을 감싸 안지 못하고 외국으로 보내고 마는 현실이다. 이런 실

정은 미혼모들에게 낙태를 손쉽게 생각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버려지는 아이들은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파산, 비정상적 성격, 가정해체 등의 이유로도 생겨나게 된다. 이런 소년소녀 가장들은 성숙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3. 교회는 가정의 파수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역설하셨다. 그것은 가정이야말로 인간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세포와 같은 것이며, 또한 하느님의 작은 교회로서 신앙이 키워지고 교육되고 봉사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는 가정의 참된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가정사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진해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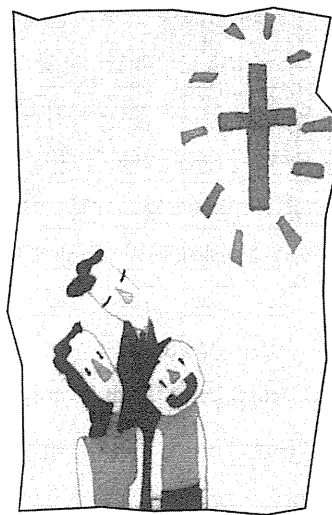
이미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는 1975년부터 가정사목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었고, 현재 각 교구는 가정사목 전담신부내지는 부서를 두어서 사목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교구 장 주교님들은 사목교서든지 교구 시노느문헌 등을 통하여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사목의 강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내걸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사목적 배려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본다.

가정사도직의 강화

현 교황님의 '가정공동체'라는 문헌에서 언급된 바대로 이는 가정을 위한 사도직을 말한다. 즉 가정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가족들 모두가 하느님의 법규에 부합하는 생활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들을 그리스도적 교육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정결교육과 올바른 생활을 준비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교육의 실천

가정은 생명을 내어 주는 산실이다. 그런 가정이 생명을 구가하기보다는 죽음을 조장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자신의 것처럼 소중한 것임을 가정 안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하겠다. 이는 혼인을 통하여 부부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데 올바른 부부생활과 더불어 올바른 출산과 양육 등으로 세대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도생활의 전수

대화의 단절을 가져온 현대의 가정은 기도라는 영적인 양식을 가정기도라는 한 식탁을 통하여 다시 이을 수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음을 잘 알고 있듯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가족의 모습을 하나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영적인 양식이다. 가정기도는 그 안에서 각자의 존재를 다른 가족에게 분여해 주게 됨으로써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어 일치하게 만들어 준다.

가정 중심의 사목 강화

본당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의 사목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보다도 더욱 강화된 가정 중심의 사목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본당 내 조직에 있어서도 변화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배려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 가정을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가정을 한 가족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사목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좀 더 가정공동체 중심의 사목이 본당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구 안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 길만이 가정을 바로 살릴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4. 가정을 살리기 위한 아시아인의 열망 ; 아시아 주교회의

올해 2004년은 우리 아시아인들이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원년이랄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제8차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정기총회가 가정을 주제로 열리기 때문이다.

주제 : '생명문화를 지향하는 아시아 가정'

처음에는 '아시아의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으나, 생명의 산실이며 생명의 문화를 일으켜야 할 가정의 역할을 중시한 주제로 변경되었다.

일자 : 2004년 8월 16일(월)부터 23일(월)까지

장소 : 대전 가톨릭대학교 및 정하상 교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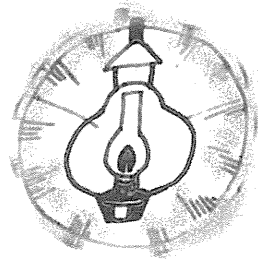
참가국 :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캄보디아, 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이상 14개의 정회원국가) 및 홍콩, 마카오,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카

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시베리아(러시아)(이상 준회원국가 10개) 등 24개국가이다.

토의될 내용은 아직도 세부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몇가지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즉 인식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교회 지도자, 교육자, 낙태 반대 운동가, 학생, 일반 대중은 가정과 관련된 문제들(예를 들어 혼인, 피임, 이혼, 낙태 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도록 노력의 필요성의 새로운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다. 이어서 교구, 본당, 단체들이 어떻게 후속적인 전략을 세워서 신자들의 삶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를 다루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지속성을 지니고 전개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토의될 사항들이 지금도 부단히 준비중에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서에서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가르쳐 주신다. 겨자씨는 이 세상의 그 어느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게 되면 날아다니는 새들도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의 모습 안에서 당신의 무한히 크신 은총을 보여 주고 계신다.

바로 이 겨자씨가 우리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가정이 바로 서야 세상이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가정 아니 가정교회를 하느님의 뜻대로 살리고, 그 안에서 참된 하느님의 모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인간생명 존엄성과 관련한 교회의 정확한 가르침 소개

이창영 바오로 신부(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국장 •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위원)

인간 생명

1.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2) 인간에 봉사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하느님께서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하셨다. 특히 그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창세 1,27), 그들에게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권한을 주셨다(창세 1,28 참조). 기초 과학 연구나 응용 연구들이야말로 모든 창조물들에 대해서 인간이 갖는 이런 권한의 한 가지 단적인 표현인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며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온전한 인간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의 존재 의미나 인간 발전적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과학과 기술은 그것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

킨 인간들에 의해서 그 올바른 목적과 그들의 한계성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나 그 응용이 그 자체 도덕적으로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또 이들 과학적 연구나 응용의 도덕적 기준은 그 과학 기술의 효용성이라든지 당대의 사회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과학과 기술은 무엇보다 인간에게 봉사해야 하며, 또한 하느님의 의지와 계획에 의한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참되고 온전한 선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도덕적 판단을 위한 근본 기준

우주에 있는 다른 형태의 생명들이 전수되는 것과 비교해서 인간 생명의 전수는 매우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특수한 본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전수는 자연에 의해

서 인격적이고도 양심적인 행위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법(all-holy laws), 즉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따라야 하는 변할 수도, 범할 수도 없는 법의 대상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누구든지 식물이나 동물의 생명을 전수하는데 쓰이는 수단과 방법을 인간에게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이제 성적 관계를 거치지 않고도 실험실적으로 미리 남자와 여자에게서 취한 생식 세포를 합치는 조작으로 출산을 가능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렇듯 인간 출산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같은 이유로 도덕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최초 생성 단계로부터의 인간에 대한 기술적 개입들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인간 출산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5) 교도권의 가르침

수정되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 생명은 철저하게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 바라셨고” 개개인의 영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창조됨”으로써 그 전체를 창조주의 모습을 간직한 지상의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생명은 성스럽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생성 초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연결되며 또한 모든 생명의 목적이기도 한 창조주와의 특별한 관계로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이다.

[출처: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1987.2.22.), Origins 16: 40호(1987.3.19.), 699-701면.]

2. “생명의 복음”

34) 생명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며, 체험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왜 생명이 선한 것인지 그 심오한 이유를 깨달으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 생명은 선한 것일까요? 성서 곳곳에서 이 질문을 찾아볼 수 있으며, 첫 지면에서부터 이 질문에 대한 강렬하고 놀라운 대답이 주어집니다. 인간은 비록 진흙으로 빚어졌지만(창세 2,7; 3,19; 욥 34,15; 시편 103,14; 104,29)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이고,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표징이며, 그분 영광의 흔적입니다(창세 1,26-27; 시편 8,6 참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다른 살아 있는 피조물들에게 주신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출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1995.3.25.), Origins 24: 42호(1995.4.6.), 701-02면.]

3. “생물학적 실험”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가장 참되고 가장 다양하게 표현되는, 인류의 가장 귀중한 유산인 과학과 지혜는 인간에게 봉사합니다. 교회는 그 본질적 사명에서 인간의 진보를 촉진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첫 회칙에서 썼듯이, “인간은 교회가 사명을 이행하면서 걸어가야 할 근본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교회의 주요하고 근본적인 길이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출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물학적 실험”(1982.10.23.), The Pope Speaks 28: 1호(1983), 74-75면]

4. “환자도 인간입니다.”

의학의 지배하는 규범

새로운 연구 기술이 인간의 생명권을 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다면, 그 기술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더욱 축적시켜 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술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은 다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종속되어야 하는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가치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육체적 정신적 생명과 정신적 기능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입니다. 인간은 모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선과 악의 척도이며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의 진보는 중립적 입장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 존중에 바탕을 둔 윤리 규범이 모든 연구 단계와 연구 결과의 적용을 조명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근래 들어, 의료 행위가 그 봉사의 대상인 인간보다는 의료 행위 자체에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오는 해로운 결과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경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환자도 인간입니

다.”(1980.10.27.), The Pope Speaks 26: 1호(1981), 1-3면]

5. 정 리

인간 삶의 모든 문제의 중심, 특히 생명 공학으로 인한 모든 문제의 출발점 내지 해결점은 바로 ‘인간’이다.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다시 숙고하고 고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의 출발이자 해결점은 ‘인간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

인간은 유일하게 모든 생명체 중에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숙고하고,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결정한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인간을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가톨릭 교회는 언제나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즉 오로지 하느님의 협조자로서의 관계에 있다고 가르친다. 무엇보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존재이기에 다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엄성과 고유성’을 가진다. 이러한 인간의 하느님과의 연관성과 인간의 초월적 개방성은 그리스도교적 인간관의 내적인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 생명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그 생명의 주도권(initiative)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느

님에게 있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 생명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귀한 ‘선물’이다. 동양 사상에서도 인간이 가진 ‘생명’ 혹은 ‘목숨’은 단순히 목숨만을 뜻하지 않고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가르친다. 이런 의미에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천명(天命)’이라 했으며, 이는 곧 인간 생명이 ‘절대적’인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떤 이유에서든 해쳐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선물로 주어진 생명을 보호하고 가꾸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상생활 동안 천상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호하고, 수호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에 대한 실험¹⁷⁾

1.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I 인간 배아에 대한 존중

4) 인간 배아와 태아에 대한 연구나 실험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어떻게 내릴 것인가?

살아 있는 배아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그 일이 태아나 어머니의 생명과 온전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도덕적 확신이 없는

한,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부모의 자유스럽고 충분히 이해된 상태의 동의가 없는 한 실시되는 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연구는, 그것이 아무리 인간 배아를 관찰하는 정도의 간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그에 따른 영향 때문에 배아의 생명이나 형태에 해를 준다면 부당한 것이 된다. 실험이라든지, 그 실험의 목적이 치료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구분하는 데는 또 한 가지 그 실험이 살아 있는 배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죽은 것에 대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일도 중요하다. 만일 배아가 살아 있는 경우라면 그것의 생존 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인격체와 마찬가지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배아에 대한 실험은 부당한 일이다.

교황 성하께서 반포하신 “가정 권리 헌장”에서도 “인간 존엄성의 존중은 태아에 대한 여하한 실험 조작이나 이용을 배제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죽은 배아나 태아를 다룰 경우 고의적인 유산에 동조했다거나 이들 태아에게 해를 끼쳤다는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보호될 도덕적 요구가 필요하다. 또한 죽은 태아에 대해서도 어른들 시체에 대해서와 같이 일체의 상업적 거래는 부당하며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금지되어야 한다.

5)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으로 얻은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체외에서 얻은 인간 배아도 어디까지나 인간이며 따라서 그들의 생명권과 존엄성은 그 존재의 시작에서부터 존중되어야 한다. 한 번 쓰고 버리는(disposable) '생물학적 재료'로 인간 배아를 만들어 내는 일은 부도덕하다.

통상 체외 수정으로 배아를 만드는 경우, 이들 배아가 모두 어머니 자궁 속에 착상되는 것이 아니고 더러는 파괴되고 만다. 인공 유산에 대해서 교회가 비난하듯 인간 배아에 대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교회는 이를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공적 정자 주입(artificial insemination)이나 '분체 생식'(twin fission)에 따라 순전히 연구를 목적으로 실험실적으로 얻은 인간 배아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 이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연구자는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이며, 설사 그 자신이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멋대로 어떤 사람은 살리고 또 어떤 힘없는 사람은 죽여 버리는 등 결국 다른 사람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체외에서 얻은 배아를 해치거나 그들에게 중대하고도 부당한 위험을 주는 관찰이나 실험 방법들도 같은 이유에서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출처 :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1987.2.22.), Origins 16: 40호(1998.3.19.), 697-711면]

2. "환자도 인간입니다"

실험

약리학적 임상 연구는 그러한 개입이 무해함을 확신시킬 수 있는 모든 예방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의 준비 단계에서는 그 약품이 가질 수 있는 중독 효과에 대하여 최대한 광범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에게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험의 목적과 위험 가능성들에 대하여 알려져서, 환자가 충분히 알고 자기 의사로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권한과 권리를 가집니다.

실험의 본질적인 한계

또한 환자의 동의도 그 범위가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가 실험에 협조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실험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에 이바지함으로써 실험을 정당화할 주된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자의 본질적인 완전성이 보존되는 경우, 환자가 의학의 발전과 공동선에 몸소 이바지하는 한 방식으로써 위험을 합법적으로 감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학은 인간에게 장애가 되는 질병들과 인간을 억누르는 심리적 육체적 나약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힘으로서 공동체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도덕률의 제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기 증여

는 가치 있는 사랑의 뛰어난 증거가 되며 본질적이지 않은 육체적 손실의 위험 가능성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환자도 인간입니다”(A Patient Is a Person)(1980.10.27.), The Pope Speaks 26: 1호, 1981년, 3-4면.]5. “인간의 불가해성”

3. 정 리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그분의 모상이고, 각인이며, 그분 생명의 숨결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이 생명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따라서 인간은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생명의 복음』, 39항).

회칙 「생명의 복음」은 인간 생명의 선성(善性)에 대한 근거로서 인간은 “이 세상에 하느님을 증거하는 존재이고,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표징이며, 그분 영광의 흔적”(창세 1,26-27; 시편 8,6 참조)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하느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점을 강조한다(34항 참조). 이렇게 인간은 현세적인 존재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충만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며, 따라서 위대함과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인간 생명에 대한 이러한 기초에서 인간 생명의 특성으로서의 신성함과 불가침성이 드러나게 된다. 인간 생명의 신성함, 선택 그리고 불가침성이라는 특성은 결국 인

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인간 생명의 시작에 관한 문제는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생명 윤리의 중심에 서 있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 생명이 탄생하는 최초의 결정적인 순간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가르친다. 이 순간에 유일하고도 반복되어질 수 없는 유전 인자로서 아버지의 생명, 어머니의 생명과 구별되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며, 따라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수정란의 시기를 이미 인간 생명이 시작된 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신앙교리성, “인공 유산 반대 선언문” 참조). 이렇게 수정란에서부터 이미 인간 생명은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존재의 첫 순간에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수정란이나 복제된 배아 모두 하나의 인격적 개체로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일 인간 배아에 관한 연구나 실험, 배아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의료 조작이 배아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온전성을 거스르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 기술의 발전은 참으로 눈부시고 놀랍다. 이로써 인류의 질적인 삶은 매우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생명 과학 분야에서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의 미래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이

처럼 인류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더 직접적으로는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목표로 발전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그것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며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의 존재 의미나 인간 발전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생명의 선물』, 121면). 곧 과학 기술의 발전이 참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발전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과학 기술은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의 재능과 창의력이 이룩해 놓은 업적이 때로는 인간 스스로를 지배하고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를 회복 불가능한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인간의 구원자』, 19항 참조). 인간의 교만과 통제되지 않는 욕구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까지 과학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인류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것이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연구나 실험도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 나아가 생명 과학의 모든 기술은 본래의 목적인 ‘인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결코 인간을 위협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적 연구나 그 응용이 그 자체 도덕

적으로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또 이들 과학적 연구나 응용의 도덕적 기준은 그 과학 기술의 효용성이라든지 당대의 사회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과학 기술은 본질적으로 도덕률의 근본 기준을 무조건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곧 그들은 무엇보다 인간에게 봉사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의한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참되고 온전한 선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생명의 선물』, 121면; 사목 헌장, 35항 참조).

주1) ‘연구’와 ‘실험’이라는 용어가 흔히 같은 의미로 또는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용어에 부여하는 정확한 의미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① ‘연구’라는 말은 인간적인 영역의 기존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의 추구 또는 이전의 관찰들에서 제기된 가설에 대한 입증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연역적 또는 귀납적 과정을 의미한다.

② ‘실험’이라는 말은 현재 모르고 있거나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일정한 치료(예컨대 약리학적, 기형 발생학적, 외과적 치료 등)의 효과를 증명하려는 의도에서 인간을(배아, 태아, 어린이, 성인 등 그 실존의 여러 단계에서) 대상으로 삼는 어떤 연구를 의미한다.

인간의 성(性)

1. “인간의 성(性), 그 참모습과 참뜻”

자녀들이 한 인간으로 성숙하는 과정은 각자 다르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측면이든 정서적 측면이든 자녀의 가장 내밀한 면모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격적 대화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 개개인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대화할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의 증여에 대한 무엇인가를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부모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전할 수 없는 성의 정서적 차원의 측면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유아기 때부터 본능적인 성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필요할 때 절제를 가르치는 것을 억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 존엄과 정결에 위배되는 일부 태도들을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유효한 근거에 입각하여 이성과 신앙의 차원에서, 곧 인간 존엄이라는 높은 차원의 개념 안에서 윤리적 거부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정결 교육과 적절한 시기의 성교육은 사랑의 교육이라는 폭넓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인 윤리 원칙과 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성 생활의 성장을 끊임없이 도와줌으로써,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사랑이 생물학적 성장과 충동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자녀들

과 언제나 함께 하시도록 하며, 인간 개개인과 남녀 육체의 존엄에 대한 인식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비추어 사랑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소명과 보편적 성화 소명의 맥락에서 인간 성(性)의 긍정적 가치들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출처 : 교황청 가정사목평의회, “인간의 성 그 참모습과 참뜻”, Origins 25, 32호 (1996.2.1.), 530-532면]

2. 인간적 사랑에 관한 교육 지침

① 성(性)의 의미

성은 인격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가 존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이와 친교하고, 느끼고, 표현함으로써 인간적 사랑을 주고받는 양식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격 개발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분야이다.

성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남성과 여성을 특징짓고 각자의 표현에서 자기의 성을 나타내게 한다. 성의 이러한 상이성은 상호 보완성을 이루며, 각자의 소명에 따라 하느님의 계획에 철저히 응답하도록 만들어 준다.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성교는 결혼한 부부가 육체를 통하여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가장 완전한 표현이다. 자기를 내어 주는 이러한 상호 증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실재로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특별한 방법으로 유지되고 풍요로워지며, 그 상호 증여의 맥락을 벗어난 성교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개인의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도덕적 무질서가 된다.

성은 생리적, 심리적으로 개발됨으로써 조화 있게 성숙되며, 이타적 사랑과 전적인 자기 증여로써 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 성숙성으로써만 완전히 성취된다.

② 성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개념

인간은 성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거기에 필요한 도덕적 요구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성은 상호 인격적 대화를 지향하고, 인간의 완전한 성숙에 도움을 주며,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 주도록 사람들을 개방시켜 준다. 그것은 또한 창조 질서와 출산력과 생명 전달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내재적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사랑과 출산은 성의 의미이며 가치이다. 따라서 성은 그 두 가지를 내포하면서 요구한다.

[출처 : 가톨릭교육성, “인간적 사랑에 관한 교육 지침”(1983.11.1.), *Origins* 13, 27호 (1983.12.15.), 451-453면]

3. 정 리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성을 출산과 자손의 번식이라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아 성숙과 타인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인격의 완성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창조 사상에 근거하여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선물로써 이해한다. 그래서 인간의 성은 자신의 행복 추구를 통하여 자아의 인격적 완성을 도모하여야 하고, 자신과

타인 사이의 헌신적이고 책임 있는 상호 봉사의 실현으로 타인의 인격적 완성에 기여하여 참된 일치의 공동체를 이루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사랑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선물로써의 의미를 지니는 인간의 성은 은총의 부여자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성간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통하여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따른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는 신비로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성은 오늘날 만연한 사고처럼 사랑과는 무관한 인스턴트식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 곧 아가페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과 사랑은 떼어 수 없는 상호 조화의 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이 올바른 것임에도 현실 속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대에는 성 해방을 부르짖으며 청소년들의 성범죄를 비롯해서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또한 ‘성의 개방화 물결’은 온 사회를 뒤덮어 현대인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성과 사랑을 따로 떼어내고, 성을 오로지 쾌락을 위한 오락물 정도로 여겨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

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는 물론 종교적 차원에서도 예방적 성교육과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인간 생명이 지니는 존엄성에 대한 윤리 의식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의 성은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일회적인 쾌락의 수단이 아니라 책임성과 성실성을 가지는 부부 관계에서 완성되고 또 완성되어야 하는 하나의 신비이다. 사랑과 연결된 성은 자신 안에 묶여 있지 않고 부부 상호 간의 전인격적인 나눔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사회로 확대되고 급기야는 온 인류에게 봉사하게 되는 역동성을 가진 사랑의 신비이다. 이것이 성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근본적 가르침이다.

자연 주기법

1. “자연 주기법과 피임이 다른 이유”

부부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전 존재로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주도록 부름 받습니다. 자기 존재의 어떠한 부분도 이러한 증여의 행위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피임이 본질적으로 위법인 것입니다. 피임은 이러한 상호 증여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져오며 부부 행위의 두 가지 의의, 곧 일치 의의와 출산의 의의 사이의 “불가분의 연관성”을 깨뜨립니다.

자연 주기법을 그 본연의 윤리적 차원에서 분리하여 단순한 기능적 측면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연 주기법과 인공 피임 사이의 심오한 차이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연 주기법이 마치 또 다른 형태의 피임인 것처럼 말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자연 주기법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연 주기법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증여의 논리 안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되고, 사랑과 생명의 실제적인 상호 친교의 바른 표현으로서 진정하게 실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자연 주기법과 피임이 다른 이유”, Origins 27, 40호(1998.3.27.), 680면.]

2. “가정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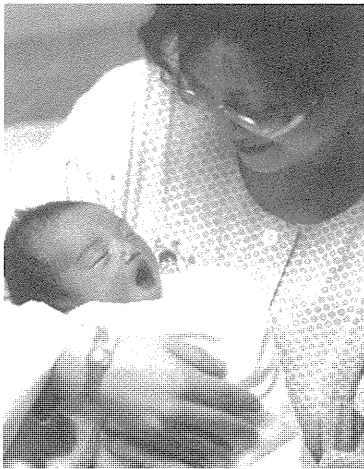
수많은 부부의 경험과 다양한 인간 과학이 제공하는 자료에 비추어 신학적 사색을 통해서 출산 주기법과 산아 제한법 사이의 인간학적 또는 도덕적 차이점을 파악하고 더욱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차이점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인간 인격과 인간의 성이란 두 개의 융화하기 어려운 개념에 관련된다. 자연적 주기의 선택은 인간, 곧 여자의 주기를 받아들이고 따라서 대화, 상호 존중, 책임의 나눔과 자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주기를 받아들이고

대화하는 것은 부부 일치의 영신적 육체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고 충실의 요구대로 인격적 사랑을 사는 것이다.

[출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 (1981.11.22.), Vatican Council II, 제2권, 840-841면.]

3. “책임 있는 출산”

우리는 다양한 자연 가족 계획법이 있어서 여러 부부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은 하느님의 섭리임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한 방법만 배타적



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이 존중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모든 자연 가족 계획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생물학적 효과나 신뢰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性)은 부부애의 표현이라는 그리스도교의 관점과 일치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출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책임 있는 출산”(1984.6.8.), The Pope Speaks 29, 3호, 1984년, 244-247면.]

4. “하느님의 눈에서 본 인간의 성(性)” 자연 주기법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부부들은 가임 주기를 쉽게 알 수 있으며, 하느님의 법에 일

치되며 자신들의 친교와 일치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출산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일깨워 주시듯이 자연 주기법은 “대화와 상호 존중, 책임의 나눔과 자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 한다”(「가정 공동체」, 32항). 교황 바오로 6세께서도 「인간 생명」에서 자연 주기법은 여러 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출처 : 미국 주교회의의 생명수호위원회, “하느님의 눈에서 본 인간의 성(性)”, Origins 23, 10호 (1993.8.12.), 164-166면.]

5. 정 리

일반적으로 모든 가톨릭 신자 부부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부부의 성생활을 자유롭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학자들은 3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과 연구를 해 왔다. 그 결과 단순하면서도 해가 되지 않는, 또한 불안과 위험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 주기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오늘날의 자연 주기법은 가임 기간과 불임 기간에 대한 개연적인 계산을 뛰어넘어 한층 더 완전하고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생리 주기, 배란 주기 및 시기 등의 이론에 기초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부부가 임신할 수 있는 날들을 알아낼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자연적 방법은 산아 제한을 바라는 많은 부부들에게 임신할 수 있는 기간

까지도 알려 준 것이다.

여성에게 임신의 가능성은 여성의 주기 중에서 며칠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 자연 주기법으로 부부는 부부 생활 중에서 가임과 불임의 과정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부부 상호 간과 자녀들의 선을 위한 그들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부부 관계를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자연적 방법을 단순하게 사용 규칙을 알고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한 하나의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가치는 우선적으로 삶의 형태를 미리 준비하고 또 향상시키고 발전시켜 준다는 데 있으며, 나아가 상호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특별한 방법으로서, 사랑과 자유, 그리고 공동의 책임감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데 있다.

“부부가 산아 제한의 방법을 사용해서 창조주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의 됴됨이와 성적 일치의 역동성에 박아 주신 이 두 가지 의미를 분리한다면, 그들은 하느님 계획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완전한’ 자기 봉헌의 가치를 변조시킴으로써 인간의 성(性)과 더불어 자신들과 결혼 동반자를 ‘조작하며’ 실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상호 간의 완전한 자기 봉헌을 표현하는 본래의 언어가 산아 제한이라는 객관적으로 모순된 언어, 즉 자신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언어로써 덮여 씌워진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개방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함과 아울러

인간 전체를 바치도록 되어 있는 부부애의 내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자연적 주기의 선택은 인간, 즉 여자의 주기를 받아들이고 따라서 대화, 상호 존중, 책임의 나눔과 자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주기를 받아들이고 대화하는 것은 부부 일치의 영신적 육체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고 충실의 요구대로 인격적 사랑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는 부부 일치가 육체적 차원을 포함한 인간적 성의 내적 요체를 이루는 부드러움과 애정의 가치로써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이 참되고 완전한 인간의 차원에서 존중되고 촉진되며, 결코 ‘대상’으로서 ‘이용’되지도 않을 것이고, 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가장 깊은 상호 행위의 지평에서 하느님의 창조를 침해하면서 영혼과 육체의 인격적 일치를 파괴하지도 않을 것이다”(『가정 공동체』, 32항).

피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1. 회칙 “인간 생명”

① 산아 조절의 그릇된 방법

그리스도교적인 이론의 기초적 원칙에 의거하여 직접적인 낙태를 산아 조절의 정당한 방법이라고 하는 의견을 전적으로 배격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 낙태는 비록 치료의 이유라 할지라도 배격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교도권이 여러 번 가르친 대로, 남자든 여자든 영구적이든 일

시적이든 직접 시술을 하는 것은 단죄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 행위에 선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 필연적인 결과로써 피임을 묵적하거나 방법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하여야 한다. 또는 고의로 피임하는 부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덜 크다고 생각되는 악을 택해야 한다든지, 부부 행위는 피임할 때의 행위도 그 전후에 임신할 때의 행위와 함께 하나의 행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행위가 같은 하나의 윤리적 선에 참여한다는 따위의 이유를 끌어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나 탁월한 선을 증진하기 위하여 덜 큰 악을 묵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무리 중대한 이유가 있다 하여도 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② 인공적 산아 조절의 중대한 결과

인공적 산아 제한 방법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올바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이런 행동으로써 얼마나 넓게 또 얼마나 쉽게 부부의 불신과 윤리 생활의 퇴폐의 길이 열리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또 사람들이, 특히 정욕이 강한 젊은이들이 도덕률을 충실히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큰 자극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너무 쉬운 범법의 방법을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 오랜 경험이 필요 없다. 더욱 통탄할 일은, 피임 방법 사용에 습관 된 남편들이 아내를 존경할 줄 모

르며, 아내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무시하고 아내를 자기 정욕에 봉사하는 도구로 삼아 버려, 아내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 할 동료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마침내 이런 방법으로 자연법에 무관심한 국가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국가 전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을 책망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국가 권력이 더욱 효과적인 임신 방지법을 권장하거나 더구나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런 방법의 사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한다 해도 누가 감히 그것을 저지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법이 내포하고 있는 어려움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가 체험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부부의 가장 고유한 사명의 심장부에까지 국가 권력의 방자한 간섭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출처 : 회칙 “인간생명” 14항, 17항 참조 (1968.7.25)]

2. “하느님의 눈에서 본 인간의 성(性)”

부부들이 부모가 되기 위한 결정을 내릴 때 겪게 되는 문제들과 어려움을 인정한다. 경제적 안정, 직장, 건강, 자녀 교육, 현재의 책임들을 완수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걱정들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만이라도 자녀 출산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 성장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들과 자녀의 가치를 경시하는 문화적 태도가 자녀 한두 명을 더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압력들이 부부들의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 “자녀들은 참으로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의 행복에 크게 이바지한다.” (사목헌장, 50항)라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가르침을 떠올려 보자.

[출처: “하느님의 눈에서 본 인간의 성(性)” (미국 주교회의의 1993.8.12)]

3. 정 리

성숙한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 하고, 수정된 난자를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임신’이라 하며, 임신이 성립함을 ‘수태’라고 한다. 이러한 수태과정은 양성세포의 생산, 배란, 사정, 수정을 위한 이동, 수정, 수정란의 자궁으로 이동, 착상 등으로 7단계로 이야기 할 수 있다.

피임은 엄밀한 의미로 7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말하며, 더욱 엄밀한 의미에서는 5단계, 즉 수정 이전까지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게 저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족 계획이나 인구 억제 정책적인 면에서 피임이 주는 효과는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임 기술 그 자체가 더 근원적이고 깊은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된 이익이라는 것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모호하고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위생학상, 우생학상, 미학상으로 볼 때 피임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결코 완전한 피임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피임과 낙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임과 낙태는 상호 인과 관계로 작용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임 상태에서 한 단계 연장한 목적 실현의 방법이 낙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곧 임부에게 해로운 임신이나 원치 않는 아이의 임신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써 낙태는 어떤 면에서 피임 실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피임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책임 있는 부모로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비인격적이고 무책임한 성욕을 부추길 수도 있다. 결국 ‘제한된 선’이란 이렇게 항상 ‘남용’되기 쉬운 것이다.

성폭행 - 강간의 경우 ‘모닝필’ 사용문제

1. 강간의 경우 ‘모닝필(사후피임약)’의 사용¹⁾

(1) 무엇이, 언제 투여되는가?

일반적인 피임 목적의 ‘알약’ 사용은 매일 30 μ g의 에스트로젠을 복용하는 것인 반면, 사후 피임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100 μ g의 에스트로젠을 복용하고 12시간 후 다시 한번 더 복용하게 된다.

영국 보건사회보장부(DHSS)의 <피임 시술에 관한 안내서>(1978년)는 “이 방법은 과도한 에스트로젠을 투여하게 되므로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피임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2) 윤리적으로는 어떠한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혼인한 부부가 피임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남편과 아내 상호간의 완전한 자기 봉헌을 표현하는 본래의 언어가 산아 제한이라는 객관적으로 모순된 언어, 곧 자신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언어로써 덮여써워진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개방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함과 아울러 인간 전체를 바치도록 되어 있는 부부사랑의 내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회칙 ‘가정공동체’ 32항 ; 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51항 ; 회칙 ‘인간생명’ 12, 14항 참조)

아울러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와 웨일즈 주교회의 생명윤리공동위원회는 사후 피임약 사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극소수의 경우, (강간 후) 실제로 임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부모나 부모의 세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인격(을 갖춘) 존재가 생긴다. … 이때부터, 도덕률이 요

구하는 것은 가장 본능적인 감정적 반응보다도 더욱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한 남성이 여성을 강간한 것 때문에 새로 수태된 생명이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낙태와 살 권리’ 21항)

“따라서 출생 전 태아의 발달 과정은 그 과정의 지속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절차나 기술 과정의 간섭을 받아서도 안 된다. 우리가 낙태를 이야기하면서 낙태 의도를 비난하는 것은, 그러한 의도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나 기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어떠한 기술이나 장치가 수태 이후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피임’ 또 ‘월경 적출’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사실상 낙태제, 낙태 장치에 불과하다.”(‘낙태와 살 권리’ 16항)

그러므로 “(배아의) 발달 과정의 지속을 방해할 목적으로” 간섭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배아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가망성이나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여 … (배아를) 제거하려고 간섭”하는 것은 배제된다.

[출처 :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와 웨일즈 주교회의 생명윤리공동위원회, “강간의 경우 ‘모닝필’의 사용”(1986. 1. 31)]

2. 강간의 경우 ‘모닝필’의 사용에 대한 답변²⁾

‘모닝필’에 관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염려들이 있었다. 보고서대로라면 강간의

경우 ‘모닝필’ 사용을 권장하는 것인가? 드문 경우에 대해서는 낙태를 인정하는 것인가? 30%의 낙태 위험과 태아의 목숨을 건 다른 형태의 ‘도박’을 감수하는 것인가? ‘응급용’이라면 사후피임약 사용을 인정하는 것인가?

윤영위원회는 우선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라고 밝힌다. 그 보고서는 교회가 일관되게 그리고 매우 확고하게 가르쳐 온 세 가지 진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

(1) 인간 배아는 수정 이후 어느 단계에 있든지 배아의 발달을 방해하거나 그 발달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절차나 기술(약제의 투여를 포함하여)의 간섭도 받아서는 안 된다.

(2) 부부 행위만이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관계이며,

(3) 부부 행위의 출산 효과를 억제하는 조치는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태아의 존재 가능성 때문에 도덕적 상황은 상당히 달라진다. 상황이 어떠한 배아의 존재가 확실히 밝혀졌거나 존재할 것으로 짐작되거나 심지어 단지 예상되거나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배아를 제거할 의도(그 의도가 부분적인 것이라 해도)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³⁾

[출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와 웨일즈 주교회의 생명윤리공동위원회, “강간의 경우 ‘모닝필’의 사용”에 대한 답변”(1986.9.11)]

3. 정 리

사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기형 임신 등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현실은 실로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지만 낙태가 적극적인 해결책이거나 최선의 방법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태어난 사람(임신 당사자)의 어려움이나 인격권 때문에 태어날 태아의 근원적인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회 도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임신, 곧 근친상간이나 혼인 전의 임신, 강간에 의한 임신은 엄격히 말해 부모나 당사자의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결과이기에, 그 책임을 무죄한 태아에게 일방적으로 뒤집어씌운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침해이고 모독이며 무책임한 태도이다. 한마디로 어른들의 부주의, 당사자의 실수로 무죄하고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태아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법은 일종의 가족 계획법이고, 그 가족계획 사업의 핵심은 태아 살해 곧 낙태의 정당화 사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자 보건법의 낙태 허용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과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며, 합법적 태아 살인법이다. 특히 모자 보건법에는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불행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혜택보다는 남용의 위험이 더 많다.

결론적으로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태아는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는 낙태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이기에 우리 사회가 함께 그 짐을 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예방적 성교육, 성폭력의 방지, 미혼모의 보호 대책, 입양 사업을 사회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1) 2000년 10월 31일에 교황청 생명 학술원에서 발표한 사후 피임약 “‘모닝필’에 대한 성명서”에서는 “반착상 효과는 사실은 화학적 인공 유산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 약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은, 낙태의 경우에서처럼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임신을 손쉽게 중절하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성명서는 사후 피임약의 사용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인간 배아처럼 가장 약하고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교묘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도덕적 양심으로 확고한 반대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2) 최근 개발된 사후 피임약인 ‘노레보’ 정, 곧 ‘모닝필’은 호르몬을 근거로 한 제조약(에스트로젠, 에스트로젠/프로게스토젠, 또는 프로게스토젠만 함유하기도 함)으로, 성관계로 수정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뛰어난

‘반착상’ 기능을 한다. 말하자면, 자궁벽 자체를 떼어 내는 과정을 통해서 포배 상태, 곧 수정 뒤 5일에서 6일이 지난 상태에 이른 수정된 난자, 곧 인간 배아가 자궁벽에 착상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 피임약은 수정란의 자궁 내막 착상 방지를 통해서 수정된 난자, 곧 인간 배아가 자궁 벽에 착상되는 것을 막아서 결국은 인간 배아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결국 ‘모닝필’이 가지고 있다고 증명된 ‘반착상’ 효과는 사실은 화학적 인공 유산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 약은 사후 피임약이라기 보다 ‘조기 낙태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00년 10월 31일 교황청 생명 학술원에서 발표한 “‘모닝필’에 대한 성명서” 참조)

주3)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이 약(‘노레보’ 정)을 복용한 십대가 여러 명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또한 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유방암 발생률을 세 배 이상이나 높일 수 있다는 연구 사례와 나아가서는 바이러스성 성병인 에이즈의 성병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연구 사례도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사례를 볼 때 이 약의 부작용은 복용자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낙태

1. 회칙 “생명의 복음”

우리가 살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본다면 고의적 낙

존재를 고의로 죽이는 것이므로 항상 심각한 윤리적 무질서를 구성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출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1995.3.25.), Origins 24, 42호(1995.4.6), 696.710.711.723면]

태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인 심각성의 진정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낙태로 제거되는 것은 초기 단계의 인간입니다. 이 인간보다 더 절대적으로 무고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을 결코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불의한 범죄자라고는 더욱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약하며, 방어 능력이 없고, 심지어 신생아의 울음과 눈물이 지닌 가슴을 에는 힘을 가진 최소 형태의 방어 수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태아는 그 아기를 태중에 담고 있는 여인의 보호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로 그 어머니 자신이 낙태를 결정하고, 그 아기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만듭니다.

개정된 교회법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98조)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한으로, 주교들과 일치하여, 본인은 직접적인 낙태, 곧 목적이거나 수단으로 의도된 낙태는, 무고한 인간

2. 회칙 “CASTI CONNUBII(정결한 혼인)”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매우 심각한 범죄는 … 모체의 자궁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허용하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사람의 뜻에 맡기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의학적, 사회적 또는 우생학적 ‘징후’와 같은 중대한 이유들이 있으면 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되었으나 아직 태어나지는 않은 태아를 해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형법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후자의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형태의 이러한 ‘징후’들이 일반법으로 인정받아서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출처 : 교황 비오 11세, ‘Casti Connubii’ (1930.12.31), The Human Body, Papal Teachings, 31-34면]

3. “인공 유산 반대 선언문”

인간의 첫째 권리는 생명권이다. 인간은 다른 귀한 것들도 갖고 있고, 그 가운데는 다른 것보다 더 귀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의 조건이 된다. 이 권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인하는 일은 사회나 여하한 형태의 행정 당국의 몫이 아니다. 인종, 성(性), 피부색 또는 종교에 따른 그러한 차별은 최악이다. 생명권은 타인의 인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에 선행하는 것이다. 이 생명권은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며 이 권리를 거부한다면 엄밀한 불의가 된다.

생명권은 방금 태어난 유아에게도 성인 못지 않게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실제로 인간 생명의 존중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요구되는 것이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출처 : 신앙교리성, '인공 유산 반대 선언문' (1974.11.18), Vatican Council II, 제2권, 1982년, 441-443면]

4.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인간 생식의 결실인 생명은 그 존재의 시작, 곧 남녀 생식 세포 접합체의 형성 시기부터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인 인간 존재로서 무조건의 존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격체로서 그의 권리 또한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권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무죄한 생명이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출처 :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

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1987.2.22), Origins 16, 40호(1987.3.19), 701-702면]

5. 정 리

낙태의 근본 문제는 무엇보다도 성관계, 성행위에 임하는 남녀의 도덕적 의식과 자기 존중감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임신이 되어 낙태를 하게 될 상황을 예견하면서도 성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충동과 본능이라면, 성을 사회적 구성체로 진단하는 입장과 맞설 수밖에 없다.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적 무지를 극복해서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는 성문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낙태와 피임을 여성 권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은 그 자체로 수호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서 희생될 수 있다는 논리는 현 사회 구조의 모순을 양산하는 근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라는 허용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근거는 언제든지 생명을 상하게 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것과 방법론적인 것이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채택되는 방법론이 근본을 손상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결코 가장 존엄한 인간 생명 앞에, 숭고한 인간 생명을 담보로 그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인간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타협

해서도 안 된다.

책임감 있는 사랑, 책임감 있는 자유를 통해서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죽음의 문화를 몰아내고 생명의 문화를 정착시켜서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야 하겠다.

불임 수술

1. “부부 관계에 관한 근본 규범들”

부부 행위

불임 수술을 통하여 새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상실시킴으로써 각 개별 행위뿐만 아니라 전체 유기체 자체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를 기꺼이 생명에 봉사하려는 단순한 소망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수단으로든 또는 목적 자체로든 출산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직접 불임 수술은 도덕규범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합법적이지 못하다. 어떠한 ‘징후’를 이유로 내세우는 불임 수술이라 하더라도 공공 권위가 이를 허가할 권리는 없으며, 무고한 인간 생명에 해를 끼치는 불임 수술을 지시하거나 수술할 권리는 더 더욱 없다.

[출처 : 교황 비오 12세, “부부 관계에 관한 근본 규범들”(1951.10.29.), The Human Body: Papal Teachings, 161-162면.]

2. “가톨릭 병원의 불임 수술”

1) 생식 능력을 생식 불능으로 만드는

것이 그 본질상 유일하고 직접적인 효과인 모든 불임 수술은 직접 불임 수술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임신 결과 예견되거나 염려되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려는, 주관적으로는 올바른 의도나 동기라 하더라도 불임 수술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불임 수술은 인간의 존엄과 불가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어떠한 공공 권위도 불임 수술을 공공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정당화할 수 없다.

2) 가톨릭 병원들과 관련하여,

(1) 그 자체로(본질상) 피임의 목적을 가진, 다시 말해 신중한 성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방해하는 행위에 협력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승인 또는 허가되었더라도 절대 금지된다. 병원 규정에 따라 직접 불임 시술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이를 집행하거나 시술하는 것은 본질상 객관적으로 악한 것이다. 가톨릭 병원이 그러한 시술에 협력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출처 : 신앙교리성, “가톨릭 병원의 불임 수술”(1975.3.13.), Vatican Council II, 제2권, 1982년, 454-455면.]

3. “자궁 분리 관련 문제들에 대한 답변”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추기경들은 정례 회의에서 검토한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내놓는 바이다.

질문 1 : 자궁이 심각하게 손상되어(예를 들면, 출산 또는 제왕 절개 중에) 산모

의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학적 판단으로써 자궁을 완전히 제거(자궁 절제)해야 할 경우, 그 결과로써 생길 수 있는 여성의 영구 불임에도 이 수술을 감행하는 것이 정당한가?

답변 : 정당하다.

질문 2 :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당장은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장차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산모에게 위험이 미칠 만큼, 어떤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자궁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예를 들면, 여러 번의 제왕 절개 수술 때문에), 임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미래의 위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궁을 제거하는 것(자궁 절제)이 정당한가?

답변 : 정당하지 않다.

질문 3 : 위의 2번에 진술된 상황에서, 자궁 절제 수술 대신에, 의사에게는 한층 더 간단하고 여성에게는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임신 가능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임을 돌이킬 수도 있는, 역시 '자궁 분리'라고 불리는 난관 결찰을 하는 것은 정당한가?

답변 : 정당하지 않다.

설명

첫 번째의 경우, 자궁 절제가 영구 불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직접적인 치료의 성격을 지니므로 정당한 것이다. 사실 이는 의학적 판단으로써 자궁을 제거하여야 하는 자궁 질환의 상태

(예를 들면, 다른 방법으로는 멈출 수 없는 출혈)이다. 자궁 제거는 미래의 임신 가능성과 관계없이 여성에게 닥칠 현재의 심각한 위험을 피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윤리적 관점에서 2항과 3항에서 진술된 상황의 외과 수술과 '자궁 분리'의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들은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 “가톨릭 병원의 불임 수술” (“Quaecumque Sterilizatio” AAS 68(1976년), 738-740면, 1항)에서 “그 유일하고 직접적인 효과는 생식 능력을 생식 불능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직접적 불임 수술의 윤리 범주에 들어간다. 이 문헌은 또한 “임신의 결과로써 예견되거나 염려되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려는, 주관적으로는 정당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적 불임 수술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출처 : 신앙교리성, “자궁 분리 관련 문제들에 대한 답변”, Origins 24, 12호(1994.9.1.), 211-12면]

4. 정 리

그리스도교 전통 윤리신학에서는 직접 피임과 간접 피임을 분명히 구분해서 가르쳐 왔다. 곧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불임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는 모든 피임 방법은 명백히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쳐 왔다. 반면 유기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피임 방법은 결과적으로 불임을 유발시키기도 하지

만,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의도적 피임은 정당하다고 가르쳐 왔다.

앞서 여러 문헌들에서 가톨릭 교회의 불임 수술에 관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기에, 여기서는 정리해 보는 차원에서 불임 수술에 대한 윤리적 평가만 제시하겠다.

첫째는 인격의 불가침해성이다. 곧 인간은 거저 받은, 선물로 받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절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단지 충실한 관리자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간 존재의 단일성이다. 곧 인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혼과 육체가 일치된 하나의 단일한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는 자신이 객체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치료 목적 외에 자의로 자신의 육체에 상해를 준다면 그것은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셋째는 성의 이중적 의미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분명 불임 수술은 성의 일치의 의미와 출산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분리시키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곧 성의 의미에서 출산의 의미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행위인 것이다.

넷째는 인간의 윤리적 선은 인간의 가장 큰 선이다. 무엇보다도 불임 수술의 문제를 단지 생물학적 육체적 관점에서만 보아

서는 안 되며, 전체 인간적인 관점, 곧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임 수술은 육체적 선을 거스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 고유의 실재를 희생시키는 행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면서 인간의 윤리적 선을 파괴시키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행위자(불임 수술을 의도하는 부부)의 의도와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규범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지속적 불임의 상태가 주는 심리적 영향(성의 남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영구 불임 수술의 죄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체외 수정

(In Vitro Fertilization)

1.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인간 출산에 관한 개입

여기서 ‘인공 출산’ 또는 ‘인공 수정’이란 말은 남녀의 성적 결합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서 사람을 임신, 출산하게 하는 기술적 조작으로 이해된다.

이 훈령은 비 배우자간 인공 수정(heterologous artificial fertilization)¹⁾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이어서 부부의 이른바 배우자간 인공 수정(homologous artificial fertilization)²⁾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4. 도덕적 견해로 볼 때 출산과 부부 행위의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요구되는가?

(1)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

“부부 행위의 두 가지 의미, 곧 일치적 의미와 출산의 의미 사이는 하느님께서 원하셨고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진실로 부부 행위는 부부가 가장 가까운 본질적 형태로 합치됨으로써 부부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에게 명령된 법에 따라 새로운 생명을 전수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혼의 본성과 결혼의 신성성과의 본질적 관련성에 바탕을 둔 이 원리는 책임 있는 부성과 모성의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부부 행위는 일치와 출산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호 증진함으로써 부부 상호 간의 진실한 사랑의 감정을 충만하게 해 주며, 사랑으로 하여금 부모가



1개의 세포가 2개, 4개, 8개로 자라나고 있다.

되는 높은 사명감을 하나의 계율로 느끼게 해 준다.”

구체적 부부 행위의 열매로서가 아닌 출산을 목적으로 한 배우자간 인공 수정은 객관적으로 결혼의 신성성과 그 의미 사이의 유사한 분리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수정은 “자연 본성에 의해 명령받은 대로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부부의 성적 결합”의 결과일 때 타당하게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결혼의 결실과 부부 행위의 의미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관계의 도덕적 가치는 육체와 영혼의 결합을 동반한 인간적 일치에 그 근거가 있다.

부부는 “육체의 언어”를 통해 그들의 인격적 사랑을 서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속에는 분명히 서로가 부부라는 의미와 부모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부부 서로 그들의 자기 봉헌을 표현하는 부부 행위는 동시에 생명의 선물에 대한 환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육체와 정신으로 분리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부부가 그들의 결혼을 성취시키고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몸 안에서,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인 것이다.

5. 배우자간 체외 수정은 도덕적으로 합당한가?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적어도 생명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의덕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책임 있

는 인간 출산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향이 반드시 부부 사이의 체외 수정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배우자간 체외 수정이나 그 배아의 자궁 내 이전 과정은 그것 자체 안에서 도덕적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전체적인 부부 생활이라든지 그 부부 생활에 따르는 성적 관계의 도덕성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체외에서의 수정은 인위적으로도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소산이다. 그러나 이런 수정은 사실상 성취되지도 않으며 부부 일치를 통한 성적 관계의 결실이나 그런 긍정적 희망의 표현도 아니다. 그러므로 부부간 체외 수정과 배아의 자궁 내 이전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것이 사실상 불임 부부의 성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도 “새로운 인간 생명 탄생을 위한 하느님의 협조자”로 활동한다는 면에서의 부부 관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이 갖는 완전성을 결여하게 되는 것이다.

[출처 :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1987.2.22.), *Origins* 16: 40호(1987.3.19.), 704-707면.]

2. “가임과 불임”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수단은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과 분리될 수 없는 인간적인 본질적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수단이 존재의 본질에 새겨진 규범과 실재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목적 자체에 해를 끼치기 쉽습니다.

인공 수정은 배우자들이 혼인 계약으로 획득한 권리,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부부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적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혼인 계약은 그들에게 인공 수정의 권리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인공 수정의 권리는 어떤 식으로도 자연스러운 부부 행위에 대한 권리로서 표현될 수 없으며 그러한 권리에서 이끌어 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교황 비오 12세, “가임과 불임”(1956.5.19.), *The Human Body : Papal Teachings*, 387-390면.]

3. 정 리

거룩한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는 무엇보다도 그들 행위의 배타성과 일체성 안에서 부부애, 부부애에서 보여지는 일치의 의미, 그리고 출산의 의미를 함께 실현하면서 상호 간의 자기 증여의 삶을 살아간다. 이는 두 개의 의미에서 나오는 하나의 징표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출산 행위는 혼인 안에서 일어나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상적인 부부 행위의 결과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배우자간이든 비배우자간이든 체외 수정을 일관성 있게 분명히 부정하고 있다.

특히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은 혼인의 일치와 부부의 권위, 그리고 부모에게 합당한 올바른 사명에 위배됨은 물론 혼인 안에서 임신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세상에 나오도록 부여받은 태아의 권리에도 명백

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방법은 태아들의 권리, 곧 부모 자식 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박탈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태아의 인격적인 주체로서의 성숙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체외 수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대리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대리모는 모성적 사랑의 의무와 부부간의 정절, 그리고 책임 있는 모성으로서의 의무를 객관적으로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아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가정에도 피해를 주어 가족의 구성 단위인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요소의 분열을 초래한다”(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사목」 112호, 132면).

어쨌든 교회가 인공 수정과 체외 수정들의 인공적인 출산 기술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 생활 안에서의 인간성에 대한 인식, 인간 존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의미, 성적인 인간 조건, 그리고 전·후 세대 간의 관계가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회칙 「인간 생명」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교회는 어떠한 부부 행위이든지 인간 생명을 출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교회의 교도권이 가끔 설명해 온 이런 교리는 일치의 의의와 출산의 의의를 결부시키는 불가분의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의의는 모두

부부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고의로 이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11-12항 참조).

주1)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 또는 출산이라는 용어는, 이 훈령에서 적어도 어느 한 편이 혼인으로 결합된 배우자가 아닌 증여자에게서 채취한 생식 세포를 이용, 인공수태를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비배우자간 체외 수정 및 배아 자궁 내 이전 : 적어도 어느 한 편이 혼인으로 결합된 두 배우자가 아닌 증여자로부터 채취한 생식 세포들을 체외에서 접합시켜 인간을 수태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기술.

② 비배우자간 인공 정자 주입 : 남편이 아닌 증여자에게서 미리 수집해 놓은 정자를 여자의 생식 경로에 주입하여 인간을 수태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기술.

주2) 배우자간 인공 수정 또는 출산이라는 용어는, 이 훈령에서, 혼인으로 결합된 두 배우자의 생식 세포를 이용, 인간을 수태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부부간 인공 수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① 배우자간 체외 수정 및 배아 자궁 내 이전 : 혼인으로 결합된 두 배우자의 생식 세포들을 체외에서 결합시켜 인간을 수태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기술.

② 배우자간 인공 정자 주입 : 남편으로부터 미리 수집해 놓은 정자를 부인의

생식 경로에 주입하여 인간을 수태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기술.

인공 수정과 인공 출산

1. “생명의 선물”

1)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 또한 부부의 권위와 혼인의 진실성을 따르는 것인가?

비배우자간 체외 수정이나 배아의 자궁 내 이전 그리고 남편 아닌 사람의 정자를 주입하는 일 등은 모두 혼인한 부부 이외의 적어도 다른 한 사람에게서 받은 생식 세포를 접합시킴으로써 수정(임신)시키는 것이다. 이런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은 혼인의 일치와 부부의 권위 그리고 합당하고 올바른 부모의 사명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혼인 안에서 임신되고 그 혼인 속에서 자라나 세상에 나오도록 부여받은 아이들의 권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혼인의 일치와 부부간의 정절에 대한 존엄성은 모든 아이가 혼인 속에서 임신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유대가 객관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부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이들은 서로를 통해서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독점적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정자나 난자를 얻고자 제삼자에게서 생식 세포를 받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신의를 해치는 일로써, 일치라는 혼인의 중대한 성격에 결함을 초조하는 일인 것이다.

또한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은 아이의 권

리를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부모-자식간의 근본 관계가 인위적으로 박탈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그의 인격적 주체성의 성숙에도 장애를 입게 된다.

2) 배우자간 인공 수정에 따른 임신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혼인 안에서 남편의 정자를 인공적으로 부인의 생식기 안에 주입시켜서 임신을 유도하는 이른바 배우자간 인공 수정 행위는 그것이 부부 행위를 대신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촉진하고 도와줌으로써 그 행위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주는 일이 아닌 이상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따라서 도덕적 양심은 “자연적인 부부 행위를 촉진하거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위가 만족한 결과를 얻도록 해 주는 목적으로만 쓰인다면 어떤 인공적 방법도 그 사용을 꼭 막지는 않는다.”

[출처 :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생명의 선물(Donum Vitae)”, 1987.2.2]

2. “그리스도교 도덕규범”

1. 인간과 관련한 문제를 다룰 때, 인공 수정의 문제는 도덕적·법률적 관점을 제쳐 둔 채 생물학적·의학적 측면에서만 오로지 또는 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2.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은 전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실제로 자연법과 신법은 혼인 밖에서는 새 생명의 출산이 있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혼인만

이 부부의 존엄, 특히 여성의 존엄과 부부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자녀와 그의 양육을 보장할 수 있다.

3. 혼인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제삼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인공 수정 역시 비도덕적이며 호소할 여지없이 단죄되어야 한다.

4. 배우자간 인공 수정의 합법성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연법의 이러한 원칙들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겠다. 의도한 목적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방법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를 바라는 것은 혼인한 부부라면 합당하게 가질 수 있는 소망이지만, 인공 수정이 이 소망을 충족시켜 준다고 해서 그러한 방법에 의존하는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출처 : 교황 비오 12세, "그리스도교 도덕 규범 (Christian Norms of Morality)", 1949.9.29, The Human Body : Papal Teachings, 117-119면]

3. 정 리

인공 수정(Artificial Insemination)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때 자연적인 성교로 이루어지는 자연 수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관계없이 자연적인 성교 행위가 아닌 인위적 조작(Manipulation)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좀더 넓은 의미로 볼 때 자연 성교를 도와주는 보조적 수단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며, 후대의

진보한 의학 기술의 부산물인 체외 수정도 인공 수정의 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 수정은 수정되는 장소에 따라 크게 체내 수정(In Vivo Fertilization)과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으로 구분된다. 체내 수정은 성교 행위의 유무에 따라 성교 행위 안에서 보조 수정과 성교 행위 밖에서의 인공 수정으로 구분된다. 성교 행위 밖에서의 인공 수정이란 정액의 출처에 따라 또 다시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 A.I.D.)과 배우자간 인공 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Homologous : A.I.H.)으로 나뉜다.

체외 수정은 체내 수정과는 달리 체외에서 더욱 적극적인 인위적 조작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여성의 자궁 이상으로 수정란의 자궁 내 착상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대리모 수정 형태가 있고, 체외에서 수정된 수정란의 상실을 최소화하고 인공 수정의 확실성을 높이려 개발된, 이른바 복제 인간의 문제를 야기하는 수정란 증식 형태를 사용하는 인공 수정 방법도 있다.

인공 수정의 과정에서 보이는 조작의 형태는 무엇보다도 인간 배아에 대한 인위적 조작, 곧 기술적 조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공 수정을 통한 인공 출산은 무엇보다도 비인격적인 형태로서의 인간 생명 출산을 의미한다. 그러한 행위는 마치 인간 생명을 물건을 생산하듯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분명 부부 상호 간의 인격적 자기 증여

와는 대립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인공 수정을 통한 인간 생명의 출산에서는 인간 본성의 신원과 생동하는 임신의 인격적 품위를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에 대한 인위적 조작(인공 수정과 인공 출산)에 대한 윤리적 평가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인간 생명이 하느님께 서 베푸시는 무상의 선물이자 은총이라는 점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하느님께 생명의 선물을 받은 인간은 생명의 근본적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그 생명의 관리자일 뿐이다. 나아가 인간 생명은 인간의 전체성(육체와 정신이 통합된 존재) 안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지 단순히 생물학적 필요성만을 절대화시켜서 평가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선물이다. 그리고 부부 사랑은 한 몸이 되게 하는 상호 인식으로 부부를 이끌어 가지만 부부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부부 사랑은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갖게 하며, 부부는 새로운 인간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협력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을 주면서도 자신들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주는 것이다.”

부모에게 자녀는 부부 사랑의 표상이며, 부부 일치와 징표이다. 또한 자녀는 부부 상호 간의 완전한 자기 봉헌의 산 증거이다. 이렇듯 자녀는 부모와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어떤 방법으로

든 자녀를 가지겠다는 부모의 욕심이 결코 모든 윤리적 질서를 넘어설 수는 없으며, 나아가 그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없다.

대리모

1. “인간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II. 인간출산에 관한 개입

3. ‘대리모’는 도덕적으로 타당한가?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을 거부한 그 똑같은 이유로 이것 또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혼의 일치와 인간출산의 존엄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출처: 신앙교리성, “인간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1987.2.22.), Origins 16: 40호(1987.3.19.), 705면.]

2. “대리모에 관한 뉴저지 주교들의 성명”

… 대리모라는 개념은 (여성의 자궁을 빌린다는 것을 구실로 삼기는 하지만 결국 자녀의 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뉴저지 주의 공공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릇될 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생물학적 정신적 일치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침해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그르다는 것이 뉴저지 주 가톨릭 주교들의 입장이다.

대리모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주장이 이 주의 공공 정책에 뚜렷

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상품으로서 또한 여성을 ‘아기 공장’으로 착취하기 때문이다. 대리모 개념은 전자에 대해서는 불의를 증대시키며, 후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무시한다.

자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자녀는 결코 소유물이나 상업적 이용물, 또는 사례금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생산되는 상품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대리모 관행은 자녀의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다. 여성의 자궁이 자녀를 사랑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생산하기 위하여 임대되는 것이다.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자식을 넘겨준다면 그 어머니는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존재인 자기 자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자녀의 권리 또한 침해된다. 모든 자녀는 참된 부모를 가질 권리가 있다. 대리모 제도는 또 다른 어머니를 개입시킴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혼란시킨다. 대리모 제도에서는 자신이 직접 그 창조 과정에 참여하여 낳은 자식에 대한 여성의 자연스러운 모성애가 부정된다. 이는 부모와 자식간의 유대를 파괴하며 자녀에게 심각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다.

대리모 개념은 또한 여성을 ‘인간을 만드는 기계’로 착취한다.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대리모에게 남는 것은 돈과 끊어진 유대 그리고 조각난 꿈뿐이다. 대리모 제도가 가난

한 여성들에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사용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줄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출처: 뉴저지 주 천주교 중앙협의회, “대리모”에 관한 뉴저지 주교들의 성명”(1986.11.28.), Origins, 16: 30호(1987.1.8.), 551면.]

3. 정 리

우리나라만큼 가계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도 드물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 며느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경우 이른바 ‘씨받이’를 통해서라도 혈통을 이어가게 했다.

가계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착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씨받이’의 형태가 새로운 형태 즉, ‘대리모’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의 혈통만을 고집한 나머지 돈을 주고 일종의 계약으로 성립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고자 한다면 이는 단순히 고용주와 고용자와의 관계에 불과하다. 이는 인륜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다 큰 문제는 “대리모 자신이 자신을 단순히 고용된 육아기(Incubator)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리모를 고용한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보여 지는가?”하는 문제다. 이런 경우에 대리모 자신의 감정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대리모 자신은 자신을 ‘어머

나'로 보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아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관소' 이상의 의미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냉정한 감정 조절 없이는 출산 후 아기를 유전적 부모에게 내어주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전적인 부모들 편에서는 대리인 곧 '대리모'에 대한 비인격적이고 사무적인 태도가 성공적인 대리모 협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된다. 결국 유전적인 부모 입장에서는 오로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 대리모를 단순히 그들 아기를 갖기 위한 출산 목적의 도구로 취급하는 것. 둘째, 보다 확장된 새로운 가족형태 즉, 세 명의 부모로써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유전적인 부모 입장에서는 전자를 선택하게 된다. 결국 '대리모'는 아기를 가지고 낳기는 하지만 끝내 비인격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또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대리모가 난자를 제공한 여자의 어머니이거나 여동생이라면, 혹은 가까운 인척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법적, 윤리적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복잡하다. 서로 간에 상상치 못할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것이다.

요즈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리모'를 구하기 위해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혈통을 중요

시 여기는데 다 일본에서는 '대리모'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 즉, '생명 윤리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대리모'를 구할 수가 있다. 브로커들에 의하면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정도라고 한다. 사실 여자 대학교 앞에서는 이런 광고문들이 버젓이 여학생 사이에 나돌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없다. 정부 관련부처에서도 잘 모르고 있고 아무런 대책도 없다. 참으로 한심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웬지 과거 중궁위안부로 희생당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주1) '대리모'라는 용어는 이 훈령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① 자신의 자궁 안에 이식된 배아를 임신하여 키우는 여자. 발생학적으로 보아, 그 배아와 대리모는 남남이다. 그 배아가 '증여자'들의 생식 세포의 결합을 통해 얻어졌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날 경우, 대리모는 출산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나 출산을 위탁한 자에게 아이를 즉시 양도한다는 약속 하에 임신을 하는 여자다.

②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정자를 자신의 난자와 수정하게 하여 그 배아를 수태, 임신하는 여자. 아이가 태어날 경우, 이 여자는 출생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나 출산을 위탁한 자에게 아이를 즉시 양도한다

는 약속 하에 임신을 하는 것이다.

대리모는 모성적 사랑의 의무와 부부간의 정절, 그리고 책임 있는 모성으로서의 의무를 객관적으로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가 자기 어머니 자궁 속에서 임신되고 발달되며 바로 그 부모에 의해 세상에 나와 성장되어야 하는 권리와 아이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인 동시에 가정에도 피해를 주어 가족의 기본구성단위인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요소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나타난 태아의 법적 권리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태아(fetus)’란 ‘체내수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나서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임신 후 분만 시까지 모체 안에 살아 있는 생명체를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3조에 의하면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하면 태아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기므로 태아보호를 위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태아의 이익에 관한 한 모든 법률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일반적 보호주의(과거의 로마법, 스위스법)와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개별적 보

호주의(한국 민법을 비롯해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 즉 중요한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관하여서만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민법상 몇몇 사안에 한하여 태아에게도 그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현행법 규정

(1) 민법상 태아의 법적 지위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제762조)

－ 태아는 불법행위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재산상속(제1000조 제3항), 대습상속(代襲相續, 제1001조), 유류분(遺留分, 제1118조)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태아는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류분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증(遺贈, 제1064조에 의한 제1000조 제3항의 준용)

－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급여하는 단독행위를 유증이라고 하는데, 제1000조 3항의 규정은(유언에 있어) 수증자에 준용한다(제1064조).

④ 인지(認知)

－ 부(父)는 포태(胞胎) 중에 있는 자(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제858조). 그러나 태아에게는 부(父)에 대한

인지 청구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⑤ 사인증여(死因贈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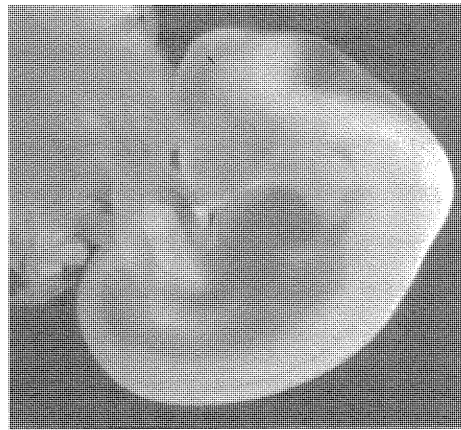
－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으로서 무상의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다수설은 사인증여에 대해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형법상 태아의 법적지위

형법상 태아의 법적 지위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살인죄’의 경우이다. 살인죄의 행위 객체는 자연인인 사람인데, 이때의 사람은 생존 가치나 생존 능력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취급된다. 사람이 행위 객체인 점에서 정자, 인공 수정, 낙태시킨 태아에 대한 의학적 실험이나 유전 공학적 실험은 그 윤리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법상 살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인죄의 행위 객체라면 태아는 낙태죄의 행위 객체이며, 착상전의 배아는 외국에서는 이를 보호하는 특별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형법은 낙태죄를 규정함으로써 사람으로서의 생명 가치와 태아로서의 생명 가치를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 규범 현실이다. 이러한 생명 가치의 차별화가 종교적, 윤리적 관점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법적 보충성의 원칙이 이러한 차별화의 근거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사람으로서 살인죄와 낙태죄의 행위 객체는 조산 후



태아는 태어난 인간에게 생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수동적인 약자이다. (4주된 태아모습)

태아의 상태 여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분만 개시 전에 인위적으로 출산한 태아라고 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 살인죄의 객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1) 정지조건설(停止條件說) 또는 인격소급설(人格遡及說)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후일에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 권리능력의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실이 발생한 시기에 소급하여 생긴다는 견해로써,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태아가 사산하더라도 타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는 없지만, 태아가 취득 또는 상속할 재산을 출생 전에는 보존·관리할 수 없다.

(2) 해제조건설(法定解除條件說) 또는 제한적 인격설(制限的人格說)

문제된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태아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후일에 사산한 경우에는 그 때에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한다는 견해로,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법정대리인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태아의 보호에는 유리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

* 우리나라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대판76다 1365)

4. 교통사고로 인한 태아의 보상 문제

교통사고로 태아에 이상이 생겨 낙태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사망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법이 태아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하는지에 달려 있다.

민법에 의하면 태아는 사람은 아니지만(제3조), 예외적으로 일정한 권리에 한해서는, 이를테면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제762조) 따라서 직계존속의 신체상해나 생명침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자신에 관한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 다만,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胞胎가 장차 사람이 되는 것을 최소한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 출생했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태아로 있는 동안은 완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임신부가 교통사고 등으로 낙태한 때는 원칙적으로 낙태수술에 드는 비용은 보상하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와 같은 보상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태아는 보험 보상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인가? 우리 민법은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며 태아에게도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판례가 눈길을 끈다.

〈사례 1〉

이 사례는 93년 4월에 내려진 판례로,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태아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내용이다.

당시 대법원은 “사고 당시 비록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뒤) 출생한 이상(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부상으로 인해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위자료를 보상하도록 했다.

〈사례 2〉

이 사례는 <사례 1>처럼 부모가 아니라, 태아 자신이 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경우이다. 76년 9월에 내려진 이 대법원 판례는 태아가 모체 안에 있을 때 입은 사고로 정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데 대해 사고 뒤 살아서 태어난 때에는, 사고 발생 시기에 소급해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역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 두 판례에서 공통점은 태아가 사고로 죽지 않고 살아난 경우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태아가 사고로 모체 안에서 숨져 태어나지 못한 때는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하거나 태아만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태아의 현행법 안에서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민법상 인정되는 태아의 지위는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완전하게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형법의 경우 살인죄와 낙태죄의 경계선에 놓인 태아의 지위는 생명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나라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국에서 낙태 허용의 한계를 둘러싸고 기간이나 요건 중심의 입법론이 다투어질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태아가 낙태죄의 행위 객체라고 하더라도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결국 태아의 생명권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낙태 현실은 우리 나라가 태아 보호의 사각 지대임을 보여 준다. 태아는 태어난 인간에게 생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수동적인 약자이다. 우리의 이기심 또는 필요성이나 무책임으로 수

많은 태아가 죽어가는 현실은 분명 우리에게 낙태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한 때임을 알려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아 이전 단계인 인간 배아를 이용한 각종 복제 실험이 무한정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규제할 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동성애

1.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서한”

7) 성적 기능의 사용은 오로지 혼인 관계 안에서만 윤리적으로 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성행위를 위해 동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성에 관한 창조주의 계획이 지닌 목적만이 아니라 그 풍요한 상징과 의미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동성애는 생명을 전달하는 보완적 결합이 아니다. 그러기에 동성애는 또한 복음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본질이라고 일컫는 자기 증여의 생활에 대한 부르심을 훼손(毀破)하는 것이다.

모든 윤리적 무질서가 그러하듯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성취와 행복을 가로막는다. 교회는 동성애에 관한 그릇된 견해들을 배척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이해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수호하고 있다.

11) 동성에 성향이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인 선택의 결과는 아니며, 동성애자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어 동성에 형태로 행동한다는 사실이 논란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한 사람에게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면, 동성에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서한' (1986.10.30), Origins 16, 22호 (1986.11.13), 377. 379-381면]

2.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

8) 현시대에 어떤 이들은 심리학적 관찰에 근거하여, 사람들 간에 동성적 관계를 관대하게 판단하고 전적으로 용납하기까지 한다.

동성애의 경향이 그릇된 교육, 정상적인 성적 발전의 결여, 습성, 그릇된 실례와 기타 비슷한 원인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일시적이거나 적어도 불치적이지 않은 동성애자를, 태생적 본능이나 병리적 체질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불치적이라고 판단된 동성애자와 구분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사목적 분야에서 이 같은 동성애자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개인적 곤란과 사회에의 적응 불능을 극복하려는 희망을 견지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과실성은 현명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구실 아래 동성 행위에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사목 방법은 사용될 수 없다. 객관적 도덕 질서에 의하면

동성애적 관계는 본질적이고 필수적 목적을 결여한 행위이다.

[출처 : 신앙교리성,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 (1975.12.29.), Vatican Council II, 제2권, 1982년, 490-491면]

3. 정 리

가족의 기능은 일차적으로 ‘생물적·사회적 재생산’이다. 가정은 사회의 새 구성원인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을 배우는 곳이다. 따라서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구라 할 수 있다.

동성 결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가족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바로 그 점이 이 논쟁을 어렵게 만든다. 먼저 동성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자연히 가족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 입양은 비록 언제나 바람직하지만, 다른 기구들이나 보통 가족들이 이미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서 동성 가족이 기여할 몫은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사회화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므로 ‘과연 동성 부부들이 입양한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본보기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도 제기된다. 보다 근본적인 반론은 동성 결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이미 약해진 가족 제도의 피륙이 더욱 약해지리라는 점이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동성애자들도 언행과 법률 안에서 언제나 존중되어야 할 모든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¹⁾ 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가 … 그 형제자매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도와주도록”²⁾ 요청함으로써 그들과의 우애를 증진시키는 일 등, 다양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인간의 성에 대한 교리 교육 프로그램에 동성애 문제를 특별히 포함시키고, 동성애자들의 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하고 있다.³⁾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의 성적인 접촉과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신앙교리성은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불허를 표명하면서, 인간의 육체를 성서적 근거에 의하여 하느님이 준 ‘혼인적 표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교회는 동성애자의 존엄을 지지하면서, 교회의 일관된 가르침을 고수한다. 성 관련 문제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특징짓는 두 가지 근본적인 원칙들이 있다. 첫째, 교회는 언제나 사랑의 성적(생식기를 통한) 표현은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따른 것이며 남자와 여자의 혼인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동성애의 관계를 이성애의 혼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사랑의 성적(생식기를 통한) 표현은 새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교회는 동성애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가 그러한 행위를 ‘본질적으로 잘못된’⁴⁾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근본적인 원

칙들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비록 세속의 법체계에서는 동성애가 더 이상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성애 행위에 대한 도덕적 권리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주1) 교황청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서한”(1986.10.30), 10항.

주2) 위의 글, 15항.

주3) 위의 글, 17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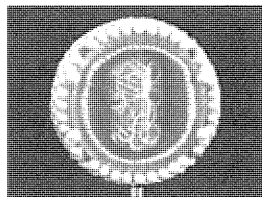
주4) 교황청 신앙교리성, 앞의 글, 3항.

에이즈(AIDS)

1. “아프리카의 에이즈 위기”

“에이즈의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간다의 주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연대를 통하여, 환자들에게는 큰 사랑과 관심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는 넓은 마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생활 양식의 쇄신을 위한 노력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사목서한 ‘너희의 빛을 비추어라’, 28항).

에이즈로 고통 받고 있는 여러분은 각 국가의 안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이즈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돌보는 일에 기꺼이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힘을 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의 원인 바이러스

는 무한한 사랑을 주시기를 하느님께 간청합니다.”

[출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아프리카의 에이즈 위기”, Origins 22: 36호(1993.2.18.), 613-614면]

2. “에이즈의 여러 측면 : 복음의 응답”

(...) 첫째, 에이즈와 같이 새롭고 치명적인 병에 대하여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에이즈의 희생자에게도 다른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연민과 이해로써 대하도록 격려한다.

둘째, 우리는 에이즈가 국가적 문제가 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 행위와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동성애자들이나 에이즈 환자들은 차별과 불의와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현재로서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격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적절한 의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건 전문가나 공공 의료직 종사자들의 전문 지식을 담고 있지 않은 격리 법안이나 다른 법들의 시행에 반대한다.

넷째, 우리는 순전히 차별적인 목적으로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항체 테스트를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다섯째, 의료 시설에 근무하는 일부 의

료 종사자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여섯째, 에이즈 환자들도 가능한 한 공동체와 일터에서 생산적인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격려 받아야 한다. 그들은 또한 적절한 주거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일곱째, 우리는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충분한 기금과 간호를 제공하려는 정부 단체와 보건 종사자, 인도주의 단체들의 공동 노력을 후원한다.

여덟째, 우리는 정부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나 건강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충분한 기금을 제공하고, 에이즈 바이러스 관련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확대 수입을 지원하도록 촉구한다.

[출처 : 미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행정위원회, “에이즈의 여러 측면 : 복음의 응답”(1987.12.11, Origins 17: 28호(1987.12.24.), 483-487면]

3. 정 리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에이즈(AIDS)란 ‘후천성 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으로, 체내의 세포 면역 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보통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각종 감염증이 발생하여 이러한 증상이 전신에 퍼지는

질환을 말한다.

에이즈는 주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 관계를 통해서 또는 수혈이나 헌혈, 약물 정맥 주사 사용 등을 통해서 쉽게 전염된다. 그런데 에이즈는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다. 더군다나 그 잠복기간이 몇 년씩이나 되어서 초기에 발견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2001년까지 1,600여 명(이 중 97%가 성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확인됨)으로 집계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의 급속한 추세를 감안할 때 아마 3-5배 정도 이상이 더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에이즈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이미 각국 나라들은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에이즈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 연대 기구를 만들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11월 28일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에이즈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예방 관리 대책은 크게 '예방 홍보 사업'과 '감염자 발견 사업' 그리고 '감염자 관리'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다.

에이즈의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전파 경로 또한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에이즈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홍보'이다. 사실 세계 각국에서

도 에이즈 예방 관리를 위해서 보건자 찾기 사업보다 대국민 홍보, 계몽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개인의 책임 의식을 제고시키며, 나아가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궁극적 목표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나 관련 단체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홍보 방법의 다양화, 홍보 시기의 연중화,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화, 관리 요원과 상담 요원의 전문화에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에이즈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는 에이즈 '감염자 발견 사업'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된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이 시기에도 타인에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일은 전파 방지를 위해서도 더욱더 효과적일 뿐 아니라, 감염자에 대한 건강 지도나 상담 등 감염자 보호 관리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감염자 발견 사업'과 함께 '감염자 관리 사업' 또한 에이즈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감염자에 대한 인권 존중과 그에 따른 감염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감염자의 진단, 검안이나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자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문건의 내용대로, 에이즈를 개인과 사회로부터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성(性)에 대한 온전하고 통합적인 참된 이해(혼외 관계의 금지와 혼인에 대한 충실성)와 약물 정맥 주사 남용을 피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입법이나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생명의 질을 저하시키고 제한하는 인간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교회와 국가는 이러한 근본적인 현실적 문제들을 다루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은 소중한 것이며, 때로는 우울하고 헛되게 보이더라도 삶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도록 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로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게 대해 좋지 못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 분노나 비난, 거부나 따돌림보다는 오히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한편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 감염자들을 위한 수용 시설 확충, 정부 지원에 의한 치료비 부담, 적극적인 예방 홍보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인간 배아 연구에 관하여

1.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혼령?”

I. 인간 배아에 대한 존중

1) 본성과 주체성을 고려한 인간 배아에 대한 존엄성은 무엇인가?

인간은 그 존재의 첫 순간부터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로서는 현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이고도 확실한 교리, 곧 “생명은 그 수정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해야 하며, 낙태와 유아 살해는 가증할 죄악”이라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교황 성하께서 발표하신 ‘가정 권리 헌장’에서 “인간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앙교리성은 오늘날 인간 생명의 시작과, 인간의 개별성, 그리고 인간의 주체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신앙교리성 ‘인공 유산 반대 선언’에서 발견되는 가르침을 다시 상기하는 바이다. 곧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것은 그 자신의 성장을 가지는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인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이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 유전학은 이 자명한 불변의 원리를 확인해 준다. 이 생명체가 자라나

서 충분히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 한 사람이 될 프로그램이, 수정되는 첫 순간부터 인간 생명의 모험이 시작되는데, 모든 잠재력이 각기 제자리를 발견하고, 행동할 태세를 취하려면 꽤 긴 시간이 요구된다.”

4) 인간 배아와 태아에 대한 연구나 실험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든 연구는, 그것이 아무리 인간 배아를 관찰하는 정도의 간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그로 인한 영향 때문에 배아의 생명이나 형태에 해를 준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된다.

어떤 목적도 그것이 아무리 과학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 이익이 아주 확실한, 훌륭한 것이라 해도 살아 있는 배아에 대한 실험은 그 생존 가능성이나 자궁 안팎 어디에서건 관계없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어른들에 대한 임상 실험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명시적 동의도 태아의 생명과 온전성을 자유로이 관리할 수 없는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출처 :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1987.2.22.), *Origins* 16: 40호(1987.3.19.), 701-702면]

2. “생명의 복음”

63) 낙태의 윤리성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인간 배아에 대해 행해지는 최근의 조작 형태들에 대해서도 역시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작들은 비록 그 자체로는 합법적

인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배아에 대한 살해를 수반합니다. 이 배아 살해는 배아 실험에서 발생하며, 배아 실험은 몇몇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배아의 생명과 그 온전함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부당한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개체의 건강 증진과 생존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조치에 대해서는 합당한 것으로 지지해야 하지만”, 인간의 배아나 태아를 실험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출생한 아기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출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1995.3.25.), *Origins* 24: 42호(1995.4.6.), 711면]

3. 정 리

오늘날 생명 과학 기술의 놀랍고도 눈부신 발전은 인류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미래와 희망이 생명 과학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몇 년 전에는 생식 세포의 복제를 통해서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생식 세포와는 전혀 상관없이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도 무성 생식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생명 기술의 발전이 이제 단성(單性), 무배우자 생식을 가능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똑같은 개체인 복제 인간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인체에 장기를 이식할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이른바 ‘녹아웃(knock out) 돼지’를 복제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한다. 곧 사람 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를 제거해 거부 반응 없이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복제 돼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생명 과학 기술의 발전은 유럽 선진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생명 과학 육성이라는 정부의 방침 아래 의학계는 물론 대기업들의 엄청난 도움과 협력으로 우리나라의 생명 과학 기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가톨릭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라는 이상한 이름의 간판을 내건 연구소에서는 이미 소의 난자를 이용해서 사람의 유전자를 가진 연구용 배아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고, 심지어는 사람의 체세포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이식해 99% 이상 사람의 유전자를 가진 복제 배아를 만들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수의학 교수인 황우석 박사는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배아 복제를 통해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이미 보도되었고, 어떤 생명 공학 연구소에서는 시험관 아기 시술에 사용되고 남은 냉동 배아를 이용하여 배아 간세포를 분리하였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생명 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인간 생명이 위협

을 받고 있는데도 아직 정부에서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말,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법안들이 인간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주는 것으로, 특히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 반대이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 생명체인 배아를 복제해서 질병 치료에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한 인간을 다른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근본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가증스럽고도 잔인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 배아 복제 및 연구 실험은 모든 종류의 치료 목적을 정당화해서 살아 있는 생명체를 파괴하고 살해하는 만행으로서 현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항 능력이 전혀 없는 연약한 인간 생명체의 생명권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인간 복제란 핵을 제공하는 원본 인간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인간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간 배아 복제 또한 그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복제는 엄격히 말하면 인간 배아 복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복제된 개체의 생존을 배아 상태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배아 복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 복제라는 말과 배아 복제라는 말이 사실 그 의미에서 전혀 다르지 않지만 굳이 말 표현을 달리 하는 것은 어찌면 인간 복제 보다는 배아 복제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들릴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결국 인간 배아를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배아를 인간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생명 공학자들의 의견은 결국 인간 생명을 발달 단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배아가 태아보다, 태아는 어린이보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정하게 되는 크나 큰 모순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미 교황청 생명학술원에서는 2000년 8월 25일에 “인간 배아 줄기세포의 생산과 과학적 치료적 활용에 관한 선언”을 통해서 인간 배아 줄기 세포 연구에 관한 교회의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간 배아는 배우자가 결합하는 순간부터 확실하게 결정된 신원을 가진 인간 주체이며, 바로 그때부터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발전을 시작하므로, 그 후의 어떤 단계에서도 단순한 세포 덩이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그 주체는 인간 개체로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배아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개입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한마디로 가톨릭 교회

의 입장은 인간 배아나 인간 배아 줄기 세포의 연구는 그것이 치료의 목적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문제는, 배아 복제 과정을 통해 수많은 인간 배아들이 손상 받으며 상당 부분의 인간 배아들은 폐기 처분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인간들이 현미경 아래에서 갖은 폭력을 당하며 무참히 살해되는 셈이다. 생명 윤리학자들이 21세기를 현미경적 폭력의 시대라고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항거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 배아는 거대한 폭력 앞에 노출되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인간 배아 복제 및 실험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하느님의 창조적 권위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성감별을 통한 선택적 분만과 인공 유산을 자행함으로써 야기되는 엄청난 문제들을 알고 있고 또 이미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생명을 조작하거나 지배하려든다면 생명 과학은 또 다른 종교가 되고 생명 과학자들은 또 다른 제사장이 되어 인류의 미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벌써 자행되고 있는 태아 실험이나 유전자 조작, 원숭이와 인간의 교배 실험 등은 인간 배아 복제로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짐작하게 하고 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 생명권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 생명에 관한 교육에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곧 생명 교육, 생명 윤리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나아가서는 생명 과학 산업계와 생명 과학자들에게 인간 배아 실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종교와 국가가 함께 질병 치료의 다른 대체 치료책을 개발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불치·난치병 치료, 배아 줄기 세포만 가능한가?

1. 줄기 세포(Stem Cell)란 무엇인가?

줄기 세포란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간이나 심장 등 구체적인 장기를 형성하기 직전 단계의 세포로 증식해서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한다. 이러한 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각종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를 재생함으로써 난치병 극복을 향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줄기 세포를 얻는 방법에는 크게 발생과정이 끝난 성인이나 태반에서 얻을 수 있는 성체 줄기 세포와 수정 후 4-5일 이내에 형성된 포배(blastocyst)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배아 줄기 세포가 있다.

배아 줄기 세포는 증식 및 자가 재생산

이 용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한 개의 세포로부터 210여 종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능 분화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성체 줄기 세포는 증식이 어렵고 쉽게 분화되는 경향이 강한 대신에 여러 종류의 성체 줄기 세포를 사용하여 실제 의학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재생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식 된 후 각 장기의 특성에 맞게 분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치유와 회복의 성체 줄기 세포

인간이 성체 줄기 세포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1958년 유고슬라비아의 대형 원전사고가 일어난 즈음이었다. 이 사고로 여기서 일하던 6명의 물리학자들이 대량의 방사선피폭을 당했다. 이로 인해 이들의 골수가 심하게 파괴되어 혈구 감소증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건강한 사람의 골수를 이식했더니 피폐화 된 이들의 골수가 뚜렷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혈 모세포라고 하는 성체 줄기 세포가 이러한 파괴된 조직을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재생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밝혀낸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종류의 재생작용을 하고 있는 줄기 세포가 비단 골수뿐 아니라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에 준비되어 있어, 심지어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던 신경이나 심장, 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3. 줄기 세포를 얻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표>

반응을 없애기 위해 수십만 개의 줄기 세포주 은행을 확보하거나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체 줄기 세포는 면역학적 거부반응을 배아 줄기 세포보

구분	기술적 측면	윤리적 측면
인간 배아 복제	거부 반응이 없는 장기 대량 생산이 가능	개체복제의 가능성이 크다.
냉동 수정란 방식	환자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아서 거부반응이 생김	수정란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성체 줄기 세포 방식	그동안 기술적으로 어려워 실용화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으나 최근 '중간엽 줄기 세포'를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기술로 전망	윤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안전하다.
동물 난자 활용 방식	인간 배아복제와 냉동수정란 방식의 중간 단계	사람, 동물의 융합이므로 윤리적 문제가 크다.

4. 성체 줄기 세포(중간엽 줄기 세포)의 가치와 유용성

첫째, 성체 줄기 세포는 배아 줄기 세포처럼 기형종과 같은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염려가 없다. 즉 의학적으로 매우 안전하다. 더군다나 몸 안에 이식되면 각 장기의 특성에 알맞게 스스로 분화되는 특성이 있다. 심지어 원래의 장기와 다른 제3의 줄기 세포를 이식해도 줄기 세포 자신이 그 장기의 세포로 변하여 필요한 장기 재생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능력, 곧 분화의 유연성이 있다.

둘째, 배아 줄기 세포는 면역학적 거부

다 훨씬 쉽게 비켜 나갈 수 있다.

셋째, 성체 줄기 세포는 이식된 후 몸 안에서 증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식된 후 오랫동안 장기재생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어 치료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의학적 적용상의 장점과 더불어 수많은 종류의 난치 질환들이 성체 줄기 세포에 의해 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의학과 생명공학의 장을 열어갈 새로운 가능성들이 제시되고 있다.

5. 정 리

국내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히스토스템(Histostem)에서 2003년 5월 27일, 세계 최초로 탯줄 혈액에서 ‘중간엽 줄기 세포(Mesenchymal Stem Cell)’를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동안 성체 줄기 세포인 ‘중간엽 줄기 세포’의 분리, 배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와 같은 신기술 개발은 전 세계 생명공학계에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기술 개발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배아 줄기 세포가 불치,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겨온 일부 생명공학자들과 이를 바탕으로 기업적 이윤을 추구해 온 관련 산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나아가 현재 과학기술부의 협조 아래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추진하고 있는 생명윤리 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선별적’ 허용 부문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배아복제 허용 조항을 삭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기술 개발이자, 윤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쾌거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 일부 생명공학자들과 생명공학 벤처 기업에서 주장한 줄기 세포에 대한 두 가지 착각은 분명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 배아 줄기 세포만이 난치병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배아 줄기 세포에 의해서만 난치병 정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일방적으로 심어주었다.

둘째, 성체 줄기 세포가 배아 줄기 세포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지고 가치가 뒤진다고 일방적으로 성체 줄기 세포의 단점만 부각시켜 온 점이다. 줄기 세포 연구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시대는 더욱 의미 있는 줄기 세포를 통한 미래의 희망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성체 줄기 세포의 효용성과 가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는 물론, 생명공학 벤처기업과 언론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성체 줄기 세포의 연구를 위해 교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 엄마와 똑같은 딸

— 인간 복제 어떻게 볼 것인가?

1. 들어가는 말

미국 현지시간으로 2002년 12월 26일 오전 11시 55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인류 최초의 체세포 복제 인간인 이브(Eve)가 전 세계에 가져다 준 충격은 매우 심각하다. 아직까지 인간의 체세포 복제 방법을 통해서 탄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생명

공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성공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한다. 더구나 이 인간 복제를 주도한 단체가 라엘리언(Raelian)이라고 하는 유사종교집단이어서 그 신뢰성은 더욱 의심이 가기도 한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간 복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꾸준히 그리고 진지하게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부 생명공학자들이 이러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을 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 복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중을 상대로 그릇된 신념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인간 복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복제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인간 복제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명료하다. 인간 복제를 통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즉 불임부부나 동성애자들에게 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방법이 악해도 좋다는 논리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인간 복제에 대한 명확한 사

회적 일치 내지는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오만이며 이러한 오만은 사회적 편견과 혼란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오만과 편견은 현대 후기산업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인간 복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해 불행한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무정자증의 남편을 가진 아내가 자신만의 아이를 원할 경우 체세포 복제를 통해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선천적인 유전자적 결함(백혈병이나 암 환자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치유를 위해 복제 인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반생명적이고도 반윤리적인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인류의 기술 수준으로는 그 실패율이 매우 높아서 결국 끊임 없이 인간의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생명체인 인간배아 복제나 배아를 이용한 실험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엄격히 말해서 인간배아 복제 및 연구는 인간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곧바로 인간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 배아 복제 및 실험연구 허용은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 복제는 또한 가치질서의 붕괴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현실적인 사회적 관계의 기초인 가족관계도 파괴시킨다. 즉 성인의 체세포를 복제하여 아기가 태어날 경우 그 아기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다. 그 뿐 아니라 클로네이드사가 주장하는 복제 인간인 이브(Eve)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기 자신의 체세포를 복제하여 스스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낳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아기가 기존의 가족 질서에 편입되는데 커다란 혼란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단순한 법적 차원에서의 문제 이상의 어려움을 사회에 가져다주게 된다.

인간 복제의 방법을 통해 태어난 인간이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벌어질 일을 예견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인간 복제가 동일한 DNA를 가진 인간의 존속을 주 목표로 하여 무성생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때 이러한 사람들과 전통적인 방법, 즉 유성생식을 통해 탄생한 ‘보통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은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적 분열을 야기시킬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브리짓트 보아셀리 박사가 계획한 대로 생물학적 특성뿐 아니라 기억력과 성격까지도 복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인류가 맞이하게 될 사회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 이러한 사회는 궁극적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다.

3. 인간 복제는 하느님께 대한 도전

사실 인간 복제는 그동안 교회가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인간배아 복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교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의 선을 위해 스스로 자제하고 통제하는 윤리적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무엇보다도 인간 복제는 생명의 신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즉 인간복제의 시도는 하느님께 절대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생명권에 대한 도전이며, 이는 곧 하느님의 고유한 소관 사항인 창조사업을 인간이 떠맡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이 새로운 종교가 되고 자연과학자들이 새로운 제사장이 되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심오한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인류 전체에 대한 재앙이 될 것이다. 단순한 기술적 한계의 결과로 초래되는 사회적 혼란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이 아니라 자기파괴를 낳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최초의 복제 인간인 이브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하는 클로네이드사는 단순히 불임이나 치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

복제를 통해 인간이 영원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고자 희망한다. 그리고 그러한 희망과 갈망은 보다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영생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의 연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편견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혼과 더불어 영원을 바르게 이해하는 정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복제 행위는 하나님의 모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그 근본에서부터 부인하는 것이다. 인간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난자와 자궁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치환을 위한 DNA와 착상을 위한 인간 배아 줄기 세포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자신이 임신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모의 자궁도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 복제를 위해서는 한 인간의 일부분만을 필요로 하여 인간을 그러한 부분으로 환원시켜 이해하는 관점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 복제는 자기애의 극단적 표현이라는 점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목표를 향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 복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의 생물학적 영생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에 정면으로 위

배되는 것이다. 특히 기능이 분화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는 현대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이기적 사랑은 선이 실현되는 장으로서의 사회의 공동선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 요소 중의 하나이다. 원래 자기애는 자기보호본능에서 나온 것이고 이러한 자기애의 목표는 바로 생존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기애만을 추구할 경우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자기 파멸 그리고 나아가 인류의 파멸만을 초래할 뿐이다.

4. 생명공학자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하느님의 선물을 오용하여 하느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자유의 개념에 대한 혼란으로 인간은 커다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는 아닐 것이다. 인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달의 성과를 교회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인류는 유사 이래로 고도로 발달한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에 생명공학은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영양실조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구 자원을 더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과

학 연구가 진행될 때,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인류의 희망을 대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가 인간 정신의 풍요를 직접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대 사회의 인간소외 현상이 기술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순수한 학문 연구가 상업주의에 물들어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이다. 후기산업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는 더 이상 하나의 경제 체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을 보여주고 이끄는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공학자들의 구체적인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윤의 추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후기산업사회에서 팽배해 있는 맹목적인 이윤추구는 가치전도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목적이어야 할 인간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어야 할 이윤이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간배아 복제에 관한 기술을 특허 내어서 상업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패륜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인간이 수단화되었을 때 파생되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간 가치에 대한 몰이해는 인간의 자기 파괴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5. 나오는 말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올바른 법률 제정과 나아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을 조기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그 입안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참으로 크다.

법률이 입안될 때 공청회를 거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른 절차이기는 하다.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과 같은 문제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은 결코 아니다. 만약 이 문제가 다수결에 의해 그리고 대중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인간 복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 경우 인간 복제를 합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 생명의 시작점에 관한 것이다. 많은 자연과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인간 생명의 시작이 수정 후 3-4일, 혹은 14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도 그릇된 견해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

다. 그런데 적지 않은 자연과학자들은 이러한 교회의 입장을 자연과학적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우수한 논문이 게재되는 저명한 자연과학 잡지인 <Science> 지에서는, 2002년 7월 4일자에 논문을 기고한 헬렌 피어슨(Helen Pierson) 씨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지 24시간 이내에 지금까지는 원시선이 나타난 이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된 현상이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수정된 배아의 어느 부분에서 머리와 다리가 생기며, 또한 어느 면이 등이 되고 배가 될 것인지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지 수 분 내지 수 시간 내에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수정된 지 14일 이후에야 인간 배아가 생명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종래의 주장은 비윤리적인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인 것이다. 오히려 자연과학적 증거가 나오기 이전부터 인간 생명의 시작점을 수정의 순간으로 본 교회의 가르침이 더 과학적인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인간 생명의 시작점이 언제인가는 지금까지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조작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좋은 구실이 되어 왔다. 즉 원시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수정 14일 이전의 수정란은 생명이 아니라 세포이기 때문에 다른 실험용 세포와 마찬가지로 생산, 활용, 조작, 매매, 폐기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자연과학자들 간에 널리 퍼져 있었

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과학적’ 견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일부 자연과학자들의 주장과 생각은 이제 비과학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인간 생명은 발명품도 아니고 상품은 더욱 아니다. 생명은 바로 하느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속에서 인간에게 선물된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도 된다.”는 것이 과연 과학이 가지고 있는 신념인가를 묻고 싶다. 무엇인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술의 진보가 반드시 더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윤리의 퇴보일 수 있다. 결국 윤리를 상실한 과학은 죽음과 파멸을 초래케 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생명’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인간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하루빨리 생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뇌사(腦死)에 관하여

1. “생명 연장과 사망 판정에 관한 보고

서”

1) 사망의 정의

사망은 인간이 신체의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할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말한다.

인간은, (1) 자연적인 심장과 호흡 기능이 분명히 멈추었을 때, (2)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다시 돌이킬 수 없음이 입증되었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논의 결과, 심폐 기능의 명확한 정지는 곧바로 뇌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뇌사는 분명한 사망 기준이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또한 뇌 기능이 확실히 정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임상적 기계적 방법들을 분석하는데 뇌 기능이 멈추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하여, 곧 뇌전도에 뇌파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6시간 간격으로 적어도 두 번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출처 : 교황청 과학원, “생명 연장과 사망 판정에 관한 보고서”(1985.10.30.), Health Progress, 1985년, 31면.]

2. “생명 연장”

언제를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중추 마비로 무의식 상태에 있는 환자의 혈액 순환과 생명이 인공 호흡기로써만 유지되고 며칠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때, 가톨릭 교회는 언제 그 환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며, 자연법에 따르

면 그 환자는 언제 사망한 것으로 선고되어야 하는가?”(‘사실상’ 문제와 ‘법률상’ 문제)

특별한 경우의 사망 판정 문제는 어떤 종교적 또는 윤리적 원칙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런 측면에서 교회 권한 밖의 일이다.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이 문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연의 순리를 생각해 볼 때, 스스로 또는 인위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생명의 중요한 기능(장기의 단순한 생존과 구별되는)을 분명히 다하고 있는 한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아직 확실히 해결되지 못했으며, 앞에서 말한 법률적 추정과 사실적 추정에 따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출처 : 교황 비오 12세, “생명 연장”(1957.11.24.), The Pope Speaks 4: 4호, 1958년, 396-398면.]

3. “뇌사 판정을 위한 지침”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 최근의 기술 수단의 발전으로 언제를 사망 시점으로 판정할 것인지 결정하기에 어려운 경우들이 꽤 있다. 임상적 사망의 판정은 중추 신경계의 질병들과 관련된 경우들에 특히 더 문제가 된다.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들은 사망 진단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임상적 사망 판정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해 본 다음에만 지침으로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1. 외부적으로 적용된 자극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매우 강렬한 고통을 주는 자극에도 목소리나 신음 소리, 팔다리의 움츠림, 자발적인 호흡 등의 다른 반응이 없다.

2.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지켜 본 의사들의 소견상, 자발적인 근육의 움직임이나 자발적 호흡, 또는 고통이나 접촉, 소리나 빛 등의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기준을 충족시킨다. 환자에게 호흡기로 인공호흡을 한 뒤, 3분 동안 호흡기를 떼어내고 환자가 자발적으로 숨쉬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지켜봄으로써 자발적인 호흡능력이 전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호흡기를 3분 동안 떼어 내는 것은, 이런 시도에 들어갈 때에 환자의 이산화탄소 장력이 일반 수준이고, 그 이전에 환자가 10분 이상 방 안 공기로 산소를 공급 받았을 경우에 한한다.).

3. 자극에 대한 반사 작용이 없으면, 중추 신경계 활동이 멈추고 돌이킬 수 없는 혼수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 동공이 고정되고 확대되며 직접적인 밝은 빛이나 목을 죄는 자극에도 반응이 없을 것이다.

눈의 움직임과 깜박거림을 볼 수 없다. 체위상 움직임의 증거가 없으며, 씹거나 하품을 하거나 발성을 하지 않고, 각막과 인두의 반응이 없다.

대체로, 신장 반사나 건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두근이나 삼두근, 내전근, 비복근의 힘줄을 반사 망치로 건드

려도 각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발바닥의 자극이나 유해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다.

위의 모든 실험은 24시간 간격으로 반복한다.

4. 뇌파가 편평하게 표시되는 것(flat or isoelectric EEG)은 확인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평탄 뇌파(뇌파 소실)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원한다면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

[출처 : 미국 주교회의 '가톨릭 의료 시설들을 위한 윤리적 종교적 지침에 관한 자문 위원회', "뇌사 판정을 위한 지침", Hospital Progress, 1975년 12월, 26면.]

4. 정 리

‘죽음’과 ‘죽음의 순간’에 관련된 가톨릭 교회의 최초 언급은 1957년 11월 24일 멘델 연구소가 개최한 학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에 모인 의사들에게 교황 비오 12세가 행한 담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교황 비오 12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 가는 환자의 죽음과 죽음의 순간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확인하는 일은 의사들의 영역에 속하며 ...그것은 교회의 권한 밖에 있는 문제”라고 언급함으로써 죽음의 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의사들에게 유보시켰다.

이렇게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의학적 죽음이라든가 장기 기증자의 죽음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한 기준들을 정의하는 일은

우리 신학자들의 임무는 아니다. 이러한 임무는 의학과 그 연구 기술 분야에 속한다. 이 점에 관해서 1985년 10월 21일부터 3일간 열린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한 생명의 인위적인 연장과 죽음의 정확한 순간 결정을 다룬 세미나에서 내린 죽음의 순간에 관한 정의는 죽음의 순간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견해를 조금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 세미나에서는 뇌사, 곧 뇌 기능의 불가역적(不可逆的)인 정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의학적 방법과 장치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면서, “인간 신체의 정신적 및 육체적 기능을 조절하고 통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불가역적인 상실, 뇌의 전 기능의 불가역적인 정지가 죽음의 순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세그레시아(E. Sgreccia) 주교도 “수시간 동안 대뇌 피질의 활동뿐만 아니라 호흡이라든가 심폐 기능, 신경 반사 작용 등과 같은 신체 기능과 연결된 뇌의 중심적 활동이 불가역적으로 정지될 때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사실 인간 개인에게는 비록 정신적 삶이 실제의 삶으로부터 방해받는다 하더라도 존재론적 행위만 있으면 살아 있다고 본다. 그러한 행위는 모든 생명적 기능, 생장 기능, 감각적 정신적 기능까지도 활발하게 만들어 주며, 지탱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적 생명이 존재하는 한 그는 정신적 존재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 안에

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생명적 기능들이 그 기능을 멈추게 될 때, 육체적 인간 생명은 끝났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영혼과 육신이 서로 분리된다고 볼 수 있다.” 곧 뇌의 생명력이 다함으로써 인간의 생명력이 다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세미나는 뇌사를 의학적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행한 담화에서 “의사는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 또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죽음은 인간 생애의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이므로,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만 치료를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 인간 조건에 따라 신중히 생각되고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함으로써 뇌사를 죽음의 순간으로 인정하는 데에 이미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1995년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가 출판한 “의료인 헌장”(Charter for Health Care Workers)에서는 공식적으로 ‘뇌사를 의학적 죽음으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장기 이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인 헌장”은 뇌사와 관련된 장기 기증과 장기 이식이 “생명에 대한 봉사”일 때 그 도덕적 가치가 드러나며 또한 그러한 의료 관행이 정당화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의학협회에서는 이미 1983년에 뇌사에 의한 사망 기준을 선포하였으며, 2000년 2월 9일부터는 공식적으로 뇌사의 입법화에 따른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시행에 따른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뇌사 판정에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단지 장기 이식과 관련 지어서 뇌사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뇌사 판정을 할 때 한치의 오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고도의 정확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뇌사 판정에 대한 연구가 장기 이식을 쉽게 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 생명과 신체에 관한 성숙된 도덕적 의식이다. 뇌사가 장기 이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실이라면 이러한 의식의 성숙을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된다 하겠다.

어쨌든 뇌사를 죽음으로 판정하는 것은 장기 이식과 관련하여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적인 희생과 사랑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뇌사에 따른 장기 이식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사랑의 장기 기증일 때만 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뇌사가 인정되어 장기 이식 수술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어 장기 매개로 이어질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고 하겠다.

실질적으로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으로 생명을 되찾았다고는 하지

만 오히려 이러한 의료 행위들이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 삶의 순리와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인간 삶의 참다운 가치와 본질을 가르치고, 생명 연장의 가치보다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완전하고 큰 가치를 선포해야 할 것이다.

안락사

1. “생명의 복음”

64) 안락사란 죽음을 조절하여, 정해진 시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이며,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편안하게’ 끝맺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안락사를 잘 살펴보면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65) 엄밀한 의미의 안락사란 모든 고통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야기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락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의향과 사용된 방법에서 찾아야 합니다.”

안락사는 이른바 “과도한 의학적 치료”를 그만두는 것과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상되는 어떠한 결과에도 부적절하거나 또는 환자나 가족에게 지

나친 부담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환자가 처한 실제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의학적 치료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죽음이 임박하고 피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양심 안에서 “비슷한 경우의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상적인 간호를 중단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결과가 불확실하고 큰 부담이 되는 생명의 연장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종류의 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아야 하고, 자신을 남들이 돌보도록 허락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의무는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사용 가능한 치료 방법들이, 호전될 가망성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살이나 안락사와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출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1995.3.25.), Origins 24: 42호(1995.4.6.), 712면.]

2. “안락사에 관한 선언”

안락사

안락사의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그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어원으로 말하자면 고대에 안락사란 말은 심한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을 뜻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 말의 본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고통이

나 단말마의 고통을 없애려는 어떤 의학적 개입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또한 가끔 일찍 생명을 서둘러 폐지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결국 극도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안락 살해’ 또는 가족과 사회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을 수도 있는 정신 질환과 불치병에 걸린 비정상아를 여러 해 동안 계속되는 비참한 생명의 연장에서 구제하기 위한 ‘안락 살해’를 뜻하는 더욱 특수한 의미로 ‘안락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뜻하는 바를 분명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안락사는 모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절로 또는 고의로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안락사의 관계 조건은 사용된 방법과 지향 의지에서 인지되는 것이다.

오래 지속되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 때문에, 극히 개인적인 또는 기타의 이유 때문에 죽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얻어낼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한 경우에 개인의 죄의식이 감소되거나 완전히 없어진다 하더라도, 비록 선의에서일지라도 양심이 저지른 판단의 오류가 결코 그러한 살인 행위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 행위 자체는 언제나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죽여달라고 하는 중환자들의 간청이 안락사에 대한 진정한 원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그것은 거의 언제나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고뇌에 찬 간원의 경우다. 의학적인 간호 외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부모, 자녀, 의사, 간호사 등 가까운 모든 사람이 병자를 에워쌀 수 있고 또 감싸 주어야 하는 인간적이고도 초자연적인 온정이 필요한 것이다.

[출처 :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1980.5.5.), Vatican Council II, 제2권, 510-516면.]

3. 정 리

안락사(Euthanasia)라는 단어는 본래 희랍어 'eu' (아름다운, 기쁜)와 'thanatos' (죽음)의 합성어로서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또는 "고통 없이 빠른 죽음", "잠자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죽음", "가벼운 죽음"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어원적으로 풀이해 보면 고대의 안락사(Euthanasia)라는 단어는 심한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 말의 본래의 의미를 잃고 그저 질병의 고통이나 단말마적 고통을 없애려는 어떤 의학적 개입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안락사라는 말은 고통을 없애기 위한 안락 살해(安樂殺害) 또는 오랜 동안의 고통스런 생명의 연장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한 안락 살해(安樂殺害)를 뜻하는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안락사라는 말은 생물학적 생명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식이 없이 인격이 소멸된 경우나 또는 고칠 수 없으며 참을 수 없는 신체적 고통으

로 사회생활이 의미 없고 불가능하게 되어 삶의 의미조차 없는 정신적 존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어떤 신체적 결핍 때문에 국가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어서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죽음을 앞당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합리주의적 사상이 발상이 되어서 직접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안락사라는 말은 과거와는 달리 "인간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에서 인식되었을 때 합리주의적 발상에 의해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오늘날에는 의학적 측면에서 좀 더 안락사를 세분화시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직접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주지(周知)의 의료 행위를 환자에게 시행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무후한 인간 존재로서, 태아이든 유아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든 죽어 가는 사람이든 결코 인간의 살해를 용납할 수 없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1980. 5.5.) 중에서도).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1) 죽음 직전의

환자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행위, 곧 수분 공급이나 간호, 보편적인 투약이나 임종자와의 긴밀한 대화 등은 절대로 안락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2) 또한 환자의 조건으로 보아 이미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의료 행위를 그만두는 것(전통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예외적 용법을 포기하는 결정’이다)은 환자의 죽음을 방관하는 결정이 아니라 사려와 분별에 근거한 합리적인 과정에 따라 적절하게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친다. 나아가 가톨릭 교회는 3)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하는 행위는 의사의 소명에 속하며, 비단 질병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환자를 돌보아 주고 고통을 덜어 주는 것도 의사의 소명이라 가르친다. 그러므로 위의 세 가지 경우는 안락사가 아니라 품위 있는 인간적 죽음 또는 존엄사(Death of Dignity)로 이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톨릭 교회는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절대성과 하느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일깨워 준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안락사’라는 말의 엄밀한 개념 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곧 본래의 참뜻인 ‘평안한 죽음’이 ‘안락 살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안락사라는 말이 “특수한 행위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을 끝내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안락사는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든 소극적인 의미에서든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을 확고히 가르친다.

장기 기증과 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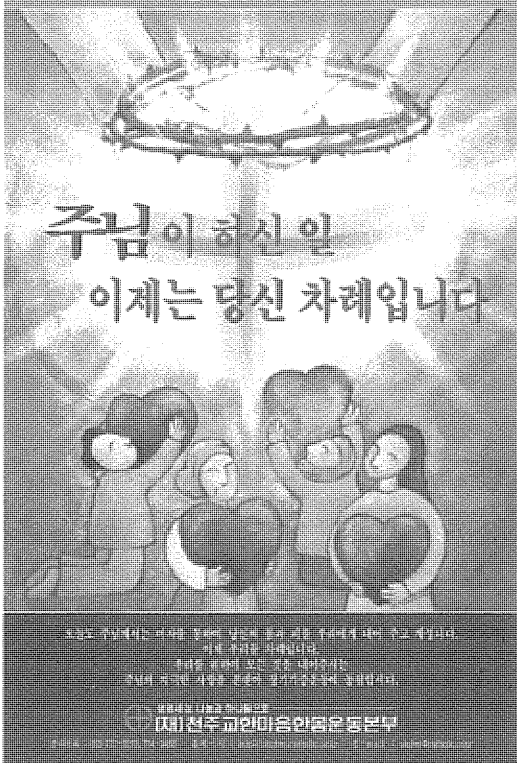
1. “혈액과 장기 기증자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데 모여 하나가 될 수 있게 한 목적, 말하자면 장기를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혈액과 장기를 기증하려는 숭고하고도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증진하고 장려하려는 목적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여러분이 세속적인 이득이나 목적을 바라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기꺼이 우러나서, 또한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연대를 위하여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한 연대는, 복음 메시지의 감동적인 주제이며 실제로 새로운 계명으로 정의되어 온,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출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혈액과 장기 기증자들”(1984.8.2.), The Pope Speaks 30: 1호, 1985년, 1-2면]

2. “여러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들이 더욱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에 봉사하는 의학이, 다름 아닌 인간의 근본적인 선을 보호함으로써 장기 기증을 통하여 인류 가족에게 봉사할 새로운 방식을 찾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야 합니다.

1. 혈액 수혈에서 시작된 장기 이식의 등장과 함께 인간은 다른 이들이 계속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 곧 자신의 혈액과 신체를 기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 덕분에, 또한 의사들과, 흔히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복잡한 수술에 없어서는 안 되는 협력을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훈련과 헌신 덕분에, 새롭고 놀라운 도전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도록 도전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용어로 말하자면, “더욱 극진히”(요한 13,1) 사랑하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2. 사랑과 친교, 연대, 인간 존엄에 대한 절대적 존중만이 장기 이식의 합법적 배경이 됩니다. 개인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이를 완성하는 윤리적 규범들을 준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부를, 자기 몸의 일부를 내어 주려는 자유롭고 의식적인 결정을 할 때 관

련되는 윤리적 영적 가치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사실상, 신체는 언제나 개인의 몸, 인간의 몸입니다. 신체는 단순한 육체적 생물학적 존재로 다루어질 수 없으며, 그 장기나 조직이 판매나 교환의 대상의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개인은, 정당하고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나 인격적 완전성에 심각한 위험이나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부분만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기는 사후에만 기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신체의 일부를 기증하는 것, 곧 사후에 자신의 장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기증하는 것은, 이미 여러 경우에 생명을 남에게 내어 주는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은 생명 의학의 발전 덕분에 죽은 다음에까지 자신의 사랑의 소명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장기 이식의 수혜자는 그들이 누군가에게 매우 특별한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선물은 바로, 분명히 참된 형태의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연대로 여겨져야 하는, 기증자의 자기 증여입니다.

[출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여러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들이 더욱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합니다.”(1991.6.20.), *Dolentium Hominum* 3호, 바티칸 출판사, 1992년, 12-13면.]

3. 정 리

우리나라에서의 장기 이식 수술은 1960년대 후반 처음 시작되어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연간 1,000여 명 이상이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받고 있다. 앞으로도 장기 이식 수술을 희망하는 사람은 점차 많아질 것이다. 이제 장기 이식 수술은 더 이상 특수한 어떤 시험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치료의 개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하겠다. 장기 이식 수술 방법 또한 날로 발전하여 거의 모든 장기와 조직의 이식이 성공하고 있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구제받게 되는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수술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 공여자가 적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다. 비공식 집계 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병원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 이식 수술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십분의 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장기 이식 수술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50,047명이었으나 1996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은 19,410명에 불과하였다. 간이나 심장을 이식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람은 30% 정도이다. 따라서 병원이나 장기 이식 담당 기관에서는 더 많은 장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기 공여 카드(donor card)만 있으면 가족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를 적출하는 안(案), 생전에 장기 공

여에 동의한 카드나 증빙 서류가 없어도 당사자가 장기 공여에 반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추정 동의만으로도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안(案), 또는 생체 이식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 이외의 사람도 장기를 공여할 수 있게 하거나 신장 외에도 간이나 폐도 생체 이식을 시도하는 안(案) 등 장기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장기 공여는 어디까지나 이타주의적 동기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장기 확보를 위한 상기와 같은 전략들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모든 장기 이식 수술은 자유로이 수여를 결정하는 공여자와 사랑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수령자 모두에게 선(善)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의사는 그가 부딪히게 될 위험, 곧 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수술 후의 모든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 알려 줄 의무가 있으며,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기 이식을 위한 중요한 기준은 인간 자유의 진전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존경을 지닌 외과 의사의 가능한 결론에 관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정체성은 생명 연장이나 이식에서 야기되는 가능한 위험들을 능가하며 증진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기 이식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가 이식(autograft)과 동종 이식(allograft), 그리고 동인자형 이식(isograft)과 이종 이식(xenograf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가 이식 : 동일한 사람에서 장기의 적출과 이식을 하는 것으로서, 신체 조직의 전체적인 선을 위해서 일부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전체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었을 경우 허벅지나 엉덩이의 살을 상처 입은 부위로 이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종 이식 : 수혜자와 같은 종의 사람으로부터 장기 이식이 되는 것으로서, 인간 존재를 결합시키는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자신을 주는 애덕의 요구에 따라 정당화되는 것이다.

(3) 동인자형 이식 : 일란성 쌍생아에서 처럼 두 개체가 다르다 해도 유전인자가 동일한 경우, 동종 간의 이식 방법 중 가장 이상적인 이식 형태이다.

(4) 이종 이식 : 이종 개체 사이의 장기 이식으로 예를 들면 개나 원숭이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할 경우로 이때에는 반드시 이식 장기의 거부 현상이 따른다.

자가 이식의 경우에는 적출할 장기가 기증자에게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끼치지 않는 것일 때에는 정당하다. 그런데 동종 이식의 경우에는 더 이상 살아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신과 관련된 것이다. 시신은 항상 인간의 사

체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주체자로서의 존엄성과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의 궁극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사체는 용어의 본래 의미상, 유일한 권리의 주체인 인격성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을 유용한 목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 없고, 고상하게 사용하는 것은 단죄받을 일이 아니라,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다”(1956년 5월 14일, 교황 비오 12세가 이탈리아 각막 협회와 맹인 연합회 대표들에게 한 훈화 중에서).

그러나 장기 적출이 죽음을 유발하거나,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장기 적출 대상이 시신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곧 시신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기증자의 확실한 죽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만 합법적이다. 따라서 장기 기증자가 시신으로 간주되려면, 그 사람이 뇌사 상태, 곧 “모든 뇌의 활동이 회복 불가능한 정지 상태인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완전한 뇌사임을 충분히 확인하면, 필요한 시험을 거친 후에, 장기들을 적출하고 또한 이식을 위해서 그러한 장치들이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해 인공적인 장치를 다는 것은 합법적이다”(교황청 과학원, 인공적 생명 연장과 죽음의 정확한 순간의 결정에 관한 선언, 1985. 10. 21.).

한 생애 동안 모든 인간의 건강과 생명 자체가 이웃에 대한 봉사를 실행하면서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죽은 후에라도 생명은 이식된 장기의 형태로서 타

인을 위한 봉사에 계속적으로 헌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죽은 후 자신의 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유의 존중, 장기의 유용성, 그리고 가족들의 권리와 그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어야 하지만, 윤리적인 견해에서 우리 지상 생활의 마지막이 올바르게 끝을 맺어야 한다면 우리의 장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막을 만한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사형제도

1. “생명의 복음”

56. 사회가 부과하는 처벌의 첫 번째 목적은 “범죄로 야기된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공권력은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권리 침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은 그 범죄자가 자유를 다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권력은 또한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목적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목적도 완수하면서, 동시에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바꾸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자극과 동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벌의 본질과 범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결정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즉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출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1995.3.25)]

2. “교정 제도를 돌아볼 적절한 시기”

1995년 9월 19일, 우리는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오늘 우리는 사형에 반대하는 우리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미국 천주교 주교들과 연대하여 우리는 인간 생명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우리의 투신을 생각한다. 우리는 다시 사형 제도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확신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바이다.

1. 가능한 모든 곳에서 위험이 낮은 범죄자들을 공동체 기반의 환경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확대한다.

2. 흉악범들과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과 리고 사회 복귀 노력을 보이는 수감자들과 교정에 관심이 없는 이들을 구분하도록 권고한다. 모범이 될만한 교정 공동체가 조성되어야 한다.

3. 행동 개선과 취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그러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상습 범죄 비율을 줄이려면 약물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 복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12단계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모든 수감자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5. 국가는 석방된 죄수가 그들의 가정이나 공동체에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주거, 후속 교육에 관한 고려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6. 교정부(Corrections Department)는 공동체에서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피해자 인식 프로그램(victim awareness program)을 개발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인식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필요에 응답하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는 물론 범죄자의 개정에도 이바지한다.

[출처 : 뉴멕시코 주 주교들, '교정 제도를 돌아볼 적절한 시기', Origins 26 : 36호(1997.2.27), 586-588면]

3. 정 리

사형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행위로써,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형벌이다. 사형으로 폭력을 이길 수는 없으며, 이는 보복과 복수를 우선순위에 놓는 행위일 따름이다. 그보다는 관용과 용서, 사랑과 정의의 실현으로 범죄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단순히 사형수들을 살려주자는 차원을 넘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생명운동'인 것이다.



2002년 12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촛불기도회(서울대교구 교정사목위원회 사진 제공)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 들어 종교계(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의 노력으로 과반수가 넘는 160여 명이나 되는 현 국회의원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입법청원을 하면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더욱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 사형제도 폐지소위원회의 다양한 활동(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화해와 용서를 위한 모임 및 각종 문화행사)과 노력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사형제도 폐지 쪽으로 거세게 불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51%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감형이 전제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이 그 대체형으로 도입될 경우 거의 70%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5년 3월 25일에 발표한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보아 사형은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하는 경우에조차도 사형 제도에 대한 공적인 반대가 커지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27항)고 지적하고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56항)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30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5항)에서 교황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형벌이든 범죄자들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말살할 수는 결코 없다.”면서 “회개와 갱생의 모든 기회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나아가 교황

은 35차 세계 평화의 날(2002년 1월 1일) 담화문에서 “정의를 없으면 평화도 없고 용서가 없으면 정의도 없다.”는 제목으로 이 시대의 평화를 위해 참으로 필요한 것은 정의와 용서하는 사랑임을 분명히 밝히었다.

이는 사형제도 폐지 운동이 단순히 사형수의 생명만을 살려 주자는 차원을 넘어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진정한 ‘생명운동’과 ‘평화운동’임을 강조하신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다.(창세 1,26-27)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느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나 또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 사형제도가 존속해 온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죽음의 문화’임에 틀림없다.

비록 인간이 어떤 이유에서든 죄를 지었지만 끊임없는 회개와 보속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으로 불리운 존재이기에 사형 제도는 그리스도교적 인간관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로 분명 사회 속에서 사라져야 할 제도적 폭력이며 살인행위이다.

3세기의 교부 성 이레네오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이다.”

피에로 코다 몬시뇰

차영숙 번역

이 글을 쓴 피에로 코다 몬시뇰은 1955년생으로, 이탈리아 로마의 프라스카티 교구 사제이며 포폴라레운동의 사제운동본부의 일원이다. 그는 토리노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교황청립 라테라노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이 대학에서 강의를 맡아, 1993년부터는 신학입문 전임교수로 있다. 그의 저서로는 <하나이며 삼위이신 하느님>(Dio Uno e Trino, 1993), <아가페>, <은총과 자유>(L' agape come grazie e liberta', 1994), <신학>(Teo-logia, 1997), <S. 불가코프가 본 하느님의 상대: 계시와 무(無)>(L' altro di Dio: Rivelazione e kenosi in S. Bulgakov(1998)가 있다. 2000년 대회년을 앞두고 1998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로마에서 열린 '교회운동들의 세계대회' 발표문의 하나로 피에로 코다(Piero Coda) 몬시뇰이 쓴 글 이태리어 원문을 차영숙 델리씨의 번역과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의 감수로 소개한다. 지면 사정으로 54개에 이르는 방대한 미주(nota) 가운데 극히 일부만 괄호 안에 넣었을 뿐, 본문 일부도 조정했음을 밝히며,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 - 편집자 -

이 대회의 주제에 관해 고찰하기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은 오늘의 교회운동의 특성은 그 범위가 넓고, 아주 새로우며,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그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적 거리는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그들의 특성과 업적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합당하게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시대의 징표'를 읽으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예수님의 이 초청의 메아리가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에서도 울려 퍼진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최근 2000년 대회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 시대에 보내주신 선물 중 하나는 물론 교회 내에 운동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교황에 즉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들의 탄생은 교회와 인류를 위해 희망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해왔습

니다. 운동들은 형태의 자유를 말해줍니다. 형태의 자유 안에서 하나의 유일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운동들은 확실한 새로움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역사의 오늘 이 새로움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적절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1996,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훈’)라고 하셨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교회운동들은 성령에 의해 탄생된 것임을 강조하셨다. 이 운동들은 교회의 측면에서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모두 새로운 점을 내보이고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운동들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하셨다. 공의회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성령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구원의 역사의 현 시점에서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묵시 2,29참조) 모두를 그대로 다 내포하고 있다.”고 하셨다.(회칙 ‘생명을 주시는 주님’ 26; ‘새 천년기’ 23)

그러므로 교회 운동들이 곧 “성령께서 우리 시대에 보내주신 선물들 중의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교회의 초기 및 교회와 인류의 역사 속에 드러난 성령의 사명에 비추어볼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교회가 유일한 성령의 빛과 힘에 의해, 그리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를 이해하며 형성되어 가는 방식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러하다.

이 같이 생각해 볼 때, 나는 교회운동들에 대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즉 우선 교회운동들을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좀더 체계적인 교회학적 견지에서 교회운동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적·구원적 및 교회적 활약은 마리아 안에서 충만히, 그리고 온전히 실현되므로, 나는 교회운동들과 ‘교회의 마리아적 모습’ 사이의 성령론적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교회의 ‘마리아적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각광을 받고 있는 듯하다. 교회의 ‘마리아적 모습’은 신학적 관점에서 교회의 한 가지 본질적 측면을 내보인다.

1. 교회운동들은 구원의 역사 속에 보내진 성령의 선물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생명을 주시는 주님>(Dominum et Vivificantem)에서 공의회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기시키셨다. 이 시각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사(聖事)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인 것”(‘교회현장’ 1)이다. 그리고 교황님은 그리스도의 사건(강생)

과 성령의 선물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아래와 같은 말씀으로 이 사실을 설명하신다. “성사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떠남’의 파스카적 신비로부터 발전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항상 새롭게 ‘오시며’, 교회는 항상 새로운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활합니다. 진리의 파라크리토-성령께서 지니신 그 사명 안에서 이 같이 합니다(‘생명을 주시는 주님’ 63). 다시 말해서 교회는 십자가 밑에서 태어나고, 성령강림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제자들 가운데에서 지속되는 사건이며, 그 예수님께서 항상 새로이 오시는 사건이다(마태 18,20 참조). 그런데 이 같은 일은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계속해서 언급하시기를, “교회가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그 다락방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오순절 사건이 과거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자신 안에 간직되어 있는 다락방 안에 있는 것입니다(‘생명을 주시는 주님’ 66)라고 하신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강림의 영속적이고도 항상 새로운 성령강림 사건 안에 있다. 이 성령강림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써, 교회는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자기를 자기답게 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전승시킨다. 이를테면, 요한 23세께서 제 2차 바티칸공의회에 대해, 그것은 마치 ‘새로운 성령강림’(1962. 12. 8,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제1차 회기 폐회사’)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교회의 탄생과 성장면에서의 성령의 사명

공의회 문헌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제4항은, 성령께서 오신 것은 아들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으며, 아들의 사명은 이 세상 위에 세우신 아버지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 안의 신자들, 교회인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즉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근본적인 선물인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갈라 4,6)라고 바오로 사도는 확신에 차서 가르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주시는 다른 모든 선물들은 이 선물(하느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선물)에 이르기 위한 것들이다.

이 같은 견지에서,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은 계속해서 말한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그리고 바로 성전인 신자들의 마음 안에 머무르시고 (I 고린3,16:6,19참조), 그 안에서 기도하시며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여 주신다(갈라4,6:로마8,15-16. 26참조). 교회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시고(요한16,13참조), 친교와 봉사(奉仕)로 일치시켜 주시며, 교계(敎階)와 은사(恩賜=카리스마)의 여러 가지 선물로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당신의 열매로 꾸며주신다(에페 4,11-12; I 고린12,4: 갈라 5,22참조). 복음의 힘으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젊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며 자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도록 이끌어주신다. 성령과 신부(新婦)가 주 예수님께 ‘오소서’ 하고 말씀하신다(묵시 22,17참조). 이렇게 온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으로 나타난다”(‘교회현장’ 4).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본질적 측면에서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와 움직임의 성령론적 원천을 강조한다. 동시에 이 말씀은 -분명 성서에 기초를 둔 언어를 사용하면서- 교계의 은총과 카리스마의 은총들은 많고 다양함을 상기시키면서, 이 두 가지 은사들이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이 말씀은 교회의 생활과 실천(성령의 여러 은혜들에 의해 탄생되고 표현되는)이 일치를 전제로 하며, 일치에서 나온다고 암시한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사건이며, 이 은총의 사건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고, 성령에 의해 그 시점에서 현존된다). 이 말씀은 또한 교회생활과 실천은 사랑을 통해 일치의 결실을 맺음으로써(에페 4,15참조), 단 하나의 그리스도 신비체를 건설하도록 불렀음을 뜻한다. 이 모든 것이 계속 젊음을 되살리고 쇠신되는 역사적이고 역동적인 현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신랑과 완벽한 일치를 이루려는 소망을 안고, 이 같은 현실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 간다. 끝으로, 성 치프리아노(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제4항은 성 치프리아노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는다)는 성삼위의 구원 계획을 요약적으로 되돌아볼 뿐 아니라, 교회를 건설하는 여러 가지 은혜들 사이의 보완적 및 상호적 관계 안에서 성삼위의 사랑이 어떤 면으로든 구체화되고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점 -성령의 은혜와 일하심에 의해- 을 또한 분명히 한다. 이 여러 가지 은혜들은 삼위이며 하나이신 하느님의 일치를 반영하고, 하느님의 일치를 닮은 교회를 건설한다. 그뿐 아니라, 참여에 의해 삼위이며 하나이신 하느님의 일치를 본 딴 구조를 지닌 교회를 건설한다.

하느님의 성령의 일하심으로, ‘교회에 의해 전승된 신앙’은 값진 향아리에 담겨있는 보물처럼, 점점 더 젊어지며, 그 보물을 담고 있는 향아리까지도 젊게 한다. 하느님의 은혜는 사실 교회에 맡겨져 있다(요한 4,10 참조). 이는 땅의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숨결을 불

어 넣어 주신 것과도 같다(창세 2,7참조). 그의 모든 지체들이 숨을 받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의 친교가, 즉 성령과의 친교가 저장되었다(…). 사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들과 예언자들 및 박사들을 보내주셨고(고린 12,28 참조), 또한 성령의 나머지 작업(은총)을 담아주셨다(고린 12,11)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하느님의 성령께서 또한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교회가 존재하며, 모든 형태의 은총이 존재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은 쇄신과 일치 효과적 힘이다. “이 성령이 주어졌다. 그리고 성령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 성령께서 현존하시는 곳에 친교가 솟아나고, 인간은 여기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일치 안에 모인다. 여기에 교회가 현존한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에 교회가 있다(ubi spiritus Dei, illic Ecclesia). 한편, 성령은 결실로써 교회 안에 현존한다. 교회생활이 아가페(사랑)로 이루어질 때, 어떤 의미에서 성령은 전에 없던 어떤 존재가 된다. 즉 교회적 친교의 각-개인-사이에, 공유된(따라서 일치시키는) 행위의 자리가 된다. 신자들이 친교를 생활할 때, 거기서 성령은 새로이 객체화된다. 즉 새로이 구체화된다. 거기서 성령은 공유되며, 거기서 성령은 교회적 친교에 의해 전승된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성령이 계시신다”(ubi Ecclesia, ibi et Spiritus Dei, V. Maraldi, ‘성령과 신부’ 342).

요한 바오로 2세는 수차례에 걸쳐 바로 교회의 운동들에 대해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4항과 12항 참조)의 표현들에 관에 언급하셨다. 예를 들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도적 운동들과 새로운 영성의 운동들이) 순수한 방법으로 일한다면, 그들은 이 ‘카리스마적 은혜들’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은혜들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시는데, 이 은혜들 중 카리스마적 은혜들도 있고, ‘교계적 은혜들’ -예를 들면 서품을 받은 성직자들의 은혜- 도 있는 것입니다. 카리스마적 은혜들과 교계적 은혜들은 구별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제도적 측면이 있듯이 카리스마적 측면이 있습니다. 교계가 있듯이 신자들의 단체들과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다 근본적 중요성을 띤 것들이며 함께 힘을 모아 교회 생활에, 쇄신에, 성화에 기여합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기여하긴 하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고받음이 있고, 친교가 있는 것입니다”(198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10,1).

공의회와 교황성하의 말씀은 교회를 하느님의 집으로 묘사한 바오로의 편지를 거듭 상기시킨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에페 2,20)라고 하신 말씀 위에 세워졌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교계와 예언적 카리스마 위에 건설되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한스

폰 발타살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교회는 객관적 카리스마와 주관적 카리스마 위에, 객관적 성덕과 주관적 성덕 위에 세워진 것이다(성직 역시 카리스마에 의해 태어나며 성장하기 때문이다)”(H.U.von Balthasar, Theodramatica, vol.3).

그러므로 성직의 은혜들과 성사의 은혜들이 하느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 신비의 구체성을 전달하는 한편, 카리스마적 은혜들과 예언적 은혜들은 신자 각 개인과 교회의 그리스도 신비의 이해(주관성 안에서의 수용)를 항상 새로운 형태로 열어주는 경향이 있다. 수용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태도로 표현되며, 이 세 가지 태도는 교회가 그의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결정한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은혜에 대한 동정적(童眞的) 개방성, 주님과 혼인적 친교, 새로운 제자들을 낳고, 신자들을 키우는 모성적 출산력이 그것이다(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에 이르기까지; 에페4,13 참조).

“카리스마적 은혜”의 숭고함의 역사적 및 교회적 의미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측면에 관해 아직 언급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여러 문헌에서 카리스마적 은혜들이 어떤 ‘새로움’을 지니고 있는지를 거듭 설명하신다. 사실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풍요롭게 은사를 내려 주시는 성령의 절대 자유가 드러나는 표현으로서 그리고 역사 안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은사들은 극히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24). 사실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비록 예측할 수 없고 전적으로 무상의 것이긴 하지만, 하느님 구원의 신비를 점진적으로 실현해가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성 바오로가 기록한 바와 같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곧 이방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골로 1,27).

실제로 카리스마들의 역사가 있으며, 이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떼어 수 없는 관련이 있다. 즉 카리스마는 교회의 통치권 행사나 사도적·베드로적 직무의 시행과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성령께서 일하심에 따라, 교회의 신비와 사명의 순수한 실현을 위해 함께 발맞추어 섭리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한스 폰 발타살은 기록한다. “이 각 카리스마들은 마치 하늘에서 오는 섬광과도 같다. 어느 시점에서 그 시대의 교회를 위한 하느님의 뜻의 유례없는 요점, 독특한 요점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각 카리스마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와 합치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따라서 각 카리스마는 복음이 어떻게 생활화되어야 하는지를 새롭게 설명

한다. …결국 계시를 새로이 해설하는 것이다”(H.U. von Balthasar, *Sorelle nello Spirito*. Teresa di Lisieux e Elisabetta di Digione, Jaca Book, Milano 1973, 20-21 참고). 이 같은 일이 바실리오, 베네딕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로올라의 이냐시오, 아빌라의 테레사와 십자가의 요한, 리지외의 테레사와 샤를르 드 푸코에게 일어났다.

카리스마의 전형적 새로움이 여기에 근거한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주실 때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 자신을 다 주셨기 때문이다. 새로움이란 곧 성령께서 그때그때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정확한 계획을 벗어남이 없이- 그리스도의 끝없는 신비의 한 가지 특별한 측면을 강조하고, 비추고, 작동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즉 역사를 이끌어 가는 거룩한 섭리의 논리에 따라, 한 특정한 시기의 요구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답을 주는 것이다. 그 요구는 결국, 성령 자신이 일으켜 주시는 것으로서, 인간의 부적합함을, 그리고 죄까지도 좋은 결과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오시는 역사상 새로운 은총은 이렇게 실현된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약속과 들어맞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 주실 것이다. 또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내가 말했던 것이다”(요한16,13-15).

성령에 의해 교회에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선물 및 선포의 새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부 다 주어진 충만한 진리와 은총(요한 1,17 참조)에 의존하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과정을 따라 점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교회의 자기인식에 있어, 그리고 자기 형성에 있어 은밀한 성장을 가져다준다.

II. 오늘날 교회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회운동들과 성령의 은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으로 넘어가게 된다. 성령께서 교회운동들을 통해서도 오늘의 교회에게 들려주려 하시는 말씀, 주려하시는 특별한 선물은 한 마디로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선 3가지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새로운 시대, 카리스마들의 고유성 및 제 2차 바티칸공의회의 수용

제일 먼저 우리 시대의 ‘특성’에 대해, 즉 우리 시대가 지닌 요구들, 의문들, 문제들, 약점들, 희망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는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운동들을 낳는 카리스마적 은혜들의 고유성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들 교회 운동들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복음적 생활의 형태와 결실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한 카리스마가 지니는 형태는 -역사적 조건들과 인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카리스마의 내용과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요소-역사적 상황-를 두 번째 요소-카리스마적 은혜들의 고유성-와 연관시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들이, 비록 정도는 다르지만, 서로 상대편을 비추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한 카리스마는 교회로 하여금 그 특정 시기의 요구의 가장 깊은 의미를 판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불만 속에 남을 뿐 아니라 시대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카리스마는 그 시대 상황이 지닌 시급한 문제들을 접하면서 차츰 자신의 사명을 인식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 이 세 번째 요소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 것이다. 그것은 곧 교회의 자기 인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회의 참된 교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설 사건의 규범적(*역자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새로운 규범을 주셨다) 및 영구적 가치와 관련하여 권위 있게 표현하였다. 이 같은 교도권은 한편으로는 사도적 계속성을 드러내며, 또한 교회의 신비와 제도 사이의 보편적 일치를 드러낸다(떼어낼 수 없는 고유성 안에서). 다른 한 편으로, 교도권은 카리스마가 복음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려내며, 또한 그것이 그 시대의 교회와 세상이 요구하는 바에 응답하고 있는가, 아닌가도 판별한다. 그리고 그 카리스마의 형태를 보증하고 인도함으로써 그 카리스마가 지닌 시대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변성할 수 있게 한다.

지금 우리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 바오로 2세는 지칠 줄 모르고 공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다. 사실 교회운동들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이에는 섭리적 관계(성령에 의해 태어나고 후원된 관계)가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올바르게 총체적으로 수용함에 있어 교회 운동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성 카를로 보로메오와 같은 훌륭한 목자들이 있었다 해도, 만일 카리스마들이 또한 없었더라면, 가톨릭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정신을 실생활로 옮기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교회를 깊이 쇄신하고 다시 꽃피우는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카리스마들 - 하나의 예만 들자면, 로울라의 이냐시오 성인의 카리스마와 같은 것 - 은 공의회로부터 솟아난 개혁의 의욕들을 모범적이고 과감하

게 수용할 만한 태세가 되어 있었다. 오늘날에도 역시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충실하고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불리었다. 실제로 역사에 남을 훌륭한 목자들과 나란히, 각종 제안들이 나와, 지난 10여년동안 공의회의 문헌과 정신이 지역교회의 생활 속으로 침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널리 확산된 카리스마들만이 아니고 특수 카리스마들을 통해서도 이에 기여하려 하시며, 이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현대를 판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두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것은 - 이것은 특히 서양 세계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한층 더 보편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말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대에 관한 것이다. 즉 좋은 나쁜든, 우리는 역사의 한 시기가 막을 내리는 시점에 와 있다. 이 시기에 인류는 인간-주체라는 생각에 집중된 인본주의를 체험했다. 이 같은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주체가 상대방에 대해 의도적으로 대치상황에 섰다. 하느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랬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랬고 공동의 차원에서도 그랬다. 나쁜 점: 이 같은 입장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허무주의(nihilism)에 빠지게 했고, 또한 이념적 전체주의의 비극을 낳았다-전체주의와 허무주의에 있어서 모두-. 그리하여 “하느님은 죽었다”라는 생각이 번져나갔다. 좋은 점: 존엄성에 대한 인식,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 - 제 2차 바티칸공의회와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 이 그래도 성숙되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 우리는 새것을 기다리는 광활한 공간 안에 서있다.

두 번째는 인간가정에 대한 세계적 인식의 획득을 향한 발걸음이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인식을 지니기 위해서는 차이점들(문화, 전통, 종교, 등의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정치, 경제, 문화 및 영신적 차원에서) 서로 상대방을 존경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인류는 도전과 위험이 따르는 새로운 문턱을 넘어서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날 교회의 자기인식은 놀라울만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제 2차 바티칸공의회가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첫 페이지에서부터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이 글의 첫 부분에서 이 대목을 인용한 바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 of 표징이며 도구인 것이다”(‘교회헌장1). 이는 하느님과 인간, 나와 타인이 종/주인(헤겔)의 이원론적 논리에 의한 변증법적 경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적 상호성(즉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성)의 터전 위에서 수용되고, 계시되고, 구원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호성은 “자신을 진정으로 내어주는 데”(루가17,33 참조)에서

실현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무(無)가 되게 하였고, 이로써 자신을 선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보이셨으며, 이를 순수 실현하셨다.

이와 꼭 같은 배경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보편성을 지니고 베드로적 직무에 새로운 자극을 주셨다(이 자극은 예언적 특성이 강하며, 뚜렷이 드러난다). 그분은 새로움과 일치의 길은 ‘그리스도’라고 뜨겁게, 계속 상기시키신다. 그분은 지구의 이곳저곳을 순례하시면서, 또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1986년 아시시에서 열린 기도의 날과 같은 행사들을 주관하시면서 이 같이 하신다. 이 같은 행사에는, 교황성하의 말씀을 따르자면, 공의회의 교회학적 모델이 특별히 웅변적으로 현존한다.

교회운동들을 낳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그 은혜들의 본질과 사명은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이처럼 시대와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다. 폰 발타살은 간파한다. “아마도 교회 내에서, 대부분 성령의 새로운 입김을 받아 시작된… 평신도 운동들이 것처럼 다양하게 꽃피어나고 있음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우리 세기를, “교회가 영혼들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세기”(P.J. Cordes, Dentro il nostro mondo. Le forze di rinnovamento spirituale, Piemme, Casale Monferrato 1989, 14에서 인용)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오늘날 교회 안에 현대적 교회 운동들이 존재하는 데 대해 성령론적 이해를 제공하려 한다면,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시각과 연관을 지으면서, 그중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살펴 보겠다.

교회운동들, 그리고 교회의 신비

교회는 신비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해하는 것(이는 우리 시대의 특징이며, 공의회의 가르침을 물들였다)은 참으로 시대에 적절한 일이다. 이는 현대 말기와 관련하여 생각해도 그렇고, 또한 현대의식의 세계화 현상과 관련하여 생각해도 그렇다.

교회를 신비로 재발견하고 생활한다는 것은(원천적으로 바오로적 의미에서),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성사의 깊은 현실을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회를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아니, D. 본회퍼도 확인한 바와 같이, 교회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교회는 말씀에 의해, 성사들에 의해, 그리고 성무에 의해 탄생하고, 부양되고, 인도된다는 의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 그 결과 –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표식이며 도구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이다. 실지로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은 그들 사이에, 그리

고 모두를 향해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교회 운동들의 특성이 바로 이것이라 여겨진다. 즉 제자들이 친교를 생활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다.

교회를 신비로 재발견하는 두 번째 측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인식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교회는(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의미로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일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 앞에 존재한다. 교회는 신랑이신 그분이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재창조된 신부이며, 성덕의 혼례복으로 갈아입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교회운동들은 엘리트들의 성덕이 아니고 교회 전체를 향해 열려있는 성덕을 제안한다. 즉 여행 중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 모두에게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제안한다. 폰 발타살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 바로 그분의 백성에게, -비록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의회의 계획을 활성화하고 실현하도록 실지로 책임을 맡겨주신 것 같다. 공의회의 계획은 모든 이가 성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교회현장’ 4참조).

교회운동들, 그리고 친교인 교회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 운동들의 카리스마적 현상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가르치는 교회학과 발맞추어, 하느님의 백성과 친교의 개념에 중점을 두는 교회론과 발맞추어 드러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같은 교회론적 시각에서 보면, 교회 역사상 늘 그래왔듯이, 교회론은 사실상 카리스마들의 자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현 시점에 존재하는 친교의 교회의 모습을 내보이기 위해 이 카리스마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인정한다. 동시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보다 큰 교회학적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크고 작은 그룹들 속에서 카리스마를 공유하는 것은 곧 교회의 몸을 건설하기 위한 근본적 조건임이 강조된다. 뿐만 아니라 카리스마의 공유는 복음화를 위한 증거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근본적 조건이 된다.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운동들의 근본적 특성으로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교회 운동들의 근본적 특성은 곧 교회성이다. 펠리치아니(G. Feliciani)는 이미 몇년전부터 이 사실을 주목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실의 구체적 등장과 그들의 형성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베이어(J. Beyer)는 여러 차례 이 사실을 상기시켰고 분석했다. 새로운 운동들은 받은바 카리스마 덕분에 모든 성소에 대해,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모든 생활 형태에 대해 근본적으로 열려 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운동들이 관계 권위로부터 교회법에 의해 공식

적으로 수용되고 인정되었다. 그렇긴 하나, 이 운동들의 교회적 품질을 단지 평신도들의 결집과 그들의 사도직 목표의 시야에서만 분류한다면, 이는 그들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도, 아마 이들에 대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이겠지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교회적’이란 형용사는 교회 운동들을 교회론적으로 정의할 때 사용된다. ‘교회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운동들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회운동들의 교회론적 의미가 단순한 평신도들의 집합으로 축소될 때에는 분명 문제들이 발생된다. 이 경우, 이 운동들의 내부에 성직자들, 남녀 수도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교회와 하나 되어 있는 운동들(하느님 백성의 여러 구성원들이 카리스마를 참되게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운동들)은 그들을 낳은 카리스마가, 예를 들면, 성직자들의 영성과 그들의 직무상 의무와도 대치되지 않고, 여러 영성들에 의해 태어나고 양성된 봉헌생활의 카리스마와도 대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오히려 이 잠재적 보완성 혹은 상호성의 동기, 유형, 그리고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현실은 성령의 자극으로 이루어지며(그릇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 많은 긍정적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J. Beyer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의 신비를 관상하면서, 교회의 특성은 친교라고 했다. 그런데 이 친교는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 가시화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다. 이 친교를 이해시키고 체험케 하려고 이 같은 친교의 새로운 형태들(역자주: 운동들)이 태어난 것 같다(...). 성령께서 공의회를 통해 밝혀주신 것을 이 새로운 선물로 표현하신 것이다(교회생활 안에서)”(‘교회운동들’에서 인용 156). 이 같은 사실은 운동들의 교회성의 가장 깊은 의미를 말해주기도 한다. 친교야말로 교회생활의 필요/체험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친교를 살아야 하며, 그 구성원들이 상호적 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친교를 체험해야 한다. 그리하여 서로가 같은 세례의 존엄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성소들, 서로 다른 직무들, 서로 다른 카리스마들이, 조직적이며 교계적으로 체계화된 교류 안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공의회가 가르치는 바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교회운동들은, 다른 형태들 및 체험들과 나란히, ‘친교의 교회론 학파들’(로마주교회의에 보낸 요한 바오로 2세의 아름다운 표현에 의하면)이 필요로 하는 바를 채우려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교회는 공의회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친교의 교회론 학파들’이 매우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친교의 영성으로 깊은 회개(친교인 교회의 모습은 이 같은 회개를 요청한다)를 바탕으로 공의회 교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 칼 라너가 한 말은 예언적 가치를 지니는 것 같다. “우리 나이든 사람들은 영신적으

로 개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장차 태어날 영성에서는, 형제애를 지닌 영성적 친교의 요소, 함께 살아가는 영성의 요소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T. Foffi-B. Secondin 편집, Problemi e prospettive di spiritualita', Queriniana, Brescia 1983, 440-441의 Elementi di spiritualita' nella Chiesa del futuro.)

교회 안에 태어난 여러 성소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같은 상호보완적 혹은 순환적 관계(친교의 교회론에 의해 제시되고, 카리스마들과, 운동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관계)는, 또한 운동들과 교회(보편교회와 지역교회) 사이에서도 발견되어야 하고, 교회운동들 사이에서도 발견되어야 한다. 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려 한다.

우선 교회운동들을, 각 운동이 지닌 고유한 특성에 따라,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한 데 섞어놓아서는 안 된다. 비록 ‘교회운동들’이라는 범주가, 정확한 의미에서, 이 운동들을 해설하는 데 유익하며 필요하기까지 하더라도, 각 운동의 뚜렷한 특수성을 존중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하며, 이 운동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건설과 새로운 복음화에, 이 운동들이 제공하는 도움을 건설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도 충분하지 못하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우선 고유하고 특별한 카리스마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새롭고 독특한 교회적 현실이 태어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다 일반적인 영성적 흔적만 있거나, 혹은 독특한 교육학(*역자주: 인격을 형성하는)만 있어도, 각 운동은 나름대로 꽤 특수한 윤곽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므로 운동들의 문제를 일률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해도 하여간 사목적으로 피상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대신 운동의 독특한 형태와 그 운동이 교회 생활과 성장에 특별히 기여하는 점을 비롯해서 그 운동의 모든 현실을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교회학적으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사목적으로도 좀더 효과적인 일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교회의 각 운동들이 그들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운동들 역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다 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적 봉사의, 그리고 복음화 사업의 유형들을 다 품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다 크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운동들이 막 태어났을 때(영신적으로 커다란 열정에 넘쳐) 어느 정도 과도하고 천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진실한 상호성에 대해 더 성숙하고 준비된 태도를 지닐 수 있다. 그리하여 놀라움을 안고 자신 안에서 뿐 아니라 상대편 안에서도 일하시는 성령의 끝없는 새로움을 포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키아라발레의 베르나르도 성인은 자신의 수도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그의 수

도회가 다른 수도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모든 수도회들을 칭찬합니다. 나는 순명으로써 그들 가운데 한 회에 속하지만, 사랑으로써 그 모든 회에 속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열성적 선의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습니다. …이 유배지에서 교회는 아직 길을 가고 있으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복수입니다. 즉 단일한 다수이며, 다수인 단일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차이점들은 하느님의 은총이 풍부함을 말해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차이점들은 머무를 곳이 많은 아버지의 유일한 집에서도 그대로 존속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총의 종류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영광의 종류가 많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나 아버지의 집에서나 일치는 같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봉헌생활’ 52)

운동들과 선교하는 교회

선교의 관점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교회운동들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제창하신 ‘새로운 복음화’에 당연히 발맞추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로의 회개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능력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공동체로서 “와서 보시오”(요한1,39)라고 하신 복음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화에서 결코 뒷줄에 서있지 않은 것이다. 바티칸공의회 이후의 기간을 특징짓는 것 같은 선교열정의 감퇴 - 이는 <교회의 선교사명>(Redemptoris Missio)에서 설명되었다 - 는 운동들 안에서 역전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 크리스천 세계에서도 그렇고 아직 복음화 되지 않은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

초현대와 세계화의 도전 - 이미 언급된 바 있다 - 앞에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래의 체험에로의 회귀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 같은 체험만이 제3천년기를 좌우할 인간적 및 문화적 터전 안에 하느님 나라의 누룩을 모셔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복음화의 방식 또한 ‘새로운’ 곳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감수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곳, 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다른 운동들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움을 내보일 수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즉 여러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요한17,21)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때, 복음화의 문화적 측면, 그리고 세상에서의 노력의 문화적 측면도 그 중요성을 획득한다. 사회적으로도 가시적이며 여운을 남기는 교회적 집단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Christifideles Laici)이 이 사실을 지적한다. “주변 환경과 사회 변혁의 결실과 그 표지가 되는 ‘문화적’ 효과는 한 개인 그 혼자서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즉 한 집단이나 공동체 또는 단체나 운동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원적이고도 분화된 사회의 상황에서, 그리고 극히 복잡한 난제들에 비추어, 이는 특별히 옳은 말이다”(29항).

참신한 카리스마들 안에는 계시의 이해와 실현(일정한 각도에서의)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것이 사실인지는 미래에 가서 알게 될 것이다) 역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대는 좀더 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을 선포하고 좀더 힘차게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 ‘신앙에로의 몰두’가 무척이나 필요한 때이다. 카리스마들은 이 같은 필요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다. 교회의 역사는 이 같은 현상을 체험한 바 있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에 의하면 “위대한 카리스마들은 계시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성령께서 주시는)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예측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살찌운다”(‘Teologica’ 3권). 신앙이 때때로 자신의 문화적 출산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같은 통찰력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회운동들을 범교회적 및 범종교적 관점에서 한층 더 깊이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대의 가톨릭교회는 이 같은 대화를 통해, 타 교회의 크리스천들, 때로는 다른 종교인들, 혹은 ‘좋은 뜻을 지닌’ 비 신앙인들까지도 몇몇 운동들의 정신과 조직적 생활에 가담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을 체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커다란 새로움을 가져다주며, 또한 <평신도 그리스도인> 제33항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교회론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점에 있어서는, 가톨릭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도 이 현상의 확장에 관심을 보이며, 그것이 좋은 일임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회운동들의 탄생은 공의회에 의해 증진된 교회 �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는 점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관계는 성령론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의 정신과 종교간 대화는 공의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주제이다.

교회일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이 그 참된(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친교(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친교에 동참한다)의 영신적 및 실질적 실현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정교회 신학자, S. 불가코프(Bulgakov)는 1933년에 이미 예언적으로 기록한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크리스천 ‘교회일치운동’의 영신적 기초를, 이상적 개념으로서만이 아니고 실존하는 사실(은총의 선물)로서도 이해하고 드러내는 것은 교회의 사랑의 의무이며, 동시에 실질적 이익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것이 -그는 강조한다- 성령의 은총의 입김임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성령강림이 드러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성령강림절에 사람들은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Unitatis redintegratio, 3번 참조)

종교간 대화를 고려해 보면,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성령에 의해 ‘역동적 선교의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섭리적 징표가 아닌가? 이 새로운 단계에서는 - ‘모든 사람을 비추는’ (요한 1,9), 그 진리의 빛 안에서- 비 그리스천 문화와 종교의 대 전통들도 그들의 참된 부(富)를 버리지 않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Ⅲ. 교회의 마리아적 모습의 터전에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운동들

교회운동들을 교회의 마리아적 모습의 토양 위에 성령께서 보내주신 선물로서 이해하려면 그 자체만으로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나는 이제 요약적이고 총체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교회의 마리아적 모습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는 전통의 커다란 교훈을 요약적으로 되살리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의 비범한 직감을 떠올리게 된다. 이 직감은 최근 2세기의 마리아 교의에서 빛을 받고, 교회의 신비 안에서의 마리아에 대한 공의회와 가르침(‘교회헌장’ 8장 참조)에서 빛을 받아, 우리 시대의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전통의 커다란 교훈을 현실화하며, 미래를 향해 그것을 다시 선포한다.

실제로, 교회 사건의 동기와 목표가 “모든 것이시며,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는”(골로3,11) 그리스도의 탄생인 이상, 우리는 성 루이스 마리아 그리뇽 드 몽포르가 요약적으로 표현한 깊은 진리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두 분만이 하느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탄생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또한 아버지의 자녀들로 탄생시킬 수 있다. 곧 성령과 마리아이다.

아무튼 교회운동들은 성령의 참된 선물이므로,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어떤 연관을 맺지 않을 수 없다.

구원의 역사의 터전에서 교회운동들에 대해 다루면서, 우리는 세기를 통해 성령께서 낳아주신 큰 카리스마들은 교회의 주관성의 세 가지 근본적인 태도들을 깨어있게 했음을, 아니 진정 다시 일깨우고 있음을 지적했다. 즉 동정녀의 순종, 신부로서의 사랑, 자녀를 낳는 모성을 깨어있게 했고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 2차 바티칸공의회의 교회관에 대해 고찰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신비, 친교 및 선교에 대해 말했다.

그러니 이는 같은 현실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동정녀이며 신부요, 어머니인 마리아께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그리고 교회의 신비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고 계심을 말한 것이 아닌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추기경들과 로마 교황청의 구성원들에게 보낸 기념비적 서한에서 마리아의 모습은 교회의 베드로적 모습처럼—그 이상이 아니라면—근본적이고 특징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V, 3(1982), 1671–1683 참조).

발타살도 오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마리아적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저 마리아에 대한 헌심을 되살리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 백성 모두 안에서—평신도, 교계 및 봉헌생활자들 안에서—교회의 마리아적 모습을 일깨운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그는 교회운동들 안에는 이 방향으로 인도하는 섭리의 격려와 기회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 운동들의 카리스마적 기원과 영성의 우선성(영성의 우선성이 이 운동들을 특징짓는다), 두드러진 평신도적 모습과 동시에 명백한 교회성, 강조된 친교와 복음화의 측면, 그리고 다른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과 타종교인들에 대한 개방성과 비적당주의, 이 모든 것이 이 운동들의 마리아적 개성과 사명을 강조한다.

성령에 의해 시작되고 인도된 마리아의 일생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피앗(fiat), 즉 “지금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소서”이다. 하나이며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회 현실 사이에서 이루신 사건이다. 사람들은 사회 현실을 통해 그들 자신을 조직한다.

그리하여,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은 다시 기록한다. 그리고 나는 이 글로써 나의 글을 마치려 한다—교회운동들을 향해, 온 교회를 향해 마리아를 바라보라고 초대한다.

“마리아는 교회의 모형이시며, 우리는 이 모형에 부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즉 그리스도인 각자가 말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쇄신하고 이 교회를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의 비판과 우리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에 쓰이는 유일하고 완전한 측량 도구를, 정확히 말해 전형(典型)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쇄신을 위해 일함에 있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진정한 교회정신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마리아 위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J. Ratzinger—H.U. von Balthasar, *Maria, Chiesa nascente*, Edizioni Paoline, Roma 1981, 72의 *Maria nella dottrina e nel culto della Chiesa.*)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님,
저에게도 가르쳐주십시오.
단지 기도하는 것 뿐 아니라
내 생각들과 행동들을 통하여
성부께 드리는 찬미의 기도가 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아멘

영원히 사는 사람 - 못다 푼 분노 -

이 규 정 스테파노(소설가·전 부산평협 회장)

1

내가 일본으로 간 것은 작년 2월 15일이었다. 일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소재로 장편을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15일 오전에 후쿠오카로 간 나는 바로 후쿠오카의 여러 대학 도서관을 기웃거리며 자료를 찾기 시작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의 쓸모 있는 자료들은 얻지 못했다.

광복이 되자 일본에 살고 있던 많은 동포들은 다투어 귀국선을 탔는데, 후쿠오카에서도 시모노세키 못지 않은 귀국 동포들이 연락선을 타기 위해 6.25 직전까지 북적거렸던 것이다. 그러다 한국에 전쟁이 나자 동포들은 귀국을 포기한 채 다시 일본의 각지로 흩어져 갔고, 이때부터 이들에게는 해방전의 ‘2등 국민’에서 ‘재일 외국인’으로 전락하여, 어디로 가나 차별 받는 한 맺히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지금도 고베, 오사카, 교토에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다. 이런 동포들에 관한 숨겨진 사연을 얻기 위해 먼저 후쿠오카로 가서 대학 도서관을 찾아다녔지만 쓸 만한 자료를 얻는 데는 실패했던 것이다. 괜히 하루 반이란 시간을 낭비하고 17일 오전, 후쿠오카의 하카다(博多)역에서 신간선 열차를 타고 고베로 올라갔다. 고베에는 나의 죽마고우 임경태가 36년 전에 밀항선을 타고 일본의 고베로 가서 지금도 그곳에서 자그마한 파친고 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약속돼 있었던 것이다.

고베에서는 임경태의 도움으로, 일주일 간 고베는 물론, 오사카 교토 등지의 많은 동포들을 만나 희귀한 체험담과 증언을 들으면서 녹음하고 기록하고 사진으로 찍는 등 바쁘고도 힘든 나날을 보내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임경태와 술을 한 번도 마시지 않았다. 워낙 일정이 바쁘기도 했지만 위와 장이 안 좋은 내가 탈이라도 나면 큰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일본에서의 마지막날이라고 생각한 2월 23일,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나는 처음으로 임경태와 함께 고베시 중앙구 중산수통 1정목에 있는 작은 술집으로 갔었다. 물론 임경태가 안내한 술집이었다. 술집의 이름은 아끼하나[秋花]였고, 주인 여자는 한국

인이라 했다. 우리가 갔을 때, 그 여자는 40대의 일본인 남자 한 사람과, 스탠드의 안쪽에 서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술집은 스탠드에 앉아 영상을 보면서 노래도 하고 술도 마시는 그런 집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술집을 수나꾸(스넥)라 하였다. 여인은 임경태를 보자, 아이구 오빠 오셨네요, 라며 반갑게 맞이하면서 일본인 손님을 두고 우리 쪽으로 왔다. 젊은 여인이 아버지뻘이나 될 임경태를 보고 오빠라고 하는 것부터 못마땅했다. 그러나 임경태는 나를 가리키며 한국에서 온 소설가라고 하면서 나의 명함을 여인에게 주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명함을 그 여자에게 주는 게 내키지 않았다. 내가 그냥 있자 여인이 웃음을 머금고 자기의 명함을 나에게 주면서 말했다. 아주 유창한 표준 한국어였다. 명함에는 상호와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었고, 林美玲이란 이름이 한자로 적혀 있었지만 나는 명함을 얻은 한 번 보고는 호주머니에 넣었다.

“선생님 명함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저희 집에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인을 다시 보니 별로 꾸미지 않은 수수한 미모였지만 삶을 통달한 듯한 눈매하며 어딘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이는 서른 중반이나 되었을까. 친구가 다시 나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한국에서 명문대학 신방과를 졸업한 인텔리야. 취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니까.”

인텔리면 뭐해. 일본까지 와서 술이나 팔면서. 나는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나의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명함을 받아 들여다보던 여인이 이번에는 표정까지 바꾸며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나! 교우시군요.”

나의 명함에는 언제나 내 세례명 ‘베드로’를 찍어 두고 있었다. 순 한글 명함에 세례명을 찍어 넣는 것은 적으나마 평신도로서 언제나 당당하고 부끄럼 없이 살겠다는 나의 의지의 표징이기도 하고, 명함을 받는 상대방에게 내가 가톨릭 신자임을 확실히 알리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너무 거창한 말 같아 좀 쑥스럽지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하느님의 정의와 진리에 기초한 신념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또 나 스스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려는 수단에서 명함에 세례명을 찍어 다닌다.

임미령의 호들갑스러운, 어머나, 교우시군요. 라는 놀람에 이번에는 내가 조금 놀라면서 물었다.

“그럼, 임미령 씨도 교우란 말인가요?”

“그럼요, 율리아예요. 저 일본에 온 지 10년이 되었지만 한국 교우 분은 처음이에요.”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모든 게 본인 마음먹기에 달렸죠. 제가 나가는 본당에는 우리 동포가 셋, 일본인 신자가

10여명뿐이지만 일본인 신부님은 단 한 사람을 앉혀두고도 주일 미사는 물론 평일 미사도 열심히 봉헌해 주신답니다.”

“그렇군요. 영세는 언제 하셨나요?”

임경태가 끼어 들었다.

“또 시작한다. 자네는 왜 가톨릭 신자만 만나면 그만 정신을 못 차리나? 지금 자네가 남의 영세 연도 물으러 일본까지 왔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교우를 만나면 반갑거든.”

임경태가 성급하게 말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래. 임미령 사장이 일본에는 어찌해서 건너왔는지 그런 사연 말이야. 소설 감이거든.”

내가 임미령의 영세 연도를 알아보려는 건 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화제를 끌어내기 위한 순서에 지나지 않았는데 임경태가 이런 순서를 생략해 주었다. 이래서 임미령과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다음은 일본 취재 여행의 덤이라 할 수 있는 그녀의 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다.

2

임미령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에 앞서 임미령의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3남매의 맏이로, 마산에서 여고를 졸업하자 서울의 7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명석한 두뇌에 활발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미령은 아르바이트로 전공공부를 하면서도 중국어와 일본어 등을 따로 공부하여 졸업할 무렵에는 영어를 비롯한 3개 국어의 회화가 가능했다. 졸업과 동시에 어떤 유명 여성지 회사에 취업을 했고, 취재 목적의 일본 여행을 몇 번했다. 그러다 우연히 일본 여행을 할 때마다 같은 비행기를 탄 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가 일본인 야마다 준타(山田準太)였다. 야마다도 일본 명문대학 출신으로 일본 후쿠오카의 어떤 신문사 한국 특파원이었다. 둘은 무료한 기내에서 처음 우연히 동석하면서 고급 화제로 대화를 엮고, 서로 짙은 호기심과 호감을 지닌 채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다. 그 다음 일본 출장에서 또 임미령을 발견한 야마다는 좌석권을 바꾸면 서까지 임미령과 동석하게 되어 상대방을 탐색했고, 이제 서울에서도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면서 차츰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다가 급기야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미령의 아버지 임호근이 일본인과의 결혼을 한사코 반대하는 데 있었다. 임호근은 딸에게, ‘왜놈과 결혼하면 애비 죽는 꼴을 볼 끼다’, 하는 막말까지 했다. 그런 임

호근은, 미령이가 마산에서 초·중·고를 다닐 때부터 자주 미령의 조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조부가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임호근도 그의 부친이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좀 떨어진 어느 탄광으로 갔다는 것만 알 뿐 다른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물론 이미 죽은 줄은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희생자들에 대해 일본이 보상은 못해 줄망정 정부차원의 사과라도 한 마디 했어야 한다고 임호근은 자주 말했다. 너그 할부지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 애비도 넘강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을 끼고, 공부를 했으면 평생 막노동만 함시로 이리 예럽게 살지는 않았을 끼다. 하는 것이 임호근의 입버릇이었다. 또 임호근은 어릴 때, 모친마저 개가를 하자 모친을 따라 갔으나 의부의 구박이 하도 심해 가출, 부랑아가 되어 끼니때만 되면 바가지를 들고 이 집 저 집 밥을 얻어먹던 이야기도 자주 했다. 6·25 이후에는 마산에서 구두닦이를 한 일, 나이 들어서는 몇 번이고 부친의 흔적을 찾겠다고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일도 말했다. 임미령은 지금 생각해도 어린 시절의 아버지가 나쁜 데로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 독학으로 많은 책을 읽고, 드디어는 어머니를 만나 결혼한 것은 참으로 장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부친이 혼자 일본 밀항을 해서라도 조부의 흔적을 찾겠다는 그 의지와 기백은 대단히 당차다고 생각했다. 특히 미령을 포함한 삼 남매가 모두 장학금으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지능을 이어받은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다. 임호근은 두 번이나 밀항에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부친의 유골을 찾으러 일본으로 가겠다고, 일본어 공부를 임미령의 결혼 전까지만 해도 부지런히 하고 있었다. 그런 임호근은 술이라도 한 잔 한 날은 언제나 자신의 부친 이야기를 무슨 타령인 듯 구성된 곡조로 끝맺곤 했다. 그때마다 임호근의 눈꼬리엔 예외 없이 물기가 어리곤 했다.

“있을 재(在)자아 기름질 옥(沃)자아 올라부지이! 백골이라도 모셔오고 싶소요.”

그러나 당시만 해도 임미령은 그러한 아버지의 지난 이야기와, 마지막의 타령조 뉘두리가 실감 있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괜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까지 떠는 아버지가 측은하게 보였고, 타령 같은 뉘두리는 청승맞다 못해 코믹하기까지 했다. 할아버지의 일이 좀 안 됐기는 하지만 어찌 이런 비극이 할아버지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일제 때에 일본으로 징용되어 갔거나 군대에 끌려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모두 한 시대가 안겨 준 피치 못할 운명이었지, 어떤 개인의 실수일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개인의 실수에 의한 비극이라 해도 그게 벌써 언제 적 일인데, 여태 이 문제로 이를 갈면서 분개하고 흥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난 일로 흥분이나 하고 있을 만큼 한가롭지도 않고, 설령 한가롭다고 해도 마음이 그렇게 웅충해서는 이 급변하는 국제화의 물결을 제대로 타지 못할 것이 아닌가. 마음이 아파도 있을 건 있고, 새로운 현실 문제에 도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임

미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고방식과 판단에 언제나 자신이 있었으므로, 공부라고는 독학밖에 안 해 봐서 앞뒤가 꼭 막힌 아버지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90년 겨울에 야마다와의 결혼을 감행했다. 하지만 결사반대했던 임미령의 아버지 임호근은 자살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결혼하고부터 임호근은 미령이 보란 듯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기침을 무섭게 하기 시작했다. 임미령은 아버지가 심하게 아프다는 말을 듣고 신혼 시절의 재미를 잠시 접어두고 혼자 마산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를 보자 땀바람에 오금박듯 말했다. 그러게 술 좀 마시지 말고 담배 끊으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술 담배 끊지 못하시면 좀 줄이 기라도 하세요. 술 담배 때문에 일 날 거라고요, 아버지는! 이러고는 돈 얼마를 어머니에게 주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다.

그런데 미령의 말대로 임호근은 거짓말같이 일을 내고 말았다. 폐암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런 임호근은 겨울 한 철을 겨우 넘기고는 발병 석 달도 안 되어, 눈을 뜬 채로 숨을 거두었다. 1991년 초봄의 일이었고, 그때 임호근은 쉰 두 살이었다.

이때도 혼자 마산으로 내려간 임미령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다소 을씨년스런 감정을 추스리며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는데, 어머니의 울음 섞인 말을 들었다. 그때까지 하나 밖에 없는 똑똑한 딸이라고 어머니는 미령의 딸이라면 쿵을 팔이라고 우겨도 믿어 주던 사람이었다.

“너그 아버지는 순전히 니한테 희망을 걸고 살았다 아이가. 니가 장차 너그 할부지 원한도 풀어 디리고 집안도 빚내 줄 끼라고. 그래서 죽자사자 너그 3남매 공부를 시킴시로(시키면서) 니한테 제일 큰 희망을 건 기라. 그런데 니는 할부지 원한을 풀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왜놈이라면 자다가도 이를 가는 그 왜놈하고 겹혼을 했으니, 집안을 빚내기는 커이사(커녕)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고마 목지도 자지도 문하다가 세상을 배런 기라. 자살 할라 카는 거로 내가 얼마나 말깃(말렸)는지 모른다. 백지(백채) 말기 가지고 고생만 시켰다 생각하이…… 어머니는 코를 한 번 풀고는 맺었다. 지집아가 너무 고집이 세몬 팔자가 세다 됐는데, 니 팔자가 겁난다, 이것야.”

남동생 둘도 가시 박힌 말투로 대들었다.

“누나는 매사에 자신 만만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있을 때 자기를 돌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지방대학을 나와 시청공무원을 하고 있는 큰동생의 말이었다. 군에서 아버지 별세 소식을 듣고 휴가온 작은동생은 이렇게 임미령의 속을 긁었다.

“그렇게 반대하시던 아버지 의견도 묵살한 채, 쪽발이하고 결혼하더니 언제까지 잘 살지 두고 볼 끼다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서울로 올라와 남편 품에 안겨서 울었다. 그때야 아버지가 불쌍했

고, 혼자 된 어머니의 일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때 어머니는 겨우 마흔 일곱이었기 때문이다.

미령의 할아버지 임재옥이 일본에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것은 1941년 봄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조선인 청년들을 ‘모집’이란 이름으로 일본까지 데리고 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제징용이었다. 왜냐하면 징용자를 찾으러 온 일본인 관리의 감언이설에 꺾을 당한 청년들은 한번 일본인들의 손에 넘어가기만 하면 움죽달싹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갈 때까지의 식사와 잠은 물론,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못 가게하고 철저한 감시를 했다. 경남 고성에서 대대로 가난에 찌들린, 빈농도 아닌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재주가 있다고 어렵게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거들고 있던 임재옥은 언젠가는 대청로 나가 돈벌이를 할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집 책임자인 일본인 관리를 안내해 동네로 온 조선인 조요가가리(징용계 면서기)를 만났다. 면서기가, 일본에 가면 농사보다 훨씬 편한 일을 하루 12시간 하고 일당 2원을 받는다고 했다. 임재옥은 이 말에 구미가 당겼다. 일당 2원이라니! 농사일은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외는 늘 일손을 놓을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푼돈마저 쥐어 볼 수 없었다. 그는 가족들과는 의논다운 의논도 하지 않고 일본인을 따라나섰다. 임재옥이 일본말을 알아듣고 할 줄 안다고 일본인은 아주 반가워하기도 했다. 그날 그의 부친은 고성장으로 갔고, 집에는 어머니와 아내만 있었다. 길어야 6개월 정도 일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6개월만 일해도 그 돈이 얼마가. 그는 이웃 마을 나들이 가듯이 집을 나왔던 것이다. 돌을 갓 지내고 걸음마를 하고 있는 아들 호근의 얼굴만 눈에 밟혔다.

그러나 일본에 와서 본 형편은 조선에서 듣던 것과는 판이했다. 농사보다 훨씬 편하다는 일은 생판 거짓말이었다. 바로 시모노세키에서 좀 떨어진 야마구치현의 장생탄광에서 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생탄광은 갯도 입구는 육지였지만 입구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아 바다 밑이 된다. 임재옥 등 신참들은 처음 며칠간은 채탄작업에 따른 교육을 받고 바로 탄광의 막장에 들어가 고된 작업을 해야 했다. 임금도 일당 2원이 아닌 1원 50전이었는데, 그나마 강제로 저축을 하게 하고, 통장도 탄광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어 돈 한 푼 만져 볼 수 없었다. 이 모든 조치가 조선인 노동자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탄광 노동자들 중 조선에서 ‘모집’에 의해 끌려온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합숙소는 학교 건물 모양의 장방형이었는데, 건물 안에 일자로 복도가 있고, 복도를 접한 방들이 교실처럼 칸막이를 하고 있었다. 방바닥은 마루바닥이었고, 바닥의 틈새로는 빈대가 들끓었다. 겨울에도 바닥에는 유도장에서 쓰는 매트 같은 게 깔려지고, 모포 한 장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먹는 것은 반찬은 형편없었지만 그런 대로 허기가 지지는 않았다. 어찌 다 노는 날이 되어도 외출은 허용되지 않았다. 4m 가까이 되는 두꺼운 판자의 높은 울

타리가 건물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밤낮으로 감시가 삼엄했다. 그런데도 야밤을 틈탄 탈출사고는 빈번했고, 탈주를 하다가 붙잡히면 혹독한 체벌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장생탄광의 광부 생활은 조선인들에게는 감옥을 넘어 지옥과 같았다.

장생탄광은 조선인 노동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1인당 하루 채탄 할당량이 350kg이었지만 실제로는 500kg 이상을 파야 했다. 왜냐하면 무게를 달 때 나쁜 석탄은 추려 내버리기 때문이다. 검사를 하고 감독을 하는 지도원들은 대개 조선 사람이었지만 어떻게나 모질고 독한지 간혹 보이는 일본인 지도원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 작업시간도 12시간이 아닌 14시간이었다. 새벽 5시에 들어가서 저녁 7시가 되어야 나왔다. 새벽 5시에 막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4시 반에는 일어나야 했고, 저녁 7시에 나온다고 해도 나와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다 보면 다시 30분 이상이 걸린다. 그러니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15시간 이상이 되는 셈이었다.

모두가 그랬지만 임재옥도 신참 시절에는 채탄 할당량을 채우느라고 말못할 고생을 했다. 갯에 들어가서 막장으로 내려가는 승강기는 언제나 고참이 먼저 탄다. 그러면 그 차례를 기다리는 데도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다. 막장에 들어가도 채탄하기 좋은 곳은 언제나 고참들이 붙어 있어, 신참들은 일도 서툰 데다 위험한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감독들이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바로 위가 바다인 줄도 모르고 채탄작업에 열중하기가 예사였다. 또 갯내에는 갯목으로 틀을 짜서 갯의 천장을 받쳐 두기도 하지만 군데군데 석탄을 다 캐지 않고 기둥처럼 세워 둠으로써 천장의 붕괴를 방지하는 버팀목 기능을 하게 했는데, 조선인 광부들은 책임량을 캐지 못하면 지도원의 눈을 피해 급한 대로 그 석탄 기둥에 손을 대는 수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 나갔다. 죽은 사람들은 폐광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든지 잘해야 탄광 주변 야산에 여럿이 한꺼번에 매장되었다.

그러다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해가 바뀌어 임재옥이 장생탄광으로 온 지도 거의 1년이 가까웠을 무렵이었다. 1942년 2월 3일 아침 8시경, 바닷물이 탄광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해안에서 1km 쯤 되는 지점의 갯내 암반이 붕괴되었던 것이다. 이 사고로 183명의 탄광 노동자들이 바다 밑에 깔리게 된 것이고, 임재옥도 그런 희생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 사고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는 136명이나 되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있던 나는 중간에서 임미령의 말을 가로막고 물었다.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임미령이 그렇게 알게 되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잠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율리아 씨는 이런 일을 어떻게 그리 소상하게 알게 되었나요?”

임미령은 잠깐 고개를 젓혀, 적당히 침침한 밝기로 빛을 내고 있는 천장의 전등에 눈길

을 주었다가 다시 말했다.

“제가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건 아까 말씀 드렸죠? 지금은 남이 되고 말았지만 그 남편의 힘이 컸었죠.”

순간, 나는 그 남편과도 남이 되고 말았다? 하기는 술집을 하고 있으니 대강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점점 더 이야기가 복잡해지는군, 생각하면서 임미령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임미령의 남편 아마다 준타는 기자이면서 일본의 진보적 시민단체인 ‘장생탄광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 (보통은 그냥 ‘새기는 회’라 한다고)의 회원이었다. 이 단체는 1991년에 결성되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가던 장생탄광의 수몰 사건을 역사에 새기는 일을 목표로 결성되었다. 그래서 일제가 자행한 강제 연행에 의한 조선인 노동자의 억울함과 강제노동의 진상을 밝히고, 당시 생존자를 찾아 증언을 들어 이를 기록에 남기는 일을 추진했다. 그리고 같은 일본인으로서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희생자의 명단을 밝히는 일에도 힘썼다. 이 단체는, 그 이전에 이미 결성되어 활동하다가 그 활동 방향을 전환하면서 발전적 해체를 한 바 있는, ‘지원하는 회’ (정식 명칭은 ‘외국인 등록법 개정을 요구하고 지문 날인 거부자를 지원하는 회’)의 후신이었다. 90년 말에야 일본 국내에서 외국인 지문날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모처럼 결성된 ‘지원하는 회’의 회원들은 다른 일을 찾아 단체를 계속하기로 하고 있던 중 장생탄광의 숨겨진 비극을 알게 되었고, 이 비밀을 역사에 새기는 일에 앞장서면서 단체의 명칭도 ‘지원하는 회’에서 ‘새기는 회’로 바꾸었다고 한다.

결혼 후, 임미령은 미련 없이 직장을 그만 두었다. 그리고는 마침 본사 근무의 명을 받고 귀국하는 남편을 따라 1992년 남편의 고향인 후쿠오카로 왔다. 언어가 불편한 것도 아니었고, 일본의 풍속이나 음식이 불편한 것도 아니었던만 임미령은 날이 갈수록 이상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다 그 원인이 어머니 말씀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 자신의 고집 때문에 눈을 뜬 채 죽은 아버지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죄책감은 건드릴 수 없는 고문이었다. 어머니의 그 말씀,

“너그 아버지는 순전히 니한테 희망을 걸고 살았다 아이가. 니가 장차 너그 할부지 원한도 풀어 더리고 집안도 빛내 줄 끼라고. 그래서 죽자 사자 너그 3남매 공부를 시킴시로(시키면서) 니한테 제일 큰 희망을 건 기라. 그런데 니는 할부지 원한을 풀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왜놈이라면 자다가도 이를 가는 그 왜놈하고 결혼을 했으니, 집안을 빛내기는 커이사(커녕) 집안 망신을 시킨다고, 고마 목지도 자지도 몬하다가 세상을 베린 기라. 자살 할라 카는 거로 내가 얼마나 말짓는지 모른다. 백지(뎡히) 말기 가지고 고생만 시켰다 생각하이..... 지집아가 너무 고집이 세몬 팔자가 세다 됐는데, 니 팔자가 겁난다, 이것야.”

이러한 어머니의 말씀이 마치 녹음기에서 들려오듯 임미령의 귀 안을 마냥 휘젓고 있었다. 아니다. 그것은 마치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한 것처럼 가슴속에 고여 임미령을 괴롭혔다. 또 실제로 체한 것처럼 음식이 전혀 당기지 않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새기는 회'에서 입수해 집으로 갖고 온 <장생탄광 수물 조선인 희생자 명단>을 무심코 들여다보다 거기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했다. 임(林), 있을 재(在)자, 기름질 옥(沃)자, 얼른 아버지의 뉘두리 같은 가락이 떠오르며, 마치 소변을 오래 참다가 본 뒤처럼 온 몸이 진저리쳐짐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닦고 들여다봤다. 할아버지의 함자가 틀림없었다. 이름 뒤에는 출신지인 조선의 주소도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경남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임미령의 결혼 전의 본적지였다. 임미령은 그 명단을 잡고 있는 손은 물론, 자신의 귀에까지 들리는 심장의 박동을 들으며 한참이나 눈을 감고 있었다. 아, 아버지가 그렇게나 애타게 찾으시던 할아버지의 흔적을 이렇게 접하다니! 그녀는 눈을 뜨고 남편에게 말했다. 그때까지도 전신의 떨림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 남편에게 그런 말이라도 해야만 그 이상한 전율이 진정될 것 같았다.

“여보, 당신 내일 초세이(長生)탄광으로 날 좀 데려가주세요.”

남편 야마다 준타가 신문을 보고 있다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당신이 거길 뭣 때문에 가?”

“그냥 가보고 싶어서요”

“글쎄, 거긴 관광지가 아닌 황폐한 폐광이라구요, 폐광.”

“그래서 더 가 보고 싶군요.”

“아서요. 갑갑하면 차라리 벳부의 온천으로 가요. 요즘 당신 혈색이 영 안 좋아.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라도 가자고 해야지, 초세이 탄광에는 왜 가요? 성한 사람도 그런 데 가면 병 난다구요. 차라리 내일 온천이나 하고 오자구요.”

그러나 임미령은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라도 가자고 해야지, 이 말 때문이었을까. 몸이 안 좋긴 했다. 구미를 잃은 지는 오래 됐고, 불면증까지 겹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한 번 눈물이 쏟아지자 견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파고 물었으나 설명할 수 없었다. 외롭다고 하면 될까. 그러나 외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의 어머니가 전될 수 없이 보고 싶었다. 아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왜 이리도 갑자기 보고 싶고 그리울까. 아버지가 그리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아버지의 말씀을 끝내 듣지 않고 결혼을 한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자신이 아버지를 비명에 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이 거대한 바위처럼 전신을 짓눌렀다. 아,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한 속에 사시다 또 못난 나 때문에 비명에 가셨다..... 이런 죄책감에 빠져 있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말, ‘지집아가 너무 거세돈 팔자가 세

다 했는데, 니 팔자가 겁난다, 이것야.’ 이런 말까지 다시 귀청을 때리자 이제 임미령은 평소의 그녀답지 않게 자신의 운명이 정말 결판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포와 절망감을 가눌 수가 없었다. 깊은 밤이어서 그랬을까. 그때의 그 절망감과 공포감이라니! 팔자가 센 년..... 그러나 그 밤이 가고 날이 밝은 눈부신 햇빛 아래서도 절망감과 공포감, 심한 우울 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래서 이튿날 임미령은 남편과 함께 온천보다는 병원으로 먼저 갔다. 내과에서는 혈압이 좀 높을 뿐 아무 이상도 없다며 산부인과나 정신과로 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란 말을 들었다. 남편이 기뻐 소리쳤다.

“여보, 이제 우리는 부모가 되는 거요, 부모가.”

아, 임신 때문에 이렇게 우울한 건가. 생각하면서 의사에게 물었다.

“그럼 얼마나 있으면 이런 무기력과 우울증이 가실까요?”

“얼마 안 갑니다. 안정을 취하면서 가벼운 독서도 하시고 음악도 듣고 하세요. 축하합니다.”

그러나 임미령의 증세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다. 생각다 못해 남편에게 장생탄광의 수몰 희생자 136명중의 한 사람인 임재옥이 자신의 할아버지란 사실을 털어놓았다. 순간 남편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지면서, 좋아요, 내 명예를 걸고 장생탄광의 비극을 세상에 고발하고 말 테니 두고 봐요, 했다. 그때부터 아마다는 신문사보다 ‘새기는 회’에 더 열심이었다. 그리고는 날을 받아 아마다가 임미령을 직접 차에 태워 장생탄광의 현장을 둘러보게 까지 했다. 임미령은 현장에서, 일본인 경비원이 말리는 데도 남편의 힘으로 조선인 합숙소를 돌아봤다. 또 막아 놓기는 했지만 귀신 아가리 같은 갭 입구에서 음산한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발작 같은 가슴의 통증과 심한 현기증까지 느끼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 뒤부터는 남편 아마다의 싹싹함마저 일본인 특유의 간교로 보였고, 남편의 자상함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임미령은 장생탄광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일제로부터 받은 비인간적인 온갖 학대를 남편을 통해 깊이 알면 알수록 그녀의 증세—두통, 눈앞이 흐려지면서 느끼는 심한 가슴 통증과 현기증, 식욕부진,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 불안과 공포감—은 더 악화되어 갔고,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남편의 인간적 단점이 점점 더 역겨워졌다. 물론 정신과의 통원 치료를 계속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태아 때문에 약을 너무 조심해서였을까.

이제 임미령은, 자신이 소생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남편과 좀 떨어져 있어 보는 것이란 생각을 했다. 그녀는 오래 망설이고 망설이다 아마다에게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고 남편의 의향을 물었다. 아마다가 차츰 싫어진다는 것은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남편은 심각하게 듣고 있다가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다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요? 하고 임미령의 귀국을 염려했다. 미령도 한국으로 돌

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어머니가 보고 싶기는 했지만 막말을 한 동생들을 만나기가 거북했다. 이래서 고베로 옮겨왔고, 그게 10년이나 됐다. 물론 처음에는 생활비를, 아이를 낳자 양육비와 생활비를 꼬박꼬박 부쳐 주었지만 이제는 아마다를 놓아주었다. 자유롭게.

“딸애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재미가 좋아요. 딸애가 저처럼 되지 않기를 늘 하느님께 기도하는 걸요. 또 가끔씩은 이 오빠도 찾아오시어 저에게 큰 힘을 주시니까요.”

그날 저녁 그스낵 ‘아끼하나’에서 임미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친구 임경태와 일본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거둬거둬 들이켰다. 그러다 내가 혼자 말하듯 했다.

“장생탄광의 자료는 왜 후쿠오카 세 군데의 대학 도서관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을까?”

임미령이 말했다.

“지금 일본 역사 교과서가 일본 국내에서도 문제가 돼 있지만, 모르긴 해도 문부성 검열을 무난히 통과할 걸요? 공공기관은 철저히 우익세력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도서관에서 그런 자료를 아무나 보게 해 놓겠어요? 어렵도 없지요.”

“우익이든 좌익이든 거짓말은 안 해야지.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것은 일본인의 고질적 버릇이지만 한국 정부가 왜 좀더 당당히 대처하지 못하는지……”

임경태가 말꼬리를 감추고 눈살을 찌푸리며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10여년 전, 제가 아마다와 결혼하려던 무렵의 저의 사고방식, 지난 일을 가지고 시시콜콜 따지다가는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 현실적 실익을 위해 과거를 덮어두자,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데모 한 번 할 줄 몰랐던 저의 그러한 생각은 역대 한국 정부에 순치된 결과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의 전 그게 아니라구요. 한국정부는 지금도 현실 위주, 실리도 못 챙기면서 실리에 연연하는 것 같아 딱해요. 우선 독도 문제만 봐도 그렇잖아요?”

임미령은 계속해서 총련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민단 사람들의 그것에 대하여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피력했다. 재일 동포 자녀 치고 모국어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총련계 자녀밖에 더 있느냐, 아무리 빵이 중요하지만 민족적 줏대도 빵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내가 후쿠오카에서 장생탄광 자료 못 찾은 화두가 점점 엉뚱하게 비약하고 있었다. 그래서 웬만큼 취하기도 했으므로 나는 임경태의 옆구리를 찌르며 함께 스낵에서 나왔다. 밤도 깊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임경태가 말했다.

“임미령이는 똑똑한 앤데 안됐어. 고베로 올라와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는 그 수낙구(스낵)를 열었지. 그 때 내가 우리 회사 애들 데리고 자주 갔었지. 그때 애는 낱 보고 아버님, 아버님 했어. 듣기 싫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 가니까 오빠란 말이 유행이더라고, 차라리 오빠라 부르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개의 오빠가 된 거야.”

“그래도 일본에서 일본인 남편과 이혼을 자청하고, 혼자 산다는 게 좀 비현실적이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말했다.

“아까 미령이도 말했지만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죽음, 할아버지의 허무한 객사 등이 늦게야 미령의 민족 의식을 일깨웠다고나 할까.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래도 그렇지. 기왕 갈라서는 마당에 애는 왜 떠맡는담? 너무 철없다는 생각이 들고, 민족의식 운운도 건강부회(牽強附會)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민족 의식은 그만두고, 철없다는 말에만 동의하지.”

임경태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다시 말했다.

“지금 고베에는 한국에서 건너와 몸파는 고학력 여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 그런 여성들에 비하면 그래도 미령이는 수나꾸를 할지언정 깨끗하게 살고 있어. 나는 미령의 신앙을 몰라. 그런데 미령이는 신앙 때문에 태이를 뗄 수 없었다고 하더군. 어쨌든 미령이는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건전하게 살고 있는 거야.”

“수나꾸구가 아니고 스낵이야. 마구도나루도가 아니고 맥도날드, 후이리무가 아니고 펄름이야. 일본에서 좀 살았다고 자네마저 발음이 왜 이래?”

“지엽적인 걸 가지고 자네야말로 왜 이래? 언어란 주변 환경에 동화되는 거야. 자네 정이려면 우리 집에 안 데리고 간다?”

“허허허, 참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 자네 집으로 가고 있었네 그려. 제수 씨한테 대접 잘 받으려면 우선 공처가인 자네한테 잘 보여야겠지.”

우리는 택시 안에서 한 바탕 웃고 어느 지점에서 내렸다. 고베의 중심지, 한국인들의 파친고 회사가 즐비한 곳이었다.

“왜 여기에서 내려? 자네 집은 저 육감산 밑에 있는데.”

“암말도 말고 따라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고 무슨 말을 하든 가만히 보고만 있어.”

얼마 못 가서 예쁘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들이 암전히 서 있는 게 보였다. 임경태가 한 여인 곁으로 다가가 한국어로 속삭이듯 물었다.

“싸게 잘해 주어요?”

“그럼요, 최저의 가격에 최고의 써비습니다. 깨끗하고 좋아요, 손님.”

“알았소, 내 한바퀴 둘러보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요”

다시 걸음을 떼 놓으면서 임경태가 말했다.

“다른 여자한테 한 번 더해 볼까?”

“됐네, 그만 걸으세.”

“2, 3년 전만 해도 저런 애들이 한복을 입고 저렇게 서 있었어.”

“술만 파는 건가?”

“외견상으론 그렇지, 하지만 몸도 팔 걸 아마.”

우리는 술도 껌 겸 건기로 했다. 밤 공기가 좀 쌀쌀하긴 했지만 상쾌했다. 내가 말했다.

“나, 내일 한국으로 가지 않고 장생탄광으로 내려가 봐야겠네.”

“혼자 찾아가겠는가?”

“입이 서울 아닌가?”

“그럼 후쿠오카에서 바로 그 탄광을 둘러 오지 그랬어?”

“그때는 장생탄광 수몰 사건 같은 비극을 몰랐었지. 아까 임미령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상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쩐지 직무 유기 같은 느낌이 드는군.”

한참 뒤 임경태가 다시 말했다.

“자네는 일어도 서툰데 장생탄광을 어떻게 찾아가? 찾아간들 누굴 붙잡고 뭘 물을 건가? 내가 동행할 수밖에.”

그러나 나도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임경태가 벌써 나 때문에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벌써 나 때문에 회사를 많이 비웠는데, 또 장생탄광까지 같이 가겠다고?”

“자네 혼자 어떻게 보내겠는가?”

나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다. 좀 더 걸어서 집으로 돌아온 그는 즉시 임미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떨어지자 전화기에서는 일본 유행가 소리가 나의 귀에까지 들렸다. 다른 손님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고 있나 보았다. 임경태가 고함을 지르다시피 해서 장생탄광 찾아가는 길을 물었다. 그러다 뭐, 후쿠오카로 가서 누굴 만나라고?.....아아, 전에 네가 말한 그 밀양 출신 노인 말이지?..... 주소는? 하고 묻기도 했다. 현지에 가서는 만날 사람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연방 수첩에다 뭔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다시 자기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를 보고 받고, 내일 회사로 가기로 했지만 또 못 나가게 됐다고 하면서 일본말로 뭔가를 장황하게 지시하고 있었다.

나는 이튿날 임경태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로 도로 내려갔다.

4

장생탄광이 있는 곳의 행정구역상의 지명은 일본 본주의 남단에 위치한, 야마구치현 우베시 니시키와(山口縣 宇部市 西岐波)였다. 시모노세키까지 가서 장생탄광으로 가는 게 훨씬 가까운 거리였지만 후쿠오카에서 찾아볼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후쿠오카로 갔던 것이다.

우리는 후쿠오카 시내에 있는 공항에서 바로 먼저 임미령이 소개한, 장생탄광 수몰 사건 당시 살아남은 한국인 안인복 씨(79세)를 찾았다. 택시를 타고 달리며, 나는 비행기 안에서 임경태로부터 들은 안인복 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안인복도 임재옥과 같은 해인 1941년에 일본으로 와서 장생탄광에 배치되었다. 해방이 되자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끝내 연락선을 타지 못해 일본에 도로 주저앉았는데, 그는 곧 조총련에 가입하였다. 남조선이 재일동포를 팽개치고 있을 때 북조선은 일본 각지에다 재일 동포를 위해 학교를 마련하는 등 상당한 성의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라 했다. 그는 젊은 시절 총련에 가입하여 오늘까지 살아 왔다. 그 동안 북한도 두 번이나 다녀왔고, 김일성으로부터 훈장도 받았다. 그도 옛날 조선에서 떠날 때 딸을 갓 낳은 아내를 두고 왔으나, 수십 년 동안 소식을 몰랐다. 총련에 몸담고 있었으므로 더욱 그랬다. 그는, 자기처럼 아내도 어찌면 혼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갖은 고충을 참고 혼자 살았는데, 이제 모두 총련에 가입하여 민족의식, 정신교육을 끊임없이 받은 덕택이라고 했다. 한국의 상황이 좀 바뀌면 서 그는 고향 밀양에서 아내가 여태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8년 전에 할머니가 된 아내를 데려다 늦게야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안인복 노인의 집은 후쿠오카 외곽 지대의 어느 학교 건물 옆에 있었다. 고베에서 임미령의 전화를 받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키가 후리후리한 위에 혈색이 좋아, 여든이 다 된 노인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한 번 보고 싶은 그의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그와 수인사를 나누고 바로 장생탄광으로 향했다. 안인복 노인이, 아마 수십 년은 된 듯한 자신의 낡은 차를 직접 몰았다.

구주와 본주를 연결한 거대한 교량을 건너, 시모노세키에서도 한 시간이나 더 달려서야 오른쪽으로 바다가 나타났고, 왼쪽으로 전형적인 일본의 시골 풍경의 어촌에 닿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가 장생탄광임을 아무도 알 수 없게 탄광 지역은 우거진 갈대 속에 파묻혀 있었다. 다만 자세히 봐야만 이것이 탄광 노동자들의 합숙소 건물이었구나, 짐작될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폐건물 하나가 도깨비처럼 서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어촌이어서 어느 어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어장막처럼 보이기도 했다. 다른 폐광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 흙더미도 갈대 속에 가려져 길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이러니 장생탄광의 비극은 묻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좁은 억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우리는 차를 내려, 안인복 노인이 인도하는 대로 국도에서 한 발 밑으로 위치한 갈대밭 속으로 난 오솔길로 내려섰다. 몇 걸음 못 걸어서 거기 엉뚱하게 서 있는 어떤 바위 앞에 닿았다. 그것은 그냥 바위가 아닌, 놀랍게도 자연석의 비석이었다. 그것도 장생탄광의 수몰사건으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비였다.

장생탄광 순난자(殉難者)의 비

소화 17년 2월 3일 아침 바다에 있는 피아의 물이 딱 멈췄다. 40년을 맞이한 지금도 1백 83명 탄광의 남자들은 바다 밑에 잠들어 있다. 영원히 잠들라, 편안히 잠들라. 탄광의 남자들이여.

소화 17년 4월 길(吉)일 건립.

건립위원

건립위원으로는 장중준조(藏重準助) 등을 비롯한 1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안인복 노인이 손가락으로 비석의 ‘소화 17년’이란 대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기 1942년이었지요. 내가 손가락으로 ‘피아’란 말을 가리키며 무슨 말이나고 물었다. 안인복 노인이 설명했다.

“갱내의 탁한 공기를 바닷바람과 환기도 하고, 또 갱내에 고인 바닷물을 밖으로 뽑아내기도 하는, 도라무(드럼)통 같이 생긴 일종의 환기구 혹은 배수관입니다. 곧 보여 드리겠습니다.”

비석에서 물러나 우리는 바닷가로 좀 더 가까이 걸어갔다. 걸음을 옮기면서 안인복 노인이 바다 쪽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저기(저것이) 바로 비석에 새겨져 있던 ‘빠아’란 겁니다. 똑 도라무통이 서 있는 것 같습니까?”

해안에서 300m는 족히 되는 거리에 하나, 더 멀리 하나, 과연 두 개의 드럼통 같은 것이 바다에서 우뚝 솟아 있었다.

해안에 와서야 옛날 탄광에서 파낸 폐탄인 듯한 푸석푸석한 검은 돌들을 볼 수 있었다. 안인복 노인이 말했다.

“이쪽 갱 입구에서 갱도를 따라 쭉 들어가몬 열매 안 가 바다 밑이 되는데, 거어서(거기서)부터는 갱도는 밑으로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진 갱도를 한참 더 들어가몬 은자(이제) 수평 갱도가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는 수직 갱도도 나옵니다. 수직 갱도는 승강기를 타고 오르내렸지요. 수평 갱도는 1000m 이상 나 있지요. 그런 데서 채탄 작업을 하다 보면 바다 위로 배 지나가는 소리가 통통통 들리기도 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내가 이기 시방 무신 짓인가 싶은 기 눈앞이 아찔하기도 했지요.”

내가 물었다.

“바다에서 구멍이 뚫린 데는 어디쯤 됩니까?”

“수평갱도를 따라 들어가다가 그 갱도 끝에서 방향을 오른 쪽으로 바꾸어 다시 좀 더 들어간 지점인데, 저기 안 쪽 빠야에서 오른 쪽으로 한 700m 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지점이 탄광 갱도의 중간 지점이었지요.”

임경태가 물었다.

“안 선생님은 천행으로 무사하셨는데, 어떻게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바닷물은 수시로 조금씩 새었다. 그럴 때마다 갯목으로 틀을 짜서 갯의 천장을 안전하게 받쳤다. 그래도 갯도에는 언제나 물이 질퍽했고, 작은 침수와 낙반사고로 몇 사람씩 죽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처럼 대형 사고가 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사고로 폐광이 되었다. 그는 그날 지도원으로부터 갯도에 들어가는 대신, 새벽부터 갯 바깥에 쌓아둔 갯목을 갯 안으로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채탄 작업과는 비교도 안 되게 편한 작업이어서 웬 떡인가 싶어, 같은 조원인 조 씨와 빈 탄차에 갯목을 싣고는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갯목을 내려놓으라고 지시 받은 곳에서 탄차를 세우고 보니, 천장을 받쳤던 갯목이 바닥에 자빠져 있었다. 천장을 보니 침침한 곳인데도 평소보다는 좀 낮아진 것 같았다. 그러나 명령이 무서워 다시 갯목을 가지고 갔을 때 또 좀 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압 때문이란 걸 직감했다. 세 번째 갯 밖으로 나왔을 때는 들어가기 싫었다. 지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잔말 말고 갯목이나 얼른 가지고 들어가라면서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할 수 없이 갯목을 싣고 들어가다 말고 아무래도 기분이 안 좋아 안인복이 그만 나가자고 했다. 같은 조원인 경남 함안 출신인 조 씨가 맞아죽으려고 그러느냐며 혼자 탄차를 밀고 들어갔다. 평소에도 천장에서 물만 새면 광부들은, 천장이 무너진다고!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지도원한테 매타작을 당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지도원들은 그들이 거쳐하면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불러들여 죽치고 때는 콘크리트 집의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새끼야, 이 집 천장을 봐! 쉽게 뚫리겠어? 쉽게 무너지겠냐구? 갯은 이 집보다 더 안전한 곳이야. 그런데 왜 개소리 지르고 선동하면서 뛰어 나오느냐구? 하면서 마구 차고 밟고 때리고 했다. 조씨는 그런 경험 때문에 그날도 설마, 하면서 미련을 부렸다. 안인복은 맞아죽어도 밖에서 죽을 각오로 걸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들 둘이 아까부터 탄차를 밀고 그 먼 거리를 오갈 때도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채탄 작업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안인복이 천천히 걷기 시작한 지 한 1분이나 됐을까. 먼 안 쪽에서 쿵, 하는 굉음과 함께 폭포수 쏟아지는 소리가 쏘아, 울려왔다. 안인복은 있는 힘을 다해 입구 쪽을 향해 달려나오면서 소리소리 질렀다. 바다가 뚫히다야! 천장이 무너졌다야! 그리고 달려나오는데 갯도의 붉은 비상등이 켜지면서 싸이렌이 딱 한번 울리더니 멈추고 비상등도 꺼져버렸다. 전기가 나간 것이다. 그때부터 갯 안은 지옥의 아비규환이었다. 안인복은 어둠 속을 어떻게 달려나왔는지 몰랐다. 그가 굴 입구의 햇빛을 봤다고 느낀 순간 안쪽에서 달려온 바닷물이 그를 덮치고 지나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탄광 함숙소의 방안이었다. 안인복과 조 씨가 갯목을 탄차에서 내리던 곳은 탄광의 중간 지점이어서 그 안 쪽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은 몰사를 당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말해 놓고 안인복은 한참 동안 멍한 표정으로 먼 바다 쪽에다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내가 다시 갯 안에 한 번 들어가 볼 수 있을까, 하고 물었다. 그가 단호히 어림도 없다고 잘랐다. 갯 입구를 막아 놓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도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갯 뿐만이 아니고 ‘다 찌그러져 가는 노동자 합숙소’ 건물에도 출입을 금하기 위해 일본인 경비원이 지키고 있다고 했다. 3, 4년 전 한국의 신문 기자들이 와서 탄광에 들어가 보려고 해도 결국 못 들어가고, 밖에서 사진만 몇 장 찍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 뒤 장생탄광은 폐쇄되었지만 조선인 노동자로 이 수몰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처를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었다. 그러다 그들은 다른 탄광으로 옮겨졌는데, 장생탄광은 북해도나 사할린, 규슈 등지의 일손이 부족한 탄광으로 조선 사람들을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안인복은 규슈탄광으로 팔려와서 해방이 될 때까지 일했다.

장생탄광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었느냐고 내가 다시 물었다.

“장생탄광에는 조선에서 모집에 의해 붙잡혀 온 저 같은 사람과 자유의지로 일본에 가족과 함께 이주해 와서 탄광 노동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주해 와서 탄광에 일했던 사람의 유가족들도 가족들의 형식적인 장례식이 끝나자 탄광에서 제공해 준 사택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지금도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탄광회사에서 15원을 주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 1원 50전의 열흘치 임금이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었던 셈이지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되었느냐, 20배가 넘는 400원 가까이를 일본인 희생자에게 지불했고, 탄광 간부로 죽은 일본인들에게는 5천 원도 주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모집’에 의한 광부들에게는 돈 한 톨 없었습니다. 그러니 조선 사람 목숨이 오데 사람 목숨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일본 땅에 살아 남았지만은 강제 적립을 해둔 돈 수천 원을 안죽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패전 직후에는 어수선해서 그렇다 치고라도 그 구렁이 알 같은 아까운 돈을 이 때꺼정 안주고 있는 기 날강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는 아직도 분함을 참지 못하는 듯 한숨과 함께 입을 앙다물었다. 임경태가 말했다.

“안 선생님 오늘 저희들 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점심때가 훨씬 지났네요.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 하십시오.”

내가 말했다.

“점심은 제가 사지요. 안 선생님께선 식당이나 안내해 주십시오.”

“명문가의 후예가 선조의 유훈을 중시하면서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애쓰듯이 나도 광주 안 가란 성씨 때문에 오늘 고생은 즐겁게 한 것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점심은 안 사 쥐도 괜찮다는 말이었다. 내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당찮으신 말씀입니다. 어차피 점심은 먹어야 하니까 같이 드십시오.”

그러나 식당다운 식당이 없었다. 동네 입구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자 안인복 노인이 시계를 보면서 나에게 말했다.

“탄광에 갈 일은 인자 없지요? 내가 오후에 약속이 좀 있어서……”

나는 그럴 바에야 시모노세키에라도 가서 점심을 먹을 걸 그랬구나, 생각하면서 그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후쿠오카로 다시 돌아온 것은 오후 4시가 넘어서였다. 임경태와 나는 후쿠오카 시내에 들어오자 안 노인의 차에서 내려 그와 작별 인사를 했다. 그가 진심으로 고마웠다. 나는 그에게 허리를 깊이 굽혀 예를 표하고 그냥 이렇게 헤어져서 되겠느냐고 인사치레를 했다. 별 말씀을 다하신다고, 다아 우리 지난날의 비극을 들추어, 잊지 말자고 하시는 노력인데 이 늙은이가 이만한 협조도 안 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그를 보내고 나는 임경태와 바로 후쿠오카 공항으로 갔다. 2월 24일이 토요일이어서 좌석이 있을지 걱정스러웠으나, 부산행 비행기 자체가 떨어지고 없었다. 일본 항공은 오전 9시 15분에, 대한항공은 오후 1시 50분에 떠나고 없었다. 고베 행 비행기는 있었다. 다음 날 한국행 대한항공 표를 예약해 두고 나는 임경태와 헤어졌다. 그가 나와 호텔에서 하루 더 묵겠다는 걸 내가 억지다 시피 고베로 돌아가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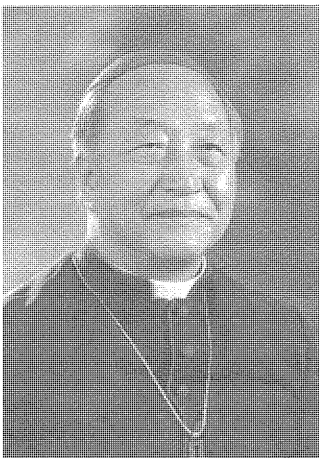
나는 공항을 빠져 나왔다. 공항에서 가까운 곳의 호텔 하나를 겨우 찾았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항 가까운 호텔에 드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했다. 일본에서는 택시비도 기본 요금이 한국돈 7000원 가까이나 됐다. 한국의 ‘장’ 급 여관보다 더 못한 호텔의 객실로 들었다. 초라하고 비좁은 방이었다. 우선 샤워부터 했다. 그리고 그 동안 제일 한국인 여러 사람들을 만나 얻은 명함부터 정리했다. 어떤 명함은 뒷면부터 먼저 보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영문이 인쇄되어 있었다.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the lust of it; but he who does the will of God abides forever.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글은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이었다. 그 명함의 앞면을 보니 놀랍게도 임미령의 것이었다. 명함은 먼저 일본 글 가다가나로 ‘수나꾸’ 라고 적고, 상호를 좀 크게 ‘秋花’ 라고 인쇄한 밑에 작은 활자로 林美玲이라고 찍어 놓고 있었다. 일본에서 온갖 풍상을 겪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젊은 나이의 여인 임미령도 이렇게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었구나. 술 파는 여인이라고 내 명함을 주지 않으려던 일이 떠오르자 갑자기 심한 부끄러움이 피로처럼 몰려왔다. (2001년 작)

참여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정진석 니콜라오 대주교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베풀어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본당에 충만히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시노드의 긴 여정을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한마음이 되어 헌신적으로 참여하신 모든 교구민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세상의 희망인 교회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윤리와 도덕을 중요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공동선을 지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소비주의 풍조가 만연하고, 각종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며,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출산율의 감소와 노령화에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저변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배의 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지역간의 부조화, 반생명 현상의 확산과 자연환경의 파괴, 사회정의의 부재 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문제점들이 다양한 형태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맞물려 우리 교회의 현실 또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신자수 150만여 명이라는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안에서도 세속주의로 인해 교회의 근본사명인 선교열망이 식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랑과 희생정신이 약화되며, 신자 상호간의 친교와 일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영세대의 감소, 위는 신자들의 증가, 청소년층의 교회로부터

의 이탈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내·외 문제에 복음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교구는 시노드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교구 시노드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새로운 변화와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신 성령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실로 “야훼께서 이루신 고마우신 일”이요 “야훼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일”(이사 63:7)이었습니다. 저는 ‘시노드후속교구장교서’에서 밝힌 대로 시노드를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성령의 이끄심이라 믿으며 겸허하게 모든 것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의탁하며 하느님 백성의 뜻을 모든 교우들, 수도자, 성직자와 함께 실천하여 세상에 희망을 주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구현해가고자 합니다.

2. 실천하는 시노드

교구 시노드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의 정신에 따라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의 전망을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구성원인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의 신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고, 교회운영, 선교·신앙교육을 통해 교회공동체의 합리적 운영과 신자들의 신앙심을 성숙시키기 위한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청년의 주체적인 교회참여방안을 논의하였고,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음화에 관한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구가 성삼위의 친교 안에서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이 형제적 사랑을 나누는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구성원 모두가 보다 나은 교회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건설에 앞장서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시노드후속교구장교서’를 통해 우리 교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목표와 과제, 다양한 실천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구민 모두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노드 실천의 첫 해인 올해에는 우리 교구의 산적한 현안 중에서 우선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을 성화시켜 나가는 데에 사목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오늘날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사목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교구의 사목구조를 연구하고 재정비하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3. 가정공동체의 성화

가정공동체는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최초의 장소이며, 인격적인 삶을 배우는 공동체이

고 사회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위기는 교회와 사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가정이 ‘인간에게 봉사하는 공동체’, ‘믿고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 ‘하느님과 대화하는 공동체’로 성화되어 가정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 교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공동체 사목을 추진해 온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정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목자들과 그 협력자들은 가정사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며 가정이 신앙의 중심처이며 작은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사목은 청소년과 노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모두에 대한 교회 사랑의 표현이며, 가정의 위기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오늘날의 사회 안에서 그 어떤 사목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목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공동체에 필요하고 가족구성원들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다양한 사목활동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지구와 본당 차원에서 가정사목을 도와 줄 기구의 설립과 인재의 확보, 사목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사목 프로그램이 본당사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시행됨으로써 풍성한 사목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교회구조

우리 교구는 사목구조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시노드에 나타난 정신을 담아내고 복음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구의 사목구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구, 지역, 지구, 본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구의 사목구조에 따른 역할과 기능들을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먼저 교구사제평의회와 사목평의회를 활성화하여 교구사목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하느님 백성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교구청 조직은 기획, 행정, 연구에 주력하면서 일선사목현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구장 대리제도를 지구사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구는 지구장을 중심으로 각 지구의 공동사목을 활성화하며 본당간의 유기적인 협력속에 질적으로 향상된 지구사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구차원의 사목이 청소년? 청년사목과 사회사목과의 깊은 연대를 통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본당안에서 구역을 중심으로 선교와 교육, 피정 등 자발적인 신앙활동을 하고, 반모임을 통하여 복음과 삶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소공동체를 이루도록 애써야 합니다. 또한 구역장회의를 활성화하여 본당의 사목현안을 알고 이해하며 문제점 해결에 능동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본당사목구조가 삶의 현장인 가정과 구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리매김됨으로써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이 교회라는 신원의식을 가질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5. '복음화 2020 운동'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생동안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이 땅의 길 잃은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선교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복음화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선교와 신앙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이 복음화계획에 구역, 반 소공동체, 본당, 지구, 지역, 교구와 여러 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마음으로 참여해서 2020년에는 인구대비 신자비율 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을 '복음화 2020 운동'이라고 부를 것이며, 교구는 앞으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6.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히브 7,19)

교구 시노드는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저는 '시노드후속교구장교서'에서 밝힌 대로 교회의 복음적인 기초와 교우들의 영성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구의 미래를 이루어가기 위해 모든 교구민과 더불어 한발 한발 쇄신과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가야 할 이 길은 희망과 구원의 길이면서 동시에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 (로마5,4-5)을 기억하며 이 구원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 교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시노드에서 드러난 모든 교구민의 열정적인 참여의 정신이 시노드 실천을 위한 노력과 다짐안에서 다시 타오르기를 희망합니다. 성령께서 시노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 가슴 벅찬 희망을 품고 여러분과 함께 새천년의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히브7,19)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교구 시노드 실천의 원년을 맞이하여 하느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은총을 베풀어주시기를 기원하며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요 보호자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전구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복음 따라사는 가정을

화평의 염원과 어려움

1 은총의 대희년을 맞아 새 천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진정 사람다운 세상이 동터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화해와 일치의 새 시대에 대한 염원이며 희망이었습니다. 양차 세계대전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전란과 분단의 아픔을 여전히 몸에 안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그 마음은 오늘도 더없이 절실합니다.

2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온갖 놀랍고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경악할 유혈 침략과 테러, 증오와 보복, 수탈과 빈곤의 참담한 수렁에 빠져드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 헤어날 길을 몰라 무력감에 젖기도 합니다. 세계 정세는 물론, 남북 대립, 사회 분열, 구조적 모순과 부정 등 모두 다 개개인의 힘을 넘는 것으로만 여겨집니다.

열쇠는 우리 마음 안에

장익요한 주교



3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이 모든 아픔의 뿌리는 바로 우리들 하나하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결국 이 웃을, 때로는 식구마저도, 내 몸같이 하나로 보지 않으려는 데에서 불화와 분열의 죄악은 싹틔입니다. 남을 나와 다르게, 나만 못하게, 나보다 나쁘게 여기고, 그래서 짐스럽거나 해치워도 괜찮은 '적'으로까지 보는 오만과 이기심에서 불행은 비롯합니다.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계명을 어기는 사람으로 판정됩니다"(야고 2,8).

4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우리의 염원인 참 평화를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시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 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셨습니까"(에페 2,14).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남을 위해 내 몸을 바치는 사랑으로 내 안의, 내 가정 안의, 우리 사회 안의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하는 일부터 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참된 가정 이루기'

5 오늘 우리는 삶의 바탕 자체인 가정의 붕괴라는 더없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나 경제나 국방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는 다 함께 '참된 가정 이루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곧 삶의 위기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이나 가정 할 것 없이 사회 현실의 소용돌이에 덩달아 휩쓸릴 수밖에 없다며 자포자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참다운 신앙인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가정이 온전해야만 인간이 바로 서고 사회가 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우리는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가정은 사랑과 힘의 원천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중요성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가치를 알게 됩니다. 가정이 있기에 인생의 파란을 혼자서도 헤쳐 나갈 힘을 얻고 어려울 때면 위안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사도 20,35)는 진리를 몸소 믿고, 그 신념으로 살면서 자아를 실현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도전과 신념의 힘

7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명암은 어떻습니까. 일찍이 꿈도 못 꾸던 온갖 진보를 이루어 내는 반면, 마치 적자생존을 위한 경제발전만이 삶의 전부인 양 내닫고 있습니다. 지식은 늘리면서도 지혜는 잃어가고, 가격은 알면서도 가치는 모르며, 말소리는 커가도 대화는 끊기는 사회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성과 출산(出産)이 분리되면서 자녀를 하느님 선물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산물로 여기는 사회, 능률과 성과만으로 인간의 값을 매겨 약자와 노인은 얼굴 없는 부담으로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 어찌 암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8 현실의 이렇듯 냉엄한 도전 앞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고맙게 주신 모든 생명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된 가정 이루기'를 깊이깊이 생각하고 일상의 실천으로써 가정을 살릴 길을 함께 모색해야겠습니다. 그 길은 식구 누구나가 '나부터 새롭게' 되도록 힘쓰면서 우선 신자 가정의 품에서부터 출발해야 곧게 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살아있는 '

공동체들의 공동체이어야 할 본당의 구역 · 반 소공동체 모임에 가족으로서 함께 해야 서로에게 새로운 힘이 솟을 것입니다. 지역 또는 교구 차원에서든 물론 상담, 연수, 피정 등을 통해 교우 가정에 도움을 드리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느님 은총을 입고 자각하는 가정 저마다가 역시 생기의 원점입니다.

무릇 부부간의 애정, 어버이와 자식 간의 이해, 청소년의 참 행복, 어르신들에 대한 마땅한 공경, 약자를 위한 마음씨 — 이 모든 소중한 일은 분명 화목하고 건실한 가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1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함께 머문다.

가 매주 한번 이상 가족끼리 마주보며 넉넉하고 좋은 시간 보내기

일생의 동반자와 자녀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는 일이나 돈벌이나 개인적 성취나 풍요 추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식구 저마다 아무리 바빠도 매주 적어도 세 끼는 느긋하게 같이 든다.

식사는 한갓 영양섭취를 넘어 서로의 생명을 기르는 정성어린 사랑이다.

나 가족이 매일 함께 기도하며 성서말씀에 귀 기울이기

하루에 다만 몇 분이라도 서로를 위하고 남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주님을 집안 어른으로 모시고 그때그때 식구의 삶에 대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다 매달 한 번은 가정주일로 지내며 함께 미사에 참여하기

주일과 축일은 '주님의 날'임을 명심하면서 되도록 함께 보낸다.

가족이 나들이를 할 때도 목적지에서의 신행을 미리 계획한다.

라 가족이 뜻을 모아 누군가를 맡아 돕기 또는 봉사활동에 나서기

2 공동체와 함께 하는 가족이 된다.

가 구역 · 반 모임을 가족들의 모임으로 다져나가기

마을과 대가족 공동체가 흩어진 오늘, 더더욱 소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며 성서에 맞닿이고 서로 사귀고 돕는다.

소공동체 단위로 부부 관계, 공동 육아, 자녀 교육, 이웃 봉사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힘을 모은다.

남자 어른들도 소공동체 모임에 부지런히 참여하기로 한다.

나 이웃신자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 가꾸기

소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신앙을 더 깊이 배우며 실천한다.

전례시기 따라(순례, 참회 예절, 성모의 밤 등) 다양하게 신심을 함께 복돋운다.

다 본당의 여타 구역·반들 및 단체들과 적극적 친선과 유대를 도모하기

소공동체로서 동네 보살피기, 복지 봉사, 환경 보호 등 신앙 실천에 헌신한다.

3 세상에 부활신앙을 입증하는 가정이 된다.

가족이 서로를 섬기는 거짓 없는 바른 삶, 모두를 향해 열린 선한 마음, 사랑의 헌신이 어둠의 세력을 끝내 이긴다는 굳은 신앙, 고통 중에도 가실 줄 모르는 마음의 평화 한마디로 그 삶 자체가 구원과 자비의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는 삶을 사는 신자 가정이 되어가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 주님의 기도로 사는 교회와 가정 —

하루는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불멘소리로 이러한 청을 드립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기도를 하고는 싶는데, 해야겠는데, 어찌 할 바를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시며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십니다 (마태 7,7-15; 루가 11,1-13 참조). 이 짧막한 기도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주신 하나 뿐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아 얻으려고 누구나 힘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과연 우리가 더 잘 살도록 무슨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유심히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자신이 하느님과 나누시는 말씀에, 나아가 하느님 백성과 온 인류의 기도예, 아주 새로운 바탕을 놓고 중심을 세우십니다. 이 '새로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즉 하느님과 맺은 예수님 특유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님과 하느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에 우리 또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바오로의 말대로, 아드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특별한 은총입니다 (갈라 4,6-7).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로부터 바쳐 온 가장 오래된 기도에 속합니다. 입교 예식의 한 단계로 예비신자의 마음에 주님의 기도를 심어주는 수여식이 따로 있습니다. 또 교회 초창기부터 전하는 귀한 신앙생활 지침서인 『열두 사도의 가르침』에도 교우들이 하루에 세 번 씩 주님의 기도를 꼭 바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세기의 위대한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주님의 기도는 바로 복음서 자체의 요약이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도의 본래 뜻인 하느님 숭배와 인간의 청원 뿐 아니라 삶에 대한 주님의 모든 가르치심을 거의 다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기도는 기쁜 소식임과 아울러 생활지침으로서, 하느님 눈에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줍니다.

그런만큼 신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모두 주님의 기도를 바탕으로 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옳고 좋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와 그리스도인 삶의 우선 순위

우리 교회와 가정은 갈수록 복음적인 가치의 우선순위 따라 살아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청원의 차례만 보아도 그러한 지향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내용 일곱 마디 중 먼저 나오는 세 마디 청원은 하느님께 마음을 둔 이른바 '아버지(당신) - 청원'들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네 마디 청원은 '저희(우리) - 청원'들입니다. 이 뒷 부분은 기도자 자신이 처한 아쉬움과 어려움과 위험을 여쭙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에는 뚜렷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느님께서 보살피시는 사람의 사정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언제나 아버지 찬양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 아버지' 라고 감히 부른다 함은 하느님 친히 우리에게 이룩해주시는 공동체에 한 가족으로서 참여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다름아닌 하느님의 아들딸, 아니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갈라 4,6-7).

우리들이 진정 하느님의 자녀라면, 하느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식구들이라면, 부부간이나 가정에서나, 또는 일터와 교회와 정치와 사회에서, 우리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서로 맺어야 할지가 절로 밝혀집니다.

인간인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두어 주신다면 우리 또한 서로에게 다가가 품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서로 얹혀 삽니다. 아무도 외따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서로에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복수로 기도하는 "저희 - 청원"에서 잘 드러납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저희 죄를" 하면서 또한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유혹과 죄악을 우리는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우리 모두가 모시고 살고 있음을 믿는 이상, 이기와 독선이 판치는 세상일수록, 우리는 억압받는 약자들과 내쳐지고 잊혀진 사람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눈을 돌리게 됩니다. 모른체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와 내 식구만을 생각하는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에서는 이웃사랑의 덕이 절로 솟아납니다.

주님의 기도는 생활현실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이천년 된 기도이면서도 그 청원은 예나 지금이나 절실하기만 합니다. 일용할 양식(빵, 밥)을 청하는 마디에는 소유의 정의로운 나눔에 대한 청원이 담겨 있습니다. SOS 어린이마을의 창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나눌 때에 비로소 세상의 평화를 얻습니다. 나눔을 배우는 것이 곧 평화를 배우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그 많은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의 열쇠는 바로 나눔에 있었습니다. 너나없이 세계화를 아프게 외치는 오늘 못배우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인류에게 이 얼마나 절박한 간청입니까.

그 다음 청원에서는 인간이 용서없이 살 수 없음이 분명해집니다. 인간이란 본성상 용서에 별로 소질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보복으로 기울기 일쑤입니다. 하느님의 용서 은택에 사는 인간이라면 자기도 남을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 시대는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이 해낼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어코 해내고 만들어 쓰려는 유혹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내 욕망과 이익을 위해 다른 인간을 그저 소모품처럼 다루거나 이용한다면 인간의 존엄은 결국 말살되고 맙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과 용서를 비는 청원만이 절실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아버지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당신의 사랑을 세상이 받아들이기를 비는 청원입니다. 이 간구에는 인간의 가장 간절하고 깊은 염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품에 안기기를, 신뢰하고 신뢰

받기를 비는 마음, 진실하고 정의롭고 화목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비는 마음
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절실한가는 오늘날 팽배한 풍조와의 대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날처럼 인간이 많은 것을 제 힘으로 이루어나가면서 자신의 힘만을 의식하고 믿고 이 시대를 사는 신자인 우리는 도리어 오직 하느님께 우리의 청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데에는 일정한 태도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원래 행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 우리들 인간에게 모든 일이 달려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기본 입장이 그것입니다.

그런만큼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바로 하느님을 행동하시는 분으로 알아 모십니다. 인간이 나서서 행동한다는 명시적인 대목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에게 잘못된 이를 자기 스스로 용서해야 한다는 대목 뿐입니다. 그 밖에는 모든 일을 자애로우신 하느님께서 섭리해주시기를 청하고 희망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길손의 기도

우리 시대의 특징의 하나로 역시 그 경이로운 유동성을 꼽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은 본디 그리스도인 실존의 특징인 터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이방인들입니다. 나그네길과 낯선 삶에는 주님의 기도가 그 길라잡이입니다. 더 깊은 뜻으로도, 그 본래의 목적과 역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상 생활을 위한 하나의 순례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이미 체험할 수 있었듯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느님의 손길을 감득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이처럼 하느님의 궁극적 섭리를 믿고 바라며 이 세상이 새로 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8,18-25).

이렇듯 주님의 기도는 세상의 어떠한 공동체와도 다른 신앙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신앙공동체는 복음의 모든 가치들을 더없이 소중하게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로 아는 교우 가정과 교회에 있어 주님의 기도는 더없이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가정의 기도,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온 세상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기도인만큼 가정의 기도에서도 당연히 그 중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마음 모아 주님의 기도를 바치도록 신앙입문과 교리교육 과정에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뜻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들도 자라나면서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마음에 새겨 늘 기꺼이 바치도록 도와야겠습니다.

한편, 갈라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영세한 사람 모두가 함께 섬기는 "우리 아버지"께 바치는 이 간절한 공동 기도야말로 제자들의 일치를 그토록 염원하신 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기도는 신념에 찬 그리스도인들만의 기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 사회와 온 세계가 오늘 안고 있는 하고많은 고뇌와 숙제와 염원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오늘을 사는 누구나 그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의 이러한 뜻과 내용과 틀을 바탕으로, 가정기도의 참다운 면모를 함께 찾아보기로 하십시오.



복음적인 가정 교회의 해

경 갑룡 요셉 주교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새해 우리 교구가 나아갈 사목 방향을 많은 분들의 자문을 들어 ‘복음적인 가정 교회의 해’로 정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복음적인 친교 공동체 건설을 교구 사목지표로 삼아 교구민 모두가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때까지 해오던 ‘복음적 친교 공동체 건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특별히 가정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 까닭은 복음적인 친교 공동체 건설의 기초는 바로 가정이고, 오늘날 우리 가정이 안팎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시대사조는 우리 가정들을 거친 풍랑 위의 조각배처럼 매우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 제2위이고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한다고 하며 이혼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낙태건수는 연간 150만~200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7명으로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인제도 자체의 의미상실과 성 개방 풍조의 확산으로 동거급증, 독신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령 인구 문제, 이혼 고아 문제, 소년소녀 가장 문제, 결식아동 문제, 가정폭력과 청소년들의 일탈 문제 등 가정과 관련된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몹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생명의 문화’가 사라지고 ‘죽음의 문화’가 짙게 뒤덮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집만 있지 가정이 없다고…….

가정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제도요 공동체입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핏줄로 이어진 가정은 인생의 흐뭇한 안식처요, 생명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따뜻한 양육처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신뢰의 튼튼한 보루요, 사람된 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학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강생의 신비는 평범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루어졌고 마리아와 요셉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셨습니다.

가정은 또한 인간사회의 기초이며 기둥입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an 개
인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인류의 미래는 전적으로
가정에 달려 있다”고 하였고 “교회는 가정을 최우선 사목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던 것
입니다.(가정공동체 65항,86항)

교회의 본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수행
을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인 가정부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정공동체 17항)

성서는 가정을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 바탕을 둔 공동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가정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육화의 신비 역시 인간 가정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
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마르
3, 35). 주님은 이 말씀으로 모릅지기 그리스도인 가정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첫째,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는 먼저 사랑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혼인 서약으로 맺어진
부부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마태 19,6)입니다. 부부의 좋은 관계없이 부모 자녀간의 좋은
관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동심리학자는 “만일 어느 부부가 부부관계는 옆으로 제쳐놓고
자녀에게만 사랑과 정성을 쏟는다면, 그 자녀들은 제대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부
가 자녀들에게 첫째로 보여주어야 할 사랑은 부부사이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은 오로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치우친 나머지 부부관계가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
습니다.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 가정은 생명에 봉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은 하느님의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입니다. “생명출산을 통해 가정은 하느님의 모상을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자녀는 부부사랑의
결실이며 부부 상호간의 완전한 자기 봉헌의 산 증거입니다”(가정공동체 28항). 모든 생명의 주인
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생명과 생명전달의 숭고한 임무를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이 임무는 부부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혹은 현세에 만연되어있는 그릇된 풍조나 유행에 상관없이 실천해야 할 하느님

의 엄숙한 소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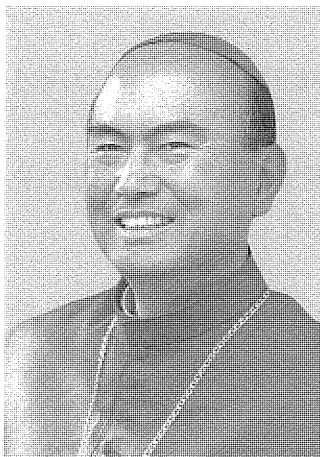
셋째, 그리스도인 가정은 ‘교회생활과 교회사명’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가정 교회’입니다. 가정 교회는 교회 사명인 예언직, 사제직, 왕직을 제일 먼저 실천하고 체험해야 할 곳입니다. 현 교황님은 “가정은 복음이 전달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복음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곳”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 가정은 모름지기 다른 가정에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동시에 가정복음화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다른 가정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현대의 복음선교 71항)

따라서 모든 신자 가정은 교구와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선교활동이나 복음화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긴밀한 일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정의 해를 맞아 다음 몇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하면서 교구민 모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기초 복음화의 해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1. 지난 한해 38만 신자를 위한 사목적 직무를 대과 없이 수행하도록 순명과 기도로써 동참해주신 모든 교구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저는 ‘시대’의 요청과 ‘백성’의 소리를 수렴하고자 복음적 실천보다는 관찰과 판단에 주력해 왔습니다.

2. 저는 올 2004년을 ‘실천’의 첫 발을 내딛는 본격적인 해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범교구적으로 ‘기초 복음화의 해’라는 표어 아래 전교구민이 대동단결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복음에 비추어 재정비하는데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기초 복음화’는 말 그대로 우리들 삶의 모든 기초 곧 기본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천주교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초 복음화’입니다.

이는 신자 각 개인, 본당, 교구 수준에서 추구해야 나가야 할 목표입니다.

3. 먼저 모든 신자들은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기초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가정생활에서나 성사생활에서나 신앙계율의 실행에서나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복음 따로, 생활 따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관과 생활습관에서 여전히 복음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 한해 우리 인천교구 신자들은 모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의식과 언어와 행동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실천운동을 벌여야 하겠습니다.

2) 그 동안 지녀왔던 신앙의 정체성이 사회변동의 영향을 받아 상대화되거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다원주의 문화와 이단적인 신영성운동(뉴에이지 포함)에 휩쓸려 가톨릭 신앙에 대한 확신과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이탈하여 영적인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인천교구 신자들 모두가 다시 복음정신으로 돌아가 복음을 읽고 배우며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4. 본당(공소 포함)에서도 ‘기초 복음화’를 위해 2004년도 사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천주교회의 본당사목을 냉철히 진단해 보면 여러 면에서 기본과 기초가 부실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사목의 전 분야 중에서도 특히 전례, 교육, 친교, 가정사목 그리고 청소년사목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올 한해 교구의 모든 사목자들과 실무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하고 다시 복음정신에 따라 기초를 놓는 작업에 힘써야겠습니다.

이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당에서는 양적 성장과 외적 행사보다는 본당의 모든 분과와 단체들에 대한 기초를 점검하여 내실을 기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5. 교구 차원에서는 ‘기초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으로써 ‘21세기 인천교구를 위한 사목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수준별 주체들이 다음의 요소들을 심도 있게 성찰하여 통합적인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1) 21세기 한국천주교회가 직면한 ‘복음화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천주교회 2002년도 교세통계에 의하면 신자 증가율이 2.8%로써 196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냉담자 급증(전신자 대비 35.1%), 주일미사 참여자 급감(전신자 대비 26.5%), 판공성사 미필자 증가 등은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실태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아 세례율이 33.4%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40대 미만의 신자증가율이 전부 ‘마이너스’ (-)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 인천교구 관할지역의 발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인천교구는 송도-영종-청라 지구로 연결되는 ‘인천 경제 자유구역’ 개발과 김포 일대 (480만 평) 신도시 개발이라는 엄청난 국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목지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향후 인천교구는 중차대한 사명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당 신설부지 마련을 위한 다방면의 역량을 결집하고 각 지역의 특화된 변화에 부응하는 교회의 역할을 적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3) 교구 시노드에서 결정된 교구발전 중장기 계획을 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제를 재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인천교구는 시노드에서 1단계 1차시기(2001-2003)의 실행과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즉, ‘새복음화’, ‘재복음화’ 그리고 ‘사회복음화’를 위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이들 과제들이 얼마만큼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미시행된 것 가운데 앞으로 시행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2차시기(2004-2006)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4) 그 동안 제가 강조했던 중점 사목 방침을 교구-본당-신자 각 개인 수준에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즉 첫째 영성강화, 둘째 생명(환경)운동, 셋째 북방선교, 넷째 노동사목, 다섯째 시노드 이행의 5대 사목 방침의 실행을 위해 교구의 사제, 수도자, 신자들이 모든 역량을 기울여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6. 이상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안목에서 우리 인천교구는 다음과 같은 우선적 과제를 연내에 실행하고자 합니다.

1) 교구 제반 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인천교구 규정집 제·개정 작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2) 교구 수준 업무와 본당 수준 업무의 효율적인 호환과 연계를 위한 행정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 이를 위해서 사무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구청 조직-지구 편제-본당 조직간의 효율적인 업무 연결망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21세기 인천교구가 복음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써 세가지 우선적인 과제를 수행할 것입니다.

- 첫째는 '가정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가정의 해체와 위기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살아야 인간이 살고, 신앙이 살고, 정체성이 살고, 사명감이 삽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은 모든 교회의 활동과 조직을 위한 기초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사회를 위한 이 가정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둘째는 교회의 모습을 '소공동체'로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 21세기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중책을 전신자가 공동으로 짊어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현장 공동체요 기반 공동체인 '소공동체'를 그 실행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내에 은폐되거나 사장된 성령의 은사를 발굴하여 결집시키는 이상적인 방안입니다.

비록 소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자리잡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이 소공동체가 21세기 교회의 사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은 정성과 인내를 기울여야 합니다.

- 셋째는 신자들을 위한 '평생교육원'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평생교육원은 '교회 지도자 양성, 신자 평생 교육'을 총괄하는 총체적 복음화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천주교회의 위기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정체성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한 종합 교육센터의 건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교구의 사활이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7. 우리 인천교구는 시대로부터의 도전, 사목환경으로부터의 요청, 그리고 변화와 도약을 바라는

교회내부의

염원 앞에서 ‘기초 복음화’라는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외면할 수도, 피해갈 수도, 소홀히 여길 수도 없습니다. 이는 백성의 소리요 하느님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교구장으로서 저는 2004년도 한 해를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하느님의 안목으로 교회의 내일을 내다보며 올 한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교의 협조자인 모든 사제들, 그리고 수도자들과 교회 직원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직무와 앞으로 위임될 모든 책무를 수행하는데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모든 신자들도 이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자각하고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는 것들에 힘을 모으는가 하면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을 염두에 두고서 모두가 성급하지 않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기초 복음화’ 실행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가 맡은 사명을 나무랄 데 없이 온전히 수행하십시오.”(1티모 6,14)

주님의 축복이 모든 교구민들과 2004년도 교구의 ‘기초 복음화’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고 실천합시다

최덕기 바오로 주교



교구 시노두스(대의원회의) 폐막에 부쳐

친애하는 수원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하느님의 도우심과 교구 주보이신 평화의 모후 성모님의 전구로 수원교구가 제1차 시노두스를 마치게 됨을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교구의 쇄신과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그 동안 교구 시노두스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시노두스 위원회와 사무국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시노두스 폐막 미사를 봉헌하게 된 데 대하여 교구 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많은 교육과 회의들을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것은 수원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교구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고 봅니다.

1. 교구 제1차 시노두스 개최 배경과 목적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 내에는 일련의 시노두스들이 개최되었습니다. 주교 시노두스와 대륙, 국가 시노두스 그리고 교구 시노두스 등이 그것입니다. 새로운 복음화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는 세계 교회의 이러한 시노두스 개최 행렬에 발맞추어 수원교구도 2000년 대희년을 잘 준비하려는 목적과 21세기, 제 삼천년기의 변화하는 세상에 부응하는 교구로 거듭나기 위한 목적으로 제1차 교구 시노두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임 교구장님이신 김남수 안젤로 주교님께서 1996년도 사목교서를 통하여 수원교구가 시노두스를 개최할 것임을 말씀하셨고 제3대 교구장 주교가 1997년 10월 9일 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합동 총회시에 교구 시노두스 개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교구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노두스 의제로서 「소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청소년 신앙 생활 활성화 방안」의 두 가지를 확정지었습니다.

소공동체 의제는 교회의 기초를 다진다는 면에서, 그리고 청소년 의제는 교회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중요하기에, 우리는 의제 선정에서부터 하느님의 손길이 같이 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각계 각층별로 시노두스 교육을 하고, 의안 초안을 1차 검토하였으며, 각 지구 단위 시노두스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하고, 두 번에 걸친 본회의를 거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 수원교구가 걸어온 길과 당면 과제

1963년 10월 7일 교구 설정 당시 수원교구는 한수(漢水) 이남 경기도 지역으로 1개 시와 10개 군을 관할하는 농촌 교구로서 성직자 29명에 본당 24개였고, 신자 수는 42,548명으로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3.2%였습니다. 그러나 교구 설정 37주년인 2000년 12월 31일 현재에는 16개 시와 3개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며, 성직자 239명에 본당 128개가 있고, 총인구 5,954,538명 중 신자 수 505,601명으로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8.49%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가난한 농촌 교구로부터 출발하여 본당을 100개 이상 분할하고 성전을 신축하는 큰 사업을 수행해 냈고, 신도시 확장에 의한 인구 유입과 적극적인 선교 활동으로 신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며, 독자적인 교구 신학교 설립으로 사제를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복음화 사업에 기초를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까지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은총과 교구 주보이신 평화의 모후 성모님과 한국 순교 선조들의 도움이 계셨고, 교구의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적인 노력들이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원교구가 이처럼 전형적인 농촌 교구로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도시 지역이 더 많은 교구로 발전하였으며, 성직자 수와 신자 수도 거의 10배로 성장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전국 교구에서 두번째 큰 교구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구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수원교구 통계와 복음화 보고서 분석 결과에 나타난 수원교구 복음화의 주요 지표들은 충격적입니다. 영세율과 주일미사 참여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냉담자와 거주 미상자는 점차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표상으로 나타난 중요 요인들의 상호 역학 관계를 볼 때에, 외적인 영세율과 주일미사 참여율의 하락세, 그리고 냉담자와 거주 미상자의 증가 문제는 교회 내의 삶 자체인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 자체가 천주교 신자로서의 믿음을 굳게 해 주고, 정체성을 가지게 해 주며,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지 못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들의 내적 생활이 잘 이

루어지지 않기에 외적인 선교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원 교구의 구역?반 모임 실시 현황을 보면, 매주 한 번이 18.6%, 매월 한 번이 53.6%, 미실시도 20.8%이고, 반모임에 신부님이 참석하는 것은 52.5%임을 감안할 때, 소공동체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현주소는 더욱 암담합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재적율이 68.4%이고, 중등부는 18.4%, 고등부는 13.1%로 매우 낮은 상태이며, 20대 청년들은 대다수가 교회를 멀리 하고 있는 상태로서(1999년복음화 보고서 참조)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신앙 생활은 매우 심각합니다.

3. 21 세기 수원교구 「새 복음화」의 열쇠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감지한 수원교구민들은 시노두스 의제를 「소공동체 활성화」와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로 선정하기를 가장 많이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소공동체와 청소년 문제만 해결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교구가 살아 가기 위해서는 같은 동포인 북한 동포를 도와야 하고, 중국 선교와 구 소련이었던 중앙 아시아 나라들과 러시아 선교까지 한국 교회가 맡아 주기를 원하시는 교황님의 말씀도 따라야 하겠습니까. 또한, 수원교구는 한국 천주교회의 발상지요 요람이며,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고 성지가 많은 교구로서, 신앙의 선조들을 잘 본받음으로써 교구 고유의 얼굴도 가져야 하고, 복지 사업과 학교 사업 및 여러 가지 문화 운동을 통하여 복음 정신이 지역 사회와 우리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도 잘 해야 합니다. 교구 설정 50주년인 2013년에는 교구민이 약 93만 5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3000명 신자기준으로 143개의 본당을 분할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직자 영성과 평생 교육 문제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수원교구가 시대에 부응하는 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구민이 모두 기도하면서 일치 단결하여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소공동체 문제와 교회의 미래가 걸린 청소년 문제만 확실히 타개하여 나간다면, 수원교구는 획기적인 발전을 볼 수 있는 기틀이 잡히게 됩니다. 소공동체가 활성화되어 믿는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공부하며, 함께 선교 활동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신자들이 체험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기쁨과 내적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며,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신앙 생활에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신앙인들이 질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성사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선교 의지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공동체의 활성화」는 바로 본당의 대형화로 인한 익명화, 신앙과 삶의 유리(遊離), 냉담자 그리고 선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이번 시노두스에서 마련된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21세기 미

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확실히 찾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다면, 교구 복음화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때에 교회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방황하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와 문화를 복음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전 교구민의 중지를 모아 마련된 이 시노두스 결과문에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손으로 마련한 이 결과문이 하나의 문서로서가 아니라, 충실히 구현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교구 복음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구 주보이신 ‘평화의 모후’ 성모님의 전구를 빌고, 한국 순교 선조들의 도우심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 중략 : 시노두스 최종문헌

맺 음 말

1.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수원교구는 이번 시노두스를 통하여 21세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야 할 복음화 방향과 방법들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노두스를 시작할 때에 2,3개의 의제만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출한 시노두스 결과문을 가지고 교구 전체가 집중력 있게 구현시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니다. 또한, 신학적인 이론에 그치는 문서를 남기는 시노두스가 아니라, 시노두스를 마친 후 전력을 다해 실행에 임하는 시노두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 시노두스 결과문이 나왔고, 이는 시노두스 실현에 대한 교구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본 주교는 온 교구민이 수년 간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거쳐 건의한 시노두스 결과문을 받아들여 오늘 반포합니다. 이 시노두스 결과문은 21세기를 살아갈 수원교구의 ?새로운 복음화? 정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으니, 우리 모두 실현의지를 불태우며 힘을 집중시키고, 조직과 시간과 재정의 지원을 통해서 시노두스 결과문을 구현해 나아갑시다!

물론 시노두스 결과문의 구현으로써 수원교구가 복음화의 모든 측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내적 성숙인 자신의 복음화와 세상 복음화를 위하여 요람의 구실을 하는 소공동체의 활성화와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청소년 신앙 생활의 활성화를 이룸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면, 수원교구는 앞으로 더 큰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노두스의

성공적인 구현이야말로 수원교구가 다른 많은 일들도 이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고, 희망찬 교구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시노두스 결과문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교구민 모두가 장기간에 걸쳐 결의하여 만들었고 교구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펼치는 일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교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교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2. 시노두스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하여

친애하는 수원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시노두스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청소년에 관한 결과문은 거의 ‘청소년을 위하여’ 라는 측면만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교회가 앞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과 사과의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자식에 대한 부모님들의 그릇된 사랑이 자녀의 ‘과잉보호’를 낳듯이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2002년 7월 25일에 캐나다에서 열릴 ‘제 17차 세계 청년의 날?’ 메시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3-14)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청년들이 세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에 오시어 청소년 사목에 대하여 강의를 하신 인도 코이카라 신부님은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에게(to youth), 청소년과 함께(with youth), 청소년에 의해서(by youth), 청소년을 위해(for youth)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고, 또,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젊은이들이 교회의 사목적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사도직 활동의 주체들이며 협력자들’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사목자들은 “젊은이들에게 사회와 교회의 미래를 위한 그들의 책임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아시아 교회 47항). 또, “사목자들은 청소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끌고, 나아가 그들 스스로 동료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코이카라 신부님도 강조하십니다.

둘째로, 소공동체와 청소년들에 관한 시노두스 결과문들이 잘 실현되고, 이로써 친교 교회적인 교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소공동체와 청소년 복음화 담당 신부님들의 모임, 지구 내의 구역 분과장 모임, 그리고 청소년·청년 분과장 모임이 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별로 정한 요일에 반 공동체 모임이 잘 지켜지고, 본당마다 달리 요일을 정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지구 청년 사도직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지구별 청소년이나 청년 연합 미사 및

지구별 청년 성령 기도 모임과 선교 행사 또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 하느님께 감사와 자비를 기도하며

수원교구의 당신 자녀들을 굽어보시고 사랑과 은총으로 돌보아 주시어 교구 제1차 시노두스를 마치게 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시노두스의 구현을 위해 섭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교구의 복음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과제들을 바라보면서 시노두스를 성공적으로 구현시켜 나아가야 하는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을 주님께 약속드리며, 선교사들이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님께 조선 천주교회를 맡겨드린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교구를 주보이신 ‘평화의 모후’ 성모님과 한국의 순교 선조들께 의탁하며 도와주시기를 간청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수원교구의 주보이신 평화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2001년 10월 11일

천주교 수원교구 제1차 시노두스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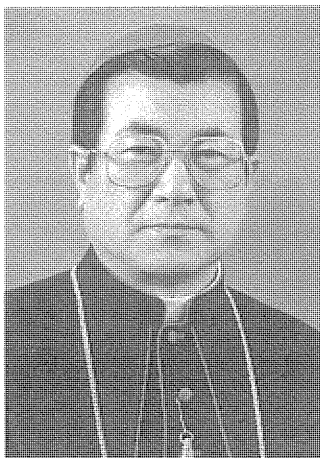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새 시대 복음화 여정

넷째 해 : 그리스도께로 향한 세상
만들기

김지석 야고보 주교



친애하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각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은총의 대희년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새 천년기를 맞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도 그 의미가 심화되고 드러나야 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01년에는 교구에서 새 시대 복음화 여정에 있어서 첫 해를 ‘선교 영성의 해’로 정해 선교의 기초인 자기 회심과 쇄신을 일진하는 해로 지낸 바 있습니다. 이제 ‘나’에서 ‘우리’로 확산되어 모든 이가 하느님 나라에 초대되어 함께 기뻐하는 세상을 위하여 할 때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라는 주님의 명령은 곧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본분이기도 합니다. 2002년에는 둘째 해인 ‘복된 가정의 해’로 교회의 첫 자리(가정공동체 19항)이며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곧 교회의 바탕이며 희망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과 가정의 소중함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해로 2003년은 “복음 안에서 이웃과 함께”라는 사목방침 아래 이웃의 소중함을 조명하는 한 해였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던 현 시대에서 우리의 이웃이 ‘벗’임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복음정신에서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신(요한 15,13)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소비문화와 더불어 가치관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복음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해 요즘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 교육문제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전인교육, 인성교육에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된다는 점입니다. 전인교육이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일류 대학 입학이 우선시 되면서 교육방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대학 입시 하나로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실용적 목적이 추구되면서 청소년 교육은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학업의 중요성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의 정신도 깨우쳐 줘야 할 것입니다.

본당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등 각종 매스컴을 통한 대화와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미래의 교회를 건설하고 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교구 내에는 크고 작은 여러 곳에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의 바탕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봉사를 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성체성사로 오시는 주님과 일치하는 전례와 기도가 매일 활동하는데 유일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힘으로는 어떤 사랑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에 금년에 또다시 태풍 ‘매미’가 아픔을 더해 주었습니다. 타교구와 본당, 기관들에서 나눔의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태풍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 설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적 도움보다도 서로 부족하지만 나누려는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주고받는 가치관과는 달리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는 값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잔치를 베풀 때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값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루가 14,12-14) 그래서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 도움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제 2004년, 새해는 새 시대 복음화 여정의 넷째 해로서 ‘그리스도께로 향한 세상 만들기’의 해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 그 기본정신은 곧 복음 선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선행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에 구현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올 해의 사목방향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셨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열 두 사도를 뽑으실 때(루가 6,12), 수난과 죽음이 다가올 때에도 게세마니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마태 26,36-43).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통해 먼저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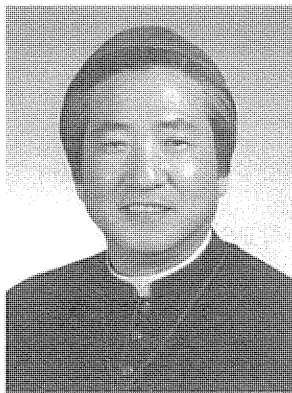
특히 금년은, 2005년에 맞이하게 될 우리 교구 설정 40주년을 앞 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40년간의 유랑생활을 했

습니다. 한 세대의 기간이기도 한 40년의 숫자는 완성의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우리교구도 유년기에서 원숙된 시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주년을 앞두고 장기 사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신자 각자로부터 시작하여 소공동체, 본당, 지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 교구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거창하고 외적인 행사보다는 먼저 각자의 충실한 신앙생활에서 출발해서 우리 교구의 고유한 모습을 다지며 미래의 장기적 사목방향을 세우는 40주년이 되며 또 다시 50주년을 준비하는 원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실을 기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깊이 있는 영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고 그 정신대로 따른다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충직한 종으로서 이 대림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임마누엘의 신비’를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는 대림시기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사는 가정을 이룹시다.

이 문희 바오로 대주교



우리는 지난 10월에 교구 가정대회를 열었고 또 2004년을 가정의 해로 선포하고 한 해 동안 교구의 모든 사목적 노력을 가정 복음화에 집중하려 합니다. 우리 각자는 좋은 가정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오늘날 우리 가정이 당면한 문제들

오늘날 가정은 위기에 처해있고 가정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사랑과 자녀출산 및 양육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통계에 의하면 하루 평균 877쌍이 결혼하고 370쌍이 이혼하여 세계에서 2위로 높은 이혼률과, 출산률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매일 4,5천 건 낙태가 자행되고 있으며 초고속으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부만이 사는 가정이 85년에 전체 가정의 9.6%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14.2%로 증가되었고, 1인 가구도 6.9%에서 15.5%로 늘어났으며, 자녀를 원치 않는 젊은이들이 8.1%나 된다고(동아일보 2002.4.8일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물질적 풍요를 앞세워 인간의 생명마저도 수단으로 삼아온 많은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와 성의 물질화, 개인주의와 쾌락주의를 만연케 했고, 그로 인한 가정파괴와 폭력, 청소년 비행 등, 각종 사회 병리현상을 불러왔으며, 그 피해를 가정이 다시 받게 되는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문제는 더 이상 산업화 과정의 부산물로 생각하고 방치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생활의 전체적인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쇄신과 회복을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움직임의 출발점을 하느님께서 창조로부터 마련하신 가족제도의 본모습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가정이 지녀야 할 참모습을 제대로 갖추는 가정복음화를 위한 노력에서 찾아야 합니다.

2. 가정복음화로 나아가는 길

(1) 가정의 복음화는 가족 구성원의 삶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정사도직은 가족인 당사자가 그 가정 내에서 하느님의 법에 완전히 부합하게 사는 생활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그리스도교적 교육과 신앙 성숙을 도우며, 정결의 가치와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그들에게 위협을 주는 이념과 도덕적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게 교육하며, 교회공동체와 시민공동체에 건강한 일원이 되도록 양육해야 할 부모의 책임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가정공동체 71항 참조)

(2) 가정이 사랑의 문화의 중심이요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기적인 삶이 아닌 내어줌의 삶이 생활 안에서 전수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사랑에 근거한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며 서로의 사랑으로 격려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3) 가정은 생명에 봉사합니다.

가정의 기본 임무는 생명에 봉사하는 것이며 그것은 출산으로 창조주의 첫 축복을 역사 안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출산을 하느님의 선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서로를 사랑으로 떠받드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해야 합니다.

(4) 가정은 첫 번째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풍요한 인간성을 길러내는 학교인 가정은 또한 사회적 미덕의 첫 번째 학교입니다.

가정의 교리교육 활동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한 신앙교육은 자녀가 아주 어린 나이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5)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하느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고, 가족이 대화로 일치를 이루는 것은 곧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3. 2004년 한 해 동안 교구 사목에 아래의 사항들을 특별히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1)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약속한 사람들이며 한 마음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 혼인성사로 주어지는 은혜를 감사로이 받아들이며 부부는 영원한 사랑으로 결혼의 불가해소성을 마음에 새겨 이혼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혼을 조장하는 연동을 삼가 합시다.

나) 가정에서 어른을 잘 모시고 효도하며 수하 사람을 너그려이 대하고 사랑을 가르칩시다.

다) 부부는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잉태되는 아기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도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혼인준비를 위한 혼인교리(가나강좌)를 가르치고 또한 어릴때부터 성교육을 시키며 이웃 사람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태도를 익히도록 인도합시다.

(2)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에 충실하도록 부모는 모범을 보이며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 부모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배우므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 주일에는 가급적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사에 참례합니다.(한 해 동안은 가급적 어린이 미사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미사에 참례합니다.)

다) 첫영성체와 견진교리도 본당에서 반별로 혹은 지역별로 부모들이 힘을 합쳐 가르치도록 합시다.

(3) 신자 가정이 먼저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 이웃 가정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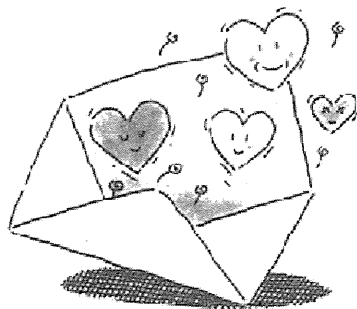
가) 가정의 해의 뜻을 알아듣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특히 반모임, 혹은 본당 내에서 가정의 해를 맞아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껏 참여합시다.

나) 신자 가족이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다) 우리 사회의 가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일조를 아끼지 않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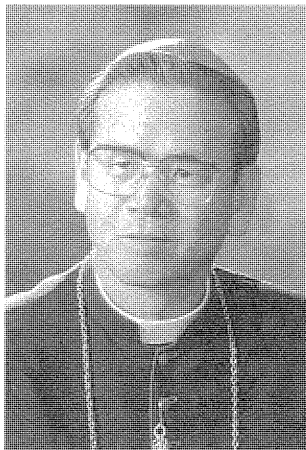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여야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므로 가정을 작은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가족 각 사람이 가정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가정은 바르게 살 수 있고, 사랑으로 사는 바른 가정에서 사람은 진리를 온전히 실천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공동체가 되어 사는 가정은 복음대로 사는 가정이고 이것이 곧 이 세상에 복음화를 이루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좋은 세상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쓸 것과 이 세상의 복음화를 담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가정에 있음을 명심하고 살도록 호소하며 교구의 모든 가정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정 공동체

정명조 아우구스티노 주교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을 겪고, 나라 안에서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경제난 그리고 태풍 피해 등으로 절망과 혼란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내적인 정화를 이루고자 ‘가정을 지키자’는 구호 아래 ‘가정 공동체 복음화의 해’를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가정에서 찾고자 가정 기도를 생활화하고,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간단없이 지속되어 흔들리지 않는 시대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의 기초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바탕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화두를 올해 한 번 더 사목교서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가정 공동체 복음화의 핵심을 이루는 복음 나누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소공동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1. 우리 가정의 현실

우리 사회는 현재 혼인한 두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하는 고이혼율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국가가 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인 가정들이 온갖 이기심과 빈곤에 시달리며 붕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가 바로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효’(孝)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가정 문화를 지녀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더불어 물질 만능의 배금주의가 확산되면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가정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이후 거듭되는 경제난으로 퇴직 연령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많은 가정이 갖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과 혼인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책임 회피, 생명을 도외시하는 피임 사고의 만연, 인공 유산과 이혼의 증가 등이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르 10,6-9)고 가르칩니다. 결코 갈라져서는 안 될 혼인의 가치가 요즘은 공공연히 무시되면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크나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그리스도인 가정의 임무

교황님께서는 가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시며, 혼인에 대한 하느님의 원초적 계획에 따라 부당한 온갖 문화적 압력을 이겨내라고 촉구하셨습니다(?새천년기?, 47항 참조). 우리 사회의 거대한 물질 문명과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와 사랑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만 그 생명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에 봉사합니다. 또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신앙과 진정한 사랑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자녀 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에페 6,1.4).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에페 5,25.33).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당신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같기에 ‘위대한 사랑의 신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 위대한 사랑의 신비가 뚜렷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복음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도 작은 교회로서 이 어둡고 혼탁한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3. 말씀으로 사는 가정 공동체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의 근본 임무는 복음화입니다. 가정 공동체는 그 자체로 생명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교회로서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 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와 자녀들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살아가며 지역 사회에서 사도직을 수행하고 또한 지역 교회 공동체와 “한 마음 한 뜻”(사도 4,32)이 되어 하느님의 나라를 더욱더 폭넓게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복음 나누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족 구성원 각자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말씀의 육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도 “복음화 활동에서 ‘말씀의 봉사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풍부한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한다.”(?새천년기?, 40항)고 강조하셨습니다.

4. 가정에서 소공동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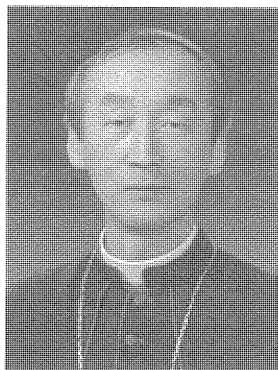
하느님의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자렛 성 가정을 본받아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따라서 본당과 교구가 복음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이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함께 모여 복음을 나누며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소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소공동체들은 활력에 넘치는 교회의 표지이고 신자 양성과 복음화의 도구이며 ‘사랑의 문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교회의 선교 사명』, 51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교회상입니다. 이러한 소공동체 교회는 “참여하는 교회이어야 하고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서로 형제 자매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공동체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함께 불리었고, 이 말씀이 소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이끌어 줍니다”(아세아주교회의 제5차 총회 선언문, 8항).

형제 자매 여러분, 혼탁한 이 사회를 그리스도인 가정의 빛으로 비춥시다.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함께 모여 소공동체를 이루면, 소공동체들이 모인 본당과 교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듯이, 하느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정에 오시어 살아 움직이시며 또한 우리 소공동체 교회에 생명과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가정 공동체의 복음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와 교회의 출발점인 소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춘 소공동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새로운 복음화 첫째해 가정 공동체 복음화의 해

장 봉 훈 가브리엘 주교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 새로운 한해를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지난해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저희 교구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편 지난해는 그 어느때 보다 교구적으로 어려운 한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과 희망속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신앙생활에 매진해 오신 교구민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통은 성숙의 한 과정이요 하느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믿습니다. 이제 고통속에 담긴 하느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며 “새로운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교구는 새해를 다시한번 성가정의 모범이며 보호자이신 예수, 마리아, 요셉께 맡겨드리고 그 분들의 모범을 따라 가정의 성화를 위해 함께 봉사하는 한해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2.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십시오”라고 교부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말한바있습니다. 이는 최초의 가정교회인 예수 마리아 요셉의 나자렛 성가정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은 예수님을 모셔들임으로써 성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진정 성가정으로서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무엇일까를 찾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결국 멈추어 선 곳은 다름아닌 한 시골 가

정의 저녁기도 자리였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기도 바치는 단란한 모습에서 넘치는 행복과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바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와 상황도 모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가정을 이루는데 있어 결코 잃어서는 안될 교회의 보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십자가상을 가정의 중심에 바로 모시는 일부터 시작하여 온가족이 둘러앉아 기도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는 일을 가족이 해야할 최우선적인 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가정

3. 국가와 사회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중 하나인 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십만호에 달하는 집을 새로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워지고 있는 집만큼, 무너져 내리는 가정을 볼 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염원과 노력과는 달리 이미 해체되거나 심각한 해체위기에 놓이게 된 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정이 국가와 사회의 기본 세포이고, 신앙 가족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는 최초의 학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의 가정이 점점 그 본연의 모습을 잃은 채 무너져 내리는 것은 원칙과 중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끌어 주는 원칙과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성가정의 모범을 성서속의 인물인 디모테오 가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 선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여”(2디모 3, 2-4) 결국 “믿음의 낙오자”로 떨어져 나갈 때, 디모테오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바오로사도의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익혀 왔던”(2디모 3, 15) 데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디모테오는 거룩한 가정에서 태어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훌륭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왔던 것입니다(2디모 1,5 참조). 이렇듯 성가정은 말씀이 가족안에 살아 있고 또한 가족 서로에게 끊임없이 선포되는 가정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라”고 하면서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에페소 6,15-17 참조). 세상의 여러 유혹과 거짓 풍조와 싸워 이기는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가족마다 성서를 준비하여 읽고 나눔으로써 온가족이 늘 말씀과 함께 하는 가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나누는 가정

4. 참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동체를 중시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오늘 이 사랑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부부와 부모가 그 숭고한 임무를 다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사목헌장 47항)는 공의회의 권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가정은 이웃의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놀랍게도 삶의 고달픔 속에 지쳐있는 가정도 많고 말못할 아픔 속에 괴로워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나 편부모 가정, 부모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아가는 조손가정, 장애인 가족을 두고 살아가는 가정, 재혼 가정 등 여러 형태의 특수가정들이 각기 다른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고통과 시름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실제적 도움으로 위로해 주는 충실한 협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닥친 현실적 어려움을 나누어 갖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낙태가 살인임을 알고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생명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자니,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데에서 오는 현실적 어려움과 감내하기 힘든 사회적 눈총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선의의 가정과 더불어 좀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이 그들만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함께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5. 가정은 ‘인격 성숙과 신앙 형성의 일차적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임한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와 국가는 물론 교회 공동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은 단순히 본당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 단위로서가 아니라 사목의 핵심으로서의 대상으로 보아” 교회 구성원 모두가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서로 도와 주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가정,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섬김과 나눔을 적극 실천하는 참된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모든 본당 공동체와 기관, 단체에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교구 설정 40주년을 준비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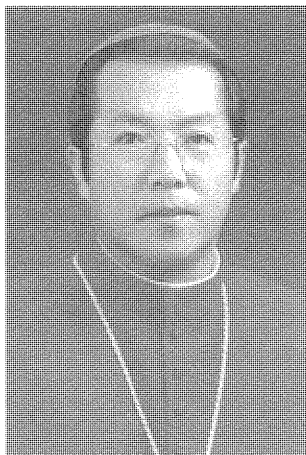
—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 3,26)—

친애하는 교우, 수도자, 성직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재하시고 이끄시는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구에 넘치도록 큰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당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구는 <농어촌 선교의 해>를 위해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위기를 맞이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어촌 지역의 본당과 공소의 신자들을 위한 형제적 사랑과 나눔이 복음 정신에 따라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반성해 보고,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 본당 사이의 교류, 연대 그리고 친교의 기회를 확대하여, 형제적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어촌 선교의 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느님께서 크신 축복을 내리시도록 기원 드립니다.

안병옥 F. 하비에르 주교



사목지표 —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우리 교구는 2006년이면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교구 설정 40주년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는 교구 설정 40주년 기념 개막 미사도 봉헌한 바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는 이 일을 감히 시작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총을 간구 합니다. 교구 설정 40주년 기념이 우리 모두를 쇄신시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구는 어느

덧 장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40년의 나이에 걸맞은 믿음과 성숙한 의식을 갖추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삶에 대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 구 합니다. 이 간구에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살아 보겠다는 다짐도 녹아 있습니다.

그 동안 40주년 기념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고 박차를 가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40주년과 관련된 기본 일정을 잡고, 기본 계획을 구상하여 어느 정도의 밑그림을 제시하고자합니다. 바로 여기에 교구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 - 우리가 가야할 길

40주년 기념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바 목표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해 봄으로써 4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성 행사와 사업을 계획하고 이루어 내는 것만이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 그리고 가치관을 확고하게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 온 길을 버리고 새로운 쇄신의 길을 함께 걸어갈 각오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입술에서 맴도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감각을 되찾고, 가치관을 확고하게 갖추고, 깊은 영성에 맞을 들이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도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도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당신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우리의 신원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정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투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로마 10, 17 참조).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생겨납니다.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어 우

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서를 읽고 쓰고 묵상함으로써 그분을 알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키우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다짐합니다. 성서는 구원을 얻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며, 올바르게 사는 길을 제시해 주기(2디모 3, 14-16 참조) 때문입니다. 성서를 모르면 결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성 예로니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표어는 이러한 우리의 다짐과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온 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주시는 주춧돌(이사 28, 16) 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요한 14, 6), 우리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끝이십니다(묵시 22, 13). 그분은 우리의 뼈 한마디도 부러지지 않도록 고이고이 지켜주시는 분(시편 34, 20)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분>(요한 10, 10)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어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필립 4, 13).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시키고, 정화시키고, 변모시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친교를 나누고 일치를 이루다보면 마침내 우리는 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 되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간을 주재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한 해를 살도록 허락하시어 당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하느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하느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실천 지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실천

1.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마태 4, 4).

가) 날마다 성서 읽기 - 2006년까지 성서 전편을 통독함

나) 성서 쓰기 - 2006년까지 온 가족 함께 쓰기

다) 성서 공부와 성서 피정에 참석하기

라) 성서 중심의 교리 경시대회 개최

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훈 정하기

2.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

가) 매일 미사 참례 -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나) 이웃과 함께 성서 읽고 나누기 - 소공동체 운동에 참여

다) 가정 성화 운동, 생명 31 운동, 환경 운동 동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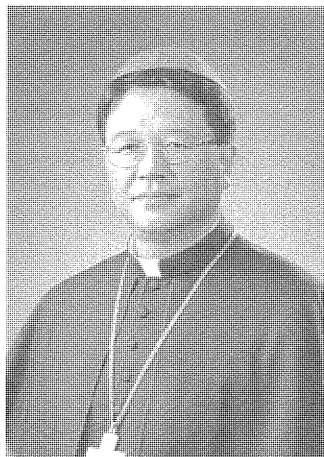
라) 가정기도의 활성화



농촌의 복음화

-공소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농촌의 복음화를! -

권혁주 요한크리스토토모 주교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2003년 사목교서를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이라는 사목표어 아래 복음선교사목을 단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는 이를 위해 복음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복음화 특별위원회는 지난해에 교구 사제들, 평신도 대표들과 함께 교구의 미래 사목비전을 담은 ‘안동교구 사명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또 ‘농민사목’을 첫 번째 과제로 선택하여 농민사목 실행위원회를 통해 농민사목의 방안을 찾아가고 있으며, 그 작업의 하나로 지금 ‘농민사목을 중심으로 하는 교구실태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작년 사목교서에서 언급한 바처럼 우리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가난한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교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농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선택했습니다. 농민들은 그동안 공업화 주도정책의 그늘에서 가난하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근년 들어 전면적인 농산물수입 개방을 강요해오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적 물결이 무엇보다 농민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이농하는 농민이 늘어나는 현실은 농촌에 살고있는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각박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떠나버린 농촌은 노인들이 농사를 지어야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마저 들을 수 없는 텅빈 공동화현상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 속에서 우리는 가난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농촌에 그 터를 두고 있는 우리교구가 『농민사목』을 첫 과

제로 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견하고 있듯이 농업의 현실은 점점 더 열악해져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안동교구 역시 이러한 농촌·농업의 현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농업·농촌의 위기는 농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먹을거리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이며, 나아가 우리공동체 기반의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농업의 중요성이 망각되고 밥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가는 현실에서는 우리 모두의 앞날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안동교구는 이러한 농촌·농업의 현실을 걱정하며 농민사목실행위원회와 더불어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일을 찾아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교구의 노력에 교구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동참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우리 모두가 공소으로 눈을 돌려 공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소는 대다수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농촌·농민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공소에 더욱 관심을 갖고, 농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민들과 더불어 희망을 찾아보는 한 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소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농촌·농민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농민사목의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안동교구가『농촌교구』라는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거기서 복음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를 찾아 공소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신앙인의 참 기쁨과 희망을 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농촌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각 공소에서는 공소공동체 발전이나 마을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본당과 나누며 효과적인 사목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 본당에서는 공소회장단모임을 통해 공소의 어제와 오늘을 잘 진단하여, 시급히 도와야 할 일을 찾아내고, 그것을 시행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봅시다. 예를 들면, 공소전례 협조자를 파견하거나, 예비자 교리반을 개설하는 것 또는 독거노인방문, 농가일손돕기, 공소건물수리, 나아가 공소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본당에서 나누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상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신부님, 수녀님들이 농가일손돕기나 텃밭 가꾸기를 직접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소가 없는 본당에서는 신자들 가운데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파악하여 일손을 돕거나 인근 본당에 의뢰하여 공소지역 일손돕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교구 농민들이 생산한 물품을 나누는 날을 마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에서는 지구사목회를 통해 지역농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민들을 위한 건강강좌나 영농교육, 공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교실이나 주부교실을 개설하거나 교구 사목국의 지원을 받아 피정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한 본당 정도에 교구 가톨릭농민회에서 생산하는 유기농산물이나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나눌 수 있는 장터나 매장을 만드는 방법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이나 공소가 거의 없는 지구에서는 농촌·농민문제에 대한 특강을 열어 농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으며 교구농민들이 생산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교구에서는 평일을 이용해 본당별 혹은 지구별로 공소방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방문의 형태는 관련된 각 본당과 상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공소방문과 무관하게 가능한 날을 택하여 농가일손돕기도 나갈 생각이며, 아울러 농촌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가톨릭농민회의 생산공동체들도 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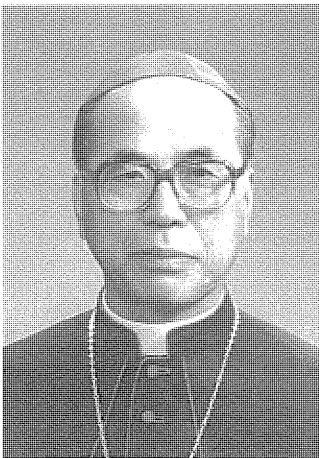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러분!

우리 교구가 농촌복음화를 위한 일에 매진하면서 농촌·농민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공소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올 한해 공소에 관심을 갖고 공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 교구에 구체적인 농민사목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농촌과 공소의 살길을 함께 걱정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명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박한 삶을 통한 열린 마음, 함께 믿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의 기쁨과 희망들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일과 신앙을 하나로 살아가는 가난한 농민들 속에서 살아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에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 12,1)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



서론

1. 우리 신앙의 핵심을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습니까?” “사람은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삶의 길은 참된 예배이며 올바른 예배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2. 2003년 성 목요일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사제들에게만 주시던 편지대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는 교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체성사를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본론

3. 교회가 성체성사로 산다는 사실은 성체성사가 예배중의 예배이며 교회신비의 핵심이고 참 삶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를 깨달아야 하며 자유와 생명의 진리로 삼아야 합니다. 성체성사가 이와 같이 중요함은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파스카의 신비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다른 성사들은 이를 준비하거나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예수께서는 빵의 기적으로 굶주린 사람 5000여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음식을 얻으려고 힘쓰시오. ... 내가 생명의 빵입니다.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진실히 진실

히 말하거니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당신들 안에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요한 6,34-54).

파스카의 신비와 교회

4.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하느님과 인류를 하나로 묶는 일치의 표징이며 구원의 확실한 길로서 세상의 성사와 같습니다(교회헌장 1).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등, 참으로 인간적인 상황은 그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안에 또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이고 동참해야 합니다(사목헌장 1). 이 진리와 신비는 교회의 전례 안에 곧 성사들의 집전으로 생활화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구세주 예수님의 파스카를 거행하는 성삼일의 전례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헌장, 사목헌장을 공부한 우리는 이제 전례헌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현실 안에서 현실을 통하여 구체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례중의 전례이며 우리 믿음의 핵심인 미사 성제 안에서 믿음의 삶이 충만하고 승화되도록 합시다.

전례안에 그리스도의 현존

5.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대들과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하신 약속을 당신의 교회 안에 전례를 통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전례헌장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교회 안에, 특별히 전례 안에 계시며, 성사 집전자의 인격 안에, 특히 축성된 빵과 포도주 형상들 아래, 미사의 희생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이 미사 성제는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기념할 뿐 아니라 실제로 성령안에 피흘림없이 재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신부인 교회를 언제나 당신과 결합시키시며, 교회는 자기 주님을 부르며 또 주님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 그러므로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전례헌장 7).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6.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이 신비를 생각하며 생활 안에 계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하였으며 (사도 1,13-14), 약속된 성령을 받은 후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 2,42). 이 모습은 하느님의 말씀과 인간의 응답이 전례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 삶 안에서 융해되어 새로운 삶을 이끌어 내고 이 변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사는 예배의 총화이며 완성.

7. 미사성제 안에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찬의 희생제사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므로, 전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참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생활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다”(전례헌장 2). 예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은 미사 전례 안에서 잘 드러날 뿐 아니라, 영성체로써 더욱 확실해 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성체로써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신비를 새롭게 깨달으며 은혜를 받도록 모든 신자들을 주일과 축일에 초대하는 것이며, 미사 참례를 의무로 하는 것입니다(전례헌장 102-106 참조). 마치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미사 성제를 통하여, 생명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또한 신자들의 현실 생활이나 교회의 다른 모든 활동들도 여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례는 가장 완전한 예배

8. 모든 종교는 그 예배 행위에서 믿음의 내용을 드러내며 삶의 의미를 부각시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이 행하는 예배는 그 교리의 본질과 특성을 함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절대자 곧 하느님께 드리는 공경이라면 그 예배는 하느님의 뜻에 부합해야 의미도 살고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란 의미도 우리의 전례 안에서 그 참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마태 6,5-13; 요한 4,19-24참조). 그러기에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예수님은 허례허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참 예배를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예레 7장, 이사 58장, 마르 7,1-13 참조). 예배행위와 현실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예배도 참 삶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신비주의나 기복신앙 위주의 잘못에 빠져들어 참된 자유의 삶도 얻지 못합니다. 전례헌장은 예배의 참된 의미와 바른 예배를 배우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 교회의 전례가 가장 완전한 예배일 수 있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완전하게 받아들이시고 완수하신 나자렛 예수, 참 사람이며 참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전례헌장 7,33, 천주교 교리서 1069 참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늘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그 힘과 바른 길을 전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른 예배를 위한 준비

9. 그러나 전례가 교회의 유일한 활동은 아닙니다. 전례가 형식에 치우치고 의식에 사로잡히면 자칫 허례허식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적 조건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하므로 일정한 예배 의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힘을 잃을 수도 있고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례헌장은 전례의 의미를 살리는 방법을 찾고 의식을 개혁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하여 하느님 뜻에 맞는 생활과 회심을 요청합니다(전례헌장 9). 또한 참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모든 신자들이 제반 전례 의식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하도록”(전례헌장 14)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목자들은 모든 사목활동에 있어, 적절한 교육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고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전례헌장 14-20 참조).

바른 예배와 바른 생활

10.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예배와 삶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의 소공동체와 지역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예배 안에서 배우고 실제 생활에서 확인해 갔으며,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특성인 선교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교구 설립 7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는 교회헌장과 사목헌장의 가르침을 기초삼아 전례헌장이 알려주는 참되고 바른 예배를 지향함으로써 보다 활력을 갖춘 성숙된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다짐합니다.

성직자

11. 교회는 늘 행하는 바를 알고 아는 것을 믿고 믿는 바를 실천하라고 당부합니다(사제 서품 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생명을 위해 내 놓으셨듯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persona Christi 전례헌장 33)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도 자신을 매 미사때마다 봉헌하며 사제직을 수락하던 때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본당 공동체의 목자이며 인도자인 사제 10-11).

평신도

12.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는 평신도들은 일상 삶을 미사때 빵과 포도주와 함께 성부께 봉헌하며 빵과 포도주가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듯 세상 삶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평신도들의 고유분야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서의 빛과 누룩이 되기 위한 배움과 기도와 실천의 길을 견도록 합시다(교회헌장 31, 34, 36; 사목헌장 43, 평신도 1, 2, 13 참조).

수도자

13. 하느님께 봉헌한 삶을 사는 수도자들은 복음적 권고의 삶을 통해서 성체성사의 신비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하겠습니까(교회헌장 43-44 참조). 그리하여 우리의 종말 신앙을 현세 안에서만 도,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만도 아닌, 여기서 지금, 그러나 아직 완성이 유보된 잠정성을 인정하며 순응과 인내, 신뢰와 확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14.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는 경건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며, “내가 곧 가겠다”고 약속하신 구세주께 “주 예수여 오소서”(묵시 22, 20)하고 간절히 청해야 할 것입니다.

맺는 말

15. 2004년 한해동안 우리 모두 전례헌장을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인 참 예배를 성실히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되어, 교회 안에 계시며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감도에 귀를 기울이며 생활을 개선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16. 구세주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믿는 이들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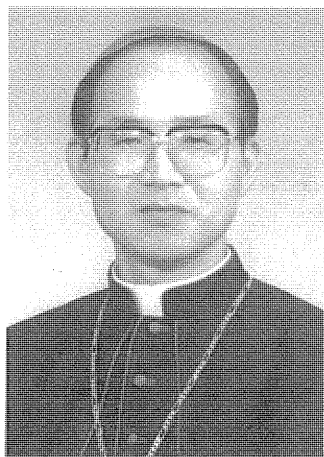
심을 청합시다. 그러면 하루를 마치면서도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루가 1, 46)하고 감사기도를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교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아들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성령의 힘으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1. 전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준비하고 맞이한 대회년, 그리고 그 해에 시작된 새 천년기도 벌써 이만큼 진행되어 다섯 번째 해가 밝았습니다. 2000년에 우리 교구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들의 마음으로 느끼며, 성령의 힘으로 실천합시다> 하는 구호를 내걸고, 대회년 특별 사목교서를 통해서 장기적인 사목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성서운동, 선교운동, 전례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회년 특별사목교서에서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of 가르침을 따라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이 각기 자신의 고유한 성소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모범을 따르고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야만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대회년 특별 사목교서에서를 통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고 말씀하신 다음,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심장(요한 19,34 참조)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성심, 그분의 마음은 죄만 빼고 우리와 똑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인간생활의 기쁨과 슬픔, 그 환희와 고통을 남김없이 체험하신 예수

님의 한없는 사랑과 연민의 정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필립 2,5).’ (대희년 특별사목교서, 21쪽).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이신 하느님> (1요한 4,8.16)을 세상에 보여 주심으로써, 사랑 하나 하나와 인류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2.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사랑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이를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 사회와 세상의 일치가 빠른 속도로 깨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어디에서보다도 가정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흔들리고 일치의 끈이 풀어지니, 그 여파가 자녀와 다른 가족들에게도 확산되는 데에서 오는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체험하며 우리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던 장면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고 하신 말씀을 아직 잊어보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태 19,3-6).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창조주께서”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예수님 스스로 쓰셨던 표현대로, 중간에 사람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8절) 오늘날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고 말았지만, 이런 사태 앞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의 이상을 되찾는 일입니다. 바다를 향해하던 배가 태풍에 휩쓸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을 다시 찾아내는 일입니다. 현재의 사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것은 태풍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하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들어, 사람들에게 바로 이 정확한 방향, 처음의 이상, 애초의 꿈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방향을 향해 혼신의 노력을 쏟도록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들의 현실에 비해 그 이상이 얼마나 어렵게 생각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이 반응은 동시에 결혼이 얼마나 진지한 준비와 일생을 건 결단,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 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3. 그러므로 결혼과 가정이 무섭게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 애초의 이상, 본래의 설계도를 다시 찾아내고, 가야할 방향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류의 역사 전체, 한 사회, 개인 하나 하나는 길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찾아내야 할 본래의 설계도, 애초의 이상, 가야할 방향입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창세 1,26) 하시고,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창세 1,27)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난 남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창세 2,23). 성서의 이 대목에 따르면, 인간에게서 하느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는 일, 혼인입니다. 하느님 스스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이렇게 셋이 하나를 이루는 가정, 혹은 공동체이시며, 그 하나됨이 더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의 가장 정확한 이름은 “사랑”(1요한 4: 8. 16.)입니다. 혼인은 세상에서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표지이자 실현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부부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하여(창세 1,26-27 참조) 구원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어린양의 혼인 잔치”(묵시 19,9)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뜰린 애초의 창조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요한 2,1-11)을 행하시는 일로부터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혼인은 인간적인 일일뿐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표시하고 또 실제로 받게 하는 통로 곧 성사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혼인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이상을 향해 의연히 걸어갈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4. 물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뿐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창세기에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서로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를”(창세 2,25) 만큼 완전히 하나였던 두 사람 사이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여기는 순간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는”(창세 3,10) 심리 속으로 빠져들었고, 동시에 하느님과 배우자를 원망하는 마음 속으로 휩쓸려 갑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창세 3,12). 둘이 한 몸으로 출발한 역사는 이렇게 해서 걷잡을 수 없는 분열과 비극의 수렁을

향해 굴러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분열되어 나가니(불순종), 자기 자신과도 분열되고(부끄러움),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분열되며(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주신 여자가), 마지막으로 자연과도 분열되었으며(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고된 노동과 출산의 고통), 이 분열의 물결은 전 창조계를 뒤덮고 말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창세 11,4) 기울인 일체의 인간적인 노력과 정치적 기술들은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창세 11,1-9)는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이런 사태를 바로잡아 처음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에페 2,13). 과연 그리스도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바벨탑 현상이 완전히 뒤집혀, 각기 다른 말을 쓰던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통하는 세상이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전하는 오순절 사건은 이를 잘 말해 줍니다.

5.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1요한 3,16).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해서 배운 사랑을 무엇보다도 먼저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에페 5,25).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앙인에게 있어서,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은, 한 삶을 걸고 계속 닦아 가야 할 도이며, 키워야 할 생명이고, 실천해야 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 보여주시는 모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힘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한 마디로, 그리스도인의 혼인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동원하신 모든 수단, 펼쳐오신 역사 전체에서 빛과 힘을 받아야만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가정은 그 자체가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인들의 혼인과 가정은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창조주께서 본래 뜻하셨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 교회”에 관해서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신앙에 대해 무관심하며 적의까지도 품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가정은 활력이 넘치고 빛을 발하는 신앙의 요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정을 오래된 표현에 따라 “가정 교

회”(교회헌장, 11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가정공동체>, 21항)라 고 부른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말과 모범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최초의 신앙 선포자가 되어야 하며, 각자의 고유한 소명을 특별한 배려로 육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앙인은 자신의 구원은 물론 사회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도 가정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사목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인 각 가정”(가정공동체 72항)에서 먼저 온갖 창의력을 발휘해서 적절한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참고삼아 몇 가지 방향만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6. 실천 사항

1) 혼인성사를 위한 준비

가. 먼 준비 : 부모의 아름다운 가정생활은 자녀들에게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늘 성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례생활에 충실할 때 그것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훌륭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교육, 성교육, 가정교리 등도 자녀들에게 미래의 가정생활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가 될 것입니다.

나. 중간 준비 : 그리스도 신앙인의 혼인이 지니는 의미,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교육과 서적 그리고 선배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것이 <선택> 과정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가까운 준비 : 결혼을 앞둔 이들을 위해 교구에서 마련하는 <가나강좌>는 최소한의 필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는 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겠습니다.

2) 가정기도

전통적으로 가톨릭 신자 가정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온 가족이 기도를 함께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기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조차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려 아침 저녁으로, 혹은 적어도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택하여 기도를 함께 바치는 전통을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른바 세대차를 비롯하여 대화부족의 문제 등이 상당부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가정기도의 순서

- 성서봉독 : 그날 치 매일미사에 나오는 말씀, 혹은 특히 신약성서를 처음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 저녁기도 : 기도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한다.
- 자유기도 : 가족을 위해서,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 영광송 : 기도를 끝마치며 영광송을 바친다.

3) 안수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기도를 가정 단위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해주었고(창세 48,14), 그 결과 두 사람은 “술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축복의 표지로 아이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마르 1,13-16: 마태 19,13-15: 루가 18,15-17).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안수해 주셨습니다(루가 24,50-51).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안수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마르 16,15-18). 실제로 사도들은 새로 신자가 된 사람들,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 등에게 주님의 은총을 빌어주기 위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전통을 되살려,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 서로간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때에는 안수기도를 해 주는 습관을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자녀가 각급 학교에 들어갈 때, 졸업할 때, 시험을 앞두었을 때, 멀리 여행을 떠날 때,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등에 간단하게 안수기도를 해 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가족간의 사랑을 드러내는 훌륭한 방법도 될 것입니다.

4) <선택>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본 훈련과 영성 수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 과정은 우리 나라에서도 큰 효력을 내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5) <부부 주말> 운동

부부 주말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 안팎의 부부들에게 대단히 크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

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뿐 아니라, 좀더 풍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나 이 과정에 참여하면 삶에 큰 빛과 힘을 얻을 것입니다.

7. 결론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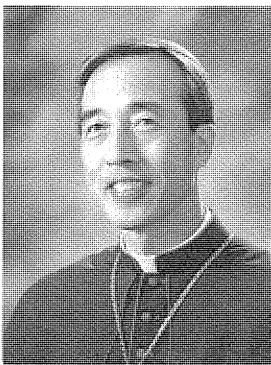
우리 신앙인들도 가정을 위협하는 세상의 역풍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빛과 성령의 힘을 받으면 우리는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와 함께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찢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2고린 4,7-9).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한 해

우리는 2003년을 제주 교구 소공동체 활성화의 원
년으로 삼고 교구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교
구 공동체의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교구 내 모든 성직자, 수도자, 신자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이 희망의 여정을 힘차게 내딛고 열성을 다해
동참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소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은 제2차 바티
칸 공의회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들의 교회를 참된
‘친교와 사귄과 일치와 나눔의 공동체’로 탈바꿈하
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교회 구성원인 성직자, 수도
자, 신자들이 모두 함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친교와 일치를 나누며 세상을 복음화하고 하
느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화의 여
정은 한 두 해로 완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
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더 나
아가서 세상을 안팎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므로 장기
적인 전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우일 베드로 주교



교회의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신자들 모두가 교회
로부터 은총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은총
이 넘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 주시도록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
세에서, 이미 세상 도처에 와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찾아 나서는 자세로 변화됨을 의미합니
다. 빵이 모자란다고 사람들이 각자 해결하도록 홀어
보내는 방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
며 함께 허기를 채우는 참여의 자세로 변화됨을 의미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
라 하느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세상을 죄에서 해방시

키는 일에 실제로 협력하는 사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체질 개선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구원하려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몇몇 의인들만을 구원하려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까지 모두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구원을 향한 공동운명체입니다. 예수께서는 나 혼자만 성덕을 쌓아 천국에 이르려는 뛰어난 의인들보다는 이웃과 함께,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살피고, 서로의 짐을 지며, 함께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이미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많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출신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둘 또는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우리들 사이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를 뛰어 넘어 우리가 형제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체입니다. 성체를 통하여 주님을 모시는 일은 미사 성체를 통하여 교회가 오랜 세월동안 꾸준히 이루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모시는 일에는 가톨릭 교회가 비교적 소홀히 해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현장을 통하여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느님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존귀한 지식을 얻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집회의 가장 큰 목적이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 일이었고, 사도들도 다른 어떤 활동보다 말씀의 봉사가 자신들의 가장 우선적인 직무를 깨닫고 있었습니다.(2)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3) 라고 하신 것처럼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양식으로 육신을 살찌우듯이 매일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받아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에 맞들이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의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실행하여 말씀이 우리 몸과 마음 전체에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지 않고 밥과 반찬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말씀의 양식도 우리는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강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의 밥이고 구약과 신약의 다른 성서들은 반찬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 우리는 되도록 자주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쓰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음식도 날 것을 그대로 먹는 경우도 있고 굵거나 찌서 익히는 경우도 있고 끓이거나 튀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양식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여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혼자서 조용히 읽거나 쓰는 방법, 강론을 듣는 방법, 해설서나 연구서를 참조하여 공부하는 방법, 성서강좌에 동참하는 방법, 공동으로 묵상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는 방법 등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주님의 말씀에 맛들여야 합니다.

옛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성서 말씀이 아직 어렵다고 합니다.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자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신통할 것도 없는 세상 소식을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답답하여 아침부터 신문을 펴들고 저녁 식사 후에는 TV앞에 모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쓰신 기쁜 소식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펴들니까? 우리는 우체통에 친구에게서 온 편지가 있으면 반갑게 뜯어보고 읽고 또 읽고 곧바로 답장을 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와 있는데 우리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다 읽어보았습니까? 우리는 시인들이 쓴 시가 아름답다며, 감동을 준다고 외우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쓰여진 거룩한 시가 가득한 성서에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구절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걸어오신 하느님을 우리는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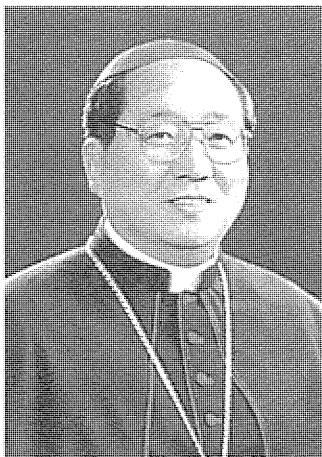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앞으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적어도 신?구약성서를 한 번은 다 읽어봅시다. 자기 손으로 직접 써 보면 눈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읽고 쓸 뿐 아니라 성서강좌를 듣고 묵상하면 더 큰 깨달음과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기회가 좋거나 나쁘거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온갖 유혹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맛들이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하느님의 지혜와 은총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을 만드는 해

“온 가족과 함께 하느님을 공경하였다.”
(사도 10,2).

이기헌 베드로 주교



친애하는 군중교구 사제, 수도자,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

대림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 그리고 본당공동체를 비롯하여 여러분의 생활 터전인 병영에도 가득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교구의 사목목표를 ‘그리스도를 배우는 해’로 정하고 한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해를 주님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2004년도 우리 교구의 사목목표는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을 만드는 해’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와 교회가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가정의 해체입니다. 옛부터 가정은 사회의 기초 공동체이며 작은 교회라고 말해 왔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문헌 「가정 공동체」에서 가정은 “인류의 미래가 달린”(86항) 곳이며, “세계와 교회의 장래가 달린”(75항) 곳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가정은 결국 이 세상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마지막 보루인 셈입니다.

그러한 우리 가정이 최근에 들어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하여 부를 누리게 되었지만 발전에 따른 대비의 미흡함과 부작용으로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물질만능주의와 비인간화가 자리잡게 되어 개인주의를 비롯하여 쾌락주의를 낳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고 생명경시, 폭력, 청소년 비행 등이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가정에 또 다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세계 최고

를 달리는 이혼율이나 저 출산, 낙태 등을 비롯하여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와 교회가 안고있는 가장 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사목목표인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을 만들자’는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를 가다듬어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자는 시대의 요청이며 그리스도 신자 가정의 소명이기도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

우리사회가 처해있는 문제점이면서 동시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온상은 바로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이루는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랑의 보금자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가정생활을 축복하셨고 자녀출산과 자녀양육으로 그 의미를 더해주셨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올바른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간교육과 신앙교육을 시키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늘 가질 수 있는 생명교육은 물론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사명을 혼인을 통해 하느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주님을 초대하여 주님을 항상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하며 초대된 주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가족들은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군인가정은 잦은 이동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 등의 부족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만큼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가족 구성원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하며 함께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가정의 훈기가 넘치는 병영생활

병영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군에 와서 이루는 공동체도 새로운 가정입니다. 고향과 집을 떠나 사는 병사들에게 있어서 병영은 가정이며 군에 와서 만나게되는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때로는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고 동료병사들은 형제들입니다. 힘든 훈련과 긴장이 많은 군대생활이기에 내무반은 더욱 훈기가 넘치는 가정과 같은 곳이어야 하고 가정 내무반을 이루기 위해 각 구성원들은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합니다.

군은 아버지와 같은 근엄한 가르침도 있고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보살핌도 있으며 또한 형제애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적 요소가 사회의 현상에 편승하여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질서가 무너지며, 개인의 도덕관념 및 가치관의 혼란을 가중시켜 똑같은 생명경시, 폭력, 무책임한 일탈 등의 현상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군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들과 군 생활의 어려움은 가정과 같은 따뜻한 온기의 병영생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음화의 원천인 본당 공동체

가정을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 만들고 병영을 훈기 넘치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당은 활기 넘치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이를 위한 사목적인 연구와 시도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고된 훈련을 하거나 내무생활을 하다가 찾아온 병사들, 한 주간의 긴장되고 힘든 근무를 마치고 찾아오는 간부들, 한 주간 쉴 틈 없이 남편들과 자녀 뒷바라지를 하다 찾아오는 주부들에게 본당은 따뜻한 안식처이어야 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반기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본당이 반갑고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본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종교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분이나 계급을 떠나 하느님의 자녀로서 만나게 되는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이며 친교의 공동체입니다. 병사들에게는 더 큰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며 계급이 낮은 교우들에게도 더 큰 관심과 배려를 가져, 쉽게 소외당하고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멀리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부사관들이 군인성당에 나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되는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본당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모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를 이룰 때 참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 우리 가정도 거룩한 성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병영과 본당을 사랑 넘치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람있고 행복한 한해를 살아가도록 합시다.

교구평협 회장 명단

교구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	여규태 (요셉)	H)02-763-5535 O)02-376-1501 011-480-0601	(우)110-521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아남아파트 301-612
대구	이용기 (요한비안네)	H)053-743-2145 O)053-744-5400 018-230-2145	(우)706-0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번지 대구MBC 문화사업부 부국장
광주	조종현 (베드로)	H)062-652-0069 O)062-230-6710 011-645-3832	(우)503-802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1동 377-22
춘천	김승선 (세례자 요한)	H)033-261-0121 011-365-3121	(우)200-9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삼익세라믹아파트 202-604
전주	서동호 (바오로)	H)063-221-5928 011-741-1459	(우)560-24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80 남양향실 2-906
부산	이정우 (마르티노)	H)051-757-9505 O)051-515-3697 011-331-6227	(우)611-764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243 연산엘지A. 122-1401
대전	오희철 (파비아노)	H)041-553-6952 O)041-555-2237 011-409-7639	(우)330-190 충남 천안시 청수동 LG.SK아파트 102-102
청주	변광수 (암브로시오)	H)043-212-1151 011-483-3390	(우)363-933 충북 청원군 내수읍 세교2리 608
인천	김용식 (요셉)	H)032-573-7007 O)032-572-3789 017-266-7007	(우)404-806 인천시 서구 가정3동 561 한국아파트 301-707
수원	안병철 (도밍고)	H)031-248-1971 016-308-1972	(우)440-86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82-3
원주	원규희 (안토니오)	H)033-734-1470 019-282-0371	(우)220-962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223
마산	박용기 (필립보)	H)055-284-1231 O)055-294-5271 011-9504-9555	(우)641-777 경남 창원시 상남동 대동아파트 107-1201
안동	박영조 (페렐리오)	H)054-852-8638 O)054-858-6802 011-543-8638	(우)760-260 경북 안동시 안기동 170-15 3/6
제주	김항원 (아타나시오)	H)064-742-9087 O)064-754-3242 016-690-9087	(우)690-170 제주도 제주시 연동 320-37
군중	김종환 (베네딕도)	H)02-521-9269 O)02-748-7391	(우)140-600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3가 1 국방부 내 군종교구 평협

한국 평협 임원 명단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회장	여 규 태 (요셉)	H)02-763-5535 O)02-376-1501 011-480-0601	(우)110-521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아남아파트 301-612
부회장	김 기 수 (안드레아)	H)02-581-9700 O)02-581-9400 011-268-6922	(우)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1-34 대호빌딩 301호
부회장	마 정 웅 (알폰소)	H)053-214-0088 O)053-251-2670 011-9595-7707	(우)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우방 1차 A. 5-501
부회장	조 종 현 (베드로)	H)062-652-0069 011-645-3832	(우)503-802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1동 377-22
부회장	송 성 복 (마티아)	H)033-252-5133 011-373-5133	(우)200-947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8-42
부회장	위 상 양 (프란치스코)	H)063-275-0034 O)063-640-3114 011-9627-0034	(우)566-800 전북 임실군 임실을 갈마리 278 임실군 보건의료원
부회장	이 정 우 (마르티노)	H)051-757-5905 O)051-515-3697 011-331-6227	(우)1613-13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243 연산엘지아파트 122-1401
부회장	오 희 철 (파비아노)	H)041-553-6952 O)041-555-2237 011-409-7639	(우)330-190 충남 천안시 청수동 LG.SK아파트 102-102
부회장	양 철 화 (요셉)	H)031-255-4962 O)031-256-1701 019-345-1701	(우)440-04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흥동 36-1
부회장	엄 증 관 (토마스)	H)033-764-4016 016-377-4017	(우)220-060 강원도 원주시 원동 원동아파트 207-403
부회장	김 철 (베네딕도)	H)055-246-8433 011-881-8433	(우)631-310 경남 마산시 합포구 오동동 107-23
부회장	박 영 조 (페렐리오)	H)054-852-8636 011-543-8638	(우)760-260 경북 안동시 안기동 170-5 3/6
부회장	김 항 원 (아타나시오)	H)064-742-9087 O)064-754-3242 016-690-9087	(우) 690-815 제주도 제주시 연동 320-37
부회장	김 종 환 (베네딕도)	H)02-521-9269 O)02-748-7391	(우)140-600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 국방부 내 군종교구 평협
부회장	류 길 성 (스테파노)	H)02-568-5983 011-330-5983	(우)135-98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34-502
부회장	김 영 대 (도미니코)	H)062-525-8700 O)062-227-7128 016-608-6004	(우)501-080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00 금호타운 112-1902

직책	성명	전화번호	주소
부회장	홍 화 순 (마태오)	H)02-395-5566 011-254-8532	(우)110-804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4-1 현대구기빌라 8-201
부회장	오 덕 주 (테레사)	H)02-742-7521 011-275-6342	(우)136-020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5-21
감사	경 한 석 (아오스딩)	H)043-223-1453 016-432-8482	(우)360-2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27-17
감사	권 돈 구 (바오로)	H)031-981-4512 O)032-433-4456 017-324-4512	(우)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당곡마을 현대아파트 209-1804
사무총장	최 흥 준 (파비아노)	H)02-2652-5732 O)02-777-2013 010-3999-8053	(우)158-053 서울시 양천구 목3동 318-282
민족화해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 명 원 (프란치스코)	H)033-252-4283 011-9918-4283	(우)200-100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64-2
복음화 특별 위원회 위원장	황 재 웅 (마태오)	H)031-253-3477 O)031-441-1424	(우)411-09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215-30
사회교리실천 본부장	오 영 창 (토마)	H)054-553-2637 016-877-2637	(우)745-050 경북 문경시 모전동 264-1 현대아파트 103-405
기획분과 위원장	김 용 수 (바오로)	H)031-286-4359 019-221-4354	(우)449-910 경기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524-8 연원마을 벽산아파트 122-802
교육분과 위원장	정 동 규 (가브리엘)	H)02-797-8663 011-470-6989	(우)140-03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한강맨션 18-202
국제협력 분과위원장	이 정 희 (베드로)	H)02-928-6857 O)02-961-4862	(우)136-060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신아파트 112-1606
홍보분과 위원장	김 영 걸 (안드레아)	H)02-2299-2296 011-279-2196	(우)133-094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1020-1
문화분과 위원장	이 종 상 (요셉)	H)02-379-5180 011-221-3376	(우)110-849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78-3
청소년분과 위원장	박 철 용 (베드로)	H)031-718-9962 O)02-2194-0567	(우)463-7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2 건영아파트 1003-202
사회복지 분과 위원장	이 흥 균 (요셉)	H)02-470-3290 O)02-307-8171 011-317-8171	(우)134-030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2-3 신희빌라트 1102호
정의평화 분과위원장	윤 학 (미카엘)	H)02-536-4904 O)02-536-8641 011-736-8641	(우)137-04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91 효성빌라 1-102
도농협력 분과 위원장	류 정 목 (사도 요한)	H)02-364-5862 016-364-5862	(우)120-013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50-33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 평신도에게 베푸신 특은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의 평신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꺾이지 않는 용기를 부어주시어

스스로 교회의 터전을 닦도록 하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교회 발전에 앞장서
자랑스런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평신도 순교자를 내시고
이 겨레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그 거룩하고 빛나는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사랑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대 평신도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늘 새로워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똑바로
속바소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똑바로!!

한국평협 제41호 · 2004년

발행일 2004년 2월 21일

발행인 여 규 태

편 집 최홍준, 김영걸, 우재철

디자인 신동수

발행처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510호

☎ (02)777-2013, 757-7851

Fax (02)778-7427

Homepage: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